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책임연구원 김경준

공동연구원 김정숙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책임연구원_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위촉연구원_ 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을 글로벌 코리안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5년부터 대륙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외동포수와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주변 환경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가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틀에 따른 조사내용을 구성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각 국가별로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의 경우에도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생태체계적 환경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호주·뉴질랜드 각 국가별로 청소년과 성인(전문가) 각각 10여명씩,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동포청소년 및 관련 성인(전문가)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및 면담조사 결과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등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적합도 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정책목표와 7개 정책영역별로 총 35개의 정책과제를 개발·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적자원, 한민족 정체성, 생태학, 생태학적 체계이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호주, 뉴질랜드, 호주 동포청소년,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과제와 국가별, 대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2015년에는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연구 인력이나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1차 년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대륙별로 국가를 선정하여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6년에는 동포수가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남미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018년도에는 유럽지역(독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오세아니아지역(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특별히 금년도에는 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하였음. 즉,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방법으로 조사하고, 동포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서 향후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글로벌 코리안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2. 주요 연구방법

- 이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된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성장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 인구 분포와 가정, 교육 및 고용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조사한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였음.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 한인공동체에 대한 기여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틀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초·중·고 학생 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면담조사는 호주·뉴질랜드 각 국가별로 청소년과 성인(전문가) 각각 10여명씩,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의 발달 환경과 정책요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자가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관련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토회의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음.

3. 주요 연구결과

1) 호주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 개인적 역량과 한국에 대한 인식 : 호주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재학 중에 비교적 자유롭게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높았음.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도 비교적 높고, 이러한 역량은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호주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소 막연한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음.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일수록 미래 대한민국/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 친구, 학교 환경(미시체계) :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의 정체성과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활동이나 한국어교육, 자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동포 친구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은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이며, 친구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동포 청소년들의 한글학교 참여는 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에 따라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한글학교 경험 기간은 개인적 역량이나 한국어능력,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및 인식,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부모-부모, 부모-교사 관계(중간체계) : 동포 부모들 간의 교류나 부모와 교사의 만남 등의 요인들이 한민족정체성이나 대한민국/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호주의 교육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요인들은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개선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62.7%의 부모들이 다른 한인 부모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었는데, 특히, 호주 정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어 채택 여부가 학부모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포 부모들 간의 모임은 한국어 채택에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부모들과 한글학교 교사와의 소통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여부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짐. 부모들과 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에 대해서 27.7%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상당수 부모들이 한글학교에 학생들을 맡겨 놓고 교사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국가의 교육 환경 및 교류 프로그램 등(외체계) : 조사대상자가 다니는 학교 중에서는 학교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10.1%였으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한국어강좌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23.9%, 방과 후 수업에는 25.8%의 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있었음.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강좌는 주로 시드니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조사대상자의 39.7%만이 호주에서의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참여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는 18.6%의 청소년들만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34.4%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서의 교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고 있었음. 또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참여기회의 부족(21.2%), 프로그램 정보의 부족(17.9%), 한국어 능력의 부족(15.6%) 등으로 나타남.
- 한국 문화 확산(거시체계) :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한국인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 행사에의 동포청소년 참여 경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80.1%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1번 참여한 청소년은 20.1%, 2번 참여한 청소년은 22.6%, 3번 참여한 청소년은 15.1%, 4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은 23.1%로 나타남.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45.3%, ‘보통이다’가 47.7%, 부정적인 응답이 7.0%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호주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62.7%, 보통이 31.8%,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5.5%로, 많은 호주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시간체계) :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민족 정체성이나 대한민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부모들의 인식과 한국 문화, 한국 방문, 캠프 등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었음. 호주 이민세대의 교체로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뀌고 있음. 최근에 한국어 교육이 자녀들의 언어 습득을 위한 유리한 기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응답자의 약 60.0%가 한국 문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98%가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음. 한국 방문 욕구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캠프에서의 참여 경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 뉴질랜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 개인적 역량 및 한국에 대한 인식 :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 시민의식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음. 사회적 책임의식은 회귀분석에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확인된 바 있음. 한편,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는 비교적 높았으며,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한국어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 친구, 학교 환경(미시체계)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았음.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비교적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교류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하고 있었음. 면담조사를 통해 동포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포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은 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또는 본인이 한국인으로 생각해서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의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 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통 중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부모, 부모-교사 관계(중간체계)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친·인척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뉴질랜드 내 친인척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음. 부모가 본인의 친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유보적 입장이 유사하게 나타났음. 한편, 부모와 한인 부모와의 교류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뉴질랜드 동포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주로 한인 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고 있었음.
- 거주 국가의 교육환경 및 교류 프로그램 등(외체계) :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한글학교를 제외했을 때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동포 청소년들의 한인회 행사 참여는 비교적 활발하였는데, 한인회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한인회가 주최하는 Korean day 행사를 참관하거나, 한인회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소극적 참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욕구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긍정적 응답보다 더 높았음. 뉴질랜드 내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40% 가량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 대한 참여 경험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국 문화 확산(거시체계) : 뉴질랜드 내 한류 확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유보적 입장을 보여 차이가 있었음. 또한 뉴질랜드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대한민국이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시간체계)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이민(46.2%) 또는 출생(37.0%)에 의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음.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았으며, 과거 한국문화를 경험한 비율(64.9%)과 과거 한국 방문을 경험한 비율(86.8%)도 높았음. 한편,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는 '비용 부담', '적응에 자신이 없음' 등의 순으로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가 한국 방문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조사대상 응답자의 86.8%가 한국 방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수준(4개 문항 평균)은 5점 만점 중 4.01로 높게 나타났음. 한편,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이유,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한민족정체성,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사회적 책임의식 변인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정책제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 적합도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음.

1) 정책목표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와 3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음.

목표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친화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세부 목표	1. 한민족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2.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역사에 관심을 갖게 한다.
	3. 호주·뉴질랜드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2) 정책과제

- 7개 정책영역별로 4~6개의 정책과제, 총 35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미시체계 : 부모(가정), 중간체계 : 부모-부모]

1. 한국 친화 가정(Korea friendly home) 조성 지원
2.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4.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벤트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5.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및 학교 지원(호주)
6.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미시체계 : 한글학교]

1.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2.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개발 지원
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5. 교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6. 차세대 교사 양상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기회 확대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중간체계 : 청소년 및 청(소)년간]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자율모임 지원 확대
4.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

● 호주·뉴질랜드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외체계 : 기업, 동포사회]

1.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 개발
5. 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외체계 : 한국정부, 지자체, 동포단체]

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4.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5.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거시체계]

- | |
|---|
| 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
| 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
| 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
| 4.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
| 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외체계 : 한국정부]

- | |
|--|
| 1. 지역 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 인력 확대 |
| 2.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 3.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
| 4.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9-R03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11
5. 연구의 제한	14
II. 이론적 배경	15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네트워크의 국제적 동향	17
2. 대한민국 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정책	22
3. 재외동포청소년을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생태학적 접근	26

III.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성장 지원 환경	31
1. 호주·뉴질랜드의 특성과 재외동포청소년	33
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현황	38
3.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단체 및 청소년 교육기관 현황	62
4. 거주국과 대한민국 동포정책 및 지원 현황	73
IV.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83
1. 설문조사 개요	85
2. 면담조사 개요	95
V. 호주 동포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103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5
2. 호주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63
3. 소결	195
VI.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203
1.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5
2.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265
3. 소결	300
VII. 정책 제언	307
1. 정책과제 개발 절차	309
2. 정책목표의 설정	318
3. 주요 정책과제	319
참고문헌	397
부록	417
ABSTRACT	443

표 목차

표 II - 1	재외인도인 국가별 네트워크 현황	21
표 II - 2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별 재외동포정책	22
표 II - 3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지원업무 담당 부처 및 산하기관 (2019년 5월 현재)	25
표 II - 4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발달을 위한 개인특성과 생태학적 환경의 분류	29
표 II - 5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항목	30
표 III -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39
표 III - 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 현황	40
표 III - 3	성별·호주시민권별 호주 인구 현황	41
표 III - 4	연령별·출생지별 호주 인구 현황	42
표 III - 5	연도별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 현황	43
표 III - 6	호주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44
표 III - 7	뉴질랜드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46
표 III - 8	출생지별 가족 구성	49
표 III - 9	출생지별 아동 동반 가족 구성	49
표 III -10	출생지별 가족 고용 상태	50
표 III -11	출생지별 교육수준	51
표 III -12	출생지별 호주 고용 현황	52
표 III -13	출생지별 취업 현황	53
표 III -14	출생지별 대표 업종 현황	53
표 III -15	출생지별 소득(주급 중앙치)	54
표 III -16	뉴질랜드 재외동포 연령별 인구수	55
표 III -17	뉴질랜드 재외동포 연령집단 및 성별 연령 중앙값	56
표 III -18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출생지별 연령집단 비율	57
표 III -19	뉴질랜드 재외동포 구사 언어	57
표 III -20	뉴질랜드 재외동포 교육수준	58
표 III -21	뉴질랜드 재외동포 소득 중앙값	59

표 III-22	뉴질랜드 재외동포 주요 소득원	60
표 III-23	뉴질랜드 재외동포 노동시장 지위	61
표 III-24	뉴질랜드 재외동포 가구 구성	62
표 III-25	호주 동포단체 현황	65
표 III-26	뉴질랜드 동포단체 현황	67
표 III-2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68
표 III-28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69
표 III-29	호주·뉴질랜드 한글학교 학생 수 및 교원 수	71
표 III-30	호주·뉴질랜드 한국교육원	72
표 III-3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74
표 III-32	호주의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77
표 III-33	뉴질랜드 한국어 채택 초·중등학교	80
표 IV- 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87
표 IV- 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93
표 IV- 3	호주 면담조사 참여자	98
표 IV- 4	뉴질랜드 면담조사 참여자	99
표 V-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6
표 V- 2	현재 국적	107
표 V- 3	나의 정체성	108
표 V- 4	부모의 인종	109
표 V- 5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110
표 V- 6	의사소통능력(문항별)	111
표 V- 7	의사소통능력 차이 분석	112
표 V- 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113
표 V- 9	사회적 책임의식 차이 분석	113
표 V-10	세계시민의식(문항별)	114
표 V-11	세계시민의식 차이 분석	115
표 V-12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116
표 V-13	한국어에 대한 관심 차이 분석	117
표 V-14	한국어 능력(문항별)	118
표 V-15	한국어 능력 차이 분석	119
표 V-16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120
표 V-17	한국에 대한 지식 차이분석	121
표 V-18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122
표 V-19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123

표 V-20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124
표 V-21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차이 분석	125
표 V-22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126
표 V-23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차이 분석	127
표 V-24	동포 친구들과의 만남	128
표 V-25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128
표 V-26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	129
표 V-27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129
표 V-28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130
표 V-29	친인척 모임	130
표 V-30	부모-내 친구 인지	131
표 V-31	부모-한글학교 교사와의 만남	132
표 V-32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만남	132
표 V-33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133
표 V-34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	133
표 V-35	한인 단체행사 참여	134
표 V-36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135
표 V-37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135
표 V-38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	136
표 V-39	호주 내 청소년 캠프 참여	137
표 V-40	호주 내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차이 분석	137
표 V-41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138
표 V-42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차이 분석	139
표 V-43	한국 프로그램 참여 욕구	139
표 V-44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욕구 차이분석	140
표 V-45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	141
표 V-46	한류의 확산	141
표 V-47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142
표 V-48	호주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143
표 V-49	대한민국의 동포에 대한 태도	143
표 V-50	호주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144
표 V-51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145
표 V-5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문항별)	145
표 V-53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 분석	146
표 V-54	과거 한국문화 경험	146

표 V-55	과거 한국 방문 경험	147
표 V-56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148
표 V-57	한국 방문 욕구	148
표 V-58	한민족 정체성(문화별)	149
표 V-59	한민족 정체성 차이 분석	150
표 V-60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화별)	151
표 V-61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차이 분석	152
표 V-62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153
표 V-63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155
표 V-64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8
표 V-65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61
표 VI- 1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205
표 VI- 2	현재 국적	207
표 VI- 3	부모의 인종	208
표 VI- 4	나의 정체성	209
표 VI- 5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210
표 VI- 6	의사소통능력(문화별)	211
표 VI- 7	의사소통능력 차이분석	212
표 VI- 8	사회적 책임의식(문화별)	213
표 VI- 9	사회적 책임의식 차이분석	215
표 VI-10	세계시민의식(문화별)	216
표 VI-11	세계시민의식 차이분석	217
표 VI-12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217
표 VI-13	한국어에 대한 관심 차이분석	219
표 VI-14	한국어 능력(문화별)	220
표 VI-15	한국어 능력 차이분석	221
표 VI-16	한국에 대한 지식(문화별)	222
표 VI-17	한국에 대한 지식 차이분석	223
표 VI-18	한국에 대한 인식(문화별)	224
표 VI-19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225
표 VI-20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화별)	226
표 VI-21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차이분석	227
표 VI-22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화별)	228
표 VI-23	동포 친구들과의 만남	229
표 VI-24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229

표 VI-25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229
표 VI-26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별 분류	230
표 VI-27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230
표 VI-28	친인척 모임	231
표 VI-29	친인척 모임 차이분석	232
표 VI-30	부모-내 친구 인지	232
표 VI-31	부모-교사와의 교류	233
표 VI-32	부모-교사와의 교류 차이분석	233
표 VI-33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만남	234
표 VI-34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	234
표 VI-35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 차이분석	235
표 VI-36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	235
표 VI-37	한인단체 행사 참여	236
표 VI-38	한인 단체행사 참여 차이분석	237
표 VI-39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237
표 VI-40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차이분석	238
표 VI-41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238
표 VI-42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	239
표 VI-43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240
표 VI-44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차이분석	240
표 VI-45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240
표 VI-46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차이분석	241
표 VI-47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욕구	242
표 VI-48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	242
표 VI-49	한류의 확산에 대한 인식	243
표 VI-50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243
표 VI-51	거주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244
표 VI-52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244
표 VI-53	거주국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245
표 VI-54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245
표 VI-5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문화별)	246
표 VI-56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분석	246
표 VI-57	과거 한국문화 경험	247
표 VI-58	과거 한국 방문 경험	247
표 VI-59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248

표 VI-60	한국 방문 욕구	248
표 VI-61	한민족 정체성(문화별)	249
표 VI-62	한민족 정체성 차이분석	250
표 VI-63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화별)	251
표 VI-64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차이분석	253
표 VI-65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254
표 VI-66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256
표 VI-67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58
표 VI-68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61
표 VII- 1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도 조사 분석 결과	311
표 VII- 2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도 조사 분석 결과	312
표 VII- 3	정책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 및 추가 제안	313
표 VII- 4	시드니한인회 및 오클랜드한인회 운영 정기 사업 목록 ...	348
표 VII- 5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안)	367
표 VII- 6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393

그림 목차

그림 I - 1	연도별 추진 계획	12
그림 I - 2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III - 1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79
그림 III - 2	NetNZ 홈페이지	81
그림 IV - 1	설문 개발 절차	86
그림 IV - 2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	101
그림 V - 1	성별	106
그림 V - 2	현재신분	106
그림 V - 3	현재국적	107
그림 V - 4	나의 정체성	108
그림 V - 5	부모의 인종	109
그림 V - 6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110
그림 V - 7	의사소통능력(문항별)	111
그림 V - 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113
그림 V - 9	세계시민의식(문항별)	114
그림 V-10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116
그림 V-11	한국어 능력(문항별)	118
그림 V-12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120
그림 V-13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122
그림 V-14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124
그림 V-15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126
그림 V-16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149
그림 V-17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152
그림 V-18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자원	153
그림 VI - 1	성별	206
그림 VI - 2	학교급	206
그림 VI - 3	현재 국적	207
그림 VI - 4	부모의 인종	208

그림 VI- 5	나의 정체성	209
그림 VI- 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210
그림 VI- 7	의사소통능력(문항별)	211
그림 VI- 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214
그림 VI- 9	세계시민의식(문항별)	216
그림 VI-10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218
그림 VI-11	한국어 능력(문항별)	220
그림 VI-12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222
그림 VI-13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224
그림 VI-14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226
그림 VI-15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228
그림 VI-16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249
그림 VI-17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252
그림 VI-18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254
그림 VII- 1	정책과제 개발 절차	309
그림 VII- 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기업-동포단체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355
그림 VII- 3	동포청소년 활동 참여 프로그램 유형	357
그림 VII- 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이트	362
그림 VII- 5	광복회 호주지회 주최 청소년 민족캠프 참가 안내 자료	365
그림 VII- 6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출범식 및 특별 강좌 안내 자료	365
그림 VII- 7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Te Kura 원격교육기관	378
그림 VII- 8	민간 원격교육기관 NetNZ	378
그림 VII- 9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388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 3. 연구의 방법
- 4. 연구추진체계
- 5. 연구의 제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 국가들은 타 국가와의 무한 경쟁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통합화 경향으로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국제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른 국가 간의 연대 또는 지역 간의 연대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족의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은 이제 “유랑자가 아니라 유용한 자원으로 개념화”(정성호, 2008: 108)되고 있으며, “화상, 인상, 유태인상 네트워크와 같이 세계 각지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재외동포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경우에 국가발전의 무한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찬, 윤영곤, 이종국, 정윤희, 2009: 3).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면서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김재기, 2005: 122~123). 또한 2013년 이후에도 창조경제를 위해 인적자원의 범위를 한민족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즉,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고자 했으며,

1)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그 주요한 자원에 재외동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인 차세대를 21세기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수행되었다(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2013).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한상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정치력신장 및 차세대 인재 육성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으로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35) 재외 한인을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발전예의 기여 사례는 그동안 노동, 투자, 무역, 송금 등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정치, 국제관계,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이진영, 2014). 특히, 한인 동포들의 경우에는 민족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 인도적 지원, 투자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재기, 2005: 141).

하지만 재외동포 사회가 1세대 중심에서 1.5세대, 2세대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포 1세대와는 달리 한민족 정체성이나 모국과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이들 차세대들의 경우에는 정체성 갈등이나 주류사회로의 진출 등 1세대와는 또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김경준, 김태기, 2015:153~161) 현재 상태로는 한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차세대들을 미래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한민족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동포청소년의 가정에서부터 학교, 동포사회, 대한민국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한민족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정체성이 강화됨으로써 한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그들에게 당면한 공통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개별 국가별로, 혹은 아시아, 유럽, 미주 등 대륙별로 이민의

역사나 동포사회의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정책의 요구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공통적인 정책과제와 국가별, 대륙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차 년도인 2015년에는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재외동포청소년 사례조사와 함께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미국, 중국, 일본, 고려인 등 주요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그리고 재외동포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정책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재 개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2차 년도 이후의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활용하였다(김경준, 김태기, 2015). 2차 년도인 2016년부터는 연구 인력이나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1차 년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대륙별로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로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동포수가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김경준, 정은주, 2016), 2017년에는 CIS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남미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김경준, 정은주, 2017).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3차년에 걸친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연구로는 그동안 조사에서 소외된 다른 지역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여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2017년도 신규 과제 개발 시에 추가적인 제안을 통하여 2018년부터 3차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하여 그동안 연구 수행에서 배제되었던 대륙과 국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재외동포 수와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연구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정책연구로는 최초로 유럽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투자이민으로

대표되는 대양주 지역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0년도에는 새로운 투자 이민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년도에 수행하는 대양주 주요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 20여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곳(외교부, 2019)으로 1920년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거주한 흔적이 있으나 1980년 대 이후에 입양, 가족초청이민, 취업, 투자, 유학 등으로 이민이 급증하였으며, 1990년 대 이후 거주국 정부의 정책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서 이민의 증감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다²⁾. 동포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주말한글학교나 모국연수프로그램 등이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인구 현황이나 생활실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정, 학교, 동포사회, 거주 국가 등 동포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형성 등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Umana-Yaylor et al., 2014)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한민족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조사하고, 동포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글로벌 코리안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시드니총영사관(2018). 호주 이민 약사.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4/view.do?seq=12977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18년 12월 28일 인출

2. 연구의 내용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민족네트워크 사례 분석과 미래 국가 인적 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자 주요 국가의 네트워크 사례를 소개하였다. 즉, 세계 여러 국가 중 자신의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의 대표적인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동포 네트워크의 형성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과 성장 지원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의 발달 환경 분석틀 마련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발달 환경, 특히, 정체성 발달 환경을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1979, 1994)의 인간발달의 생태학 이론에 근거하여 동포청소년의 발달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의 다섯 가지 환경체계로 분석함으로써 동포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가장 인접한 가정이나 학교 등의 환경에서부터 사회역사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3)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성장지원 환경 분석

거주 국가에서의 동포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국가적 특성과 한국과의 관계, 거주국 사회에서의

한국이나 한인 동포들에 대한 인식, 한인 동포들의 거주 국가에서의 정착과정과 현재 재외동포의 인구 변화와 가정, 교육 및 고용 상황, 그리고 동포단체 및 교육 기관의 현황, 그리고 거주 국가에서 지원되는 동포청소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환경 및 정책 요구 분석

객관적 환경과 별도로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과 성인(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과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그리고 동포청소년과 성인(전문가)을 대상으로 각각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 국가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각 국가별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5)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개발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동포청소년들이 향후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1) 문헌·자료조사

선행 연구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 동포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현황과 재외동포네트워크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된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성장 관련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재외 공관 및 한국교육원 등을 통하여 호주, 뉴질랜드 동포 인구와 한글학교 학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동포단체 및 동포청소년 교육관련 기관, 동포 이민사와 정책자료 등 동포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조사한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인구 분포와 가정, 교육 및 고용 통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센서스 자료에 대한 호주 및 뉴질랜드 학자의 분석을 첨가하였다.

2) 설문조사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역량과 성장 환경,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 한인공동체에 대한 기여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틀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여 2019년 4~6월 사이에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각 국가별로 약 200명씩, 총 400명을 내외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국가별로는 초·중·고 각각 70명 내외로 하고, 성별로도 비슷한 규모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해당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이 소속된 한글학교나 동포

단체 등을 사전에 조사·섭외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현지 상황에 따라서 연구자가 출장 기간 중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현지 출장 전·후에 현지기관에 의뢰하여 기관 담당자가 조사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40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면담조사

면담조사는 연구자 출장기간(호주 : 2019년 5월 10일~5월 18일, 뉴질랜드 : 3월 9일~3월 16일) 사이에 동포청소년 및 관련 성인(전문가)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의 발달 환경과 정책요구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최초에 국가별로 청소년과 성인(전문가) 각각 10여명씩,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요구나 여건 변화로 최종적으로 호주는 청소년 11명, 성인(전문가) 10명, 뉴질랜드는 청소년 12명, 성인(전문가) 16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절차는 연구자가 조사계획을 세워 현지에 있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 동포단체 등의 협조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사전에 섭외한 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대상의 경우에 현지 조사요원과 함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에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작성하여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일부 대상자의 경우에 2명씩 집단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동포청소년 조사 대상으로는 한글학교 재학생과 동포단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등으로 하였으며, 성인(전문가)은 한인회, 한국교육원 및 동포단체 등의 관계자, 정규학교 교사 및 한글학교 교사 등을 포함하였다.

4) 정책과제 적합도 조사 실시

본 연구의 주요방법으로 사용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자가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대상

으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호주 및 뉴질랜드 현지에서 설문조사를 도와주었거나 면담조사에 참여하였던 한글학교 교사, 호주 및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검토 등의 경험이 있는 학자, 재외동포재단, 한민족교육문화원 등 재외동포 관련 교육 및 연수기관 담당자 등 20명 이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합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수정 또는 변경하였으며, 전문가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5) 전문가 자문, 전문가 포럼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본 연구의 방향과 이론적 논의, 그리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현장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전문가포럼, 전문가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문가 적합도 조사 후에 정책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적합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가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부처에 대한 의견 조희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4. 연구추진체계

금년도의 연구는 지난 2015년부터 수행되어 온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2015년도에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16년부터는 대륙별, 국가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2018년에 추가적으로 연구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차 년도가 시작되는 해로 되었다.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의 그림 I-1과 같다.

1차년도 (2018년)	내용	◇ 2015~2017년에 수행한「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검토 및 방향 설정 • 2015년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 지역별, 국가별 우선순위 선정 • 2016년 : 중국, 미국 동포청소년 • 2017년 :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 1~4차년도 세부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 지역 세분화 ◇ 독일, 프랑스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국가별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국가별 동포청소년 특성과 현황 분석 • 미래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설문조사, 면담조사, 해외사례 조사, 콜로키움 개최
▼		
2차년도 (2019년)	내용	◇ 연구계획 수정(대상 국가, 접근방법 등)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전략 개발 • 국가별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종합적 분석 • 미래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방법	• 문헌자료조사, 전문가자문 및 전문가포럼 • 설문조사, 면담조사
▼		
3차년도 (2020년)	내용	◇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전략 개발 • 국가별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한 청소년 성장 환경의 종합적 분석 • 미래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분석
	방법	• 문헌자료조사, 전문가자문 및 전문가포럼 • 설문조사, 면담조사

그림 1-1 연도별 추진 계획

특히, 2019년부터는 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고, 이에 기초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장 환경과 정책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 등 구체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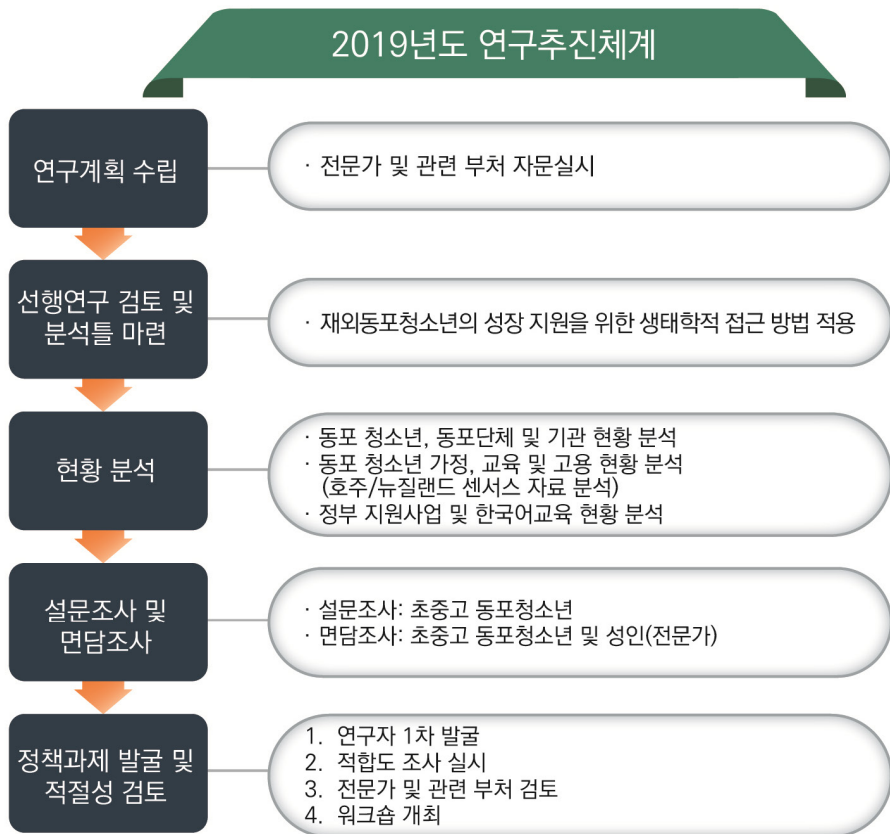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³⁾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 동포청소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대륙별, 국가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2015년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 대륙별,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예산이나 인력, 거주 국가나 동포사회의 상황, 재외동포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오세아니아 대륙 내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재외동포 수가 가장 많은 호주와 뉴질랜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내의 타 국가 동포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 연구의 공통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조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확률표집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비확률표집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을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동포청소년 및 성인(전문가) 대상의 면담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 대상인 동포청소년 조사에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외의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서 주로 한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글학교에 다니지 않는 동포청소년을 상황을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국내와 호주·뉴질랜드 국가의 통계 및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외동포청소년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적 정의를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을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들 중 그 연령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정은주, 김정숙, 2018: 7-9).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네트워크의 국제적
동향
- 2. 대한민국 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정책
- 3. 재외동포청소년을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생태학적 접근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네트워크의 국제적 동향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글로벌화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인재유입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 과거 정부와 정부 간 공식협상과 대화를 통해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의미의 외교가 최근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공공외교로 변화하면서 공공외교 자원으로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 2019. 5. 15.; 홍면기, 2015).

또한 21세기 국제정치 환경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행위자간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과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인도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약 6,00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다(리단, 정소영, 2015: 304). 해외에 있는 중국계 동포는 국적을

4) 이 장의 1, 2절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기준으로 크게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교(华侨)와 외국국적 취득자인 화인(华人)으로 구분된다. 해외 거주 화교·화인들은 출신지역, 혈연, 경제적 업종 등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이들은 노화교(老华侨), 개혁개방 이후 해외로 이주한 화교는 신화교(新华侨)로 지칭되며,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귀환화교로 불리는데 이들 집단 각각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별 화교화인 네트워크와 화교 자본은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이진영 외, 2013: 105~106).

대표적인 화교화인 조직에는 국제화교협회(1981년 설립, 산하 150개 소규모 협회 존재)와 1991년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세계화상대회, 아시아 화교 네트워크 등이며, 이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화상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히 세계 화상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지의 화상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 하며, 중국 정부는 화상대회 및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신뢰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화교들은 독특한 상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단합하고 화상 기업의 발전을 위해 동일한 분야에 과다하게 집중하지 않는 등 네트워크 내 자기 조절 문화가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화교화인 네트워크 친화정책을 추진 하여 중국의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리단, 정소영, 2015; 정성호, 2008: 120~121).

한편 최근 중국 정부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화교·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교화인은 중국과 거주국 간에 진행되는 문화교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공자학원(孔子學院)과 거주국 내 화교화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문학교(華文學校)를 매개로 하여 거주국 시민들에게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리단, 정소영, 2015: 311~312).

2)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20세기 중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아와 살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하나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강력한 유대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정성호, 2008).

유대인 네트워크의 중심은 미국으로 약 100여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조직은 세계 유대인총회(World Jewish Congress), 미국 유대인협회(American Jewish Committee), 세계시오니스트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등이 있다. 이들 조직들은 유대인의 본국 귀환과 정착, 국가 설립 등을 책임졌으며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이진영 외, 2013: 215), 특히 유대인 젊은이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언어, 역사, 문화를 전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정성호, 2008: 118).

이와 관련하여 Thulin(2010)은 유대인이 처했던 디아스포라적 상황이 이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유대인 사회에서는 종교적 율법에 근거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유대교 신자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들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유대인들의 자립을 도모하게 했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지식, 경험, 종교적 율법과 실천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대인 학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종교적 실천, 유대인들의 문해력, 히브리어의 습득 등을 이끄는 존재였으며, 유대인들의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적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은 무역인과 여행자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언어는 문자와 정보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이러한 역할은 유대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운영하게 만든 토대라고 할 수 있다.

3) 인도

인도의 경우 2016년 기준 세계 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수가 3,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정은, 송석원, 최순영, 김혜명, 2017: 125). 재외 인도인들은 인교(印僑) 또는 인상(印商)으로 불린다. 인도 정부에서는 재외인도인들을 비거주인도인(Non Resident Indian, NRIs)과 인도혈통인(Persons of Indian Origin, PIOs), 그리고 해외법인체(Overseas Corporate Bodies)로 구분한다(전형권, 2004). 비거주인도인은 인도국적을 보유한 이들로 다시 취업, 사업, 장사 등 정해진 기한 없이 인도 밖에서 거주하는 인도 국민, 외국정부, 정부산하 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인도국민, 해외 공간 등에서 일하는 주재원 등으로 구분된다(박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 2009: 83). 인도혈통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인도인으로 과거 인도여권을 가졌거나, 과거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인도인이었거나, 인도인의 배우자를 포괄한다. 해외법인체는 해외 기업, 조합, 법인체로 인도인 또는 인도 원거주인이 법인의 최소 60% 지분을 보유한 법인체를 의미한다(전형권, 2004: 206).

인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일자리를 찾아 이동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디아스포라(labor diaspora)의 성격을 지닌다. 즉 1800년대 초와 1900년대 초에 식민지 지배 시기 동안 이루어졌던 노동 이민에서부터,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이민정책 완화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인도인들의 학력과 기술을 토대로 한 해외 이주가 본격화되었다(박동 외, 2009: 82~83).

인교의 대표적 네트워크 중 하나는 세계인상의 날로, 2003년 1월 9일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격년마다 한번 개최되고 있다. 2019년 세계인상의 날에는 “새로운 인도 건설에서의 인교 디아스포라의 역할”이란 주제로 15차 행사가 개최되었다.⁵⁾

5) 2019년 세계인상의 날. <https://pbdiindia.gov.in/en>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NRIs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인 NRIOL(Non Resident Indians Online)은 전 세계 NRI와 PIO 단체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인데(박동 외, 2009), 인교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재외인도인 국가별 네트워크 현황

국가	조직명
인도	• APIRO – Association of Parents of Indians Resident Overseas, India 외 8개 (총 9개)
미국	• GSTB – Gujarati Samaj of Tampa Bay 외 15개(총 16개)
영국	• India Association 외 5개(총 6개)
호주	• The Australia India Society of Victoria 외 8개(총 9개)
싱가포르	• SINDA – Singapore Indian Development Association, Singapore 외 7개 (총 8개)
네덜란드	• The Netherlands-India Association 외 1개(총 2개)
일본	• India Centre – non profit organisation to strengthen Indo-Japan relations 외 4개(총 5개)
중동	• World4India, Dubai, UAE
뉴질랜드	• Wellington Indian Association 외 2개(총 3개)
그리스	• Greek Indian Cultural And Welfare Association
EU	• European Association of India Study Centres (EAI SC) 외 1개(총 2개)
캐나다	• Indian Association of Manitoba 외 5개(총 6개)
총계	68개

* 출처: 비거주인도인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nriol.com/community/orgs/>(2019년 5월 20일 인출)

상술한 인교, 인상 네트워크는 인도의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인교, 인상들은 인도의 수출상품이 거주국에서 브랜드 파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주국 내에서 인도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아웃소싱 제품 중 인도제품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재외인도들의 본국 송금과 해외 예금의 본국 이전이 활발하며, 재외인도인들의 자금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로 인도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인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재외인도인들에게 국내 투자 및 경제활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박동 외, 2009).

2. 대한민국 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의 실질적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된 시점은 문민정부에 해당하는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에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듬해 1997년 3월 27일에는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었으며, 그해 10월에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 1999년 9월 2일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별 재외동포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별 재외동포정책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대중 정부 (1998~2003)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국정비전 /목표	• 신한국창조 (세계화, 민주화, 개혁)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생산적 복지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 선진일류국가 건설	•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구 분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대중 정부 (1998~2003)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재외동포 정책 기본목표	• 현지화와 모국과의 유대 강화	• 현지화, 모국과의 유대강화, 재외동포 활용	• 현지화,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 모국과 동포 사회 간 호혜발전	• 모국과 재외 동포 간 호혜 발전을 통한 성숙한 한인 사회 구현	• 맞춤형 동포 서비스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 모국발전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 확대 • 지역별 특성별 직능별로 특화된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재외동포 정책 주요성과	•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설치 •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 재외동포재단 설립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 재외동포법 개정 • 방문취업제⁶⁾ 실시 • 소외지역 동포 지원대책 수립 • 분야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역할 강화	• 재외국민 선거 제도 도입 및 실시 • 제한적 복수 국적허용 추진 (국적법 개정)⁷⁾ • 방문취업제 보완⁸⁾	• 외국국적 취득 동포 재외국민 거소증 유지, 미취득 동포 주민등록제로 이원화 • 한국학교 신설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 • 재외공관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화상 법률지원 제공 • 재외동포관련 용어 정리 • 재외선거제도 개선

* 출처: 전용일, 고선윤, 이민영, 손동혁(2017). 재외동포의 장기적 활용 및 통합제도 방안 연구. p. 48.

6) 정부 수립 이전 국외이주 동포 즉 중국, 구소련 지역(CIS)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고용허가제로 허가된 범위의 취업 허용 제도(전용일 외, 2017: 53~54).

7) 이명박 정부는 우수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명분으로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제18차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회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정과제(10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에 따르면,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역사·문화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과 “한상네트워크 활성화·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35). 제18차 재외동포정책 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비전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 연대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으로 설정하고, 1)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3)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4)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3)과 관련하여 고려인 동포 지원(국내체류 고려인 동포 안정적 체류 지원, 국내 적응 교육 강화), 해외 한인입양인(뿌리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등),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국무조정실, 2017. 12. 22.: 1~2).

한편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업무는 주로 외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및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서약할 경우 한국 국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던 규정도 폐지하였다(이진영, 2010: 16).

- 8) 방문취업제 보원은 우선 제조업,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정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하는 것이며,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방문취업을 위해 한국어 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으나 전산추첨에 1년 이상 탈락한 동포에게 기술연수(D4) 비자를 발급하는 것 등이다(이진영, 2010: 16).

표 II-3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지원업무 담당 부처 및 산하기관(2019년 5월 현재)

부처 및 산하기관	주요 업무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산하)	교육 사업부	• 한글학교육성사업(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사이버한국어 강좌 개발 운영, 한글학교 교사연수 지원, 재외한글학교 교사초청연수,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지원)
	차세대 사업부	• 재외동포 장학사업(초청장학사업, 중국·CIS지역 장학사업) • 차세대양성(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중국동포청년 IT직업연수, CIS동포청년 IT직업연수, 세계한인차세대포럼, 세계한인청소년 모국연수)
교육부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한국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지도 조사 • 해외 한국어교사파견 및 양성지원, 재외동포교육융합포털시스템구축 • 재외교육기관장 선발 및 지도교사, 한국어보급 등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재외동포팀 (교육부 산하)	•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모국수학) 기획·추진 •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및 교사용지도서 개발 추진 •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연구·시범학교 운영 •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 연수 •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 지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산하)	• 재외교육기관장 연수 • 재외한국학교 파견 교사 연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업무 총괄 •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언어권별 개발 및 출판 지원	

* 출처 :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homepage/intro/organization_chart.do에서 2019.5.23. 인출
 교육부 <https://www.moe.go.kr/user/detail.do?deptCD=1342021&m=0604>에서 2019.5.23.인출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user/action/organization.do?pageST=nd8419>에서 2019.5.23. 인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에서 2019.5.23. 인출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dept/deptMemberList.do?mn_id=233&dept_id=10 에서 2019.5.23.인출

3. 재외동포청소년을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생태학적 접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문화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설명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김규태, 2013; 노병일, 2015). 그 대표적인 접근방법이 생태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인간이 몸담고 있는 생태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인간 발달 연구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송명자, 1996: 31).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사회 환경의 여러 수준을 다루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적인(holistic) 접근방식을 통하여 여러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Jack, 2001, Andrews & Ben-Arieh, 1999; Stevenson, 1998 : 노병일, 2018: 324~325에서 재인용). 이러한 장점은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원인을 개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환경적 개선을 통해서 청소년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기여행동 등도 동포청소년의 가정이나 학교, 교포사회, 거주국 및 대만민국의 정책이나 문화 등 재외동포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도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생태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이론(1979, 1994)에 의하면, 생태환경은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의 5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시체계(microsystem)는 “발달하는 개인이 독특한 물리적·

물질적·상징적 특성을 가진 면대면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사회적 역할 및 대인관계의 패턴”으로 정의된다(Bronfenbrenner, 1994 ; 이영 역, 1995: 20). 여기에서 환경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직장, 보육시설, 놀이터 등과 같이 얼굴을 마주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Bronfenbrenner, 1994; 이영 역, 1995; 송명자, 1996).

중간체계(mesosystem)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서, 발달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연계 및 과정이다”(Bronfenbrenner, 1994: 이영 역, 1995: 23). 가정과 학교, 가정과 이웃, 학교와 이웃 등과 같은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Bronfenbrenner, 1994, 이영 역, 1995; 김규태, 2013).

외체계(exosystem)는 “둘 이상의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연계 및 과정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환경에는 발달하는 개인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생활하는 즉각적인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을 포함하는 환경체계를 의미한다”(Bronfenbrenner, 1994: 이영 역, 1995: 24). 가정과 부모의 직장, 손위 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조직망, 이웃, 교회, 지방교육청의 활동, 교육환경 또는 제도, 대중매체, 각종 정책기구 등이 해당한다(Bronfenbrenner, 1994; 이영 역, 1995; 송명자, 1996;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김규태, 2013).

거시체계(macrosystem)는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consistencies)으로서 하위문화나 문화전반의 수준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94: 40; Bronfenbrenner, 이영 역, 1995: 24). 각 문화권 특유의 가치, 태도, 신념, 지식체계, 생활양식, 이념, 문화, 사회제도, 기회구조 등을 말한다(Bronfenbrenner, 1994; 송명자, 1996; 백순근, 2002; 김규태, 2013).

시간체계(chronosystem)는 환경 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하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 특성이 변화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제를 말한다(Bronfenbrenner, 1994; 백순근, 2002). 인간 특성(attribute)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surrounding environment), 인생의 전 과정(life course), 역사적인 시간 흐름(historical time)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일생에 걸친 가족 구조,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 주거장소, 일상생활의 바쁜 정도 및 일상생활 능력의 변화 등을 말한다(Bronfenbrenner, 1994: 40).

한편, 재외동포청소년의 발달과 환경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발달에 가정, 학교, 교포사회, 거주 국가 및 한국 정부 정책 등의 환경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요인을 찾는 데 관심이 많다. 즉, 민족정체성은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모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족정체성 발달을 위한 환경요인들을 찾아내서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에는 한국드라마나 K-Pop 등의 한국문화,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 친구들과의 대화,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 한민족 캠프나 축제, 한국방문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1.5세대, 2세대, 3세대 등 이민 세대 간에도 한민족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준, 김태기, 2015: 198~199). 또한 한국어능력, 개인적 역량,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지식과 인식 등의 개인 특성 변인과 부모의 기대, 가정에서의 한국 문화 관련 활동 여건, 한글학교 경험, 한국과의 문화교류, 한국 관련 교육과정 참여, 거주국의 타 국가에 대한 개방적 태도나 친근감 등의 환경 요인들이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인, 임영언, 2011; 김경준, 김태기, 2015; 김경준, 정은주, 2016; 김경준, 정은주, 2017; 정은주, 김정숙, 2018). 재외동포청소년과 학부모 및 전문가 대상의 질적 조사에서도 친·인척들 간의 주기적인 모임, 가정에서의 세대 간 의사소통, 부모들의 인식, 가정과 교포사회에서의 한국문화 유지활동, 한글학교,

민족학교 등에서의 교육, 한국어 교육, 역사교육, 한국 방문, 한류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준, 정은주, 2016; 김경준, 정은주, 2017; 정은주, 김정숙, 2018).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환경을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5개 체계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4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발달을 위한 개인특성과 생태학적 환경의 분류

분류	사 례
개인 특성 변인	성별, 나이, 한국어능력, 개인적 역량,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지식, 한국에 대한 인식
미시체계	한국 친화 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학교, (동포) 친구 관계
중간체계	부모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 부모의 자녀 친구관계 관심, 부모의 동포들 간의 만남
외체계	부모의 직업 및 근무여건, 교포사회단체 지원 여건, 교육, 취업 및 문화여건, 한국교류프로그램
거시체계	교포사회의 문화와 관습 및 이념, 거주국의 타문화(한국문화) 수용, 모국의 동포에 대한 태도, 한류 확산
시간체계	한국문화 체험 경험, 한국방문 경험, 이민세대 및 이민 경험

* 출처 :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 이론(1979, 1994)에 기초하여 생태환경을 5가지 체계로 분류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포청소년의 생태학적 환경의 예를 제시하였음.

또한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의 분류를 이 연구에서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와 재외동포청소년 및 전문가 면담조사에서의 조사 항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5 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항목

분류	청소년설문조사	청소년면담	전문가면담
개인 특성 변인	- 한국어에 대한 관심 - 한국어능력 - 개인적 역량 - 한국에 대한 지식 - 한국에 대한 인식	- 한국어에 대한 관심 - 한국에 대한 지식 - 한국에 대한 인식	- 한국어에 대한 관심 - 한국에 대한 지식 - 한국에 대한 인식
미시 체계	-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 한국 및 한국어 교육경험 - 포레동포청소년과의 교류 - 한국에 관심 있는 학교 친구와의 교류	-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 한국 및 한국어 교육경험 - 동포친구관계 및 교류 - 한국에 관심 있는 학교 친구와의 교류	-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및 가치관 -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 한국 및 한국어 교육 - 동포친구관계
중간 체계	- 부모의 자녀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 -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 - 부모의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관심	- 부모의 자녀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 -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 - 부모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관심 - 부모의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관심	- 부모의 자녀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 -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 - 부모의 교사 및 학교에 대한 관심 - 부모의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관심
외체계	- 자녀의 한인회 행사 참여 - 자녀 학교의 한국어 개설 여부 - 한국 유학·취업 여건 및 욕구 - 거주국 내 동포간 교류 프로그램 - 한국 교류 프로그램	- 한인회 행사 참여 - 학교의 한국어 개설 - 부모의 직업 및 근무여건 - 거주국 교육·문화 여건 - 한국 관련 교육·취업·문화 여건 - 거주국 내 동포간 교류 프로그램 - 한국 교류 프로그램	- 한인회 행사 참여 - 부모의 직업 및 근무여건 - 거주국 교육·문화 여건 - 한국 관련 교육·취업·문화여건 - 거주국 내 동포간 교류 프로그램 - 한국 교류 프로그램 - 교포사회단체 지원여건
거시 체계	- 한류의 영향 -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및 관습 - 거주국의 타문화 수용성	- 한류의 영향 -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및 관습 - 거주국의 문화적 환경	- 한류의 영향 -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및 관습 - 거주국 한국문화 수용 - 대한민국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시간 체계	- 한국문화 체험 경험 - 한국 방문 경험 - 이민 경험 -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문화 체험 경험 - 한국 방문 경험 - 이민 경험 -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문화 체험 경험 - 한국 방문 경험 - 가정사 및 이민 경험



제3장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성장 지원 환경

- 1. 호주·뉴질랜드의 특성과 재외동포청소년
- 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현황
- 3.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단체 및 청소년 교육기관 현황
- 4. 거주국 및 대한민국 동포 정책 및 지원 현황

1. 호주 · 뉴질랜드의 특성과 재외동포청소년

1) 호주 · 뉴질랜드 국가의 특성 및 한국과의 관계

2018년도에 호주 인구는 호주통계청 기준으로 2018년 25,130,000명이고, 영국계 36.1%, 호주계 33.5%, 중국계 5.6%, 인도계 4.6% 등이다. 종교는 천주교가 22.6%, 영국성공회 13.1%, 기타 기독교 16.3%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또한 2018년도의 뉴질랜드 인구는 뉴질랜드 통계청 기준으로 4,870,000명이며, 유럽인이 74%, 마오리 15%, 아시안 12%, 남태평양 도서국 7%, 기타 1%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인이 약 51%이고 기타 종교로 구성되어 있다¹¹⁾.

호주와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낮은 수출 비중 등으로 우리나라의 관심이 부족했으나, 정치 · 외교 · 경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한 무역협력을 넘어서 아 · 태지역의 무역질서를

9) 이 장의 1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2, 3, 4절의 호주 관련 내용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그리고 뉴질랜드 관련 내용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0) Kotra 국가지역정보(뉴질랜드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11>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11) Kotra 국가지역정보(뉴질랜드b)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53>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강화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미령, 신민금, 신민이, 2018: 15).

한국과 호주의 경제적인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호주의 제 4위 교역국이고, 호주는 한국의 주요한 자원 교역파트너이다. 2018년 1월~11월 기준으로 2,508 달러의 수출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39.1% 하락한 93억 달러를 수입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0.3% 상승한 158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발전용 석탄, 제철용 석탄,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LPG, 금, 구리광, 아연광, 알루미늄 및 니켈 과 등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하자원의 약 40%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중장비, 철강, 기계류, 전기전자, 플라스틱 등을 호주에 수출하고 있다¹³⁾. 최근에는 삼성물산의 로이힐 광산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의 글래드스톤, 프렐루드의 북부 해상 가스프로젝트 등 호주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지분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민간투자자금 운용회사 및 국민연금 등 한국의 주요 투자주체들의 호주 상업 부동산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의 호텔, 대형 쇼핑몰, 빌딩 등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 호주 상업부동산을 향한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최근 한국 수출은 5~6위, 수입은 7~8위 국가로, 2018년 한국의 뉴질랜드 수출액은 1,68백만 달러, 수입액은 1,151백만 달러로, 317백만

12)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9년 호주 경제 및 교역 전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215>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13) Kotra 호주. 한국과의 주요 이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14) Kotra 호주. 한국과의 주요 이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 건설 중장비, 제트유 및 등유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목, 낙농품, 가축육류, 과실류,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호주와 뉴질랜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안정이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유도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여인곤, 김국신, 전병곤, 배공찬, 이원덕, 이재현, 2009: 176~179).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타 남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국가들로 분석되고 있다. 즉,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여러 국제기구와 포럼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북한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미령, 신민금, 신민이, 2018: 16).

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호주나 뉴질랜드에서의 한인들의 정착은 각 정부의 이민정책과 한국 상황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대체적으로 호주는 1970년대부터, 뉴질랜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양주에서 한인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양명득, 2012. 8). 호주로의 이민은 1973년 북유럽과 서유럽의 백인 이주민만을 허용했던 백인이민정책이 폐지되어 소수의 전문기술자가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15) Kotra 국가지역정보(뉴질랜드b)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53>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그 이후 1974년 베트남전 파견기술자 5백여명이 대거 호주에 이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뒤이어 남미로 이주 갔던 사람들의 일부와 서남아시아 건설근로자들의 이주가 있었다(김영성, 2006: 499~500; 하춘광, 2015: 194).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는 초기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후 가족초청을 통한 가족 이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문화가 좁아지면서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들의 호주로의 기술이민, 사업이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젊은 인력의 대거 입국이 이루어졌다(박병태, 조양훈, 2008: 75~92). 2000년 이후에는 재정보증 요구로 기술이민이 가족이민을 앞지르고 있으며, 2001년 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자녀교육과 직업 선택을 위해서 뉴질랜드 한인 시민권자들이 대거 이주하였으며, 한국 경제위기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한인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등 일시체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지환, 2008: 105~111).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민법 적용 이후 영구 이주를 위한 이민자들과 어학연수를 위한 청소년 유학생 등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1987년의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법 개정이 한국인들이 뉴질랜드로 오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1970년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새 이민법(1987년)의 공포와 유색인종에 대한 이민문화 개방 이후에 실시한 다문화정책이 뉴질랜드에 한인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1993년도에 대한항공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취항하게 되고 1994년도에 한국과 뉴질랜드 간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한국인의 수를 증가시켰고, 1998년에는 한국과의 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양국 간 젊은이들의 교류가 시작되었는데, 매년 1,800여명의 한국인 청년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되었다(양명득, 2012: 8).

호주 한인들에 대해서 호주 사회학자인 코간(Coughlan)은 “전체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은 높고,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한인들의 특성은 호주사회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은 전반적인 호주 복지

16)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오세아니아 한인)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Oceania.do>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제도에 부담이 적은 공동체이다.”(Coughlan, 1997: 194; 양명득, 2012. 8: 112에서 재인용)라고 평가하고 있다. 호주 사회학자의 눈을 통해서 본 호주 한인 공동체는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호주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내에서 실시한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호주 한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호주 한인들은 최근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호주 사회에서의 종사 산업이나 고용상의 지위와 소득 수준은 호주 전체에 비해서 아직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호주통계청 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호주 한인들은 지난 2006년에서 2016년의 10년 사이에 58,441명에서 113,671명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0대가 10.8%, 20대가 22.3%, 30대가 24.1%, 50대가 8.5% 등으로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의 90.7%가 고용상태인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호주 한인들의 종사 산업은 숙박 및 요식, 보건 및 사회서비스가 주요 종사산업이고, 공무 및 안전, 교육 및 안전 산업은 호주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종사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 전체에 비하면, 정규직이 낮고, 비정규직이 높으며, 실업률이 높은 등 고용상의 지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한인들의 2016년 소득수준은 10명 중 7명 이상이 평균 소득 이하이고, 56.4%가 호주 전체 평균 소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¹⁸⁾

한편, 뉴질랜드인들은 한국이나 한인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나라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류가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지로 뉴질랜드 거주

17) 한국신문(The Sydney Korean Herald). 호주 한인 인구통계 <http://koreanherald.com.au/?p=12701>에서 2017년 5월 8일 인출

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아시아계 이민자와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하고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¹⁹⁾. 하지만 뉴질랜드 동포들에 대해서는 매우 근면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양국 관계 증진에 튼튼한 기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2. 호주 · 뉴질랜드 재외동포 현황

1) 대륙별 ·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외교부(2019) 집계에 의하면, 2019년 재외동포 인구는 7,493,587명이었다. 또한 재외동포 중에서 재외국민은 2,687,114명(35.9%), 외국국적자는 4,806,473명(64.1%)으로 외국국적자가 재외국민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다. 재외국민 중에서는 일반체류자가 1,362,175명, 영주권자가 1,031,782명, 유학생이 293,157명으로 일반체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인구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동북아시아가 3,286,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북미(2,788,732명), 유럽(687,059명), 남아시아태평양(592,441명), 중남미(103,617명), 중동(24,498명), 아프리카(10,877명)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남아시아태평양의 경우에는 호주 · 뉴질랜드의 재외동포의 인구가 205,445명으로 34.7%를 차지하였다. 북미, 동북아시아, 유럽 등 대부분의 대륙에서는 외국국적자가 재외국민에 비해서 많았으나, 남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9).

19) Kotra 뉴질랜드. 한국과의 주요 이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20) 재외동포의 창(2013. 1). 동포이민사 http://webzine.korean.net/201301/pages/sub03_03_01.jsp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표 III-1 재외동포 인구 현황

구 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31,782	1,362,175	293,157	2,687,114	4,806,473	7,493,587
북미	480,750	586,828	104,491	1,172,069	1,616,663	2,788,732
동북아시아	368,933	317,676	70,764	757,373	2,528,990	3,286,363
남아시아태평양	96,619	351,682	77,054	525,355	67,086	592,441
-호주·뉴질랜드	89,171	31,719	19,699	140,589	64,856	205,445
중남미	53,244	10,699	511	64,454	39,163	103,617
유럽	30,569	65,377	36,763	132,709	554,350	687,059
아프리카	1,555	8,584	588	10,727	150	10,877
중동	112	21,329	2,986	24,427	71	24,498

* 출처 :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28의 표에서 일부 수정

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 현황²¹⁾

호주와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인구는 205,445명으로 재외국민(140,589명)이 외국국적자(64,856명)에 비해 2배 이상 되었으며, 재외국민 중에서는 영주권자가 89,171명으로 가장 큰 비중(6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외동포 인구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인구가 167,331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재외국민은 114,232명으로 외국국적자 53,099명에 비해서 약 2.2배 많았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인구가 38,11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재외국민은 26,357명으로 외국국적자 11,757명에 비해서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이 내용은 외교부(2019)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표 III-2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 현황

구 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호주	주호주(대)	9,113	3,424	2,189	14,726	6,999	21,725
	주시드니(총)	52,220	20,785	10,215	83,220	38,396	121,616
	주멜번(분)	10,927	2,917	2,442	16,286	7,704	23,990
	소계	72,260	27,126	14,846	114,232	53,099	167,331
뉴질랜드	주뉴질랜드(대)	4,381	1,087	1,190	6,658	2,810	9,468
	주오클랜드(분)	12,530	3,506	3,663	19,699	8,947	28,646
	소계	16,911	4,593	4,853	26,357	11,757	38,114
계		89,171	31,719	19,699	140,589	64,856	205,445

* 출처 :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31~32에서 표를 일부 수정함.

한편, 호주 2016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는 남자 46,332명(46.9%), 여자 52,443명(53.1%)으로 총 98,7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의 성별 비율과 비교할 때 한국 출생자의 경우에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출생자 중에서 호주시민권을 가진 비율은 38.7%(38,197명)으로 전체 해외 출생자의 호주시민권 비율인 59.3%에 비해서 약 2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성별 · 호주시민권별 호주 인구 현황

(단위: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성별	남	46,332 (46.9)	2,997,173 (48.6)	7,735,362 (49.5)	11,546,638 (49.3)
	여	52,443 (53.1)	3,166,493 (51.4)	7,880,175 (50.5)	11,855,248 (50.7)
	소계	98,775 (100.0)	6,163,666 (100.0)	15,615,537 (100.0)	23,401,886 (100.0)
호주시민권	호주시민	38,197 (38.7)	3,652,290 (59.3)	15,304,785 (98.0)	19,278,834 (82.4)
	비시민	59,570 (60.3)	2,402,591 (39.0)	86,884 (0.6)	2,507,458 (10.7)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호주 시민권 획득은 이주기간과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를 2000년 전후로 이민 기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이민 온 한국 출생자가 27.3%, 2001년~2016년 사이에 이민 온 한국 출생자가 67.8%로 상당수가 2000년 이후에 호주로 이민 왔다. 그에 따라 한국 출생자 중에서 호주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가 38.7%로 베트남, 홍콩, 이탈리아 등의 출생자에 비해서 약 50% 정도로 이민기간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ndt, 2019: 95~96).

연령별 · 출생지별 인구 현황을 통해서 청소년 연령대의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 중에서 청소년 연령대를 살펴보면, 14세 이하는 6,656명(6.7%)이고 15~24세는 14,904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생자 중에서 14세 이하 인구는 6.7%로 전체 해외출생자 6.0%와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호주 출생자 24.2%에 비해서는 낮았다. 또한 15~24세의 인구는

15.1%로 전체 해외 출생자 9.9%에 비해서 높았고, 호주 출생자(14.1%)와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4 연령별 · 출생지별 호주 인구 현황

(단위 :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14세 이하	6,656(6.7)	366,872(6.0)	3,777,875(24.2)	4,151,403(18.7)
15~24	14,904(15.1)	612,643(9.9)	2,197,847(14.1)	2,825,394(12.8)
25~34	28,411(28.8)	1,130,884(18.3)	1,994,601(12.8)	3,153,896(14.4)
35~44	22,760(23.0)	1,021,528(16.6)	1,911,355(12.2)	2,955,643(13.4)
45~54	13,350(13.5)	961,980(15.6)	1,920,340(12.3)	2,895,670(13.3)
55~64	7,405(7.5)	840,595(13.6)	1,704,198(10.9)	2,552,198(11.8)
65세 이상	5,291(5.4)	1,229,161(19.9)	2,109,310(13.5)	3,343,762(11.8)
계	98,777(100.0)	6,163,663(100.0)	15,615,526(100.0)	21,877,966(15.7)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j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호주 · 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에는 2013년에는 156,865명에서 2015년에 153,653명으로 약간(3,212명)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180,004명으로 26,351명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67,331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3년 30,527명에서 2015년에 30,174명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33,40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도 38,11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외교부, 2019: 17~18).

표 III-5 연도별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 인구 현황

구 분		2013	2015	2017	2019
호주	주호주(총)	113,817	111,617	130,646	121,616
	주멜번(분)	21,837	21,348	25,068	23,990
	주호주(대)	21,211	20,688	24,290	21,725
	소계	156,865	153,653	180,004	167,331
뉴질랜드	주뉴질랜드(대)	6,929	5,856	6,478	9,468
	주오클랜드(분)	23,598	24,318	26,925	28,646
	소계	30,527	30,174	33,403	38,114

* 출처 :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 외교부. pp. 17~18에서 표를 일부 수정함.

* 주 : 호주는 주호주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멜번공관에서, 뉴질랜드는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오클랜드
분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음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167,331명 중에서 뉴사우스웨일즈(NSW)지역에 약 절반 정도인 89,207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퀸즈랜드(31,805명), 빅토리아(23,990명), 서부호주(10,791명), 남호주(6,212명), 캔버라(3,701명), 타즈마니아(1,021명), 북부준주(604명)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의 3개 주에 대부분(77.6%)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재외동포의 성별 분포는 총 167,331명 중 여자가 86,602명(51.8%)으로 남자 80,721명(48.2%) 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각 주별로도 비슷한 비율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표 III-6 호주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구 분	총 계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등록수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격		계		
					일반	유학생			
총계		남	80,721	34,316	13,630	7,558	55,504	25,217	24,810
		여	86,610	37,944	13,496	7,288	58,728	27,882	25,925
		계	167,331	72,260	27,126	14,846	114,232	53,099	50,735
지 역 별	뉴사우스 웨일즈	남	42,995	18,317	7,892	3,131	29,340	13,655	15,005
		여	46,212	20,254	7,770	3,090	31,114	15,098	15,608
		계	89,207	38,571	15,662	6,221	60,454	28,753	30,613
	퀸즈랜드	남	15,432	6,352	2,522	2,076	10,950	4,482	4,503
		여	16,373	7,024	2,498	1,896	11,418	4,955	4,692
		계	31,805	13,376	5,020	3,972	22,368	9,437	9,195
	빅토리아	남	11,464	5,189	1,442	1,174	7,805	3,659	2,695
		여	12,526	5,738	1,475	1,268	8,481	4,045	2,898
		계	23,990	10,927	2,917	2,442	16,286	7,704	5,593
	서부호주	남	5,228	2,162	860	498	3,520	1,708	854
		여	5,563	2,391	850	434	3,675	1,888	942
		계	10,791	4,553	1,710	932	7,195	3,596	1,796
	남호주	남	3,026	1,200	478	448	2,126	900	845
		여	3,186	1,326	472	392	2,190	996	915
		계	6,212	2,526	950	840	4,316	1,896	1,760
	타즈마니아	남	499	208	83	63	354	145	104
		여	522	230	81	50	361	161	104
		계	1,021	438	164	113	715	306	208
	북부준주	남	293	130	52	13	195	98	177
		여	311	143	51	9	203	108	186
		계	604	273	103	22	398	206	363
	캔버라	남	1,784	758	301	155	1,214	570	627
		여	1,917	838	299	149	1,286	631	580
		계	3,701	1,596	600	304	2,500	1,201	1,207

* 원출처 : 2016 호주인구조사, 2018 내무부 비자 발급 관련 자료

* 출처 :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126~128의 표를 부분 수정함.

즉, 뉴사우스웨일즈는 전체 89,207명 중 여자가 46,212명(51.8%), 남자가 42,995명(48.2%)이었고, 퀸즐랜드는 전체 31,805명 중 여자가 16,373명(51.5%), 남자가 15,432명(48.5%)이었으며, 빅토리아는 전체 23,990명 중 여자가 12,526명(52.2%), 남자가 11,464명(47.8%)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33,403명 중에서 오클랜드에 약 73%인 24,384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캔터베리(3,690명), 와이카토(1,206명), 웰링턴(1,070명), 베이오브플렌티(1,002명), 마나와투-왕가누이(333명), 노스랜드(300명), 호크스베이(150명) 등의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100명 미만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성별 분포는 총 38,114명 중 여자가 25,754명(67.6%)으로 남자 12,360명(32.4%) 보다 훨씬 많았는데, 각 주별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오클랜드는 전체 25,912명 중 여자가 19,467명(75.1%), 남자가 6,445명(24.9%)이었고, 캔터베리는 전체 5,392명 중 여자가 2,750명(51.0%), 남자가 2,642명(49.0%)이었으며, 웰링턴은 전체 1,564명 중 여자가 798명(51.0%), 남자가 766명(49.0%)이었고, 와이카토는 전체 1,313명 중 여자가 693명(52.8%), 남자가 620명(47.2%)이었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재외동포를 거주자격별로 살펴보면, 전체 재외동포 수 38,114명 중에서 영주권자가 44.4%(16,911명)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30.8%), 유학생(12.7%), 일반(12.1%)의 순이었는데, 각 지역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즉, 오클랜드는 전체 25,912명 중에서 영주권자가 11,334명(43.7%), 외국국적동포는 8,093명(31.2%), 유학생은 3,313명(12.8%), 일반비자 자격소지자는 3,172명(12.2%)이었으며, 캔터베리는 전체 5,392명 중에서 영주권자가 2,496명(46.3%), 외국국적동포는 1,599명(29.7%), 유학생은 678명

(12.6%), 일반비자자격소지자는 619명(11.5%)이었다. 와이카토는 전체 1,313명 중에서 영주권자가 574명(43.7%), 외국국적동포는 410명(31.2%), 유학생은 168명(12.8%), 일반비자자격소지자는 85명(6.5%)이었다. 기타 지역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III-7 뉴질랜드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구 분	총계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격			계
					일반	유학생		
총계		남	12,360	5,529	1,477	1,566	8,572	3,788
		여	25,754	11,382	3,116	3,287	17,785	7,969
		계	38,114	16,911	4,593	4,853	26,357	11,757
주 오 클 랜 드 분 관 관 할 지 역	노스랜드	남	150	66	18	19	103	47
		여	170	74	21	22	117	53
		계	320	140	39	41	220	100
	오클랜드	남	6,445	2,819	789	824	4,432	2,013
		여	19,467	8,515	2,383	2,489	13,387	6,080
		계	25,912	11,334	3,172	3,313	17,819	8,093
	와이카토	남	620	271	76	79	426	194
		여	693	303	85	89	477	216
		계	1,313	574	161	168	903	410
	베이오브 플렌티	남	502	220	61	64	345	157
		여	563	246	69	72	378	176
		계	1,065	466	130	136	732	333
	기즈본	남	17	8	2	2	12	5
		여	19	8	2	3	13	6
		계	36	16	4	5	25	11

		구 분	총계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격		계	
					일반	유학생		
주 뉴질 랜드 대사관 관할 지역	호크스베이	남	106	50	12	13	75	31
		여	115	53	13	15	81	34
		계	221	103	25	28	156	65
	타라나키	남	94	44	10	12	66	28
		여	103	47	12	13	72	31
		계	197	91	22	25	138	59
	마나와투 왕가누이	남	239	110	28	29	167	72
		여	248	115	28	32	175	73
		계	487	225	56	61	342	145
	웰링턴	남	766	355	88	96	539	227
		여	798	368	92	101	561	237
		계	1,564	723	180	197	1,100	464
	타즈만	남	28	13	3	3	19	9
		여	34	16	4	4	24	10
		계	62	29	7	7	43	19
	넬슨	남	59	28	6	7	41	18
		여	66	29	9	9	47	19
		계	125	57	15	16	88	37
	말보로	남	45	22	6	4	32	13
		여	52	23	6	7	36	16
		계	97	45	12	11	68	29
	웨스트 코스트	남	4	1	1	1	3	1
		여	6	3	0	0	3	3
		계	10	4	1	1	6	4
	캔터베리	남	2,642	1,223	303	333	1,859	783
		여	2,750	1,273	316	345	1,934	816
		계	5,392	2,496	619	678	3,793	1,599

		구 분	총계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격		계	
					일반	유학생		
주 뉴질 랜드 대사관 관할 지역	오타고	남	607	281	70	76	427	180
		여	630	291	72	80	443	187
		계	1,237	572	142	156	870	367
	사우스랜드	남	36	18	4	4	26	10
		여	40	18	4	6	28	12
		계	76	36	8	10	54	22

* 출처: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 외교부, pp. 80~82에서 표 수정.

3) 호주 재외동포 가정, 교육 및 고용 현황²²⁾

2016년 호주 센서스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의 가족 구성, 교육실태,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 가족 구성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 가정 중에서 한가족가구는 76.0%(35,424가구)였으며, 다가족가구는 3.0%(1,417가구), 1인 가구는 9.8%(4,577가구), 그룹가구는 11.2%(5,20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출생자 가구나 호주 출생자 가구에 비해서 한가족가구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나, 1인 가구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 내용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의 해당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표 III-8 출생지별 가족 구성

(단위 : 가구수,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한가족가구	35,424(76.0)	2,465,248(74.7)	4,809,352(72.9)	5,751,635(69.4)
다가족가구	1,417(3.0)	101,470(3.1)	137,593(2.1)	155,992(1.9)
1인 가구	4,577(9.8)	559,665(17.0)	1,403,935(21.3)	2,023,542(24.4)
그룹가구	5,205(11.2)	173,452(5.3)	248,803(3.8)	354,917(4.3)
계	46,623(100.0)	3,299,835(100.0)	6,599,683(100.0)	8,286,086(100.0)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호주의 아동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 가정 중에서 아동 부재 가정은 35.2%(12,491가구), 아동이 있는 가정은 53.0%(18,823가구), 한부모가정은 9.8%(3,465가구), 기타 가정은 2.1%(761가구)로 아동이 있는 가정이 가장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21.5%(7,655가구)였으며, 1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43.8%(15,572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출생자 가정과 호주 출생자 가정과 비교해 보면, 한국 출생자 가정은 53.0%로 전체 해외출생자 가정(48.4%)이나 호주 출생자 가정(42.3%)에 비해서 아동이 있는 가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출생지별 아동 동반 가족 구성

(단위 : 가구수,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아동 부재 가정	12,491(35.2)	1,012,440(39.3)	1,240,422(36.6)	2,291,987(37.8)
아동 동반 가정	18,823(53.0)	1,248,241(48.4)	1,434,939(42.3)	2,716,224(44.7)
한부모가정	3,465(9.8)	282,463(11.0)	648,590(19.1)	959,543(15.8)
기타 가정	761(2.1)	34,059(1.3)	65,896(1.9)	102,559(1.7)
5세 이하 아동 가정	7,655(21.5)	446,733(17.3)	591,182(17.4)	1,037,904(17.1)
15세 이하 아동 가정	15,572(43.8)	977,697(37.9)	1,379,763(40.7)	2,357,465(38.8)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출생지별 가족의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중 1인만 풀타임 고용된 경우가 2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인 풀타임 고용과 1인 파트타임 고용(16.9%), 둘 다 풀타임 고용(16.6%), 둘 다 무직(13.4%), 부부 중 1인만 파트타임 고용(10.5%), 둘 다 파트타임 고용(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출생자 가정 및 호주 출생자 가정과 비교해 보면, 부부 둘 다 풀타임 고용, 1인 풀타임 고용과 1인 파트타임 고용, 그리고 둘 다 무직인 경우는 한국 출생자 가정이 해외 출생자 및 호주 출생자 가정에 비해서 적었고, 부부 중 1인만 풀타임 고용이거나 파트타임 고용인 경우는 해외 출생자 및 호주 출생자 가정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출생지별 가족 고용 상태

(단위 : 가구수,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둘다 풀타임	5,211(16.6)	475,278(21.0)	600,260(22.4)	1,084,006(21.6)
둘다 파트타임	2,642(8.4)	97,948(4.3)	103,266(3.9)	203,596(4.1)
1인 풀타임 1인 파트타임	5,288(16.9)	424,478(18.8)	652,771(24.4)	1,086,460(21.7)
1인 풀타임 1인 무직	7,896(25.2)	390,307(17.3)	352,203(13.2)	749,886(15.0)
1인 파트타임 1인 무직	3,279(10.5)	156,274(6.9)	141,852(5.3)	302,037(6.0)
둘다 무직	4,196(13.4)	492,423(21.8)	488,403(18.3)	1,006,697(20.1)
기타(일시 휴직 포함)	1,413(4.5)	107,664(4.8)	152,346(5.7)	264,145(5.3)
무응답	1,392(4.4)	116,299(5.1)	184,264(6.9)	311,381(6.2)
계	31,317(100.0)	2,260,671 (100.0)	2,675,365 (100.0)	5,008,208 (100.0)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2) 교육 및 고용 상황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39.3%가 학사학위(Bachelor Degree)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 12학년(31.7%), 전문학사 및 전문대 수준(Advanced Diploma and Diploma)(11.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 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출생지별 교육수준

(단위: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Bachelor Degree (학사학위 이상)	36,238(39.3)	1,830,410(31.6)	2,320,141(19.6)	4,181,406(22.0)
Advanced Diploma and Diploma (전문학사 및 전문대 수준)	10,779(11.7)	587,176(10.1)	1,079,954(9.1)	1,687,893(8.9)
Certificate level IV	1,196(1.3)	120,064(2.1)	425,836(3.6)	551,767(2.9)
Certificate level III	4,219(4.6)	565,803(9.8)	1,831,323(15.5)	2,442,203(12.8)
12학년	29,216(31.7)	1,051,623(18.1)	1,902,337(16.1)	2,994,097(15.7)
11학년	1,351(1.5)	200,856(3.5)	724,761(6.1)	941,531(4.9)
10학년	1,605(1.7)	418,929(7.2)	1,588,715(13.4)	2,054,331(10.8)
Certificate level II	9(0.0)	3,313(0.1)	9,848(0.1)	13,454(0.1)
Certificate level I	3(0.0)	863(0.0)	1,266(0.0)	2,176(0.0)
9학년 이하	1,970(2.1)	458,176(7.9)	1,027,299(8.7)	1,529,897(8.0)
교육 성취수준 없음	1,231(1.3)	114,870(2.0)	26,748(0.2)	145,844(0.8)
무응답	2,206(2.4)	264,618(4.6)	570,419(4.8)	1,974,794(10.4)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또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생자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풀타임 고용은 49.4%, 파트타임 고용은 37.7% 등으로 나타나, 전체 해외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에 비해서 풀타임 고용 비율을 낮고, 파트타임 고용 비율은 높았다. 실업율의 경우에도 한국 출생자는 8.6%로 전체 해외 출생자(7.9%)나 호주 출생자(6.4%)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출생지별 호주 고용 현황

(단위 :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풀타임 고용	29,260(49.4)	2,052,828(58.4)	4,491,793(57.5)	6,623,065(57.7)
파트타임 고용	22,335(37.7)	1,025,198(29.2)	2,421,402(31.0)	3,491,503(30.4)
일시휴직	2,536(4.3)	158,027(4.5)	397,088(5.1)	569,276(5.0)
실업	5,065(8.6)	277,586(7.9)	498,013(6.4)	787,452(6.9)
비고용인구	32,348(35.1)	2,221,922(38.3)	3,913,066(33.1)	6,297,600(33.1)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의 경우에는 전문직이 2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술직(21.1%), 노동자(16.0%), 커뮤니티 및 서비스직(12.4%), 관리직(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체 해외 출생자(25.2%)에 비해서 다소 낮았고, 호주 출생자(21.0%)와는 비슷하였으나, 기술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전체 해외 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3 출생지별 취업 현황

(단위 :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전문직	11,474(21.2)	815,695(25.2)	1,536,662(21.0)	2,370,966(22.2)
기술직	11,434(21.1)	405,055(12.5)	1,021,688(14.0)	1,447,414(13.5)
노동자	8,643(16.0)	354,542(11.0)	638,102(8.7)	1,011,520(9.5)
커뮤니티 및 서비스직	6,708(12.4)	351,854(10.9)	789,597(10.8)	1,157,003(10.8)
관리직	6,249(11.5)	403,585(12.5)	970,340(13.3)	1,390,047(13.0)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호주에서의 대표 업종을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의 경우에는 카페 및 음식점이 1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서비스(6.7%), 병원(3.3%), 타일 및 카펫 서비스(2.6%), 테이크아웃음식서비스(2.2%)의 순이었다. 전체 해외 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에 비해서 카페 및 음식점이나 청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출생지별 대표 업종 현황

(단위 : 명, %)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카페 및 음식점	6,817(12.6)	121,097(3.7)	130,007(1.8)	253,385(2.4)
청소서비스	3,646(6.7)	64,744(2.0)	64,388(0.9)	131,908(1.2)
병원	1,784(3.3)	141,550(4.4)	265,609(3.6)	411,808(3.9)
타일 및 카펫 서비스	1,409(2.6)	8,972(0.3)	13,606(0.2)	22,950(0.2)
테이크아웃 음식서비스	1,182(2.2)	50,880(1.6)	137,140(1.9)	189,447(1.8)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주급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의 경우에 개인소득은 491달러, 가족 소득은 1,388달러, 가구 소득은 1,465달러로 전체 해외출생자나 호주 출생자에 비해서 개인소득, 가족소득, 가구소득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출생지별 소득(주급 중앙치)

(단위 : 달러)

	한국 출생	해외 출생	호주 출생	전체
개인(personal)	491	615	688	662
가족(family)	1,388	1,725	1,834	1,734
가구(household)	1,465	1,562	1,539	1,438

* 주 : 개인소득은 선택된 국가에서 태어난 15세 이상 연령인 자의 주별 소득이고, 출생국 가족은 참조인과 그 배우자의 응답에 의해서 결정되며, 중앙 가족소득은 최소한 한명의 15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소득을 언급하지 않은 가정은 배제된다. 또한 출생국의 가구는 가구 구성원의 응답에 의해서 결정되며, 중앙 가구소득은 최소한 한명의 15세 이상의 구성원이 소득을 언급하지 않은 가구는 배제된다.

*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4) 뉴질랜드 재외동포 가정, 교육 및 고용 현황²³⁾

2006년, 2013년 뉴질랜드 센서스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뉴질랜드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뉴질랜드 센서스 조사 대상자에는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모두가 포함된다.²⁴⁾

(1) 연령 및 성별

우선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연령별 인구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13년 10~19세 연령집단의 인구수가 5,84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29세(5,682명),

23) 이 내용은 New Zealand Statistics 2006년, 2013년 센서스 자료 중 관련 항목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24) New Zealand 2013 Census definitions and forms.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info-about-2013-census-data/2013-census-definitions-forms/definitions/c.aspx>에서 2019년 4월 19일 인출

40~49세(5,258명) 순으로 많았다. 2001년 19,026명에 비해 2013년 뉴질랜드 재외동포 수는 30,174명으로 1만 명 넘게 증가한 상태이며, 2006년에 비해서는 전체 재외동포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6 뉴질랜드 재외동포 연령별 인구수

(단위 : 명)

년도	전체	연령(세)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
2001	19,026	2,655	4,914	3,204	3,009	3,534	1,161	345	207
2006	30,792	3,432	8,841	4,491	4,008	6,534	2,454	657	381
2013	30,174	3,021	5,847	5,682	3,996	5,268	4,386	1,362	606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nzdotstat.stats.govt.nz/wbos/Index.aspx?DataSetCode=TABLECODE8021&_ga=2.41089698.1019563483.1555447947-917658037.1555447947#](http://nzdotstat.stats.govt.nz/wbos/Index.aspx?DataSetCode=TABLECODE8021&_ga=2.41089698.1019563483.1555447947-917658037.1555447947#에서)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 연령별 인구수의 합이 전체 인구수가 동일하지 않은데 원자료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음 표에는 뉴질랜드 재외동포 연령집단 비율을 뉴질랜드 내 아시안 비율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3년 결과에 국한해 볼 때, 뉴질랜드 전체 인구, 아시안 집단과 비교할 때 한인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집단은 30~64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시안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한인 중 15세 미만 연령집단의 비율은 약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령 중앙값의 경우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인 남성의 연령 중앙값은 2006년, 2013년 모두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 비교할 때 낮은 반면, 2013년 한인 여성의 연령 중앙값은 아시안에 비해서는 높고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뉴질랜드 재외동포 연령집단 및 성별 연령 중앙값

(단위 : %, 연령)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2006	2013	2006	2013	2006	2013
연령집단 비율(%)						
15세 미만	25.7	17.9	21.7	20.6	21.5	20.4
15~29세	28.8	30.4	31.0	28.0	20.2	19.9
30~64세	43.5	48.1	42.8	45.6	46.0	45.4
65세 이상	2.1	3.6	4.5	5.8	12.3	14.3
연령 중앙값						
남성	23.3	28.5	26.7	29.3	35.1	36.9
여성	29.6	33.4	29.9	31.8	36.7	38.9
전체	25.8	31.2	28.3	30.6	35.9	38.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Age,sex,andethnicities#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2) 출생지

다음으로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출생지별 연령집단 비율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출생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2006년, 2013년 모두 15세 미만(각각 94.7%, 81.1%)이며, 해외 출생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집단은 30~64세 연령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뉴질랜드 재외동포의 출생지별 연령집단 비율

(단위 : %)

구분	뉴질랜드 출생		해외 출생	
	2006	2013	2006	2013
15세 미만	94.7	81.1	21.1	10.0
15~29세	4.5	17.7	30.4	31.9
30~64세	0.8	1.2	46.4	54.0
65세 이상	0.0	0.1	2.2	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Birthplace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3) 구사 언어

2013년 뉴질랜드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재외동포들 중 1개 언어만을 구사한다고 응답한 연령집단은 65세 이상 집단이 67.3%로 가장 많았고, 2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15~29세 집단이 71.8%로 가장 많았다. 15세 미만 집단의 경우에도 2개 언어 구사 응답이 1개 언어 구사 응답 비율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다. 전체 뉴질랜드 동포들의 언어 구사 비율은 2개 언어 구사자(61.1%)가 1개 언어 구사자(34.2%)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뉴질랜드 재외동포 구사 언어

(단위 : %)

구분	1개 언어	2개 언어	3개 이상
15세 미만	30.4	58.5	2.1
15~29세	23.2	71.8	4.9
30~64세	40.1	57.7	2.2
65세 이상	67.3	30.7	1.7
전체 재외동포 인구 비율	34.2	61.1	3.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Languagesspoken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한편 2013년 뉴질랜드 센서스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가 가장 익숙하다고 응답한 뉴질랜드 재외동포 비율은 2006년 86.8%에 비해 2013년 85.9%로 감소했으며, 해외 출생 재외동포의 한국어 구사 비율이 88.3%에 비해, 뉴질랜드 출생 재외동포의 한국어 구사 비율은 66.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²⁵⁾

(4) 교육수준

뉴질랜드 거주 15세 이상 재외동포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한인들의 최고학력은 해외에서 중등학교 졸업장 소지자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뉴질랜드 대학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비율이 27.7%로 높았다. 이는 현재 뉴질랜드 재외동포들 중 다수가 한국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뉴질랜드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재외동포들 중 대학 학사 및 그 이상 학위 소지자 비율은 아시안 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반면,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0 뉴질랜드 재외동포 교육수준

(단위 : %)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2006	2013	2006	2013	2006	2013
무자격증	6.7	6.8	12.3	12.0	25.0	20.9
Level 1~4	27.9	26.9	26.1	23.3	43.6	43.0
Level 5~6	4.3	5.6	8.0	8.6	9.5	9.3
대학 학사 및 그 이상	22.2	27.7	29.2	33.2	15.8	20.0
해외 중등학교 졸업장	38.8	33.0	24.5	23.0	6.1	6.7
공식 자격증 취득인구	93.3	93.1	87.7	88.0	75.0	79.1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Education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 뉴질랜드 학위 중 Level 1~4는 한국의 고졸, Level 5~6은 전문학사(전문대학 또는 사설 교육기관 수여)와 유사하지만 각 레벨별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함.

25)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LanguageSpoken 2019년 4월 17일 인출

(5) 소득

2006년과 2013년 뉴질랜드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재외동포 중 1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앙값은 2006년 NZ \$7,600인데 비해 2013년 NZ \$11,500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아시안은 한인에 비해 약 2배 가량 소득 중앙값이 높고,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약 3배 가량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1 뉴질랜드 재외동포 소득 중앙값

(단위 : NZ \$)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2006	2013	2006	2013	2006	2013
소득 중앙값(NZ \$)	7,600	11,500	14,500	20,100	24,400	28,50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Income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quickstats-income/personal-income-ethnic.aspx>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한편,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의 주요 소득원은 임금 소득(38.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없음(24.9%)²⁶⁾, 자영업 또는 사업(19.0%)으로 나타났다. 아시안 집단의 임금 소득 비율은 55.7%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 중 임금 소득 비율과 유사한 데 비해,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의 임금 소득 비율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 또는 사업 소득 비율은 아시안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26) 소득원 '없음'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와 뉴질랜드에서 유학중인 학생 비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I-22 뉴질랜드 재외동포 주요 소득원

(단위 : %)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없음	24.9	16.6	7.5
임금	38.0	55.7	57.7
자영업 또는 사업	19.0	12.5	15.4
이자, 배당, 임대, 투자 등	8.3	12.0	20.9
산재보험	0.3	0.3	1.2
뉴질랜드 연금	3.1	4.7	16.8
그 외 연금	0.3	1.0	2.7
소득 보조금	18.8	14.9	16.2
기타	4.1	2.5	1.9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Income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6) 노동시장 지위

2013년 기준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 중 55.5%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44.5%로, 아시안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아시안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나 비교할 때,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의 고용 비율 역시 49.2%로 낮은 편이다. 파트타임 고용에 비해 풀타임 고용 비율이 높긴 하지만, 풀타임 고용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3 뉴질랜드 재외동포 노동시장 지위

(단위 : %)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2006	2013	2006	2013	2006	2013
풀타임 고용	28.8	34.9	42.4	45.9	50.1	48.0
파트타임 고용	13.0	14.3	14.5	12.8	14.9	14.3
총 고용 비율	41.8	49.2	56.9	58.7	65.0	62.3
실업	4.5	6.3	5.3	5.7	3.5	4.8
총 경제활동인구	46.3	55.5	62.2	64.4	68.5	67.1
비경제활동인구	53.7	44.5	37.8	35.6	31.5	32.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Labourforce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7) 가구 구성

2013년 뉴질랜드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의 가구 구성은 단독 가구 비율이 83.2%로 가장 높다. 아시안 집단의 경우, 단독 가구 비율이 75.0%로 가장 높긴 하지만 2세대 가구 비율도 14.1%로 한인 및 뉴질랜드 전체 인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준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 역시 단독 가구 비율이 78.8%로 가장 높지만, 1인 가구 비율이 8.9%로 그 다음으로 높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뉴질랜드 재외동포 가구 구성

(단위 : %)

구분	한인	아시안	뉴질랜드 전체 인구
단독 가구	83.2	75.0	78.8
2세대 가구	7.8	14.1	6.7
3세대 이상 가구	0.5	2.0	0.8
다인 가구(예: 룸 셰어)	6.0	6.0	4.8
1인 가구	2.5	2.9	8.9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 New Zealand Statistic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Householdsandfamilies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3. 호주 · 뉴질랜드 재외동포단체 및 청소년 교육기관 현황

1) 재외동포단체 현황

(1) 호주 동포단체 현황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의하면, 호주에 있는 동포단체는 2018년도 4분기 현재 한인회, 복지·봉사단체, 경제단체, 체육단체, 군 관련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단체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회는 시드니한인회, 퀸즈랜드한인회, 골드코스트한인회, 다윈한인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호주한인총연합회가 있고, 복지·봉사단체에는 이민정착 지원을 하는 호주한인복지회와 K-CAS(Korean Caring Sharing), 지역사회 등 클린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진우회가 있다. 경제단체로는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세계 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역상우회, 그리고 호주 주류사회 진출 비즈니스를 하는 콜링맨이 있으며, 체육단체로는 재호주대한체육회, 국민생활

체육회가 있다. 군 관련단체로는 재향군인회 호주지회, 6.25 참전 유공자회 호주지회,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 해병대전우회 호주연합회가 있다. 종교단체로는 개신교회가 약 300개 있으며, 천주교회 2개, 사찰이 4개가 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칸토포유, 호주한국문학협회, 퀸즈랜드 한인오케스트라, 한상대문화학교가 있고,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단체로는 한인 차세대 전문직 중심 단체인 케이 리더스, 한인변호사협회, 시드니대, UNSW, UTS, 맥쿼리 등 각 대학별 유학생회가 있다. 기타 단체로는 민주평통협의회, 광복회 호주지회,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 호주한인공익재단, 북한 인권 개선 호주운동본부, 교육자협의회, 각 지역 향우회, 학교별 동창회, 노인회 등이 있다(주시드니총영사관, 2018).

한인회에서는 한국문화를 동포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의 날²⁷⁾, 한인의 날²⁸⁾, 문화·음식축제²⁹⁾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호주 퀸즈랜드에서는 한인종합문화회관을 개관하여 각종 한인단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사물놀이, 한복예절 등 한인 2세와 현지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³⁰⁾하고 있으며, 한인 차세대들의 정계 진출 장려와 한인회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도자 포럼³¹⁾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 옥타 시드니회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경제 확장을 위해 대양주 8개 지회 통합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을 대양주 한인청년들과 함께 진행하였다³²⁾.

27) 재외동포신문(2018. 9. 28.). 캔버라 '한국의 날'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53>에서 2019년 1월 25일 개최

28) 월드코리아(2017. 6. 14.). 호주 퀸즈랜드한인회, 8월 '한인의 날' 개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75>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29) 재외동포신문(2014. 11. 26.). 남부호주한인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69>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0) 연합뉴스(2018. 2. 26.). 호주 퀸즈랜드에 한인사회 첫 종합회관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60839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1) 재외동포신문(2018. 8. 30.). 호주한인총연합회, 캔버라서 '2018 차세대 지도자 포럼'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23>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2) 서울신문(2018. 8. 13.). 월드 옥타, 호주 시드니서 차세대 창업무역스쿨 진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500125&wlog_tag3=daum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인 케이 리더스(Korean Australian Young Leaders, KAY Leaders)는 26대 시드니한인회가 차세대 지도자 발굴, 육성을 기치로 만든 조직인 한인청년포럼의 전신으로 2009년 8월 정식 발족되었으며, 시드니 지역 각 대학 한인학생회의 연합회 결성에 가교 역할을 해왔다³³⁾. 케이리더스는 변호사, 경찰, 공무원, 브랜드매니저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면서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40세 이하 차세대 단체로 한인들의 정계 진출 기반 구축과 한인사회에 대한 주류사회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차세대 지도자 발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간 친선과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스포츠데이, 주류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한인사회가 호주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차원의 자선파티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³⁴⁾³⁵⁾.

광복회 호주지회의 경우에는 호주 한인 청소년들의 민족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민족캠프를 개최³⁶⁾하고 있으며, 산하단체로 53명의 학생들(중등학생 44명, 대학생 9명)로 호주한인 차세대네트워크(Korean Australian Youth Network, KAYN)를 조직하여 호주 한인 차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서로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호 리더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⁷⁾.

33) 한호일보(2011. 1. 27.). 한인단체 탐방 케이리더스.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4) KBS World Radio(2018. 6. 12.).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케이리더스' 이영국 회장.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people&id=&board_seq=335815&page=0&board_code=han_find_k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5) 한호일보(2018. 1. 11.). 한인 차세대 릴레이 인터뷰, 이영국 케이리더스 회장.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35>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6) 월드코리아(2018. 10. 17.). 광복회 호주지회, 제4회 청소년 민족캠프 개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791>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37) 재외동포신문(2018. 6. 20.). 광복회 호주지회, '호주한인 차세대네트워크 출범'.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73>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표 III-25 호주 동포단체 현황

분류	단체명
한인회	시드니한인회, 퀸즈랜드한인회, 골드코스트한인회, 다윈한인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호주한인총연합회
복지·봉사단체	호주한인복지회, K-CAS(Korean Caring Sharing), 진우회
경제단체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역상우회, 콜링맨
체육단체	재호주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군 관련단체	재향군인회 호주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호주지회,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 해병대 전우회 호주연합회
종교단체(NSW주)	개신교회(약 300개), 천주교회(2개), 사찰(4개)
여성단체	코윈(KOWIN), 시드니한인여성회, 여성의 공간(여성 이민정착지원, 가정폭력 방지), 한인간호사협회
문화예술단체	칸토포유, 호주한국문학협회, 퀸즈랜드 한인오케스트라, 한상대문화학교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	케이 리더스, 한인번화사협회, 각 대학별 유학생회(시드니대, UNSW, UTS, 맥쿼리 등)
기타단체	민주평통협의회, 광복회 호주지회(호주 한인 차세대네트워크),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 호주한인공익재단, 북한인권 개선 호주운동본부, 교역자협의회, 각 지역 향우회, 학교별 동창회, 노인회 등

* 출처 : 주시드니총영사관(2018). 호주동포단체 현황(2018년 4분기).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4/view.do?seq=12977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재구성

(2) 뉴질랜드 동포단체 현황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있는 동포단체는 2019년 2월 현재 한인회, 한글학교, 경제단체, 체육단체, 군 관련단체,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 및 유학생단체, 법률단체 및 언론사 등이었다.

우선 한인회는 12개의 한인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오클랜드한인회 규모가 가장 크다. 뉴질랜드 내 한글학교는 총 18개가 있다. 북섬에는 13개의 한글학교가,

남섬에는 5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이다. 오클랜드한국학교는 북부, 동남부, 서부 지역에 3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학생수가 600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글학교(밀알특수학교, 성베드로특수학교) 중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제단체에는 재뉴질랜드상공인연합회, 뉴질랜드해외한인무역협회, 재뉴한국 지상사협의회, 재뉴한인음식업협회, 한인로타리클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뉴질랜드 지회(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NZ), 크라이스트처치 한인무역경제인협회가 포함된다. 체육단체로는 재뉴질랜드대한체육회가, 군 관련 단체에는 재향군인회, 재뉴해병전우회가, 여성단체로는 한국여성회가 활동 중이다.

한편 문화예술단체로는 오클랜드챔버앙상블, 오클랜드레이디싱어즈, 뉴질랜드 한국남성합창단, 국원국악원(Korean Culture Society), 남십자성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 단체에는 오클랜드 대학한인학생회, 웰링턴한인학생회, 김치클럽³⁸⁾이 있다. 그 외 한인변호사협회, 한인언론협회가 활동 중이며, 기타 단체에는 코리안가든트러스트³⁹⁾, 뉴질랜드이 북오도민회, 민주평통뉴질랜드협의회, 노인회, 전국노인회, 코리안헬프라인⁴⁰⁾ 등이 있다.

38) 김치클럽은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 멜리사 리(Melissa Lee) 의원이 한인 1.5세, 2세를 중심으로 만든 교류모임으로 한인사회 내 차세대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도 기능하고 있다(YTN 뉴스, 2014. 4.5.).

39) 코리안가든트러스트는(Korean Garden Trust)는 1997년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자원봉사활동에서 출발하여 2007년 뉴질랜드 내 한국정원을 건설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한국정원 조성을 통한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코리안가든트러스트 홈페이지, 2019. 4.25.).

40) 헬프라인 한인들이 뉴질랜드 현지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각종 생활정보와 이민, 법률, 취업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월드코리아, 2011. 2.2.).

표 III-26 뉴질랜드 동포단체 현황

분류	단체명
한인회	오uckland한인회, 로도루아한인회, 왕가레이한인회, 와이카토한인회, 웰링턴한인회,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더니든한인회, 파머스톤노스한인회, 왕가누이한인회, 넬슨한인회, 퀸스타운한인회, 블레넘한인회
한글학교	[북섬] 오uckland한국학교(북부, 동남부, 서부), 뉴질랜드 한인족학교, 뉴질랜드 밀알특수학교, 성베드로특수학교, 정원한글학교, 와이카토한국학교, 로도루아한글학교, 뉴플리머스한글학교, 파머스톤노스한글학교, 타우랑가한글학교, 웰링턴한글학교 [남섬] 크라이스트처치한국학교, 더니든한글학교, 넬슨한글학교, 블레넘한글학교, 퀸스타운한글학교
경제단체	재뉴질랜드상공인연합회, 뉴질랜드해외한인무역협회, 재뉴한국지상사협의회 ⁴¹⁾ , 재뉴한인음식업협회, 한인로타리클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뉴질랜드 지회(코윈NZ), 크라이스트처치한인무역경제인협회
체육단체	재뉴질랜드대한체육회
군 관련단체	재향군인회, 재뉴해병전우회
여성단체	한국여성회
문화예술단체	(사)오uckland챔버앙상블, (사)오uckland레이디싱어즈, 뉴질랜드한국남성합창단, 국원국악원 ⁴²⁾ , 남십자성예술단, 한뉴문화원, 조이플러스오케스트라, 더울림, 한국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 뉴질랜드기타앙상블, 한뉴우정협회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	오uckland대학한인학생회, 웰링턴한인학생회, 김치클럽
법률단체	한인변호사협회
언론사	한인언론협회
기타	코리안가든트러스트, 뉴질랜드이북오도민회, 민주평통뉴질랜드협의회, 노인회, 전국노인회, 코리안헬프라인

* 출처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2019. 2. 19.). 뉴질랜드 동포단체 현황 내부자료.

** 뉴질랜드대사관 관할 단체 및 오uckland분관 관할 단체를 종합한 것임.

41) 한국상사지사협의회(Korean Investors & Traders Association)는 당시 미국에 진출한 상사, 지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 환경개선을 위해 1980년대 초에 설립 되었으며 1996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http://www.kita.com/about/>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42) 국원국악원은 1994년에 설립된 한국 전통음악 및 무용을 교육하는 곳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nzkoreanculture/posts/663035517118120>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2)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기관 현황

(1) 대륙별 현황

2017년도 재외동포 교육기관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북미가 969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298개), 러시아 및 CIS(207개), 유럽(112개), 중남미(85개), 대양주(71개), 아프리카 및 중동(46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아시아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프리카 및 중동(4개), 중남미(1개)의 순이었고, 대양주, 북미, 유럽에는 한국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아시아가 17개로 가장 많았고, 북미(8개), 러시아 및 CIS(7개), 유럽(4개), 중남미(3개), 대양주(2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단위: 명, 개)

지역별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교육원수	파견인원
아시아	298	2,310	19,034	25	1,263	13,278(573)	17	17
대양주	71	899	5,796	-	-	-	2	2
북미	969	9,924	52,863	-	-	-	8	9
중남미	85	723	5,321	2	59	340(22)	3	3
유럽	112	917	6,132	-	-	-	4	4
러시아/CIS	207	653	9,037	1	12	88(9)	7	9
아프리카/중동	46	363	1,880	4	20	64(17)	-	-
계	1,788	15,789	100,063	32	1,354	13,770(621)	41	44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 9. 221, 222, 229에서 편집

대륙별·교급별 한글학교 학생 수와 교원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98개교의 학생 수가 총 19,034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2,794명, 초등학생은 8,790명, 중학생은 1,486명, 고등학생은 788명, 성인은 5,176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298개 학교에 2,31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단위: 명, 개)

지역	학 생						학교수	교원수
		유	초	중	고	성인		
아시아	일시	1,645	5,316	884	398	452	19,034	298
	영주	1,149	3,474	602	390	4,724		
	소계	2,794	8,790	1,486	788	5,176		
대양주	일시	71	209	37	33	30	5,796	71
	영주	1,411	3,119	458	225	203		
	소계	1,482	3,328	495	258	233		
북미	일시	1,028	1,799	409	296	117	52,863	969
	영주	11,386	24,470	7,028	3,842	2,488		
	소계	12,414	26,269	7,437	4,138	2,605		
중남미	일시	105	279	54	29	38	5,321	85
	영주	660	1,762	631	477	1,286		
	소계	765	2,041	685	506	1,324		
유럽	일시	435	816	161	82	123	6,132	112
	영주	904	1,474	503	338	1,296		
	소계	1,339	2,290	664	420	1,419		
러시아/CIS	일시	130	413	166	49	184	9,037	207
	영주	534	1,675	1,502	1,249	3,035		
	소계	664	2,088	1,668	1,298	3,219		
아프리카/중동	일시	130	490	84	26	12	1,880	46
	영주	221	427	91	51	348		
	소계	351	917	175	77	360		
총계	일시	3,544	9,322	1,795	913	956	100,063	1,788
	영주	16,365	36,401	10,815	6,572	13,380		
	소계	19,909	45,723	12,610	7,485	14,336		

* 출처 :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 9에서 수정함

대양주 지역의 경우에는 71개교의 학생 수가 총 5,796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1,482명, 초등학생은 3,328명, 중학생은 495명, 고등학생은 258명, 성인은 233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71개 학교에 899명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969개교의 학생 수가 총 52,863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12,414명, 초등학생은 26,269명, 중학생은 7,437명, 고등학생은 4,138명, 성인은 2,605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969개 학교에 9,924명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85개교의 학생 수가 총 5,321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765명, 초등학생은 2,041명, 중학생은 685명, 고등학생은 506명, 성인은 1,324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85개 학교에 723명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112개교의 학생 수가 총 6,132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1,339명, 초등학생은 2,290명, 중학생은 664명, 고등학생은 420명, 성인은 1,419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112개 학교에 917명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및 CIS 지역의 경우에는 207개교의 학생 수가 총 9,037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664명, 초등학생은 2,088명, 중학생은 1,668명, 고등학생은 1,298명, 성인은 3,219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207개 학교에 653명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46개교의 학생 수가 총 1,880명이었으며, 그 중 유치원생은 351명, 초등학생은 917명, 중학생은 175명, 고등학생은 77명, 성인은 360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46개 학교에 363명으로 나타났다.

(2) 호주 · 뉴질랜드 현황

2017년도 호주에 있는 한글학교 학생 수는 총 4,433명이었으며, 이 중 유치원생은 1,051명, 초등학생은 2,643명, 중학생은 377명, 고등학생은 220명, 성인은 142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54개 학교에 6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호주·뉴질랜드 한글학교 학생 수 및 교원 수

(단위 : 명, 개)

지역		학 생						학교수	교원수	
			유	초	중	고	성인			계
호 주	멜번	일시	1	3	1	12	0	386	2	35
		영주	78	145	20	68	58			
		소계	79	148	21	80	58			
	시드니	일시	21	80	9	6	2	3,489	42	481
		영주	827	2,115	285	100	44			
		소계	848	2,195	294	106	46			
	호주 연방	일시	2	10	0	0	1	414	7	63
		영주	112	219	31	13	26			
		소계	114	229	31	13	27			
	계	일시	29	136	28	32	3	4,433	54	619
		영주	1,022	2,507	349	188	139			
		소계	1,051	2,643	377	220	142			
뉴질랜드	주 뉴질랜드	일시	2	7	5	0	27	322	7	49
		영주	72	137	26	17	29			
		소계	74	144	31	17	56			
	주 오클랜드	일시	40	66	4	1	0	1,041	10	231
		영주	317	475	83	20	35			
		소계	357	541	87	21	35			
	계	일시	42	73	9	1	27	1,363	17	280
		영주	389	612	109	37	64			
		소계	431	685	118	38	91			

* 출처 :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2에서 수정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학생 수가 총 1,363명이었으며, 이 중 유치원생은 431명, 초등학생은 685명, 중학생은 118명, 고등학생은 38명, 성인은 91명이었다. 또한 교원 수는 17개 학교에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원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호주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으며, 파견자 수도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은 1989년에 설립되어, 2018년 현재 호주 67개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여 8,500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⁴³⁾, 재외동포용 교재 무상 지원 등 주말 한글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⁴⁴⁾, 한국교육원 내 성인 대상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유학생 상담 및 유학생 유지활동 지원, 한국어 전문가 지원단 구성·운영, 교육교류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⁴⁵⁾.

표 III-30 호주·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단위: 개, 명)

관할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연월일	파견자수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주시드니(총)	시드니한국교육원	'89. 08. 01	1	43	3,513	483
오클랜드(총)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2. 04. 01	1	17	1,074	277

* 출처 :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 재외동포재단. p. 229.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글학교 운영비 및 맞춤형 사업비 지원,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지원, 한글학교 교사 국내외 연수 및 재외동포 자녀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글학교 방문 장학 및 학교 컨설팅, 한인학교 협의회, 한글학교 교장단 활동 지원 등의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세계화 사업으로 뉴질랜드 초·중·고 35개교에 한국어 과목의

43)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44)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안내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4_03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45) 시드니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소개자료 <http://www.auskec.kr/bbs/page.php?hid=work>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신설·운영 지원, 뉴질랜드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한국어 교사 연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전통문화체험 교육, 뉴질랜드 교장단 한국방문 연수, 한국어 교사 연구회 활동 지원 등의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고, 뉴질랜드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뉴질랜드 간 교육 협력 강화 사업으로 뉴질랜드 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국내·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뉴질랜드 교육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한국 및 뉴질랜드 교육자료 수집 및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⁴⁶⁾.

4. 거주국과 대한민국 동포정책 및 지원 현황

1) 외교부(재외동포재단) 관련 정책 및 사업⁴⁷⁾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육성, 한글학교 교사 육성, 재외동포 교류 지원,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사업이 있다.

한글학교 운영사업으로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스터디 코리아(study.korean.net) 운영, 교육자료 지원 사업이 있다. 한글학교 운영비는 2017년 현재, 전체 지원액 12,753,120달러 중에서 뉴질랜드 2개 공관에 221,630달러, 호주 3개 공관에 348,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 학생이 참가하는 정체성 함양 캠프, 차세대 교사 육성 프로젝트, 지역·언어권·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계기성 기념사업 등과 같은 한글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전체 266개 사업 606,500달러 중에서 뉴질랜드 2개 공관에

46)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원 소개자료

http://www.nzkoreanedu.com/bbs/content.php?co_id=sub01_2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47) 이 내용은 재외동포재단(2017b). 201년 결산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14,500달러와 호주 2개 공관에 26,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b: 34~40). 스티디코리안 운영사업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한글학교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재외동포 유아·청소년·성인 학습자용 및 한글학교 교사용 한국어 학습 콘텐츠, 한국문화, 국가, 동요, 국악 등 보조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자료 지원사업은 전 세계 967개 한글학교 대상으로 EBS 한글보조 교재 ‘한글이 야호2’ 총 2,084세트를 구매·조달하여 각 학교당 2세트를 지원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b: 43~44).

표 III-3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정책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한글학교 육성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 스티디코리안 운영 • 교육자료 지원 사업
한글학교 교사 육성	•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 한글학교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 •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재외동포 교류지원	• 동포단체 활성화지원 • 차세대단체 지원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 사업 지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 사업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 초청 사업 • OK Friends 자원봉사단 운영

* 출처 : 재외동포재단(2017b). 2017년 결산보고서. 서울 :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육성사업으로는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강사파견,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이 있다. 2017년도 한글학교 교사 현지교사 연수 지원은 총 29개국 47개 공관 59개 단체에 362,500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뉴질랜드는 1개 공관에 6,000달러, 호주는 2개 공관 1,500달러와 4,000달러 등 총 5,500달러를 지원하였다. 2017년도에 강사 파견은 19개국에 47명의 강사를 파견하였는데, 호주는 호주한글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고등학교 교사를 2박 4일을, 그리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한인학교 협의회 교사 연수에 대학교수를 3박 7일 파견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7b: 51~52).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사업은 한글학교 교사와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교사는 48개국에 132명의 교사를 초청하여 교수법 강의 현장활용 교수법 실습, 교안설계 클리닉, 역사문화체험 등 7박 8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한글학교 교장은 29개국에서 54명을 초청하여 관리자 교육, 학교 기록물 관련, 역사문화체험 등 4박 5일간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은 2017년도에 상반기에 18개국 37개 공관에서 78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22개국 35개 공관에서 55명을 선발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7b: 55~57).

재외동포교류지원사업은 동포단체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이 있는데, 호주 및 뉴질랜드 각 지역의 한인회, 한인여성회 등의 단체와 한국의 날 등 한민족 축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재외동포재단, 2017b: 62~64), 특히, 한인학생회, 코리안 멘토즈그룹, KAY 리더스 등 차세대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b: 98).

조사연구사업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를 위한 국내외 연구단체, 학술기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5개국 13개 단체에 13개 사업을 58,000달러 지원하였는데, 호주는 호주리서치센터를 통하여 5,000달러를 지원하여 호주 한인 학부모의 자녀교육 실태 및 교육의식 조사 연구를 실시하게 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7b: 142). 재외동포 재단 초청장학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인재를 모국의

대학의 학사, 석·박사 과정에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학사 과정은 31개국에서 35명, 석·박사 과정은 7개국에서 45명을 신규 선발하였으며, 초청장학생 재학인원은 총 3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7b: 148).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은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와 OKFriends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중고생 모국연수는 53개국 406명, 국내 233명 등 총 639명이 7박 8일 동안 참여하여 통일의식 배양, 모국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모국연구는 19개국 147명, 국내 42명 등 총 189명이 7박 8일 동안 한국문화체험, 토크콘서트, 자원봉사활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재외동포재단, 2017b: 151). OKFriends 자원봉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7년도에는 80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7b: 153)

2) 교육부 관련 정책 및 사업

(1) 호주의 한국어 교육 현황

①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및 지원

호주 67개 초·중등학교에서 8,5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대부분 정규교과(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개교만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원과 교육부 또는 학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3년간 한국어교사 인건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어 채택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자료 구입 및 한국의 날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초·중등학교 교장단 약 20명을 대상으로 한국방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어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한국어교사 협의체 지원, 한국어 학습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⁴⁸⁾.

표 Ⅲ-32 호주의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단위 : 명, 개교)

구분		뉴사우스 웨일즈 (NSW)	퀸스랜드 (QLD)	빅토리아 (VIC)	서호주 (WA)	남호주 (SA)	호주수도 준주 (ACT)	노던 테리토리 (NT)	합계
학생수	2016	5,292	1,005	2,244	278	255	161	-	9,235
	2017	4,994	307	2,368	387	289	276	-	8,621
	2018	5,264	94	2,250	267	289	361	-	8,525
학교수 (2018년)	전체	40	2	12	4	4	5	-	67
	초등	20	-	6	2	1	1	-	30
	중등	19	2	1	2	-	3	-	27
	초·중등 통합	1	-	5	-	3	1	-	10

* 출처 : 시드니한국교육원 홈페이지.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② 토요학교 운영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 교육부 산하의 공립학교인 토요학교(Saturday School of Community Languages)는 중·고등학교 및 직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이민자 자녀와 유학생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로, 중등학교에 다니는 교민 자녀와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없는 경우에 토요일에 지정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통해 한국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학교에서 공부한 교과목과 동일하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토요학교 한국어과정은 학기 중 토요일에 2시간 동안 운영하는 한국어과정(7~10학년)과 대학 입시과목으로서의 한국어과정(11~12학년), 호주

48)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에서 출생했거나 10살 이전에 온 학생만 등록이 가능한 한국어 컨텍스트 과정(Korean in Context), 그리고 호주에 10살 이후에 온 학생이 등록 가능한 한국어와 문학과정(Korean and Literature)이 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토요 학교는 3개 학교가 개설·운영되고 있다⁴⁹⁾.

③ 원격학교 운영

원격학교(NSW School of Languages)는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부 소속의 공립학교로 원거리 교육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9~12학년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11~12학년 학생들은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교재, 온라인 학습활동, 전화 수업, 원거리 화상수업, 포럼 및 전자메일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며, 정기적인 대면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수업할 수 있다⁵⁰⁾.

④ 한국어 몰입교육센터 운영

한국어 몰입교육센터(Korean Hana Centre)는 한국어 몰입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초·중등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숨은 언어적 자질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시간의 한국어 집중몰입 체험학습을 한국어로 진행한다. 센터 방문 학교에 한복체험, 한국놀이, 공예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학교 교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주 원격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⁵¹⁾.

49) 시드니 한국교육원. 주정부 토요학교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2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50) 시드니 한국교육원. 주정부 원격학교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3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51)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어몰입교육센터.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4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2) 뉴질랜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뉴질랜드의 학제는 만 3~5세까지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 초등교육(1~8학년의 초등교육 전 과정을 제공하는 full primary school을 통해 또는 1~6년의 초등학교 과정(primary school)과 7~8학년의 중학교(intermediate school)를 통해 이수), 다양한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과정(9학년~13학년)으로 구성된다.

뉴질랜드 학제	뉴질랜드 학년	한국 학제	한국 학년/나이(만)
Primary school (초등학교)	Year1	유치원	5세
	Year2		6세
	Year3	초등학교	1학년/7세
	Year4		2학년/8세
	Year5		3학년/9세
	Year6		4학년/10세
Intermediate school	Year7		5학년/11세
	Year8		6학년/12세
Secondary school (college/high school)	Year9	중학교	중1/13세
	Year10		중2/14세
	Year11		중3/15세
	Year12	고등학교	고1/16세
	Year13		고2/17세
	University Y1		고3/18세

그림 III-1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 출처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uckland 분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95/view.do?seq=5834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에서 2019년 8월 28일 인출.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재구성

1년은 10주 내외의 4학기(term)로 구성되는데 1, 2, 3학기 종료 후 단기 방학(term break)이 있고 12월 중순 4학기 종료 후 장기 여름방학이 있다. 또한 11학년~

13학년 기간 동안 성적을 종합해 학업성취인증서(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를 발급받게 되며, NCEA를 통해 대학진학 또는 취업이 가능하다(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2018. 12. 6.). 뉴질랜드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및 지원

2019년 4월 현재 뉴질랜드의 40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정규교과로 한국어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교사 인건비 등을 보조하거나 매년 한국어 채택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자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표 III-33 뉴질랜드 한국어 채택 초·중등학교

(단위: 개)

유형 도시	학교	초등학교 (primary)	초·중학교 통합 (full primary)	중학교 (intermediate)	고등학교 (secondary)	총계
Auckland		5	3	11	10	29
Hamilton		1			1	2
Matata			1			1
Wellington		1				1
Roxburgh					1	1
Christchurch		1	1	3	1	6
총계		8	5	14	13	40

* 출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zkoreanedu.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14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 Roxburgh에 개설된 고등학교(secondary)인 NetNZ는 온라인 교육기관임.

② 한국교육원 한국어 수업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어 반(기초, 중급, 심화)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뉴질랜드

현지 성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이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장소와 강사 수급 등의 문제로 더 많은 한국어 반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③ 원격교육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채택 지원 학교 중 NetNZ는 온라인교육기관에 해당한다. NetNZ에 개설된 한국어는 외국어 과정의 한국어와 모국어 과정의 한국어 수업 2개로 나뉘며, 2명의 한국어 교사가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육원은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NetNZ 홈페이지).⁵²⁾ NetNZ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NCEA 학점으로 인정되어 대학진학이나 취업 시 한국어 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가능하다(The Koreanpost 커뮤니티 홈페이지).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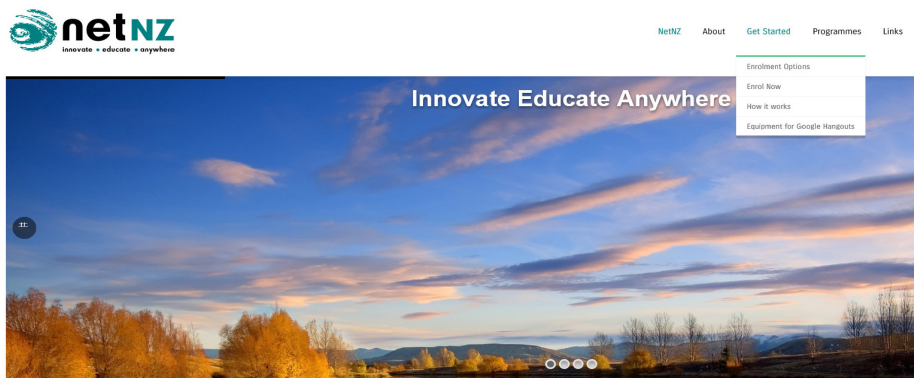


그림 III-2 NetNZ 홈페이지

* 출처 : NetNZ 홈페이지, <http://www.netnz.org/>에서 2019년 5월 3일 인출

52) NetNZ 홈페이지, <http://www.netnz.org/>에서 2019년 5월 3일 인출

53) The Koreanpost 커뮤니티 내 게시물.

http://www.nz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inform&wr_id=16328에서 2019년 5월 3일 인출

○ — 제4장 호주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연령대의 동포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재외동포 중에서 영주권자와 호주 시민권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설문조사가 가능한 고학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과 설문 개발 절차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항목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논의된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적 역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에 적합한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또한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18년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54) 이 장의 1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그리고 2절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책임 집필하되 호주 및 뉴질랜드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였음.

설문조사를 개발하는 절차는 생태학 이론 관련 문헌 검토와 기존 설문지를 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 관련 국내·외 현장 및 이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지 초안의 작성은 일차적으로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충실하게 조사영역을 개인적 역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1차년도인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 중에서 관련된 문항을 찾아서 조사영역에 포함시켰으며, 부족한 조사영역의 문항을 선행 설문조사나 면담 결과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일차적으로 개발된 설문지 초안은 먼저 재외동포 관련 국내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통해서 자문을 받아 수정한 후, 이차적으로 각각 호주, 뉴질랜드의 현장 전문가에 메일로 서면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조사 문항의 개발이 완료된 설문지는 일차적으로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번역된 설문지는 호주, 뉴질랜드의 동포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예비조사와 감수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서 확정하였다.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2)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설문조사의 주요 조사 영역은 첫째, 응답자의 배경 특성, 둘째,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 셋째, 가정, 친구, 학교 등의 미시체계, 넷째, 부모-내 친구, 부모-교사, 부모-타 한인 부모 등의 중간체계, 다섯째,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지역사회 여건, 한국에서의 교육·취업 여건,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등 외체계, 여섯째, 한국문화의 보급, 교포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등 거시체계, 일곱째, 과거 한국문화체험, 과거 한국문화경험, 가정사 및 이민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시간체계, 여덟째, 한민족 정체성, 한국/한인 사회 발전에의 역할 등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영역과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설문지 번호)
배경 변인		- 출생연도(2) - 성별(3) - 학교급(4) - 국적(7) - 부모 국적(8) - 나의 정체성(11)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 한국에 대한 인식	개인적 역량	- 의사소통능력(25) - 사회적 책임의식(26) - 세계시민의식(27)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능력	- 한국어에 대한 관심(12-1) -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12-2) - 한국어 능력(12-3, 4, 5, 6)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 한국에 대한 지식(13-1, 2, 3) - 한국에 대한 인식(13-4, 5, 6, 7)
미시체계	가정	-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한국어사용, 한국음식만들기, 한국 드라마 시청)(16-1, 2, 3) -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한민족정체성, 한국에서의 공부, 한국 기업 취업)(17-1, 2, 3)
	친구	- 동포친구들과의 만남(18-1) - 한국 문화에 관심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18-2)
	학교	-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기관 경험(9, 10) - 한국/한국어 교육기간 다닌 기간(10) - 한국/한국어 교육기간 다니겠다고 결정한 이유(10-1)

조사 영역		조사 항목(설문지 번호)
중간체계	부모 - 내 친구	• 부모-내 친구 인지(18-6)
	부모 - 교사	• 부모-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18-5)
	부모 - 타 한인부모	•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18-4)
외체계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 한국어 강좌 개설 여부(20, 20-1, 20-2)
	지역사회 (한인회) 여건	• 한인회 개최 행사 참석 경험(19-1)
	한국에서의 교육·취업 여건	• 한국에서의 공부 및 취업 욕구(23-3, 4) • 한국에서 공부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24-3, 4)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 거주국 동포캠프/연수 참여 경험(19-2) • 한국 교류프로그램 참여 경험(19-3) •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욕구(23-2) •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24-2)
거시체계	한국문화의 보급	• 한류의 확산(21-1)
	교포사회 문화	•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21-2)
	거주국의 타문화 수용	• 거주국 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21-3)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에 대한 태도	•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21-4)
시간체계	한국문화체험	• 과거 한국 문화 체험 경험(22-1)
	한국방문 경험	• 과거 한국 방문 경험(22-2) • 한국방문이 어려웠던 이유(24-1) • 한국방문 욕구(23-1)
	가정사 및 이민경험	• 거주국에서 살게 된 이유- 이민(5) • 거주국에 가장 먼저 온 세대(6)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14-1) • 한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14-2) • 한국어에 대한 인식 변화(14-3)
종속변수		• 한민족 정체성(15)
		•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28)
		•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29)

설문조사에 활용된 조사항목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① 응답자의 배경변인

배경변인 조사를 위해서 출생연도, 성별, 학교급, 국적, 부모 국적, 나의 정체성을 조사문항에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경준, 정은주(2017)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신분, 국적, 나의 정체성은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②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

개인적 역량은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경준, 정은주(2017)의 연구에서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으로 개발하여 사용된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 국가정체성,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의 6개 요인 중에서 종속변수인 한민족 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에 관련성이 높은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의 3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요인별 문항 구성도 적합도가 높은 3개 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 한국어 능력, 한국에 대한 지식,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조사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③ 미시체계

미시체계에서는 동포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환경으로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과 부모의 인식, 친구들과의 교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은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경준, 정은주(2017)에서 조사한 3개 문항(‘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노래를 듣는다')을 사용하였으며,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은 김정준, 정은주(2017)에서 조사한 문항('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에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와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는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며('동포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와의 만남의 문항('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경험, 기간, 그리고 참여 동기와 관련한 문항은 정은주, 김정숙(2018)과 김정준, 정은주(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④ 중간체계

중간체계는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로서 청소년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선행 연구와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부모의 자녀 친구 인지, 부모들 간의 교류, 부모와 교사간의 교류 등이 청소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관련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즉, 부모-자녀 친구 인지 문항('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부모-교사 교류 문항('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 문항('부모님은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을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⑤ 외체계

외체계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즉각적인 환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동포청소년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지역사회 여건, 한국에서의 교육·취업여건,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강좌 개설 여부(‘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까?’, ‘정규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인회 개최 행사 참석 경험(‘한인회의 한국의 발과 같은 한인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에서의 공부 및 취업욕구와 한국에서 공부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거주국 및 한국 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은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그리고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욕구와 참여가 어려운 이유와 관련한 문항은 김경준, 정은주(2017)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⑥ 거시체계

거시체계는 동포사회 특유의 태도나 신념, 문화, 사회제도 등으로 보았으며, 대표적인 한국문화라 할 수 있는 한류, 교포사회, 거주 국가 및 대한민국의 관심과 노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류의 확산, 교포사회의 한국 문화 확산 노력, 거주국 사회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가 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조사 문항(‘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확산되고 있다’, ‘한인교포사회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거주국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을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⑦ 시간체계

시간체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 특성이 변화하거나 일관성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과거 한국 문화체험 및 한국 방문

경험, 이민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하여 시간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민 경험에 대한 문항은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조사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과거 한국 문화체험 경험 문항(‘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과 과거 한국 경험 문항(‘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 · 한국인 ·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측정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⑧ 한민족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한민족정체성 문항은 정은주, 김정숙(2018)와 김경준, 정은주(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중에서 인지적인 문항(‘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을 수정하고 행위적인 차원의 문항(‘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를 이야기 한다’)을 삭제하여 4개 문항(‘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을 사용하였다.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문항은 정은주, 김정숙(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동포 한인사회의 발전 기여 문항(‘호주/뉴질랜드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거주국에 한국 문화의 홍보 기여 문항(‘호주/뉴질랜드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한국 경제나 한국사회의 발전 기여 문항(‘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남북통일에의 기여 문항(‘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등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에 활용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능력은 4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901이었으며, 한국에 대한 지식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73이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4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16,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9로 나타났다.

표 IV-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요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한국어 능력	4	.901	의사소통 능력	3	.685
한국에 대한 지식	3	.773	사회적 책임의식	3	.785
한국에 대한 인식	4	.716	세계 시민의식	3	.81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3	.879	한민족 정체성	4	.803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3	.530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서의 역할	4	.827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3	.531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530,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531로 나타났다. 미래 인적자원 역량인 의사소통능력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85, 사회적 책임의식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5, 세계시민의식은 3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15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한민족 정체성은 4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03, 한국/한인사회에서의 역할은 4개 문항이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27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2019년 4월~6월 사이에 초·중·고 연령대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표본은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호주 및 뉴질랜드의 재외동포청소년 인구수를 추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인 목적적 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즉, 조사대상 국가인 호주 및 뉴질랜드 국가별로 각각 200명 내외, 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각 70명 내외로 하고, 남녀별로도 비슷한 규모로 할당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동포청소년 개인별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나 해당 지역의 한국교육원이나 한인회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의 한글학교, 재외동포단체 등의 교사나 관계자로부터 조사 승낙을 받은 후에 연구자가 재차 한글학교나 재외동포단체와 접촉하여 조사기간과 조사 규모, 조사방법 등을 확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조사는 IRB 승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서 동포청소년 및 학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관별 최종 조사규모는 동의 여부에 따라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글학교 등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연구자가 작성해서 보내준 조사 유의사항을 참고로 해서 청소년 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된 설문지는 연구자의 출장 기간 중에 완료된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왔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우편으로 보내도록 해서 받았다.

회수된 설문지 457부(호주 225부, 뉴질랜드 232부) 중에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호주 201부, 뉴질랜드 208부로 최종 409부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술통계, 교차분석, F-검증(Sheffe 사후검증), 회귀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2. 면담조사 개요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과 지원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포청소년 및 동포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한국교육원 관계자, 한인회 관계자 등을 포함하였다.

1) 면담조사 절차 및 면담조사 내용

본 연구의 면담조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연구자 1인이 각각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호주 면담조사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호주는 2019년 5월 10일~5월 18일 사이에 연구자가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직접 방문하여 초·중·고 재외동포청소년과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 한글학교 교사, 공립학교 및 교육부 관계자, 한국교육원 관계자, 한인회 관계자 등의 성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호주 면담조사는 시드니한국교육원과 브리즈번 한글학교에 면담대상자 섭외 의뢰, 시드니한국교육원과 브리즈번 한글학교에서 1차로 섭외된 대상자의 최종 확인 및 일부 변경사항 조정, 추가 면담대상자 섭외, 호주 현지 방문 후 면담조사 실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즉, 연구자가 호주를 방문하기 전 3월 말에 시드니 한국교육원과 브리즈번 한글학교에 한글학교 교사, 한인회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 청소년 및 성인 관계자 조사대상에 대한 범위를 알려준 후 섭외를 의뢰하여 면담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그 후 확보된 면담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연구자가 연락 후 면담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연구참여 동의서(청소년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서 포함) 작성에 대한 설명과 면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정하였다. 시드니한국교육원을 통해 명단을 확보한 대학생연합회 회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선출된 회장을 새롭게 섭외하였으며, 호주 한인단체 관계자 소개로 호주 공립학교 교사를 추가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연구자가 직접 섭외하였다. 청소년 면담조사 대상자는 한글학교 교사와 광복회 호주지회 회장과의 협조 하에 성별, 연령, 한국어 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호주 면담조사는 출장기간인 2019년 5월 10일 ~ 5월 18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한글학교가 주말에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한글학교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평일에는 한인회, 광복회, 교육부 관련 관계자 및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호주 현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동포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면담 보조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뉴질랜드 면담조사 절차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 3월 9일~3월 16일 동안 연구자가 오클랜드와 해밀턴을 방문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부모, 한글학교 교사, 한국교육원 관계자, 한인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뉴질랜드 면담조사 참여자 섭외는 한글학교 재학 청소년 및 학부모와 한글학교 비재학 청소년 및 학부모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한글학교 재학 청소년과 학부모 섭외는 뉴질랜드한국교육원, 뉴질랜드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오클랜드 및 해밀턴에 소재한 한글학교 각각 1곳을 확정하고 연구자가 직접 각 한글학교에 연락하여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면담대상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한글학교에 면담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 청소년, 교사 등 면담조사 대상과 범위를 알려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면담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반면, 한글학교 비재학 청소년과 학부모 섭외는 한글학교 학부모 지인을 중심으로 눈팅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외 한인회 관계자와 후기청소년 면담참여자는 오클랜드한인회에 직접 연락하여 명단을 확보한 후 연구자가 연락하여 최종적으로 섭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조사를 위한 출장 기간 전에 면담지와 연구참여 동의서(청소년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서 포함) 작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면담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였다.

뉴질랜드 면담조사는 출장기간인 2019년 3월 9일 ~ 3월 16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한글학교가 주말에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한글학교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평일에는 한인회 관계자, 한글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오클랜드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동포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면담 보조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면담조사의 내용은 호주와 뉴질랜드 공통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조사의 차원에서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재외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한국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과, 한국문화 체험, 방국방문 경험,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 한국 친화적인 활동 경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 한국 관련 교류 욕구 및 지원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성인관계자의 경우에는 주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정체성 문제를 기초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접촉을 위한 환경여건, 동포청소년 캠프 및 교류프로그램 여건, 거주국 및 동포사회의 관심과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면담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성인 관계자의 경우에는 약 1시간 내외,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30~40분 정도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1:1 개별 면담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면담을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1:2 면담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면담참여자의 동의(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포함)를 얻어 면담내용 일체를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면담이 끝난 직후 전사하였다.

2) 면담조사 참여자

호주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21명으로 재외동포청소년 11명과 성인관계자 10명이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청소년 본인이 동의를 한 한글학교와 광복회 호주지회 차세대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만 10세~16세 청소년과 한인대학생연합회 임원이 참여하였으며, 성인 관계자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한국교육원 관계자 및 한글학교 교사,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및 교육부 공무원, 한인회·광복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호주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신분	성별	연령(세)	거주자격	이주기간(년)	비고
성인 1	한인회 임원	남	62	시민권자	32	유학이민
성인 2	한글학교 교사	여	58	시민권자	25	유학이민
성인 3	한국교육원 담당자	남	51	일시체류자	-	-
성인 4	한글학교 교사	여	59	시민권자	31	유학이민
성인 5	한글학교 교사	여	44	시민권자	11	기술이민
성인 6	정규학교 교사	여	49	시민권자	34	유학이민
성인 7	한인단체 임원	남	63	시민권자	31	가족이민
성인 8	한인회 임원	여	37	시민권자	11	유학이민
성인 9	교육부 공무원	여	46	시민권자	16	유학이민
성인 10	한글학교 교사	여	48	시민권자	19	기술이민

구분	신분	성별	연령(세)	거주자격	이주기간(년)	비고
청소년 1	학생	여	14	시민권자	-	호주출생
청소년 2	학생	남	15	시민권자	-	호주출생
청소년 3	학생	여	10	시민권자	-	호주출생
청소년 4	학생	여	15	시민권자	-	호주출생
청소년 5	학생	남	14	영주권자	7	7세 때 이민
청소년 6	학생	여	15	시민권자	7	8세 때 이민
청소년 7	학생	여	14	시민권자	11	3세 때 이민
청소년 8	학생	남	15	시민권자	-	호주출생
청소년 9	학생	남	16	시민권자	13	3세 때 이민
청소년 10	학생	여	15	시민권자	8	7세 때 이민
청소년 11	대학생	남	21	시민권자	10	교육목적 이민

뉴질랜드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28명으로 재외동포청소년 12명과 성인관계자 16명이었다. 재외동포청소년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본인이 동의한 한글학교 재학 청소년과 한글학교 비재학 청소년, 오클랜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성인 관계자의 경우에는 한국교육원 관계자 및 한글학교 교사,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등 1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뉴질랜드 면담조사 참여자

구분	신분	성별	연령(세)	거주자격	이주기간(년)	비고
성인 1	교사	여	46	시민권자	22	이민
성인 2	주부	여	56	영주권자	11	이민
성인 3	자영업	여	46	영주권자	21	이민
성인 4	간호사	여	44	영주권자	9	이민
성인 5	자영업자	여	42	시민권자	22	이민
성인 6	농부/자영업자	남	64	시민권자	27	이민
성인 7	주부	여	44	시민권자	26	이민
성인 8	목사	남	55	시민권자	24	이민

구분	신분	성별	연령(세)	거주자격	이주기간(년)	비고
성인 9	자영업자	남	46	영주권자	10	이민
성인 10	주부	여	45	일시체류자	6	교육목적
성인 11	한글학교 교사	여	48	시민권자	25	이민
성인 12	한글학교 교사	여	49	시민권자	25	이민
성인 13	한인회 임원	여	47	영주권자	8	이민
성인 14	한인회 임원	남	28	시민권자	17	11세 때 이민
성인 15	한국교육원 담당자	남	46	일시체류자	2	교육전문가
성인 16	교사	여	49	시민권자	25	이민
청소년 1	학생	여	12	영주권자	11	2세 때 이민
청소년 2	학생	남	15	영주권자	11	4세 때 이민
청소년 3	구직 활동 중	여	21	시민권자	-	뉴질랜드 출생
청소년 4	학생	여	14	영주권자	12	2세 때 이민
청소년 5	학생	여	14	영주권자	9	5세 때 이민
청소년 6	대학생	여	22	일시체류자	4	유학
청소년 7	대학생	여	21	시민권자	11	10세 때 이민
청소년 8	대학생	남	21	영주권자	13	12세 때 이민
청소년 9	학생	여	15	영주권자	11	4세 때 이민
청소년 10	학생	남	12	시민권자	-	뉴질랜드 출생
청소년 11	학생	남	13	영주권자	12	1세 때 이민
청소년 12	학생	남	17	영주권자	9	8세 때 이민

3) 분석 방법

연구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면담자료 전사가 완성 되는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조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핵심주제를 도출하면서 최종 분석을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분석틀인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면담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질적자료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다. 이 방법은 당초 질적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에 의거한 질적자료 분석방법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분석방법이 용이하고 다양한 질적자료를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한 점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324).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대체로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개방 코딩은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에 이름을 명명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범주화는 개방 코딩을 통해 분류한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묶거나,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범주화 작업은 개방 코딩에 비해 보다 추상적이며, 귀납적인 성격을 띤다. 즉 자료를 분류할 범주를 사전에 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분류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범주를 귀납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은 구성된 범주가 개방 코딩 전 단계의 원자료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범주 확인 과정은 개방 코딩과 범주화 작업이 귀납적 성격을 띤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연역적 성격을 띤다(유기웅 외, 2018: 328-337).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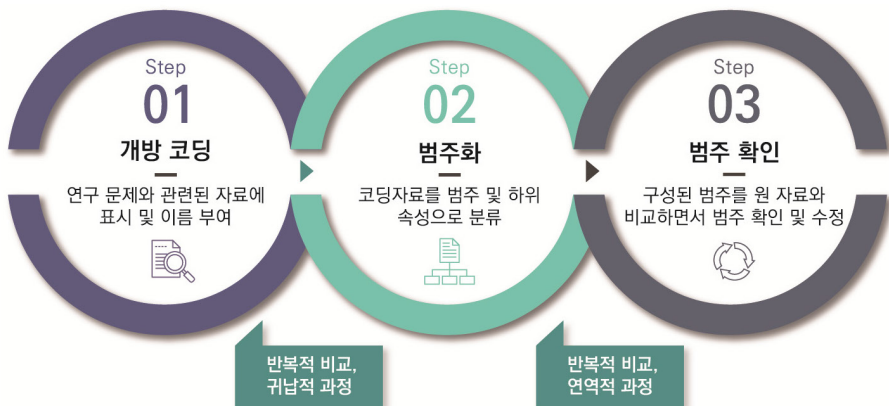


그림 IV-2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

* 출처 : 유기웅 외(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p. 328.



제5장 호주 동포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 호주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 3. 소결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동포청소년의 개인적 역량과 의식 및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능력,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미시체계(가정, 친구, 교육기관), 중간체계(친인척 모임, 부모-내 친구 인지, 부모-교사와의 교류,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 외체계(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지역사회 여건,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여건,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거시체계(한류의 확산,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호주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시간체계(가정사 및 이민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 한국문화 체험 경험, 한국방문 경험 및 욕구,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민족정체성 및 동포사회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의 응답자수는 총 201명이었다. 이들 응답자들에 대한 배경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현재 신분, 연령, 현재 국적, 정체성,

55)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부모의 인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60.7%, 남학생이 39.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포가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33.5%), 중학생(29.1%)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4.02세였다.

표 V-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1	100
성별	여	122	60.7
	남	79	39.3
현재신분	초등학생	69	33.5
	중학생	60	29.1
	고등학생	72	35.0
평균연령		14.0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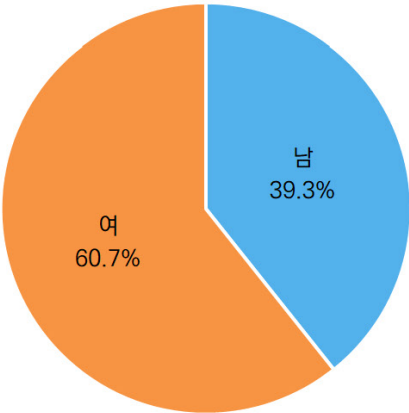


그림 V-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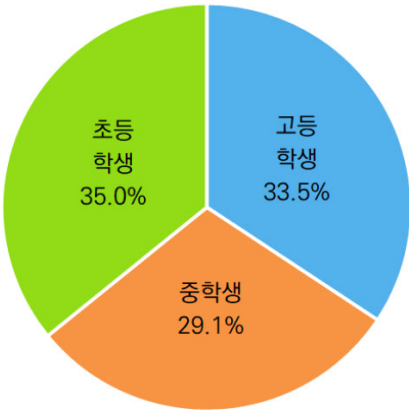


그림 V-2 현재신분

설문조사 응답자의 현재의 국적 상황을 살펴보면,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48.7%, 호주와 대한민국의 이중 국적자가 31.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18.6%, 기타 1.5%로 현재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 정도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V-2 현재 국적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호주	97	48.7
이중국적(호주+대한민국)	62	31.2
대한민국	37	18.6
기타	3	1.5
전체	1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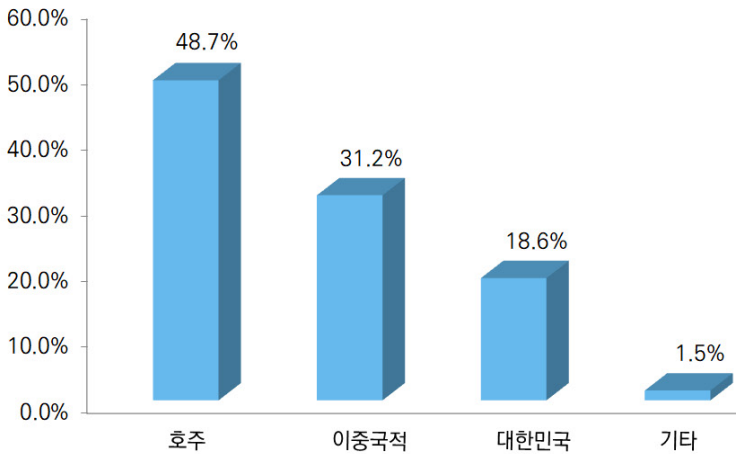


그림 V-3 현재국적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한국계 호주인이 69.1%로 가장 분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인(24.7%), 호주인(5.7%), 기타(0.5%)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호주 국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계 호주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한국 국적에 비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나의 정체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한국인	48	24.7
한국계 호주인	134	69.1
호주인	11	5.7
기타	1	0.5
전체	1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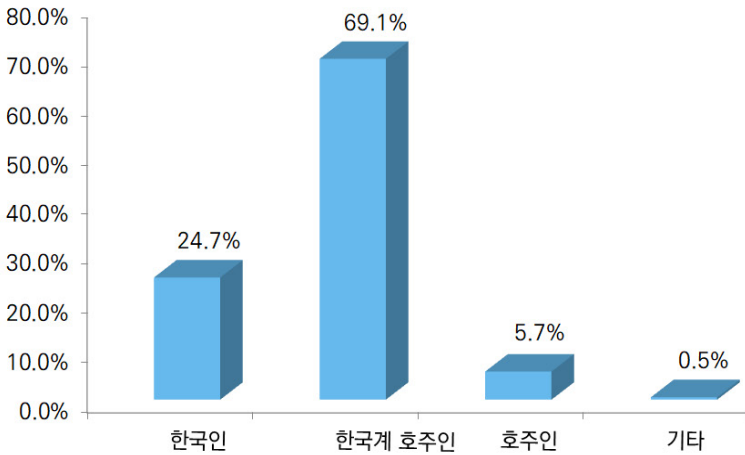


그림 V-4 나의 정체성

설문조사 응답자 부모의 인종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한인인 경우가 93.5%, 어머니만 한인인 경우가 5.5%, 아버지만 한인인 경우가 0.5%, 부모 모두 한인이 아닌 경우가 0.5%로, 대부분의 부모가 모두 한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부모의 인종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부모 모두 한인	187	93.5
어머니만 한인	11	5.5
아버지만 한인	1	0.5
부모 모두 한인 아님	1	0.5
전체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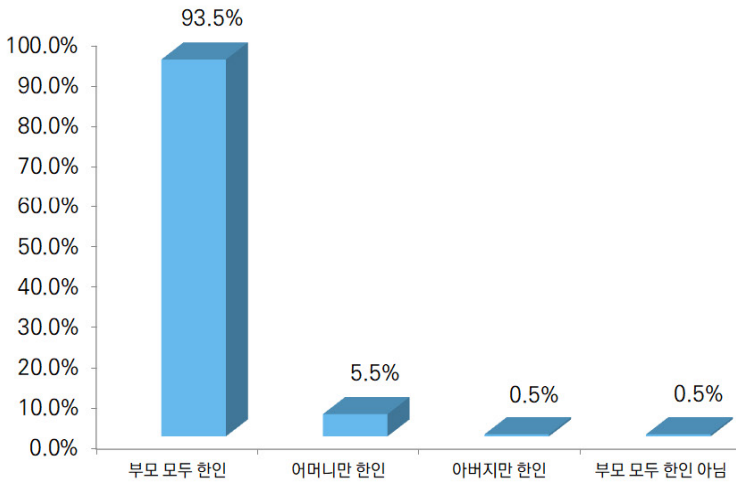


그림 V-5 부모의 인종

2)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

(1)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사회적

책임의식의 평균 점수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시민의식(4.09), 의사소통능력(3.8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 동포 청소년들의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5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	200	3.88	0.63
사회적 책임의식	197	4.24	0.60
세계시민의식	197	4.09	0.64
전 체	194	4.06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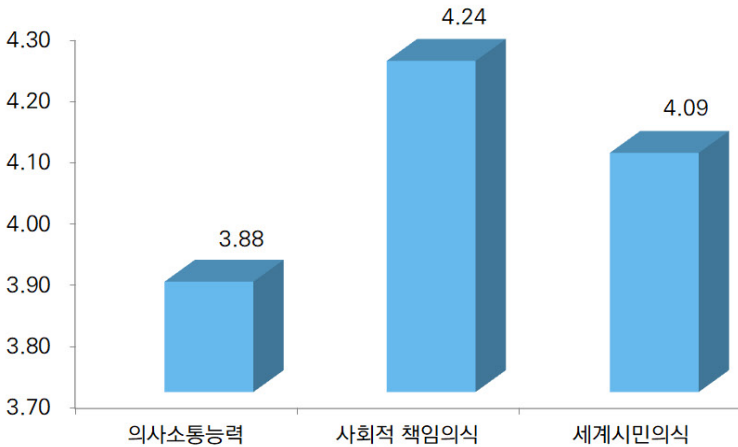


그림 V-6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의 각 역량별로 문항별 및 배경변인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1로 가장 높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가 3.84,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가 3.73으로 나타났다.

표 V-6 의사소통능력(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200	3.84	0.80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200	3.73	0.85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200	4.08	0.77
전 체	200	3.88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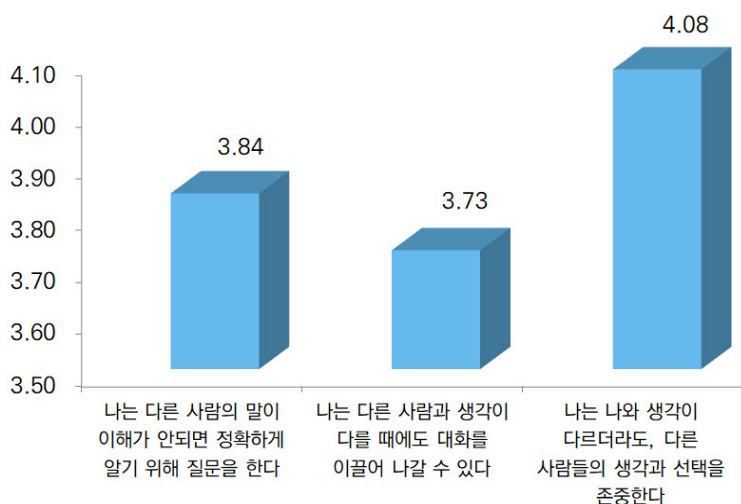


그림 V-7 의사소통능력(문항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차이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급, 국적,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점수가 높았는데, 고등학생(3.99)이 초등학생 (3.72)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이중국적자(4.01)가 대한민국 국적자(3.58)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았다.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도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약 3년(39개월) 미만의

집단(3.66)보다 약 6~8년(73~96개월)의 경험한 사람들(3.97)의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의사소통능력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0	3.88	0.63	3.524*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8	3.72	0.68		
	중학생	60	3.93	0.57		
	고등학생	72	3.99	0.61		
국적	전체	195	3.88	0.64	5.715**	이중국적 > 대한민국
	호주	96	3.91	0.57		
	이중국적	62	4.01	0.69		
	대한민국	37	3.58	0.63		
한국어교육 참여기간	전체	179	3.89	0.63	3.169*	3분위 > 1분위
	1분위(1~39개월)	45	3.66	0.55		
	2분위(40~72개월)	49	3.90	0.69		
	3분위(73~96개월)	42	4.04	0.71		
	4분위(97~132개월)	43	3.97	0.48		

* 주 : * $p < .05$, ** $p < .01$

사회적 책임의식의 문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27로 가장 높았고,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24였으며,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	4.27	0.70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8	4.24	0.75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	4.19	0.70
전 체	197	4.24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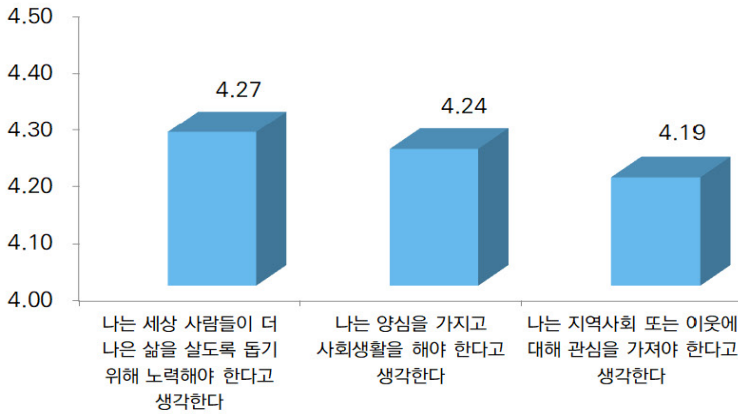


그림 V-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배경변인별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국적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국적별로는 이중국적자(4.39)가 대한민국 국적자(4.07)에 비해서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사회적 책임의식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사회적 책임의식	전체	192	4.24	0.60	3.706* 이중국적 > 대한민국
	호주	95	4.20	0.59	
	이중국적	60	4.39	0.60	
	대한민국	37	4.07	0.60	

* 주 : * $p < .05$

세계시민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이 4.17로 가장 높았고,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는 문항의 평균이 4.1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문항의 평균이 3.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10 세계시민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97	3.98	0.8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99	4.17	0.69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198	4.12	0.72
전 체	197	4.09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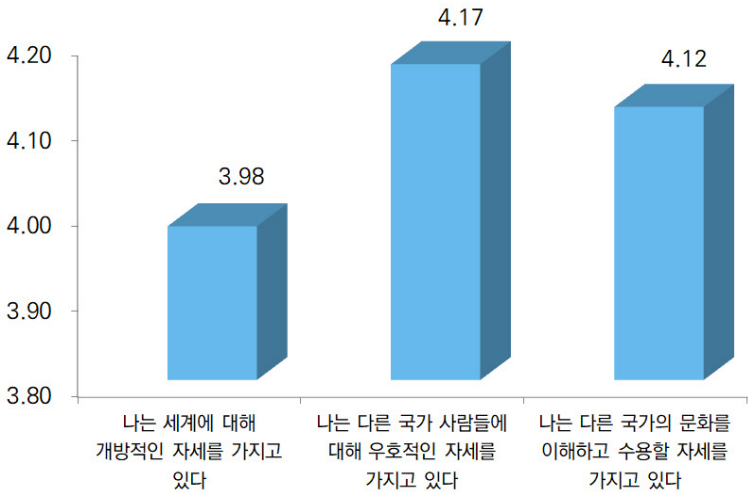


그림 V-9 세계시민의식(문항별)

배경변인별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국적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종국적자(4.15)가 대한민국 국적자(3.85)에 비해서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세계시민의식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국적	전체	192	4.08	0.65	3.057*	이중국적 > 대한민국
	호주	94	4.13	0.59		
	이중국적	61	4.15	0.68		
	대한민국	37	3.85	0.69		

* 주 : * $p < .05$

결과적으로 호주 동포청소년들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동포청소년들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은 학교급과 국적, 그리고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국적은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에 비해서 모든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중국적 동포청소년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능력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를 묻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의 두 문항을 조사하였다. 두 문항을 합산한 평균은 3.93이었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문항의 평균은 3.91,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문항의 평균은 3.96으로 나타났다.

표 V-12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201	3.91	0.82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200	3.96	0.84
전체	200	3.93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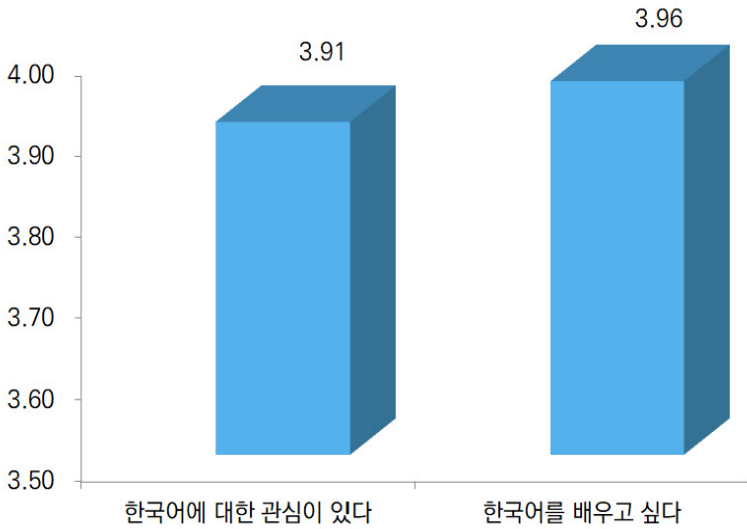


그림 V-10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변인별로 차이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과 나의 정체성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는 참여기간 높은 집단(97~132월)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관심이 높았으며, 나의 정체성에서는 한국인(4.13)이 한국계 호주인(3.78)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한국어에 대한 관심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어 교육 참여 기간	전체	180	3.87	0.83	4.328**	4분위 > 1분위
	1분위 (1~39개월)	45	3.58	0.89		
	2분위 (40~72개월)	49	3.92	0.81		
	3분위 (73~96개월)	43	3.81	0.79		
	4분위 (97~132개월)	43	4.19	0.70		
나의 정체성	전체	193	3.88	0.81	3.768*	한국인 > 한국계 호주인
	한국인	48	4.13	0.79		
	한국계 호주인	134	3.78	0.81		
	호주인	11	4.09	0.70		

* 주 : * $p < .05$, ** $p < .01$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듣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물어보았는데, 한국어 말하기 평균이 4.48, 한국어 듣기 평균이 4.44, 한국어 읽기 평균이 4.33, 한국어 쓰기 평균이 4.11이었으며, 전체 평균이 4.34로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4 한국어 능력(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201	4.48	0.69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201	4.44	0.68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201	4.33	0.83
한국어를 쓸 수 있다	201	4.11	0.99
전체	201	4.34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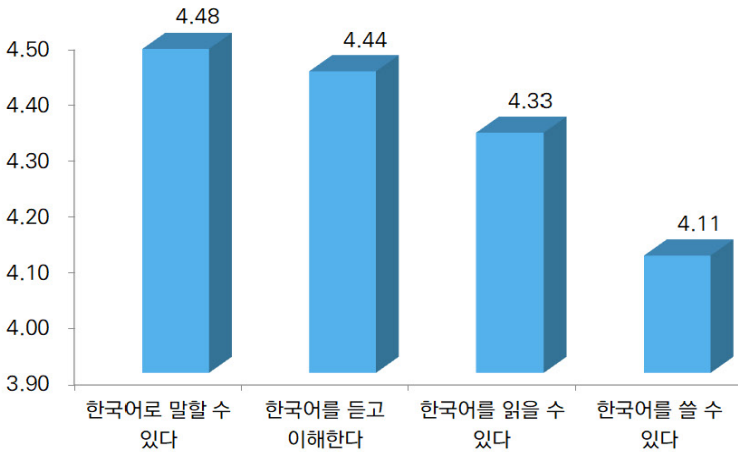


그림 V-11 한국어 능력(문항별)

한국어 능력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국적, 한국어교육 참여기간,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4.16)에 비해 여학생(4.46)의 한국어 능력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자(4.57)와 이중국적자(4.50)가 호주 국적자(4.15)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는 40개월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들(2, 3, 4분위 집단)이 40개월 미만의 집단(1분위 집단)에 비해서 한국어 능력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한국인(4.56)이 한국계 호주인(4.26)보다 한국어 능력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한국어 능력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검증
성별	여	122	4.46	0.61	8.984***	
	남	79	4.16	0.81		
국적	전체	196	4.34	0.71	7.426**	대한민국, 이중국적 > 호주
	호주	97	4.15	0.78		
	이중국적	62	4.50	0.59		
	대한민국	37	4.57	0.56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	전체	180	4.32	0.71	10.662***	2, 3, 4분위 > 1분위
	1분위 (1~39개월)	45	3.87	0.72		
	2분위 (40~72개월)	49	4.42	0.66		
	3분위 (73~96개월)	43	4.39	0.62		
	4분위 (97~132개월)	43	4.61	0.62		
나의 정체성	전체	193	4.34	0.71	3.341*	한국인 > 한국계 호주인
	한국인	48	4.56	0.65		
	한국계 호주인	134	4.26	0.73		
	호주인	11	4.27	0.49		

* 주 : * $p < .05$, ** $p < .01$, *** $p < .001$

호주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기, 쓰기 등 한국어 능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교육 참여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어능력은 성별, 국적, 한국어교육 참여기간,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능력에 단순한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은 관련이 없었고,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의 정체성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능력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었는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능력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한국에 대한 지식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의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평균 점수가 3.46,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는 평균 점수가 3.80,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평균 점수가 4.21로,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식은 높고,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200	3.46	0.93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	199	3.80	0.89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	199	4.21	0.98
전체	198	3.81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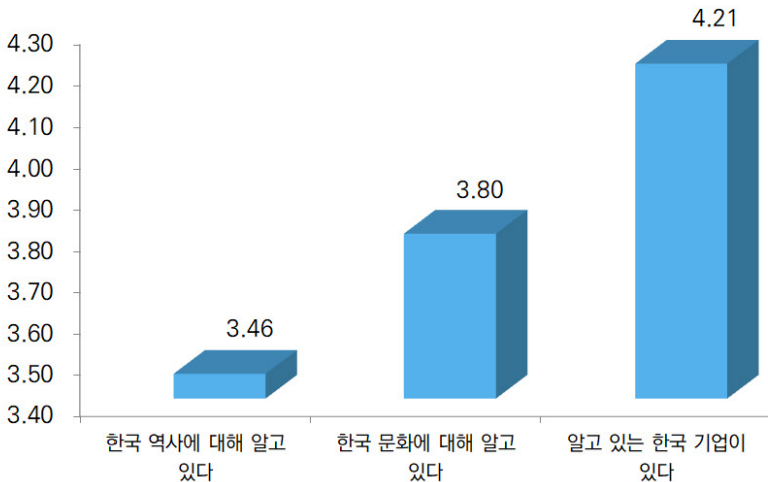


그림 V-12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한국에 대한 지식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학교급과 한국어교육 참여 기간에 따라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3.95)이 초등학생(3.63)보다 평균이 높았다.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는 한국어교육 참여기간이 오래된 집단(40~72개월, 97~132개월)이 적은 집단(1~39개월)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한국에 대한 지식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198	3.81	0.77	2.031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8	3.63	0.83		
	중학생	60	3.86	0.79		
	고등학생	70	3.95	0.68		
한국어교육 참여기간	전체	177	3.82	0.75	4.856**	2, 4분위 > 1분위
	1분위 (1~39개월)	45	3.48	0.77		
	2분위 (40~72개월)	47	3.92	0.77		
	3분위 (73~96개월)	42	3.87	0.79		
	4분위 (97~132개월)	43	4.04	0.56		

* 주: ** $p < .01$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한국은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이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4개 문항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했다는 문항은 평균점수가 각각 4.18, 4.15로 높았으나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각각 3.70, 3.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18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200	3.70	0.83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199	4.18	0.74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200	4.15	0.74
한국은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이다	198	3.67	0.77
전체	197	3.92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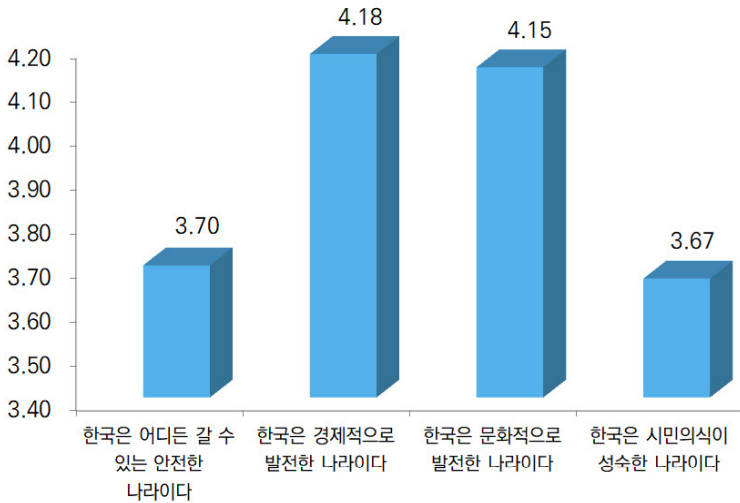


그림 V-13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교육 참여 기간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 참여 기간이 긴 집단(73~96개월, 97~132개월)이 짧은 집단(1~39개월)에 비해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육 참여기간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밀접히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9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전체	176	3.91	0.55	4.461**	3, 4분위 > 1분위
1분위(1~39개월)	43	3.69	0.60		
2분위(40~72개월)	47	3.87	0.56		
3분위(73~96개월)	43	4.02	0.52		
4분위(97~132개월)	43	4.06	0.41		

* 주: ** $p < .01$

3) 미시체계

(1) 가정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 사용하기, 부모님과 함께 한국 음식 만들기, 부모님과 함께 한국 드라마나 한국 노래 함께 시청하기의 3개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4.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200	4.49	0.79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99	4.61	0.7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199	4.18	1.12
전체	199	4.43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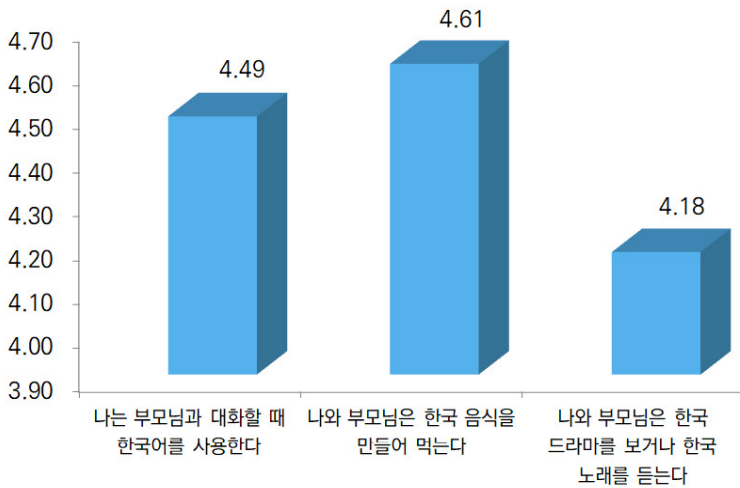


그림 V-14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을 배경변인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 내 한국 친화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별로는 한국어교육 참여기간이 단기적인 집단(1-39개월)보다도 장기적인 집단(40개월 이상)일수록 가정 내 한국 친화활동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여	121	4.55	0.61	-3.519**	
	남	78	4.23	0.65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	전체	178	4.42	0.66	7.543***	2, 3, 4분위 > 1분위
	1분위 (1~39개월)	45	4.04	0.72		
	2분위 (40~72개월)	48	4.51	0.57		
	3분위 (73~96개월)	43	4.52	0.57		
	4분위 (97~132개월)	42	4.63	0.64		

* 주 : ** $p < .01$, *** $p < .001$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기는 원한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3.17점으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부(2.84)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2.52)에 대한 평균점수는 낮았지만,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4.17)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22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	199	4.17	0.85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200	2.84	1.07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199	2.52	0.82
전체	198	3.17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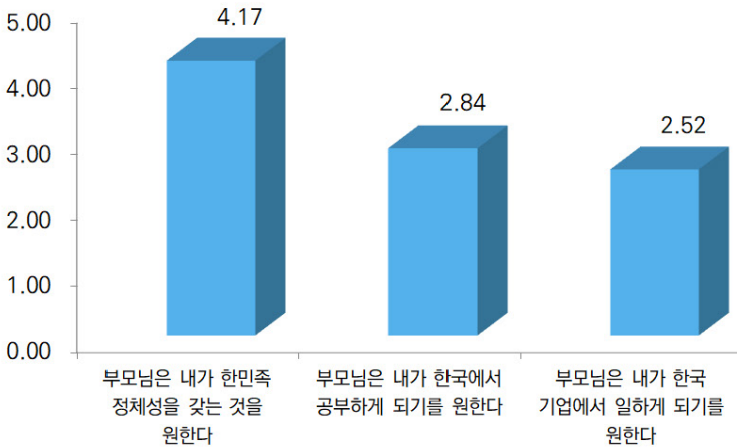


그림 V-15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을 배경변인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한국어교육 참여 기간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교육기간이 40개월 미만 집단보다도 그 이상인 집단(40~72개월)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전체	177	3.14	0.64	4.364**	2분위 > 1분위
1분위(1~39개월)	45	2.56	0.85		
2분위(40~72개월)	47	3.30	0.57		
3분위(73~96개월)	43	3.18	0.54		
4분위(97~132개월)	42	3.23	0.47		

* 주: ** $p < .01$

호주 동포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어 사용, 한국드라마 시청 등 한국 친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기업에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호주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녀들로 하여금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호주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을 하기를 보다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친구

동포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은 10.0%에 불과하여,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동포 친구들과의 만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동포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사례수(명)	6	14	28	74	77	199
	비율(%)	3.0	7.0	14.1	37.2	38.7	100.0

한편,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67.9%이고,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이 16.1%로, 약 70% 정도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사례수(명)	11	21	32	69	66	199
	비율(%)	5.5	10.6	16.1	34.7	33.2	100.0

(3)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기관의 참여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5.5%, 없다는 응답이 4.5%로 대부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한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V-26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명)	비율(%)
있음	190	95.5
없음	9	4.5
전체	199	100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한 기간은 1개월에서 132개월까지로 평균 재학 기간은 67.08개월인 약 5년 정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구분	사례수(명)	평균(월)	범위(월)	표준편차
전체	180	67.08	1~132	35.77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주된 이유는 ‘부모님의 권유’가 5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36.1%)로 나타났다. 그 밖에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5.8%)나 ‘한국어,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1.6%) 등도 이유로 나타났지만 응답 비율은 낮았다. 부모님의 권유와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한국어 교육기관을 다니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8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69	36.1
진로나 취업에 도움	11	5.8
한국어,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3	1.6
부모님의 권유	106	55.5
친구의 권유	0	0.0
기타 ¹⁾	2	1.0
전 체	191	100.0

* 주 : 기타 사유로는 '부모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등이 있음.

4) 중간체계

(1) 친인척 모임

친·인척들 간의 모임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 문화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동포청소년들에게 친인척들 간에 모임을 자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39.9%)이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36.4%)보다 조금 높았다. 약 40%의 동포청소년들만이 친인척들 간의 모임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친인척 모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친인척들 간에 모임을 자주 한다	사례수(명)	14	58	47	43	36	198
	비율(%)	7.1	29.3	23.7	21.7	18.2	100.0

(2) 부모-내 친구 인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비율이 63.5%,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이 9.6%로,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부모-내 친구 인지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사례수(명)	1	18	53	86	39	197
	비율(%)	0.5	9.1	26.9	43.7	19.8	100.0

(3) 부모-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

부모님이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27.7%이고,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이 37.1%로, 부모님들과 한글학교 등 선생님과 교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한글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당수 부모들이 한글학교에 학생들을 맡겨 놓고 교사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31 부모-한글학교 교사와의 만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 한다	사례수(명)	18	56	70	31	24	199
	비율(%)	9.0	28.1	35.2	15.6	12.1	100.0

(4)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과 자주 만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긍정적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62.7%,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이 3.0%로, 많은 부모들이 다른 한인 부모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가 주로 한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한글학교가 종교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나 종교기관에서의 부모들 간의 모임이 자주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32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만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사례수(명)	1	5	24	73	96	199
	비율(%)	0.5	2.5	12.1	36.7	48.2	100.0

5) 외체계

(1)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89.9%,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문 항		사례수(명)	비율(%)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까?	예	20	10.1
	아니오	179	89.9
	전체	199	100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 중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정규수업 시간에 한국어강좌에 참여한 비율은 23.9%였으며, 방과후 수업의 경우에는 25.8%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

문 항		사례수(명)	비율(%)
정규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11	23.9
	아니오	35	76.1
	전체	46	100.0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16	25.8
	아니오	46	74.2
	전체	62	100.0

(2) 지역사회(한인회) 여건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한인회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 행사에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0.1%이고, 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는 청소년은 19.1%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1번 참여한 청소년은 20.1%, 2번 참여한 청소년은 22.6%, 3번 참여한 청소년은 15.1%, 4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은 23.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V-35 한인 단체행사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체
한인회의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례수(명)	38	40	45	30	46	199
	비율(%)	19.1	20.1	22.6	15.1	23.1	100.0

(3)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여건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 여건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욕구,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우선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싶다는 긍정적 응답은 21.6%, 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41.7%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에서의 교육 환경이 한국에서의 교육 환경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V-36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사례수(명)	29	54	73	29	14	199
	비율(%)	14.6	27.1	36.7	14.6	7.0	100.0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는 부정적 응답이 43.2%, 보통이다가 44.7%, 긍정적 응답이 12.0%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10%를 조금 넘었다. 학업과 마찬가지로 취업에서도 한국보다는 호주를 선호하고 있어서 호주에서의 취업여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V-37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사례수(명)	28	58	89	17	7	199
	비율(%)	14.1	29.1	44.7	8.5	3.5	100.0

한국에서 학업과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에서 학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호주 동포청소년들은 능력 부족(26.3%)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21.7%), '적응에 자신이 없음'(20.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25.3%)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적응에 자신이 없음'(22.4%), '능력 부족'(19.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적응, 그리고 능력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체험 등 적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V-38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

구 분	학업	취업
	사례수(%)	사례수(%)
한국 국적이 없음	4(2.3)	3(1.7)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38(21.7)	44(25.3)
능력 부족	46(26.3)	33(19.0)
정보 부족	9(5.1)	14(8.0)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13(7.4)	18(10.3)
참여기회가 부족함	16(9.1)	18(10.3)
비용부담	11(6.3)	4(2.3)
적응에 자신이 없음	36(20.6)	39(22.4)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2(1.1)	1(0.6)

(4)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주에서의 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9.7%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60.3%의 청소년들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번 참여한 청소년이 17.1%, 2번 참여한 청소년이 9.0%, 3번 참여한 청소년이 3.5%, 4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이 10.1%로 1번 참여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호주 내 청소년 캠프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체
호주에서 열리는 한인 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120	34	18	7	20	199
	비율(%)	60.3	17.1	9.0	3.5	10.1	100.0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이중국적자(2.34)가 호주 국적자(1.63)보다도 호주 내에서의 캠프나 연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호주 내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국적	전체	194	1.87	1.32	6.028**	이중국적 > 주
	호주	95	1.63	1.05		
	이중국적	62	2.34	1.66		
	대한민국	37	1.70	1.13		

* 주: ** $p < .01$

다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18.6%의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있었고, 81.4%의 청소년이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1번 참여한 청소년이 12.2%, 2번 참여한 청소년이 3.2%, 3번 참여한 청소년이 0.5%, 4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이 2.7%로 주로 1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체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153	23	6	1	5	188
	비율(%)	81.4	12.2	3.2	0.5	2.7	100.0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과 거주동기에 따라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집단이 초등학생 집단에 비해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평균이 더 높았으며⁵⁶⁾, 거주동기별로는 호주로 이민 온 집단이 호주 출생 집단보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경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경험이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국연수 프로그램이 중·고생이나 대학생 위주로 실시되고 있고, 거주국에서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저 연령보다는 고 연령의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민자들의 경우에 호주 국적자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도 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참여했던 프로그램과 호주로 이민 왔을 때 참여한 프로그램이 혼재해 있어서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56) Scheffe 사후검증에서는 $P < 0.10$ 에서 고등학생집단과 초등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188	1.31	0.79	3.149*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7	1.18	0.63		
	중학생	58	1.24	0.57		
	고등학생	63	1.51	1.06		
거주 동기	전체	179	1.31	0.81	4.233*	이민 > 출생
	출생	98	1.16	0.55		
	유학	2	1.00	0.00		
	이민	79	1.51	1.02		

* 주 : * $p < .05$

한편,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를 살펴본 결과, 참여를 희망한다는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이 34.4%,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이 28.8%로 긍정적인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청소년들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라고 유보적인 청소년들도 36.9%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한국 프로그램 참여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사례수(명)	21	36	73	35	33	198
	비율(%)	10.6	18.2	36.9	17.7	16.7	100.0

한국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 욕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한국어 교육경험 기간에 따라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어 교육경험 기간별로는 3분위 집단(72-96개월)에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한국어 교육 경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44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욕구 차이분석

(단위 : 사례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남	14 (17.7)	17 (21.5)	29 (36.7)	11 (13.9)	8 (10.1)	79 (100.0)	11.501*
	여	7 (5.9)	19 (16.0)	44 (37.0)	24 (20.2)	25 (21.0)	119 (100.0)	
한국어 교육 경험 기간	1분위 (1~39개월)	7 (15.6)	9 (20.0)	19 (42.2)	8 (17.8)	2 (4.4)	45 (100.0)	23.400*
	2분위 (40~72개월)	3 (6.1)	13 (26.5)	16 (32.7)	9 (18.4)	8 (16.3)	49 (100.0)	
	3분위 (72~96개월)	5 (11.6)	10 (23.3)	17 (39.5)	7 (16.3)	4 (9.3)	43 (100.0)	
	4분위 (97~132개월)	4 (9.5)	3 (7.1)	12 (28.6)	8 (19.0)	15 (35.7)	42 (100.0)	

* 주 : * $p < .05$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참여 기회가 부족함’에 대한 응답이 21.2%로 1순위로 파악되었고, 2순위는 ‘정보 부족’(17.9%), 3순위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15.6%), 4순위는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교류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45 한국 청소년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한국 국적이 없음	1	0.6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28	15.6
능력 부족	16	8.9
정보 부족	32	17.9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26	14.5
참여기회가 부족함	38	21.2
비용부담	10	5.6
적응에 자신이 없음	21	11.7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7	3.9
전 체	179	100.0

6) 거시체계

(1) 한류의 확산

호주 내에서 한류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이 77.4%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5.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호주에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6 한류의 확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확산되고 있다	사례수(명)	3	7	35	63	91	199
	비율(%)	1.5	3.5	17.6	31.7	45.7	100.0

(2) 교포 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45.3%, '보통이다'가 47.7%, 부정적인 응답이 7.0%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V-47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인교포사회는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례수(명)	5	9	95	69	21	199
	비율(%)	2.5	4.5	47.7	34.7	10.6	100.0

교포사회의 한국문화의 확산 노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에 대해 중학생 집단의 긍정적인 응답비율(63.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49.3%), 초등학생(25.0%)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것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서 교포사회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호주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호주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62.7%이고, 보통이 31.8%,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5.5%로, 많은 호주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호주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호주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사례수(명)	4	7	63	93	31	198
	비율(%)	2.0	3.5	31.8	47.0	15.7	100.0

(4)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포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동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한민국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결과는 59.1%, 보통은 36.9%,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4.0%로, 상당수의 동포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9 대한민국의 동포에 대한 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	사례수(명)	1	7	73	87	30	198
	비율(%)	0.5	3.5	36.9	43.9	15.2	100.0

7) 시간체계

(1) 가정사 및 이민경험

조사 응답자들이 호주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는 호주 출생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민(40.8%), 기타(4.5%), 유학(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이전이나 취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이주 경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50 호주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출생	107	53.2
유학	3	1.5
이민	82	40.8
기타 ¹⁾	9	4.5
전체	201	100.0

* 주 : 1) 기타 사유로는 '부모님 직장 이전', '취업' 등이 있음.

호주로의 이주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호주로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를 물어본 결과,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40.0%,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은 18.5%로 나타났다. 즉, 호주 동포 청소년들은 주로 1.5세대 또는 2세대가 대부분이며, 이주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표 V-51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37	18.5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83	41.5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80	40.0
전 체	200	100.0

(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문화, 한국인, 한국어로 나누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3.90,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3.76,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3.85로 조사되었다. 3개 문항 평균은 3.84였으며, 3개 문항 중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임을 볼 수 있다.

표 V-5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0	3.90	0.82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0	3.76	0.81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0	3.85	0.81
전체	200	3.84	0.73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과 나의 정체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3.97)이 초등학생(3.63)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평균비율이 높았으며, 나의 정체성별로는 한국인(3.97)이 호주인(3.36)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평균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0	3.84	0.73	4.511*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8	3.63	0.80		
	중학생	60	3.91	0.61		
	고등학생	72	3.97	0.72		
나의 정체성	전체	192	3.82	0.72	3.382*	한국인 > 호주인
	한국인	47	3.97	0.64		
	한국계 호주인	134	3.80	0.73		
	호주인	11	3.36	0.81		

* 주 : * $p < .05$

(3) 과거 한국문화 체험 경험

과거 한국문화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3%가 ‘매우 자주’, 32.3%가 ‘자주’로 응답하여 약 60.0%가 한국문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7.3%는 ‘가끔’ 경험하였으며, 거의 경험이 없거나 전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2.1%로 나타났다.

표 V-54 과거 한국문화 경험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전체
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사례수(명)	4	20	54	64	56	198
	비율(%)	2.0	10.1	27.3	32.3	28.3	100.0

(4) 한국방문 경험 및 욕구

과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매우 자주’가 23.9%, ‘자주’가 20.3%, ‘가끔’이 34.0%, ‘거의 없음’이 19.8%, ‘전혀 없음’이 2.0%로, 응답자의 98%가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었다. 또한 한국 방문 경험자 중에서는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44.2%로 상당수가 자주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5 과거 한국 방문 경험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전체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4	39	67	40	47	197
	비율(%)	2.0	19.8	34.0	20.3	23.9	100.0

호주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을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비용부담’(38.7%)이었으며, 2순위는 ‘참여기회가 부족함’(23.2%), 3순위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14.9%)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적응에 자신이 없음’(5.4%), ‘능력부족’(4.8%),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4.8%)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방문은 비용의 문제와 참여기회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향후 한국방문 비용의 지원과 참여기회가 확대되면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보다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V-56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순위
한국 국적이 없음	4	2.4	8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25	14.9	3
능력 부족	8	4.8	5
정보 부족	4	2.4	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6	3.6	7
참여기회가 부족함	39	23.2	2
비용부담	65	38.7	1
적응에 자신이 없음	9	5.4	4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8	4.8	5
전 체	168	100.0	

한편,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렇다’가 28.1%, ‘매우 그렇다’가 63.8%로 90% 이상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7 한국 방문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사례수(명)	0	1	15	56	127	199
	비율(%)	0.0	0.5	7.5	28.1	63.8	100.0

8)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은 4개 문항(‘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4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4.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별로는 4개 문항 중에서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가 4.29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4.19,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4.14로 평균 점수가 비교적 높았으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의 평균 점수는 3.4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호주 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역사나 전통, 그리고 한민족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있지만 한국의 사건이나 문제 등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58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	200	4.29	0.80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201	4.19	0.83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99	4.14	0.81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201	3.49	0.94
전체	199	4.23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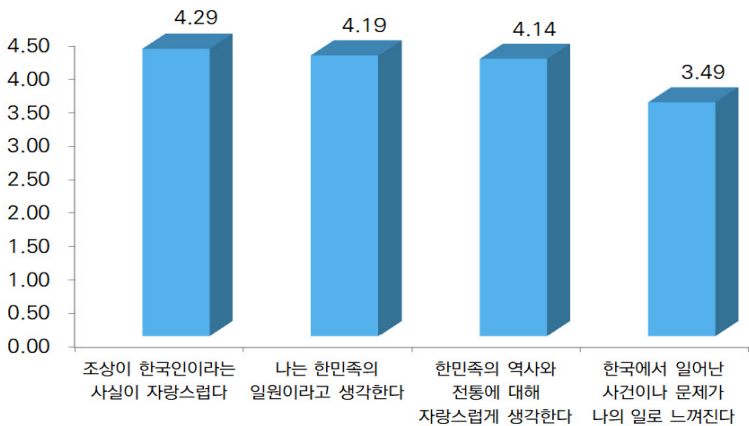


그림 V-16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한편,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4.20)의 한민족 정체성이 초등학생(3.88)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별로는 경험이 있는 집단(4.04)이 없는 집단(3.58)보다 한민족 정체성이 더 높았으며, 한국어교육 참여기간별로는 39개월 미만의 집단(3.71)에 비해서 40개월 이상의 교육 참여기간이 긴 집단(‘2분위’ 4.08, ‘3분위’ 4.19, ‘4분위’ 4.18)의 한민족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 정체성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과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기회와 교육 참여기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59 한민족 정체성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학교급	전체	199	4.03	0.67	4.382*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8	3.88	0.73		
	중학생	59	3.99	0.59		
	고등학생	72	4.20	0.65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경험 있음	188	4.04	0.65	4.058*	
	경험 없음	9	3.58	1.02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	전체	178	4.04	0.63	6.069**	2, 3, 4분위 > 1분위
	1분위(1~39개월)	45	3.71	0.65		
	2분위(40~72개월)	47	4.08	0.67		
	3분위(73~96개월)	43	4.19	0.56		
	4분위(97~132개월)	43	4.18	0.51		

* 주 : * $p < .05$, ** $p < .01$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4개 문항(‘호주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호주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3.49였다. 문항별로는 ‘호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문항의 평균 점수가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주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9,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47,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는 3.22로 가장 낮았다. 호주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 특히, 남북통일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있었다. 이는 동포청소년들의 현재의 관심사가 주로 한류 등에 있고, 한국 경제나 통일 등에서의 역할은 당장 자신의 일로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표 V-60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호주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200	3.59	0.82
호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200	3.70	0.81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0	3.47	0.78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서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199	3.22	0.88
전체	199	3.49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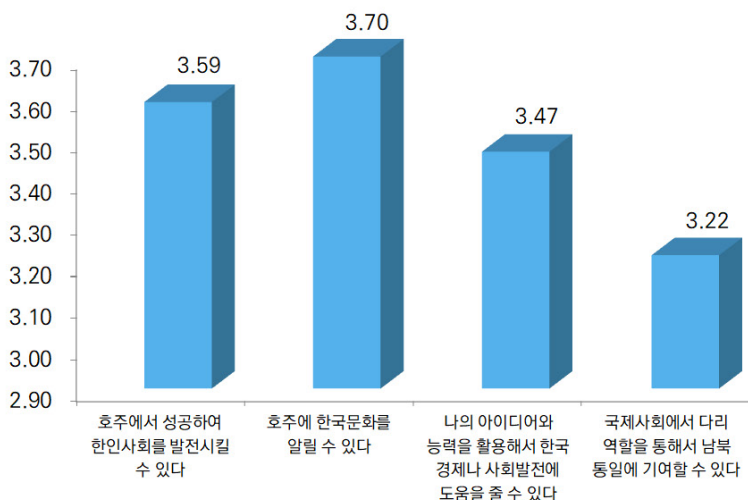


그림 V-17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에 대해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학교급별로만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3.68)이 초등학생 집단(3.36)보다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좀 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한국/한인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1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차이 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199	3.49	0.66	4.623*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68	3.36	0.60		
	중학생	60	3.41	0.64		
	고등학생	71	3.68	0.70		

* 주 : * $p < .05$

한편, 향후 동포청소년들이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 교류 기회 제공’(33.3%)과 ‘한국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한국어 및 역사교육 지원’(32.8%)이 1, 2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호주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원’(17.2%), ‘부모의 인식 변화와 지원’(1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62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순위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6	13.5	4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63	32.8	2
호주 한인사회가 차세대(청소년)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33	17.2	3
호주 (주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	3.1	5
한국 방문 또는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4	33.3	1

* 주 : 기타로는 ‘청소년을 위한 법률제정(예: 흡연예방)’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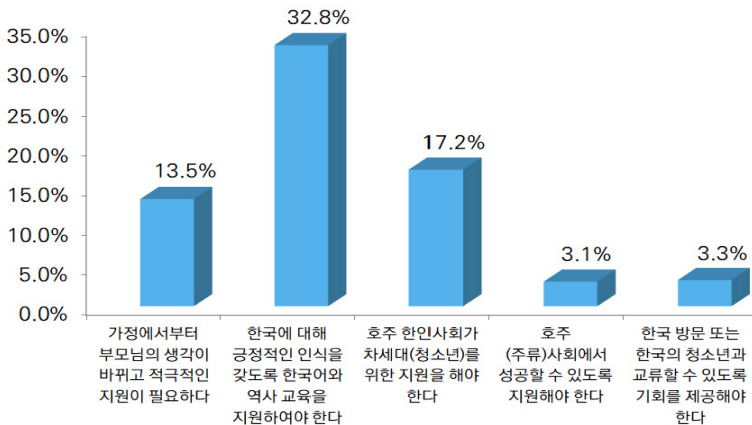


그림 V-18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이를 통해서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이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방문 및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의 확대와 한국 친화적인 인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역사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9)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및 동포사회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변수와 분석 방법

호주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과 역량, 가정, 친구, 프로그램 등 교류 환경,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을 각각 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투입은 한민족정체성의 경우에는 4단계로 투입하였으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의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는 한민족정체성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 한민족정체성의 분석에 투입한 변인 이외에 한민족정체성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민족정체성의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변인인 성별, 나이,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거주 이유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등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등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한국어능력,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과 관련한 변인을 투입하였다. 또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투입한 독립변수는 한민족정체성에서 투입한 1단계 다음 2단계로 한민족정체성을 투입하였고, 한민족정체성에서 2, 3, 4단계에서 투입한 동일한 변인을 3, 4, 5단계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측정방법, 기술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표 V-63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m	s.d.
종속 변수	한민족정체성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028	.672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	4개 문항	5점 리커트, 5개 문항 평균값	3.489	.664
독립 변수	성별	더미변수	남=1, 여=0	.393	.490
	연령	연령	측정값	14.015	2.043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기간	개월수	측정값 (다녔지 않은 경우=0)	67.078	35.765
	거주이유	더미변수	출생=1, 이민 등=0	.374	.485
	부모의 한국 관련 인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168	.658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426	.644
	프로그램 연수 참여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1.527	.904
	한국문화/한국방문 경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605	.907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244	.735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m	s.d.
독립 변수	친구들과의 교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901	.928
	부모 간, 부모-교사 교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614	.778
	한국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923	.566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837	.729
	한국에 대한 지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813	.774
	의사소통능력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880	.632
	사회적 책임의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235	.597
	세계시민의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086	.643
	한국어 능력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343	.706

(2) 분석 결과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Model 1(F 변화량=1.22, $p<.001$), Model 2(F 변화량=11.634, $p<.001$), Model 3(F 변화량=9.794, $p<.001$), Model 4(F 변화량=3.82,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이 1.016~2.170으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2.121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Model 1에서는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12.6%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국어교육기관을 오래 다닐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2에서는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45.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하여 한국 친화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동포청소년들이 한국문화나 한국방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한국 방문이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동포친구나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55.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국 방문이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동포친구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날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개인적 능력 및 역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능력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60.8%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국 방문이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의사소통능력 등의 변인은 한민족정체성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Model 4에서는 한국방문,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미래인적자원 역량 중 의사소통능력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정체성은 한국 관련 친구관계, 부모의 인식, 한국어교육기관,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등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포청소년들의 인식 변화나 적극적인 참여 욕구, 그리고 적극적인 소통 역량 등이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나 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표 V-64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3.264*** (.352)		1.202** (.416)		.459 (.419)		-.257 (.450)	
개인변인								
성별더미	-.122 (.098)	-.097	.045 (.087)	.036	-.010 (.080)	-.008	.033 (.078)	.026
나이	.039 (.026)	.130	.018 (.021)	.060	.012 (.020)	.039	.010 (.019)	.034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005** (.002)	.257	.002 (.001)	.112	.001 (.001)	.061	.000 (.001)	.022
거주이유 (출생=1, 이민 등=0)	-.018 (.098)	-.015	.043 (.085)	.035	.032 (.078)	.026	.014 (.076)	.011
가정, 친구, 교류 환경								
부모의 한국 관련 인식			.178* (.074)	.182	.116 (.069)	.119	.091 (.067)	.093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038 (.070)	.041	.022 (.064)	.024	.018 (.063)	.020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030 (.052)	-.040	-.024 (.048)	-.032	-.047 (.048)	-.063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068* (.033)	.152	.051 (.032)	.114	.034 (.031)	.076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163* (.068)	.195	.141* (.063)	.169	.143* (.061)	.170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171** (.054)	.265	.100* (.050)	.155	.060 (.050)	.093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058 (.056)	.074	.056 (.052)	.072	.046 (.050)	.059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125 (.085)	.109	.078 (.083)	.068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221*** (.061)	.265	.178** (.060)	.214
한국에 대한 지식					.072 (.060)	.090	-.019 (.065)	-.024
개인적 능력 및 역량								
의사소통능력							.161* (.075)	.162
사회적 책임의식							.055 (.078)	.055
세계시민의식							.120 (.077)	.120
한국어능력							.127 (.065)	.148
통계량	R^2	.126	.454		.559		.608	
	R^2 변화량	.126	.328		.105		.049	
	F 변화량	5.170***	11.759***		10.599***		4.073**	

* 주 : * $p < .05$, ** $p < .01$, *** $p < .001$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의 적합도는 Model 1(F 변화량=1.1175, $p > .05$)와 Model 4(F 변화량=2.111,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 2(F 변화량=33.973, $p < .001$), Model 3(F 변화량=5.328, $p < .001$), Model 5(F 변화량=3.997, $p < .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이 1.016~2.515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1.904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서로 독립이라 할 수 있다.

Model 1에서는 성별, 나이, 한국어교육기관 경험기간, 거주이유 모두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민족정체성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21.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성별더미, 한민족정체성,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38.8%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41.6%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긍정적일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5에서는 개인적 능력 및 역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성별더미,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48.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별, 한민족정체성,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변인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와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Model 5에서는 성별더미,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 한국 교류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한국 관련 참여 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65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2.828*** (.374)		1.287*** (.429)		.934* (.462)		.693 (.492)		.014 (.526)	
개인변인										
성별더미	.045 (.105)	.036	.098 (.095)	.078	.201* (.093)	.160	.180 (.093)	.143	.189* (.091)	.150
나이	.044 (.028)	.143	.027 (.025)	.088	.025 (.023)	.081	.022 (.023)	.073	.024 (.022)	.077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001 (.002)	.043	-.001 (.001)	-.077	-.002 (.001)	-.094	-.002 (.001)	-.103	-.002 (.001)	-.101
거주이유 (출생=1, 이민 등=0)	-.060 (.104)	-.048	-.055 (.094)	-.045	-.008 (.091)	-.007	-.002 (.091)	.002	-.024 (.088)	-.019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			.467*** (.080)	.461	.210* (.092)	.207	.104 (.101)	.102	.006 (.102)	.006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가정, 친구, 교류 환경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029 (.081)	-.029	-.049 (.081)	-.050	-.079 (.079)	-.080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029 (.075)	-.031	-.035 (.075)	-.038	.009 (.074)	.010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136* (.056)	.181	.140* (.056)	.186	.099 (.056)	.132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050 (.036)	.110	.055 (.037)	.121	.033 (.037)	.072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271*** (.074)	.321	.283*** (.075)	.335	.284*** (.073)	.336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110 (.060)	.170	.088 (.060)	.136	.053 (.058)	.081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067 (.060)	-.085	-.058 (.060)	-.073	-.038 (.059)	-.048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039 (.100)	.034	-.040 (.098)	-.03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57 (.075)	.186*	.174* (.073)	.205
한국에 대한 지식							.009 (.070)	.011	-.006 (.076)	-.008
개인적 능력 및 역량										
의사소통능력									.115 (.090)	.114
사회적 책임의식									.172 (.091)	.170
세계시민의식									.134 (.091)	.132
한국어능력									-.044 (.077)	-.051
통계량	R^2	.032	.219		.388		.416		.481	
	R^2 변화량	.032	.187		.169		.028		.065	
	F 변화량	1.175	33.973***		5.328***		2.111		3.997**	

* 주 : * $p < .05$, ** $p < .01$, *** $p < .001$

2. 호주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호주동포청소년의 특성과 한국에 대한 인식

(1) 호주동포청소년의 특성 : 적은 스트레스, 자유로운 사고, 높은 생활만족도

호주동포청소년들은 호주의 교육제도와 고용환경, 그리고 호주로의 이민 시기 및 가정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 수월한 대입입학제도와 예·체능 및 직업기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취업 기회 등은 호주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진학이나 취업을 하면 된다는 자유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이 재학 중에 학업 이외에 각종 스포츠, 악기 등 자기가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의 경우에도 한국의 학부모에 비해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강요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부나 활동을 하도록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7 : 여기 호주는 훨씬 더 선택이 자유롭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다 응원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데, 근데 한국은 계속 듣다보면 되게 다르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껴요.

성인 2 :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같이 뭐 야자를 하고 또 야자 끝나면 학원을 가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 이게 아이들 한국하고 미국하고 호주하고의 다른 점이랄까. 그리고 가족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년 6 : 선택의 폭이 더 자유롭고 예체능 쪽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다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이런 쪽으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체능 쪽으로 해도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그 쪽으로 더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꿈이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 8 : 제 친구들은 테이프(TAFE)라는 게 있는 데요, 거기는 그냥 기술만 배우고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데인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기술 배우는 게 목표이고 그걸로 이제 취업도 하고, 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서~

성인 8 : 여기 애들은 굳이 한국하고 비하면 좀 바깥에 나가 뛰어놀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일단은 그렇게 엄마들이 뭐 '애는 꼭 딱 공부를 많이 시켜야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대신에 좀 건강하게 스포츠를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하지만 호주에서 출생한 청소년들과 호주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 그리고 이주해 온 연령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나 정체성, 그리고 행동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호주청소년들로서 한국과 관련된 의식이나 가치관, 정체성 문제 등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이상의 연령대에 호주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체성이나 인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고, 중·고등학교 이상의 시기에 이주해 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정체성의 문제보다는 호주에서의 적응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 호주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한국인 부모를 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정한다거나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고등학교 이상의 시기에 이주해 온 청소년들은 호주에서의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일탈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라도 저학년의 경우와 고학년의 경우에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주해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출생한 청소년들과 비슷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주해 온 경우는 한국의 문화와 호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여 중간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 :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과연 애네들이 한국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들어온 아이들은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개네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호주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잘 쫓아가서 다행인 애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처럼 달라붙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 완전히 좀 벗어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청소년 5 : 한국인이라는 게 뿌듯해요. 다른 애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될 텐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도 배우기도 배우고 있지만 다른 애들보다 더 기본은 안 배울 테니까 적기도 적고.

성인 1 : 인성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런 부류가 있고, 그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반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인피리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좀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11 :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어릴 때 온 친구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태어난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가치관이랑 아니면 여기 완전히 커서 온 애들, 막 고1, 고2 때 온 친구들이랑 가치관을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 저는 약간 조금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 1 : 여기서 자란 애들은 절대 한국에서 온 애들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거를 Fob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을, 여기서 자란 청소년들은 Fob이라고 그래요. First of board라고 그래가지고 개네들하고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트라스 필드라는 데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 교포 2세들은 거기 안가요. 거기 가서 노는 애들은 루저라고 그래요.

(2) 호주동포청소년에 비춰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 : 컬러풀하고 예쁘고 정겹고...하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한국에 대한 호주동포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호주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다 많았다. 호주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컬러풀하다.”, “와이파이가 빠르다.”, “예쁜 옷이 많고 다양하다.”, “정겹고 반갑다.”, “친척이 있다”, “집인 거 같다”, “발전한 나라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복잡하다.”, “미세먼지가 많다.”, “북한 문제가 있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3 : 어.... 한국은, 거기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컬러풀해요. 네, 너무 좋아요. 제 친구들한테 눈 뵈다고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좋아했었고, 어떤 친구들은 눈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청소년 4 : 네... 와이파이도 좋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예쁜 거 많고, 호주보다는 더 다양한 게 많지만 그래도 자연 같은 거가 호주가 더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서... 별로 한국은 친척이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6 : 어.. 저는 지금, 저는 한국에... 제 고향이잖아요, 한국어. 어찌 보면... 아무리 호주에서 계속 살 거라도 한국이 저한테는 집인 것 같고, 아직도 가면 되게 정겹고 그러거든요.

청소년 5 : 옛날에는 한국이 잘 못사는 나라였지만 이제 많이 발전해진 것 같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빠라지고 당연히 다른 나라들보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것하고 북한문제 그 두 개만 좀 해결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2) 시간체계 : 한국 관련 경험과 인식의 변화 - 발전기회로서의 한국어 교육

호주 이민세대의 교체와 한국 방문 및 동포청소년 캠프에서의 경험 등에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변화됨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동포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어 교육 여건도 부족하고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호주사회가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한인사회의 자녀들에게 언어 습득의 보다 유리한 기회가 되고 있다.

성인 5 : 저희 부모님세대에 오셨던 분들은 자녀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글학교,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데 인터넷도 안 되어 있고.

성인 9 : 이제 갈수록 젊은 부부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훨씬 많이 가지시고 거기다 중국어까지. 혹은 일본어든 다른 언어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네, 사고들이 달라지시다보니까 이제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방문이나 동포청소년 캠프에서의 경험은 한국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어 교육을 다시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릴 때 한글을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조차도 한국 방문의 경험 등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성인 6 : 한국을 가든지 이런 계기가 있으면 또 다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기서도 어떤 학생이었는데, 한글을 안 배우고 지나간

거예요, 그 시절에, 쪽 안 배우고 지나갔는데 청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 온 거예요, ‘선생님 개인 레슨을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한국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보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좀 찾아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고~

성인 7 : 2박3일정도 지나면 프로그램대로 쪽 하다보면 인터뷰하다보면 어떤 학생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민족캠프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생들 이렇게 많은데 모여 본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3) 미시체계 : 가정, 친구, 학교 환경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

(1) 가정 : 자녀교육에서의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

동포 자녀들의 한국 문화나 한국어에 대한 교육은 부모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 자녀들이 부모와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한국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부모도 있어서 그러한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이해가 크게 달랐다. 호주에서 출생한 아이조차도 부모들에 따라서 차이가 컸는데, 가정에서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어로만 사용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서 그러한 자녀들은 한국어 실력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6 : 그게 여기서 태어났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의 사고방식과 키우는 교육철학과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 행동양식이 완전히 바뀌죠.

성인 10 : 부모님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한국문화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내시는 반면에, 저학년, 한글, 그야말로 한국어가 아닌 ‘한글만 떼고 싶어요.’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간단한 대화할 수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가정에서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국어로 된 책 읽어주기, 부모와 형제간에 한국어 사용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 친척 간에 자주 연락하기, TV 한국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며 대화하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어로만 사용하게 하는 가정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8 : 그전에는 엄마가 그냥 책읽어주고, 그냥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고 집에서만 이렇게 엄마하고 책에 있던 얘기를 했대요. 영어를 아예 못 배우고 계속 한국어로만 했으니까. 영어는 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청소년 2 : 저는 위에 오빠, 그 다음에 밑에 동생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는 영어를 못 쓰게 하세요, 엄마가 아예. 왜냐하면 동생이 어려서 계속 영어만 쓰면 한국말 못한다고 한국말만 쓰게 하세요.

청소년 1 : 할아버지가 한국에 혼자 계셔서 좀 많이 외로우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끔씩 연락드리고 보통은 엄마가 영상통화 같은 거 연결해서 매일 연락하고 있어요.

청소년 5 : 텔레비전을 많이 같이 보죠. 한국프로그램 보면서 새로운 한국말 같은 거나 아니면 문화도 배우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본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2) 친구 : 한국어 사용 및 한국문화 공감대 형성 기회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은 정규 학교나 한글학교, 그리고 호주로의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한국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규 학교에 한국 친구가 없는 경우에 한글학교는 한국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청소년 11 :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제 하이스쿨에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따로따로 지내다가 8학년 때 딱 시기가 맞았는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놀기도 했고.

청소년 8 : 저는 한국친구가 학교에는 없어요. 워낙에 동양인이 없다보니까. 한국인 보면 '우와' 할 정도로 없어요. ... 여기서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지도 몰랐는데, 많이 보니까 한국 같아서 좋아요.

청소년 11 :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친구들이랑 같이 아직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은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연락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동포 청소년들은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문화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친구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호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청소년 1 : 한국친구들 사이에서 있으면 뭔가 한국 케이팝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에는 편하고 그런데 막 호주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뭔가 조심스러워지고 친구들이

좀 안 좋게 볼 때도 있어요, 가끔씩. 왜냐면 호주문화에서 자랐으니까 그 친구들은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소년 3 : 컬처럴 데이 때 우리학교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 한복을 입어요. 친구들은
한국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제가 말해주는 게 진짜 재미있어요. 한국이랑 그런 것들.
친구들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3) 한글학교 : 작은 한국,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의 장

① 한글학교에 다니는 이유 : 하나의 스펙이자 부모, 친척 및 친구들과의 소통기회

동포 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부모와 청소년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주 초기에는 자녀들에게 기를 펴주기 위해서, 그리고
휴일에 부모가 쉬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하나의
스펙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또한 가족 혹은 친지들과
한국어로 소통을 할 필요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4 :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는 그런 기를 펴주자 했던 게 처음에 한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의하신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선생님들도 다 학부모님이었으니까
이해를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한글학교는 그런... 여기 출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 80%, 그 다음에 한 20%가 한국에서 온 아이들에게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덜하고 이제는 하나의 스펙으로 이거를 많이 하고~

성인 1 : 그때가 유일하게 부모님들 쉴 때예요. ... 애들 교육해서 좋고, 나도 편해서
좋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성인 5 : 저는 첫 번째 목적은, 한국에 모든 가족이 계시는데요, 전화 통화할 때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쓰고 그리고 통화하는데 이제 어려운
단어는 못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동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한국어가 재미있고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부모 또는 친척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을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한글학교는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다닌다는 청소년들도 있고, 일부 청소년들은 한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과목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청소년 1 : 한국어를 못하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질 거고 한국에 계시는 친척이랑 대화하는 것들이 힘들어질 거고 그런 거를 거의 가족관계가 끊기는 느낌이라까. 그래서 그렇게~

청소년 5 : 저는 사실 부모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참석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오면 재미있고, 더 뭔가 배울 수도 있다고 배우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10 : 한글학교. 좋은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것도 안다니니까 한국인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따로 없어요.

청소년 6 : 네, 저 졸업했는데 내년엔, 그 HSC(The Higher School Certificate, 호주대학 수학수능시험) 과목으로 고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② 한글학교 교재 및 기자재 : 수령 시기 부적절, 저학년 위주의 교재

한글학교 교재와 관련해서 교재 수준이나 수령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맞춤형 한국어 교재가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라서 0학년(초등학교 취학 전 1년 교육과정을 말함)이나 고등학생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교재를 늦게 보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나간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교재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부족하여 역사나 문화 관련 수업을 풍부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학교에서 기자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성인 10 : 이 학교에서 신청한... 맞춤형 한국어는 저학년 위주라서 여기에서 조금 힘든 아이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학년아이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성인 5 : 저희가 0학년은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만든 교재와 한국에서 파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교재 1학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는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성인 5 : 교과서를 받는 시기나 이런 게 좀 잘 안 맞아요, 솔직하게. 한국은 3월 초에 개강하죠? 저희는 1월 말에 개학을 해요. 그래서 1년을 묵혔다 써야 돼요.

청소년 10 : 그건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뽑아서 하는데... 책은 없어요. 한국에서 온 책 가지고 안 해요.

성인 2 : 역사를 가르치더라도 그거를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 좀 쉼어 해주시면 좋은데, 쉼어를 안하세요.

③ 학생 구성과 참여율 : 초등학교 위주의 학교 구성과 중등학생 참여율 저하

대부분 한글학교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호주에 있는 한글학교도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중학생 연령대의 학생들이 상당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한글학교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인 5 : 졸조. 주는데 원래는 피라미드가 되어야 가장 좋은데 저희는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킨디부터 4학년까지는 많아요,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릴 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한글학교를 다녔으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자아의식이 성장하여 부모님
뜻대로만 행동하지 않게 되고, 한글학교가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어서 파티나 스포츠, 예능활동 등 친구들과 함께 주말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글학교를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년으로의 진학으로 인한 학업
부담도 한글학교를 다니지 않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 5 : 한글학교가 토요일에 대부분 수업이 있는데, 토요일에 애들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린이들은 친구들 생일파티 가야되고, 축구 가야되고, 뭐 하는 이런 예능활동
하는 게 많이 있고~

청소년 7 : 제가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운동이랑 시간이 겹쳐서...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성인 10 :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진학을 하면 학교수업도 많고 스포츠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 한글학교를 많이 빠지게 되고~

또한 한글학교에서의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모두 한인인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수가 부족하거나 교육 환경
여건상의 문제가 있는 한글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에 레벨 조정을 하지 못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섞어서 교육을 하여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한글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성인 8 : 한글학교에 얹드리고 있는 애들이죠. 말을 시켜보면 너무 하기 싫어해요. 메인 스트림 학교에 가면 자기 나름 잘하고 있는데 한글학교 오면 갑자기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한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죠. 그리고 자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런 애들 대부분이 가족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가족이 많아요. 외국부모랑 맨날 영어하면서 한글학교를 일주일에 한번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애초에 이 챌린지 레벨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한국말 완전 잘하는 애들, 막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이랑 섞어놓으면 애들 갑자기 열등생 되고 한국어 학교가기 너무 싫어지는 거죠.

④ 한글학교 운영상의 어려움 : 규모 경제에 따른 작은 학교의 어려움

호주에 있는 한글학교는 학생 규모가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에 운영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모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정부에서의 지원과 함께 주정부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운영이 수월한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주정부 등록이 어려운 학교도 있어서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사 수급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한글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 한글학교들 간의 통합 운영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글학교들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들 간에 경쟁도 있어서 통합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인 3 : 상대적으로 큰 학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받지 한국정부에서 유지비 받지 학생들한테 받지, 상대적으로 운영이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소규모 학교는 운영비도 적고, 상대적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도 등록이 어려운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죠. ... 작은 학교를 같이 모으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경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종교단체,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 불교사찰이나 여기의 부속기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인 4 : 조그만 학교는 자기네 교회에서 교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유지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특화가 되어야 돼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3명, 4명만 데리고 클래스를 이끌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한글학교랑 같이 머지를 해서 종합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하고, 작은 학교만 고집을 하시거든요.

성인 2 : 이번에 교사연수 때 작은 스몰학교들의, 설립한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작은 세션을 지금 해볼까,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4) 중간체계 :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 한국어 채택에 결정적 영향

호주에서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는 크게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류와 한인 종교단체에서의 교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규학교 부모들 간의 모임은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한인 부모들이 모여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의 채택 여부는 학부모 커뮤니티의 요구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일단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커뮤니티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어 교육 신청을 해서 도입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을 설득할 수 있는 부모들의 요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 6 :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한국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커뮤니티가 ‘우리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해.’ 이레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넘버가 있고 커뮤니티가 원한다, 한국어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어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뭉치는구나, 이렇게 모일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아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많이 좀 달라지죠. 학교에서나 대하는 거나 그런 것도 좀 달라져요.

한인 부모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교회나 성당 등 종교기관에서 종교행사나 봉사활동을 통해서이다. 한글학교도 종교기관에서는 하나의 봉사단체로 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한글학교에 보내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종교행사나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성인 5 : 한글학교를 가면 그 시간에 부모가 예배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봉사를 하나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저희 교인의 자녀는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 게 부모로서도 일단 편하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저희는 한글학교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고 주일학교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건물 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부모가 에스코트 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완전 어린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장점이 되기는 하죠.

특히, 한인 부모들은 한글학교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동포 자녀들의 한국어나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다 높이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처음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에서 한글학교 봉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자신의 자녀가 한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른 동포 청소년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계속해서 한글학교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 4 : 옛날에는 저희가 학부모 중에서 교사 경험이 있다든가 그러신 분들 알음알음해서 추천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6학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뭐 때문에 빠진다면 슬슬 빠지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저희 오래 되신 선생님들은 애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하세요.

5) 외체계 : 한국과 한국어 관련 교육여건 및 동포 간 교류 환경

(1) 교육 환경 : 호주 내 다문화 학습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

①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환경 : 한국어 학습 친화적인 정부 정책 환경

호주 정부는 영어 이외에 아시아 언어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한국어를 공부하기 좋은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시아 언어를 교육하도록 권장해 왔다. 한국어 교육도 그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언어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어가 세컨드 랭귀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등 조정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발표한 ‘아시안 세기에서의 호주 백서’(White paper on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에서는 호주에서 2000년부터 2008년 시기에 아시아 언어가 후퇴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한국어를 포함한 아시아 언어를 호주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hin, 2018: 3).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호주 내의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성인 9 : 호주가 white 페이지라고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안나나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발표한 게 있었어요. 지지난 Prime Minister가 그때 white 페이지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아시아의 국가의 다섯 개 국가의 언어를 2025년까지 호주 전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그 다섯 개 언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예요.

청소년 7 :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워낙에 한국어 가르치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되게 배울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드니 지역과는 달리 퀸즈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퀸즈랜드 교육부에서 한국어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인 9 : 근데 퀸즈랜드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지. 그래서 지금 케이팝문화로 인해서 되레 중·고등학생 중에서는 현지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QCAA (Queensland Curriculum & Assessment Authority, 퀸즈랜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1, 12학년엔, 고등학교 때 하는 인터널 어세스먼트라고 하거든요, 학교 내 평가가 없어졌어요, 그 승인이 안 났어요. 그만큼 교사도 없는 거고.

퀸즈랜드 교육부에서 한국어가 승인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퀸즈랜드 교육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한국어가 채택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인 9 : 저희한테 어프로치 했던 건 하나가 있었어요. ‘퀸즈랜드 교육청이 반 비용을 내고 한국교육원에서 반 비용을 내서 사람을 교육청에 하나를 뒀서 그 사람이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한국어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쉬워서 한국어를 학교에다 넣어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나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너네 반 대, 우리 반 땀.’ 이런 걸로 오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위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②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 교사 전문성 연수 및 운영비 지원

호주 정부에서는 타민족 커뮤니티에서 수행하는 언어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경우에도 교사들이 일정한 연수를 받는 경우에 이수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가진 한글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성인 2 :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호주가 유일하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나라예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한글학교에서도 열심히 더 지원금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도 한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고, 부모님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거~

성인 5 : 커뮤니티 랭귀지 티칭이라고 저희처럼 이렇게 자기나라 말을 가르치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여기도. 한국도 한국어교사자격증처럼 대학에서 이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에 한해서만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약 20주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운영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아동 발달과 언어 수업을 위한 방법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로 구성된 한글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겨우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하는 연수과정도 개설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 6 : 원래 20주짜리 코스인데, 17~20주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 방법론, 뭐 development, 아이들 development 같은 거 그러면, 다 언어 가르치는 거와 관계있는, 어떻게 하면 writing을 잘 가르치는가? 뭐 이런 거 등등. ... 교사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거를 했는데, 이게 다 영어다 보니까 좀 도움이 안 되죠. 간신히 가서 출석은 하고 숙제도 간신히 내는데 이렇게 그냥 증을 받는다는 거지~

(2) 교류 환경 :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 매우 제한적인 기회

호주 동포청소년들 중에서 상당수는 동포청소년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매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알게 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 등으로 여기고 있다.

학생 2 :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한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한국문화, 역사 뭐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도 되게 다양하게 사귀어서 한국에도 친구들이 있고 여러 나라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포청소년 간 교류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초청 연수나 호주 광복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족캠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대상의 연수, 그리고 교회 등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프 등 정도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초청 연수는 올해 1,000여명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호주에 국한해서 보면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번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광복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족캠프의 경우에도 매년 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한번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는 그 대상이 대학생 2명 정도로 참여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2 : 네,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워요. 올해도 신청하고 싶었는데, 올해는 작년엔, 아니면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안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만약에 되면 그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버리니까 그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청소년 6 : 호주에 살면서 이런 한국의 커뮤니티랑 더 가깝게 소통하고 캠프 가는 게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특히나 한국교회 캠프 같은 경우는 그 교회 관련된 것만 하는데 이렇게 한국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캠프를 가는 거는 진짜 드물잖아요,

성인 7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일본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6박 7일 혹은 5박 6일, 작년 같은 경우 연해주 쪽으로 5박6일, 올해는 또 대한민국임정수립 그 경로를 따라서 간다고 상해해서부터 중경까지 완전히 폴로 가는 거기 때문에 7박8일. 이번에 저도 갑니다만, 그런 데에 대학생들 보내요, 두 명을 선발해서

동포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은 시드니와 타 지역 간에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드니 지역과는 달리 브리즈번 지역의 한글학교 교사나 부모들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초청 연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광복회 호주지회에서 주최하는 민족캠프 등에 대해서도 거리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 차원에서도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 10 : ‘그게 좋다, 좋은 기회다.’라고 느끼는 그게 조금 떨어지고, 부모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하라고 푸시를 하지만 여기 분위기 애들은 푸시 한다고 다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도가~,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했지만 참여자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거 말고 주최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는 한글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하게끔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고, 사실, 그런 규모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특별히 호주에서는 2018년 6월 16일에 동포청소년 간 네트워크인 KAYN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복회 호주지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민족 캠프 참가자 중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호주한인차세대들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케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케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향후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인 7 : 작년 6월 16일 날 호주한인차세대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KAYN이
예요, 케인,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유스 네트워크. 그래서 1, 2, 3기 학생들이 계속
네트워크를 갖게, 그러니까 학년은 천차만별이죠. 1, 2, 3기가 되니까 이미 대학생이 된
학생도 있고~ 작년에는 4기가 나왔잖아요, 4기 학생은 희망자 60명 중에서 한 15명
이라든지 20명 넣고, 또 빠지는 사람 또 빠지고 그래서 한 80명 선이 상당히 좋겠다,
그게 아이디얼한 숫자 같다고 그래서 그 숫자로 이어가게 하면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게 케인이예요.

청소년 7 : ‘아. 이게 뭐지?’ 했더니 들어갔는데 이제 언니가 말했다시피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한국이랑 뭐 호주의 약간 그 커넥션을 같이
만들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호주에서 살고 있는
한인의 대표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커서 이제 어른이 될 때 이런 커넥션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들어갈 때 되게 보람찼다고 느꼈어요.

6) 거시체계 : 호주 한인사회, 호주의 문화 수용 및 확산

(1) 호주 한인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문화 : 긍정적인 인식, 하지만 부족한 기여문화

호주 한인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민사회도 건강해짐에 따라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어가
자녀들의 진로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인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호주 내 한인단체
등에서의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 3 :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위상도 높아지고, 그게 또 그런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 2 : 한인단체 내에서 그렇게 교육에 대한 기부문화가 그렇게 잘 되어있다고 안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인단체 어르신들이 당신들 행사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서로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교민사회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민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호주 한인사회의 차세대들이 한인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인 한인회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성인 4 : 교민사회도 이제 건강해졌고 또 어느 정도 약간의 부는, 부라기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조금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더 한국정부의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 아이들이 충분히 코리안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성인 8 : 딱히 뭐, 한인회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위주로 생활을, 그게 이제 조금 더 자기가 경험하는 좀 더 큰 공동체? 한국공동체?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한인회 같은 경우는 애들을 위해서 딱히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 호주의 한국 문화 수용 : 한류 확산 등으로 긍정적인 인식 확대

호주 사람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에서의 한류의 확산과 호주 한인사회의 성장, 그리고 한국의

방문기회가 늘어난 것 등이 호주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긴장관계나 위험 요인 등이 있다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 : 어. 어떤 사람들은 케이 팝 그런 거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되게 좋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북한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성인 3 : 정치권들이 한국을 알아서라기보다는 한인사회의 파워가 세지고 세계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을 실제 다녀와 보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런 부분이 바뀌는 거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7)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

(1) 목표 및 지원 방향 : 주류사회 진출과 한국 친화적인 성장 지원

호주 한인사회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가장 큰 방향은 우선적으로 호주 주류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일단 호주사회에서의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를 수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한인공동체에서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호주사회에서의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8 : 일단 주류사회에 잘 적응을 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류사회에서 생활을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한국에 갈 기회 등등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 3 :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익힌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이 주류사회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들어가는냐가 가장 중요해요. 메인 스트림에서 살아남으면 그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메인 스트림의 각계각층에 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효과는 다 나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또한 호주 한인사회 청소년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함께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나 한국 친화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호주와 한국의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호주 시민권자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이중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한국과 호주의 정치, 경제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인 2 :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알아야 돼요, 호주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한국, 한국'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중 언어를 하듯이 이중정체성을 가져서 애네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한국정부와 호주의 경제적인 것부터, 정치적인 거를 브리징 역할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요, 지금 하고도 있고요. 지금 한인 자녀들 중에는 한국컴퍼니에 들어가서 여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고~

성인 4 : 거창하게 '애국자' 이런 게 아니라 더 프렌들리한, 코리아가 좀 프렌들리한 그런 정서를 갖고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가 한글로 연결이 되고 한글이 한국문화로 연결이 되고, 그게 진짜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게 애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2) 전문인력 지원 : 사업비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추가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 연수 등을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하지만 현재 지원방식은 인력 지원은 없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비 이외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성인 2 : 사업계획을 하세요, 그럼 저는요, 머릿속에 프로그램은 이만큼 있어요. 프로그램 하면 뭐해요, 시간 절약해서 다 해갖고는 밤잠 못자가면서 만들어 내요. 그러면, 내가 오죽하면 작년에 사업신청 안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음식 값으로 다 나가요. 그럼 백 몇 십 명이 모여요, 백이삼십 명 모여요. 그러면 음식 값 하면 남은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또 강사는 지원 안 해주신대요, 우리 알아서 하래요.

성인 3 : 프로그램 돌릴 수 있게 채용하고 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주고 이게 자체로만 운영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체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역량과 시간투입과 그다음에 조직화되지가 않는단니까요. ... 돈 4천불 주고 연수시키라고 하는데 그게 연수가 돼요?

또한 한글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한국에서 보내주는 강사들의 경우에 한두 번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지역 내 학교나 타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차례 강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전문성 있는 한글학교 교사의 확보를 위해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교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한국에서 교사 경험이 있는 분들의 호주 교사 교육과정 공부를 위한 지원 등 현지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 4 : 지금 한글학교협의회에서 한국에서 강사 초빙해가지고 한번하고 행사가 끝나는데, 이렇게 오셨을 때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강의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여기 지금 교환교수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성인 9 : 여기 교민자녀들 중에서 교육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원해서 교사를 만든다든가, 한국어에 대한 좀 활성화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어교사를 하셨던 분이, 국어교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가르쳐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여기 교사 교육과정을 공부 하셔야되는데, 무슨 지원도 없고~

(3) 교사 연수 : 집중 연수 기회 확대

한글학교 교사 연수의 경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나 현지에서의 집중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1박 2일 등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래 연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예산만 주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인력이나 강사 등의 지원을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 10 : 교원양성과정이라든지 그 한국 뭐 교원 2급인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올해 35명? 전 세계에 35명? 그러던데 그러다보면 선생님들이 ‘내가 저런 거 해서 뭐 하겠어?’ 하시니까 쉽게 포기하시고, 물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는 하겠지만, 그런 기회를 조금 많이 주시면

성인 4 : 오세아니아 연수가 1박2일로 하거든요. 근데 1박2일로 해서는 뭘 배울까요? 1박2일로 해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그냥 여행시켜주는 어워드 개념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적인 여기서 파견하는 연수가 좀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4) 한글학교 교재와 커리큘럼 : 적절한 시기, 중등학교 교재 지원과 커리큘럼의 통일성 확보

한글학교 교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현실과 다른 호주 현실을 반영한 교재, 그리고 저학년 위주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재에 대한 요구가 있다. 교재를 받는 시기에서도 일년 후에 사용하지 않고, 제 때에 받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 년에 한번 받기보다는 1, 2학기에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성인 10 : 메인교재가 지금 미국에서 쓰는 걸 쓰니까 호주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 교재도 10년 전 교재라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지금 저학년 위주의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큰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좀 해주시면

성인 5 : 저희가 교과서가 1년에 한번 받아요. 사실 큰 일이라는 거 알거든요, 배로 전 세계로 배송해주는 거 아는데, 한국도 1학기, 2학기 있잖아요. 저희도 2학기에 좀 나눠서 받았으면 하는 그냥.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이 많아 가지고 교재수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의 교과서인데 외국인을 위한 교과서, 그러니까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지문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한글학교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현재 한글학교별로 또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도 최근 시드니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등 한글학교의 수준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글학교 자체적으로도 상호 간에 공통적인 목표와 동일한 교육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안을 공유하고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 6 : 시드니 대학에서 교육부에서 7.6밀리언을 받아서 지금 ... 소수언어 학교들을 지원해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시크리라고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가 ‘좀 이거를 평준화 시키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코스를 하나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교사들도 지금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학교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평준화시키자는 것 때문에 ‘실러버스를 좀 가지고 하게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Unit of work도 쓰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파스포트라는 것 좀 만들어서 이 아이가 한글학교 A에서 배운 거를 B에 가서도 그 수준이 인정되게 하자.’ 그런 거를 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막 시작했기는 했거든요.

성인 8 : ‘수업안은 이렇게 하면 나이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아니면 수업목표는 애초에 외국어밖에 못하는 애들은 ‘수업목표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적인 도움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항상 느꼈고요.

(5) 토픽(TOPIK) :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전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보급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픽(TOPIK) 시험에 대해서 한글학교 교사들은 현재 시험 내용이 성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동포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되어 있어서 동포청소년들이 시험을 치루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성인 5 : 토픽2 시험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은 충분히 넉넉한데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물론 목적이 저희처럼 재외동포학생들을 위한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혹시 별도의 시험이 있다면 내용을 좀 아이들 위주로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내용이 애들이 전혀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해하는 데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6) 문화체험 : 기회의 확대와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기회 확대

동포청소년들은 주변에서 한국의 전통민속놀이나 연극, 뮤지컬 등의 기회가 적어서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활동 체험 기회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한국 문화체험 활동에서 단순히 관람객의 차원에 머무르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주최 측과 함께 홍보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크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청소년 6 : 근데 민속놀이, 사물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나 그런 거 배우는 거 등등 그런 기회는 여기서 가야금 배우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호주에서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되게.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민속 전통놀이 그런 거를, 그런 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인 10 : 한국인들이 하는 연극이 있더라고요. 연극해가지고 연극 보러오라고 팸플릿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거, 연극 같은 거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있으면 해서 그런 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한인학생회들에게 연락을 해주면 저희 임원진들이 받고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서로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7) 동포청소년 교류프로그램 : 참여 기회의 확대 및 다변화

한글학교 교사들이나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은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프로그램이 많아져서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류 프로그램은 개인 한국 방문과는 다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참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호주 현지에서의 캠프 기회나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프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특히,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취지에서 한번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교류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인 4 : 아이들이 부모들이 돈 들어서 보내는 거하고 어떻게든지 가버먼트랑 연결을 시켜서 보내는 거하고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고,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갔다 오면 확 바뀌어요. 좀 더 한국적인 거, 한국문화, 그 다음에 호주문화에서 '저거는 혹시 우리 에이전트들이 전해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꽃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 계속 가는 건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청소년 6 : 저희 한글학교는 없고, 혹시나 한국에 있는 캠프나 여기 있는 캠프, 이 민족캠프 말고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진짜 꼭 가고 싶어요.

성인 7 : 참여했던 학생들은 다 빠жо. 여기 민족캠프 했어도, 여기 보면 민족캠프 1~3기생 제외 딱 써놓조. 그리고 했던 학생들은 다음에 못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동생 보내라.’ 그러는 거조.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직접적인 체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한국인의 후예로서 자긍심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성인 4 : 대학생 넘어가면 늦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학생까지 이런 애들을 계속 한국에서 불러들여서 브레인 워시를 좀 시켜줘야 돼요. ...조금만 더 한국의 정책에, 한국정부의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 아이들이 충분히 코리아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8) 학생 간 교류 : 자유로운 연수를 위한 제도 개선

청소년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자율 학기제 동안에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단체로 호주 학교에서 연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기 중 연수를 수업일수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학기 중에 수 천 명씩의 학생들이 연수를 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오지 못하고 주로 방학 때만 오기 때문에 시기도 제한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 9 : 그거는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단체에서 여기 3주고, 4주고 와서 연수를 하고 싶은데 그게 학교를 빠지는 게, 교육부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일수가 안되서. 그래서 학교들은 보내고 싶어 해요, 너무 많은 학교들이. 아이들한테 참 좋은 기회라고...

(9) 공립학교에 한국어 클래스 도입 : 한국어교사 양성 등 지원 확대

호주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아시아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류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소극적인 한국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퀸즈랜드 지역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교 내 평가제도가 없어지는 등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 및 한글학교 교사들은 보다 정부지원 노력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한국어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7 :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특별히 한국어라는 그 언어는 배울 수 있는, 그 따로 있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근데 점점 올라가고 5, 6학년 7, 8학년, 9학년까지 올라가 보니까 한국어 배울 수 있는 클래스가 없는 거예요. 제2외국어를 한국어라는 선택이 없으니까, 그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인 9 : 지원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국어에 대한 좀 활성화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현지에 있는 학교에서도 한국어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바라볼 거고,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학교에서도 웰컴을 하고 한 클래스, 두 클래스 어차피 교사 하나가 있으면 돌아가는 거니까.

(10) 청(소)년단체 지원 : 전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동 참여 기회 제공

호주 한인사회 내에는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많은 전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호주 한인사회 자체적으로 청소년 교육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호주 청(소)년들의 모임이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인단체에서 한인 행사나 한국 관련 주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이들 청(소)년들과 공동으로 기획을 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 1 : 우리 교포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백 명은 넘는 것 같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포들이. 우선 개네들부터 확보를 해놓아야 돼요. ...그럼 개네들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 애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돼요. ...영사관이나 이런 대사관에서도 그런 전문 청소년들 오는 애들을 잘 에이스로 만들어서, 815라든가 3.1절 이럴 때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그래야지만 자기네 단체에 가서

학생 11 : 한인학생회랑 다른 호주 한인사회가 조금 더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라든가 아니면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임원진들에게 연락을 줘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하는 게 좀 많이 커요.

3. 소결

호주 동포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포청소년의 대한민국/동포사회 친화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성인 및 동포청소년 대상의 면담 결과에서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다음과 같이 청소년 대한민국/동포사회 친화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개인적 역량과 한국에 대한 인식

호주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재학 중에 비교적 자유롭게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도 비교적 높고, 이러한 역량은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주 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도 비교적 높으며, 이것이 향후 대한민국/동포사회 발전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주 동포청소년들의 성장자원을 위해서 미래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한민족 정체성 향상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호주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다소 막연한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미래 대한민국/동포사회 발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포청소년의 한국어교육 참여기간은 한국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참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체계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부모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고, 가정에서의 한국 친화활동이나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자녀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을 한민족 정체성 강화와 한민족 공동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동포 친구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이 이러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문화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친구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정규 학교, 한글학교, 한국에 있는 친구와의 연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주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그 기회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포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호주에서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그리고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포청소년들의 한글 학교 참여는 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생들에 따라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보다는 한글학교에서 경험 기간에 따라서 개인적 역량이나 한국어능력,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및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한민족 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위한 한글학교 커리큘럼의 개선과 호주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중간체계

양적 조사 결과에서는 동포 부모들 간의 교류나 부모와 교사의 만남 등의 요인들이 한민족정체성이나 대한민국/동포사회 발전에서의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호주의 교육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요인들은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개선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동포 부모들 간의 모임은 주로 학교나 종교기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62.7%의 부모들이 다른 한인 부모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정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어 채택 여부가 학부모 커뮤니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동포 부모들 간의 모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포 부모들 간의 모임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과 한글학교 교사와의 소통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여부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모들과 한글학교 등 교사와의 교류에 대해서 27.7%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상당수 부모들이 한글학교에 학생들을 맡겨 놓고 교사들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정 등의 경우에는 한글학교에서의 자녀 적응의 문제 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동포 자녀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4) 외체계

호주에서는 정규학교 학생들에게 아시아국가의 언어 교육을 권장하고 있어서 한국 한국어강좌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다니는 학교 중에서는 학교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10.1%였으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에 한국어강좌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23.9%, 방과 후 수업에는 25.8%의 학생들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강좌 개설과 참여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강좌는 주로 시드니지역에 많이 보급되어 있으나 퀸즈랜드나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의 부족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시드니 지역을 포함한 다른 주에도 정규학교에 한국어강좌 확산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나 한국에서의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한국에서의 교육과 일, 그리고 교류프로그램 등에서의 참여 욕구는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과 대한민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39.7%만이 호주에서의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참여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는 18.6%의

청소년들만이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서의 교류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이나 한국어 교육 경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참여기회의 부족(21.2%), 프로그램 정보의 부족(17.9%), 한국어 능력의 부족(15.6%), 원하는 프로그램 부족(14.5%)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에서도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호주에서나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참여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되기만 하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포단체 등에서는 호주 내에서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에서 실시하는 교류 프로그램의 기회나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거시체계

호주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확산 노력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된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인회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한인회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 행사에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80.1%의 청소년들이 행사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1번 참여한 청소년은 20.1%, 2번 참여한 청소년은 22.6%, 3번 참여한 청소년은 15.1%, 4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은 23.1%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인회 등 동포단체의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한 동포들의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이 45.3%, ‘보통이다’가

47.7%, 부정적인 응답이 7.0%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복회 호주지회와 같은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주 교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미래 호주 교민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한인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보다 필요하다.

호주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우호적인 태도는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인 후예로서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류의 확산, 호주 한인사회의 성장, 한국 방문기회의 확대 등으로 호주사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62.7%, 보통이 31.8%, 그리고 부정적인 응답이 5.5%로, 많은 호주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호주인들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호주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호주 동포사회 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6) 시간체계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민족 정체성이나 대한민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일은 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거나 미래 대한민국이나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부모들의 인식과 한국 문화, 한국 방문, 캠프 등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호주 이민세대의 교체로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이 자녀들의 언어 습득을 위한 유리한 기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동포청소년들의 과거 한국문화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0%가 한국문화를 자주 경험하고 있었고, 한국 방문 경험은 응답자의 98%가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한국 방문 욕구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캠프에서의 참여 경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동포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문화 체험 경험과 함께 캠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6장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 1.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2.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 3. 소결

1.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조사 응답자수는 208명이며, 응답자 중 여자 청소년은 56.5%, 남자 청소년은 43.5%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등학생이었으며 (53.8%), 그 다음이 중학생(29.3%), 초등학생(16.8%)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5.26세였다.

표 VI-1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8	100
성별	여	117	56.5
	남	90	43.5
학교급	초등학생	35	16.8
	중학생	61	29.3
	고등학생	112	53.9
평균연령		15.26세	

57)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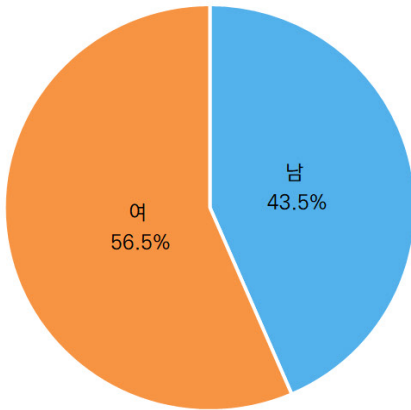


그림 VI-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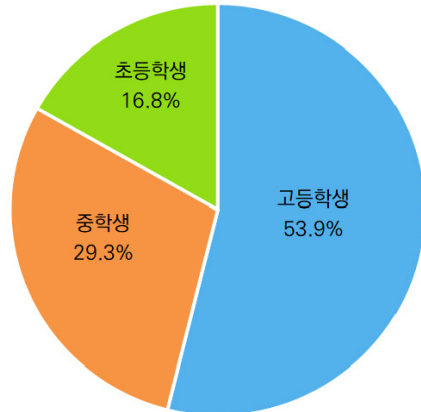


그림 VI-2 학교급

현재 국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0%는 대한민국이 국적이었고, 뉴질랜드 국적이 26.6%, 이중국적이 27.5%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국적자에 해당한다. 다만 뉴질랜드 국적자에게 입양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뉴질랜드 국적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 부모 모두 한국인이지만 최소 한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그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이중 국적에 해당한다.⁵⁸⁾

58) 뉴질랜드 대사관 공지사항(http://overseas.mofa.go.kr/nz-ko/brd/m_1772/list.do) 중 '복수국적 안내'

표 VI-2 현재 국적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뉴질랜드	55	26.6
이중국적(뉴질랜드+대한민국)	57	27.5
대한민국	91	44.0
기타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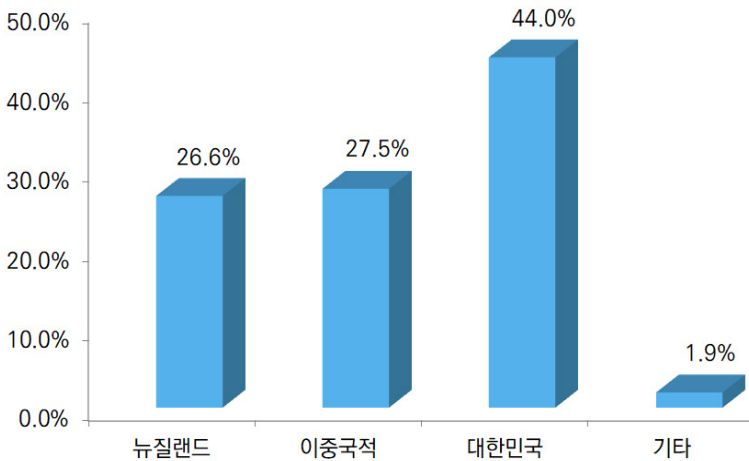


그림 VI-3 현재 국적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부모의 인종은 절대 다수가 '부모 모두 한인'(9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뉴질랜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투자, 교역,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이민한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3 부모의 인종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부모 모두 한인	197	94.7
어머니만 한인	7	3.4
아버지만 한인	0	0.0
부모 모두 한인 아님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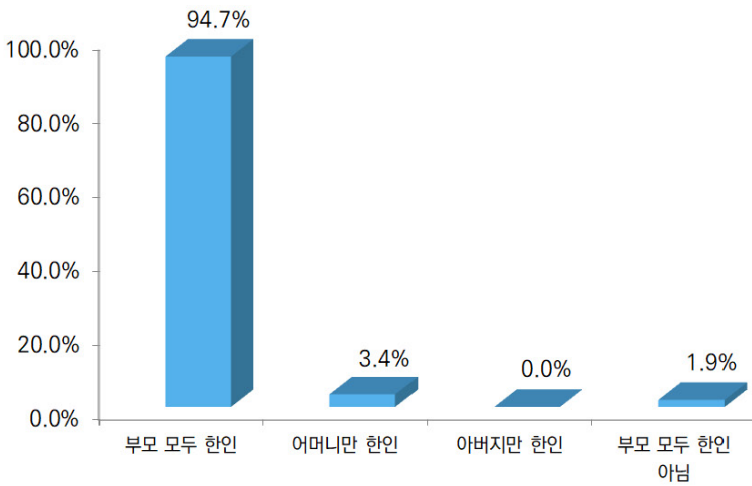


그림 VI-4 부모의 인종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비율(56.9%)은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비율(40.2%)은 스스로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I-4 나의 정체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한국인	116	56.9
한국계 뉴질랜드인	82	40.2
뉴질랜드인	3	1.5
기타	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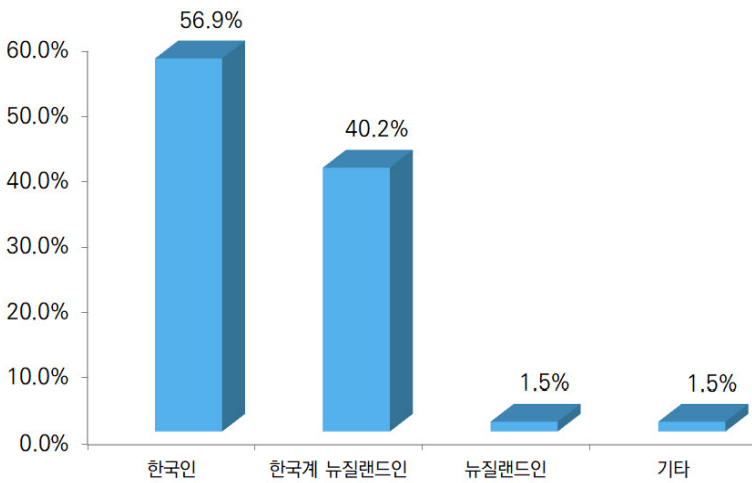


그림 VI-5 나의 정체성

2)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

(1)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 시민의식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개

영역 중, 사회적 책임의식의 평균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 시민의식(3.98), 의사소통능력(3.92)의 순서로 높았다.

표 VI-5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	203	3.92	0.70
사회적 책임의식	200	4.04	0.68
세계 시민의식	202	3.98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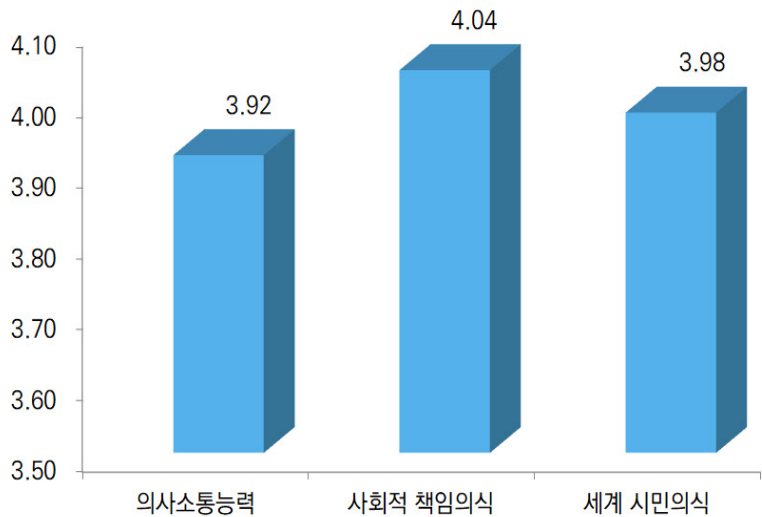


그림 VI-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문항별 평균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평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능력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1로 가장 높은 반면,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문항이 3.76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6 의사소통능력(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203	3.90	0.86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203	3.76	0.91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203	4.11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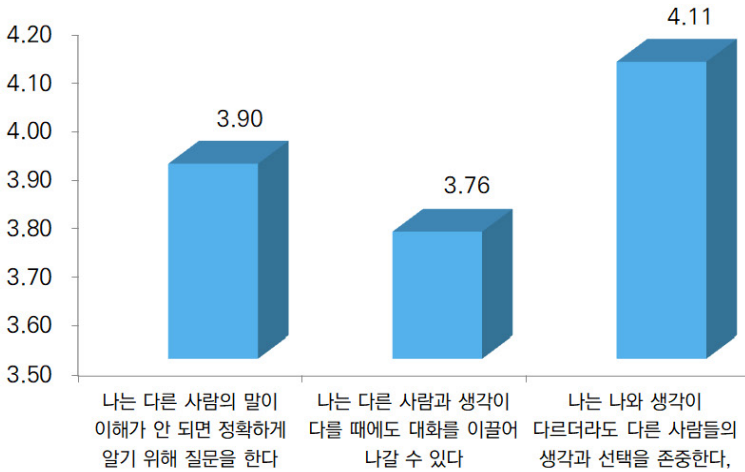


그림 VI-7 의사소통능력(문항별)

한편 배경변인별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초등학교 및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출생 또는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에 비해 유학 중인 동포청소년이, 뉴질랜드 국적자보다는 이중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인 동포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이

더 높았다. 특이한 결과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에 비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의 배경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⁹⁾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의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7년 이상인 집단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후분석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VI-7 의사소통능력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전체	202	3.93	0.70	5.182*	
	여	112	4.03	0.66		
	남	90	3.81	0.73		
학교급	전체	203	3.92	0.70	7.930***	고등학생 >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32	3.58	0.79		
	중학생	61	3.81	0.67		
	고등학생	110	4.08	0.65		
거주동기	전체	201	3.93	0.70	4.707*	유학 > 출생, 이민
	출생	76	3.88	0.74		
	유학	31	4.28	0.66		
	이민	94	3.86	0.65		
국적	전체	198	3.91	0.70	4.647*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3	3.67	0.70		
	이중국적	57	4.02	0.58		
	대한민국	88	3.99	0.73		

59) 이들의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이들 중 80%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거주동기는 유학(41.7%)과 이민(36.7%)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60.0%)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한국어 교육기관 유경험 집단에 비해 학령기에 유학 또는 이민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인식이 긍정적이고 관련 경험도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2	3.92	0.70	6.437*	
	있음	143	3.84	0.71		
	없음	59	4.11	0.65		
한국어 교육 참여기간	전체	135	3.85	0.72	2.947*	
	1분위 (1~24개월)	37	3.96	0.65		
	2분위 (25~50개월)	30	3.69	0.81		
	3분위 (51~84개월)	38	3.67	0.66		
	4분위 (85~162개월)	30	4.10	0.69		

* 주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90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	4.03	0.81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	4.18	0.87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	3.90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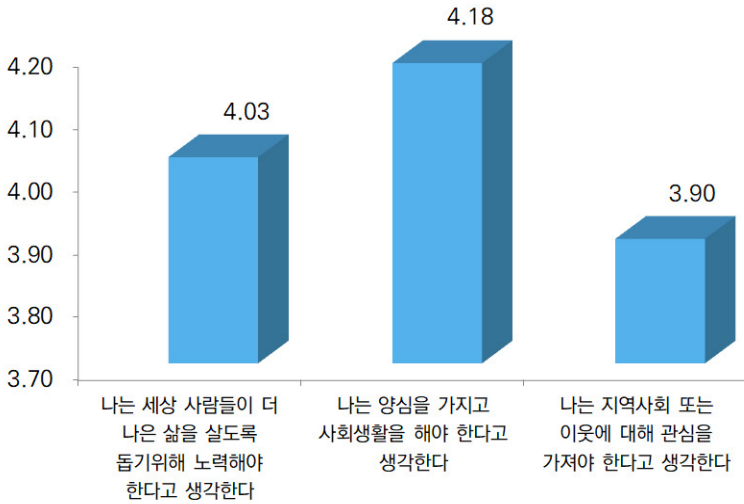


그림 VI-8 사회적 책임의식(문항별)

배경변인별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출생 및 이민 청소년에 비해 유학 청소년이, 뉴질랜드 국적 청소년에 비해 이중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이, 한국어 교육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비해 없는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의식의 평균이 더 높았다.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이, 나의 정체성의 경우 한국인으로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집단 간에 실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VI-9 사회적 책임의식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전체	199	4.04	0.68	5.315*	
	여	110	4.14	0.69		
	남	89	3.92	0.66		
학교급	전체	200	4.04	0.68	4.234*	
	초등학생	31	3.86	0.77		
	중학생	61	3.90	0.69		
	고등학생	108	4.16	0.63		
거주동기	전체	198	4.05	0.68	4.292*	유학 > 출생, 이민
	출생	74	3.96	0.71		
	유학	31	4.37	0.62		
	이민	93	4.01	0.64		
국적	전체	195	4.02	0.68	8.367*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2	3.72	0.70		
	이중국적	56	4.05	0.64		
	대한민국	87	4.19	0.64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199	4.03	0.68	6.318*	
	있음	141	3.96	0.78		
	없음	58	4.22	0.66		
나의 정체성	전체	193	4.03	0.68	3.355*	
	한국인	111	4.12	0.67		
	한국계 뉴질랜드인	79	3.94	0.69		
	뉴질랜드인	3	3.33	0.00		

* 주 : * $p < .05$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와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문항의 평균이 거의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VI-10 세계시민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202	3.88	0.81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202	4.04	0.80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202	4.01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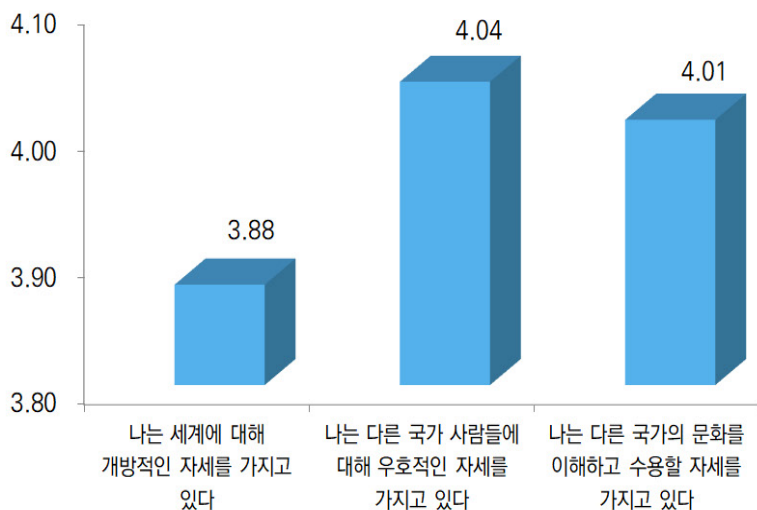


그림 VI-9 세계시민의식(문항별)

배경변인별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거주동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이민 집단에 비해 유학 집단 청소년이,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없는 집단의 세계시민의식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표 VI-11 세계시민의식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2	3.98	0.69	7.396**	고등학생 >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31	3.75	0.77		
	중학생	61	3.79	0.72		
	고등학생	110	4.14	0.61		
거주동기	전체	200	3.99	0.69	3.749*	유학 > 이민
	출생	76	4.04	0.63		
	유학	31	4.23	0.67		
	이민	96	3.86	0.71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1	3.98	0.69	7.902**	
	있음	142	3.89	0.70		
	없음	59	4.19	0.65		

* 주 : * $p < .05$, ** $p < .01$

(2)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능력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두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두 문항을 합산한 평균은 3.94로 나타났다.

표 VI-12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208	4.09	1.04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207	3.80	0.96
전체	207	3.94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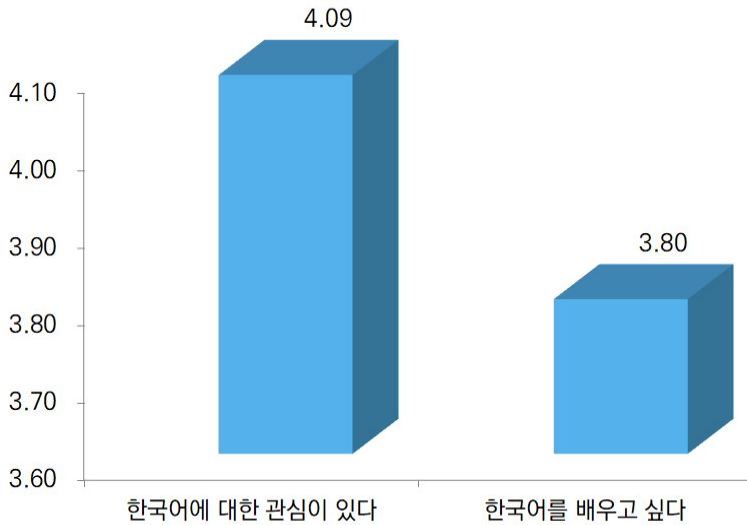


그림 VI-10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

2개 문항을 합산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반면,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질랜드 출생 집단에 비해 유학생 집단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 거주동기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 및 이중국적 집단에 비해 뉴질랜드 국적 집단의 평균이 일관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의 정체성을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한국어에 대한 관심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8	4.09	1.04	6.824**	고등학생 > 중학생
	초등학생	35	3.97	0.89		
	중학생	61	3.74	0.89		
	고등학생	112	4.32	1.11		
거주동기	전체	206	4.11	1.04	4.740*	유학 > 출생
	출생	77	3.90	0.84		
	유학	33	4.55	1.72		
	이민	96	4.13	0.81		
국적	전체	203	4.08	1.05	5.555**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5	3.69	0.81		
	이중국적	57	4.19	0.79		
	대한민국	91	4.25	1.25		
나의 정체성	전체	201	4.08	1.05	4.790**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한국인	116	4.28	1.15		
	한국계 뉴질랜드인	82	3.82	0.83		
	뉴질랜드인	3	4.00	0.00		

* 주 : * $p < .05$, ** $p < .01$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문항에 대한 평균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4.35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쓰기의 평균 점수가 4.19로 가장 낮았다.

표 VI-14 한국어 능력(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208	4.45	0.78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208	4.40	0.75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207	4.38	0.83
한국어를 쓸 수 있다	207	4.19	0.98
전체	207	4.35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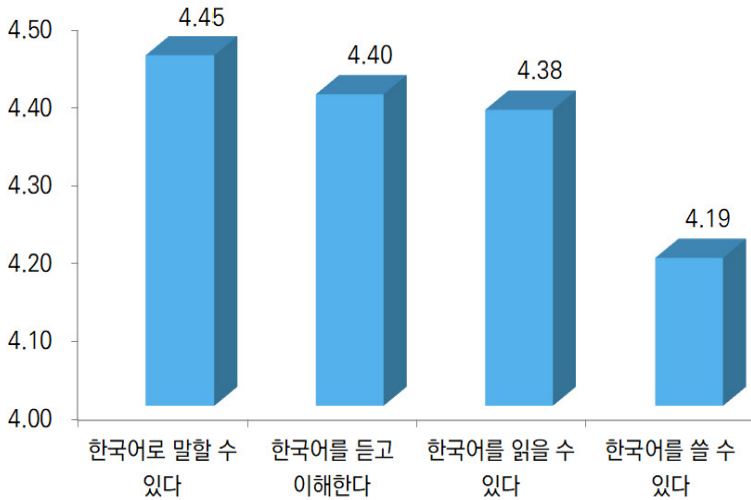


그림 VI-11 한국어 능력(문항별)

한국어 능력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5 한국어 능력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전체	206	4.36	0.76	6.114*	
	여	116	4.47	0.68		
	남	90	4.21	0.83		
학교급	전체	207	4.35	0.76	9.327***	고등학생 > 중학생
	초등학생	35	4.36	0.67		
	중학생	61	4.02	0.86		
	고등학생	111	4.53	0.68		
거주동기	전체	205	4.35	0.76	12.475***	유학, 이민 > 출생
	출생	77	4.06	0.86		
	유학	33	4.78	0.43		
	이민	95	4.43	0.70		
국적	전체	202	4.35	0.77	30.076***	대한민국, 이중국적 > 뉴질랜드
	뉴질랜드	55	3.76	0.83		
	이중국적	56	4.44	0.67		
	대한민국	91	4.65	0.56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6	4.35	0.76	22.117***	
	있음	146	4.20	0.79		
	없음	60	4.72	0.53		
나의 정체성	전체	200	4.35	0.76	12.270***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뉴질랜드
	한국인	116	4.55	0.64		
	한국계 뉴질랜드인	81	4.12	0.84		
	뉴질랜드인	3	3.17	0.14		

* 주 : * $p < .05$, *** $p < .001$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평균이 높았으며, 중학생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출생, 뉴질랜드 국적 집단, 나의 정체성을 뉴질랜드 인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한국어 능력 평균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한국어 능력 평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이미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 굳이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우선 한국에 대한 지식은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을 평균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60으로 이 중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16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208	3.24	1.06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	208	3.68	0.92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	205	3.88	1.04
전체	205	3.60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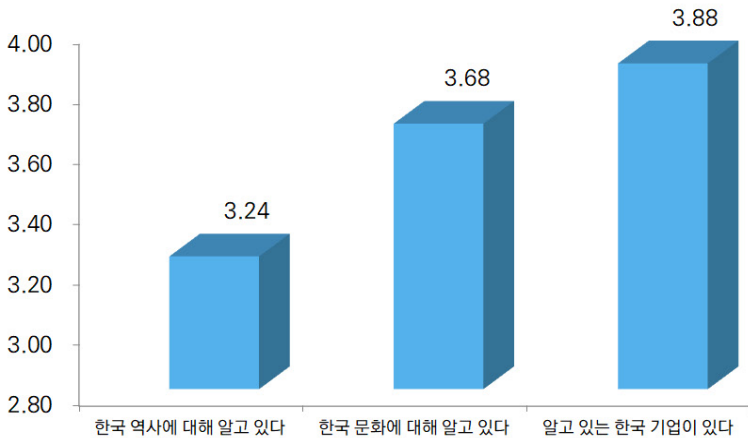


그림 VI-12 한국에 대한 지식(문항별)

한국에 대한 지식 평균을 배경변인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관되게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 비해 고등학생이, 출생 및 이민 집단에 비해 유학 집단이, 뉴질랜드 국적에 비해 대한민국 및 이중국적 집단이,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한국에 대한 지식 평균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표 VI-17 한국에 대한 지식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5	3.60	0.86	17.142***	고등학생 >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34	3.14	0.99		
	중학생	60	3.32	0.79		
	고등학생	111	3.90	0.75		
거주동기	전체	203	3.61	0.86	17.381***	유학 > 이민 > 출생
	출생	75	3.29	0.83		
	유학	33	4.27	0.76		
	이민	95	3.64	0.79		
국적	전체	200	3.60	0.87	16.272***	대한민국, 이중국적 > 뉴질랜드
	뉴질랜드	52	3.09	0.75		
	이중국적	57	3.60	0.85		
	대한민국	91	3.89	0.82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4	3.60	0.86	32.611***	
	있음	145	3.39	0.80		
	없음	59	4.10	0.80		
나의 정체성	전체	198	3.61	0.86	8.956***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한국인	114	3.81	0.85		
	한국계 뉴질랜드인	81	3.35	0.80		
	뉴질랜드인	3	2.78	0.84		

* 주 : *** $p < .001$

한편,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 안전한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 4개 문항에 대한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4개 문항 중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 문항에 대한 평균이 높았으며, 안전한 나라,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에 대한 평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VI-18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208	3.55	0.96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208	4.14	0.74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206	4.08	0.84
한국은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이다	206	3.59	0.78
전체	205	3.84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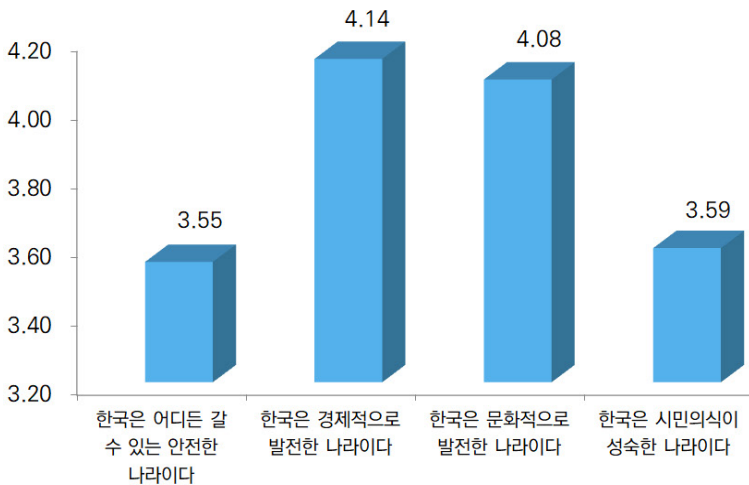


그림 VI-13 한국에 대한 인식(문항별)

배경변인별로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 한국에 대한 지식 변수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이 고등학생이고, 거주동기가 유학에 속하며, 국적은 이중국적 및 대한민국이고,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한국에 대한 인식 평균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19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5	3.84	0.62	4.748*	고등학생 > 중학생
	초등학생	34	3.75	0.71		
	중학생	60	3.68	0.58		
	고등학생	111	3.96	0.58		
거주동기	전체	203	3.85	0.61	7.634**	유학 > 출생, 이민
	출생	76	3.80	0.51		
	유학	33	4.22	0.58		
	이민	94	3.77	0.67		
국적	전체	200	3.85	0.62	7.912***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4	3.57	0.42		
	이중국적	56	3.99	0.61		
	대한민국	90	3.92	0.68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4	3.84	0.62	10.128**	
	있음	144	3.76	0.61		
	없음	60	4.05	0.60		
나의 정체성	전체	198	3.84	0.62	3.214*	
	한국인	115	3.94	0.64		
	한국계 뉴질랜드인	80	3.72	0.54		
	뉴질랜드인	3	3.58	1.15		

* 주 : * $p < .05$, ** $p < .01$, *** $p < .001$

3) 미시체계

(1) 가정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은 부모님과 대화 시 한국어 사용,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 한국 드라마 시청 및 노래 듣기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3개 문항 평균은 4.50이었으며,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의 평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가 가정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한국 친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표 VI-20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207	4.56	0.79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207	4.72	0.55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205	4.23	1.05
전체	205	4.50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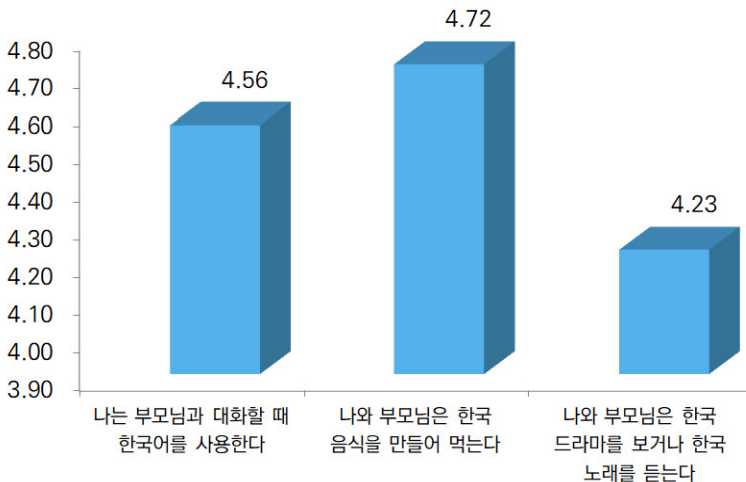


그림 VI-14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문항별)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을 응답자의 배경변인별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과 나의 정체성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들이 뉴질랜드 국적 청소년에 비해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한국계 뉴질랜드인 또는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의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21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국적	전체	200	4.51	0.58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5	4.24	0.66	
	이중국적	55	4.53	0.53	
	대한민국	90	4.67	0.50	
나의 정체성	전체	198	4.52	0.58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 뉴질랜드인
	한국인	114	4.64	0.51	
	한국계 뉴질랜드인	81	4.39	0.57	
	뉴질랜드인	3	3.22	1.17	

* 주: *** $p < .001$

한편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은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3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3개 문항 평균은 3.26이었으며, 3개 문항 중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는 평균이 4.30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경우 각각 평균이 2.83, 2.6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뉴질랜드 동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은 강력하게 기대하는 반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뉴질랜드 동포들이 주로 투자,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자녀가 굳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VI-22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	207	4.30	0.76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207	2.83	1.15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207	2.65	1.01
전체	207	3.26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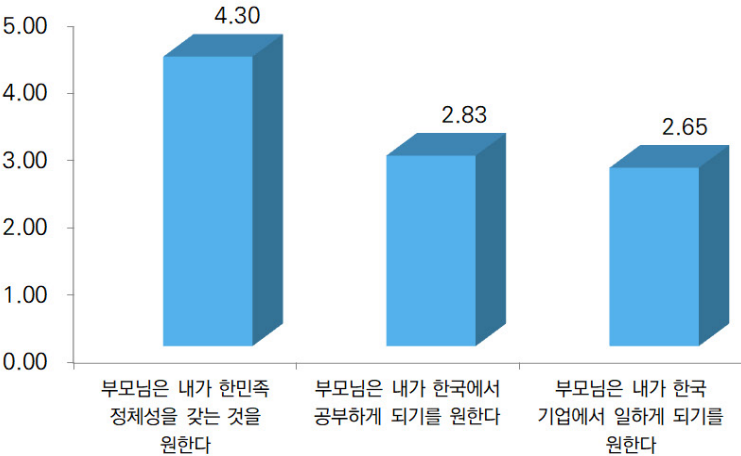


그림 VI-15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문항별)

(2) 친구

동포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64%가 긍정적인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2.7%에 불과해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동포 친구들과 비교적 자주 교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23 동포 친구들과의 만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동포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사례수(명)	6	20	48	70	60	204
	비율(%)	2.9	9.8	23.5	34.3	29.4	100.0

한편,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65%)이 부정적인 응답(15.1%)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24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사례수(명)	8	23	40	70	64	205
	비율(%)	3.9	11.2	19.5	34.1	31.2	100.0

(3) 교육기관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경험 있음이 71.0%, 없음이 29.0%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평균 재학기간은 55.67개월로 보통 4년~5년 동안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25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구 분		사례수(명)	비율(%)
경험	전체	207	100.0
	있음	147	71.0
	없음	60	29.0
평균 재학기간(개월)		138	평균 55.67 (표준편차 38.15)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26 한국어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별 분류

구 분	평균 (개월)	범위	중위수	최빈값	백분위수		
					25	50	75
뉴질랜드	55.67	1-162	50.50	24	24.00	50.50	84.00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주된 이유에는 ‘부모님의 권유’가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26.2%)로 나타났다.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한국어,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다.

표 VI-27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37	26.2
진로나 취업에 도움	7	5.0
한국어,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3	2.1
부모님의 권유	87	61.7
친구의 권유	2	1.4
기타	5	3.5
전체	141	100.0

4) 중간체계

(1) 친인척 모임

친인척들 간의 모임이 자주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26.6%)보다는 부정적인 응답(43.3%)이 더 많았다. 가족과 친척들이 동반 이민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주로 본인 가족만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친인척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친인척과의 모임이 자주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28 친인척 모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친인척들 간에	사례수(명)	35	53	61	30	24	203
모임을 자주 한다	비율(%)	17.2	26.1	30.0	14.8	11.8	100.1

친인척 모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 집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학교급의 경우, 모든 집단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더 많아 공통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생 집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29 친인척 모임 차이분석

(단위 : 사례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성별	여	26 (22.8)	23 (20.2)	33 (28.9)	17 (14.9)	15 (13.2)	114 (100.0)	9.711*
	남	8 (9.1)	30 (34.1)	28 (31.8)	13 (14.8)	9 (10.2)	88 (100.0)	
학교급	초등학생	11 (31.4)	6 (17.1)	7 (20.0)	7 (20.0)	4 (11.4)	35 (100.0)	17.608*
	중학생	9 (15.3)	13 (22.0)	26 (44.1)	8 (13.6)	3 (5.1)	59 (100.0)	
	고등학생	15 (13.8)	34 (31.2)	28 (25.7)	15 (13.8)	17 (15.6)	109 (100.0)	

* 주 :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내 친구 인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부모가 본인의 친구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6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I-30 부모-내 친구 인지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사례수(명)	5	19	56	73	51	204
	비율(%)	2.5	9.3	27.5	35.8	25.0	100.0

(3) 부모-교사와의 교류

부모님이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응답(36.2%)이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도 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 부모-교사와의 교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사례수(명)	30	43	68	33	28	202
	비율(%)	14.9	21.3	33.7	16.3	13.9	100.0

부모-교사와의 교류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교육 기관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없는 집단이 부모-교사와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2 부모-교사와의 교류 차이분석

(단위 : 사례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한국어 교육 기관 경험	있음	13 (9.0)	29 (20.0)	55 (37.9)	26 (17.9)	22 (15.2)	145 (100.0)	16.604**
	없음	17 (29.8)	14 (24.6)	13 (22.8)	7 (12.3)	6 (10.5)	57 (100.0)	

* 주 : ** $p < .01$

(4)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교류

부모와 타 한인부모와의 교류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긍정적 응답이 6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은 다른 한인 부모와 자주 교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33 부모-타 한인부모와의 만남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사례수(명)	10	17	49	67	61	204
	비율(%)	4.9	8.3	24.0	32.8	29.9	100.1

5) 외체계

(1)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정규학교 내 한국어 교육 여건 관련 문항 중,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77.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22.3%로 확인되었다.

표 VI-34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

문 항		사례수(명)	비율(%)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까?	예	46	22.3
	아니오	160	77.7
	전 체	206	100.0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중학생 응답자들의 긍정 응답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35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개설 여부 차이분석

구 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성별	여	18(15.7)	97(84.3)	115(100.0)	6.933**
	남	28(31.1)	62(68.9)	90(100.0)	
학교급	초등학생	4(11.8)	30(88.2)	34(100.0)	10.014**
	중학생	22(36.1)	39(63.9)	61(100.0)	
	고등학생	20(18.0)	91(82.0)	111(100.0)	

* 주: ** $p < .01$

다음으로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정규수업 시간과 방과후 수업시간 중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 정규수업 시간에 한국어강좌 참여 비율은 절반(56.8%)을 약간 넘는 수로 파악되었고, 방과후 수업의 경우 32.6%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6 한국어강좌 참여 여부

문 항		사례수(명)	비율(%)
정규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25	56.8
	아니오	19	43.2
	전 체	44	100.0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15	32.6
	아니오	31	67.4
	전 체	46	100.0

2) 지역사회(한인회) 여건

한인단체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0%인 반면, 1번~3번은 60.5%, 4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37 한인단체 행사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 체
한인회의 '한국의 날'과 같은 한인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사례수(명)	37	47	50	27	44	205
	비율(%)	18.0	22.9	24.4	13.2	21.5	100.0

한인 단체행사 참여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거주동기와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에 따른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집단에 비해 뉴질랜드 출생 집단의 한인 단체행사 참여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차이가 있었다. 한편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한인 단체행사 참여 횟수가 더 많았다. 지금까지 유학생 집단이 출생 집단에 비해,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대부분 종속변수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인 단체행사 참여의 경우 오히려 출생 집단이, 그리고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집단의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한인회 참여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일시 체류의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 집단에 비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하는 출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 활발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38 한인 단체행사 참여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거주동기	전체	203	2.97	1.40	5.085**	출생 > 유학
	출생	76	3.22	1.49		
	유학	31	2.29	1.27		
	이민	96	2.99	1.31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4	2.98	1.39	12.495***	
	있음	146	3.19	1.38		
	없음	58	2.45	1.30		

* 주 : ** $p < .01$, *** $p < .001$

(3)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여건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26.5%)보다 부정적 응답(46.1%)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뉴질랜드 동포들이 자녀를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뉴질랜드로 이주한 점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의 경쟁적 교육여건에 대한 정보를 일정 부분 전달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39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사례수(명)	45	49	56	35	19	204
	비율(%)	22.1	24.0	27.5	17.2	9.3	100.0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부정적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긍정적 응답 및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이 주로 유학생 및 대한민국 국적자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40 한국에서의 학업 욕구 차이분석

(단위 : 시계수(%))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있음	40 (27.4)	36 (24.7)	36 (24.7)	22 (15.1)	12 (8.2)	146 (100.0)	10.147*
	없음	5 (8.6)	13 (22.4)	20 (34.5)	13 (22.4)	7 (12.1)	58 (100.0)	

* 주 : * $p < .05$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역시 긍정적 응답(30.0%)보다는 부정적 응답(36.9%) 비율이 더 높았으며, 유보적인 입장(33.0%)도 유사한 비율로 파악되었다.

표 VI-41 한국에서의 취업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시계수(명)	35	40	67	40	21	203
	비율(%)	17.2	19.7	33.0	19.7	10.3	100.0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적응에 자신이 없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능력 부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는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해야 하는데,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42 한국에서 학업 및 취업이 어려운 이유

구 분	학업	취업
	사례수(%)	사례수(%)
한국 국적이 없음	7(3.9)	4(2.2)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29(16.3)	34(19.1)
능력 부족	35(19.7)	26(14.6)
정보 부족	8(4.5)	19(10.7)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14(7.9)	15(8.4)
참여기회가 부족함	12(6.7)	16(9.0)
비용부담	17(9.6)	4(2.2)
적응에 자신이 없음	51(28.7)	57(32.0)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5(2.8)	3(1.7)

(4)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국에서의 청소년 캠프/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번(16.2%), 4번 이상(8.3%) 순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뉴질랜드 내에서 열리는 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40%임을 알 수 있다.

표 VI-43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 체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한인 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126	33	16	12	17	204
	비율(%)	61.8	16.2	7.8	5.9	8.3	100.0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에 대한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거주국 캠프 참여에 대한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VI-44 거주국 청소년 캠프/연수 참여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4	1.83	1.29	4.215*	고등학생 > 중학생
	초등학생	33	1.73	1.40		
	중학생	61	1.48	0.98		
	고등학생	110	2.05	1.37		

* 주: * $p < .05$

다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역시 '전혀 없음'에 대한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아 거주국 캠프/연수에 비해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미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45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구 분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전 체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145	23	14	8	13	203
	비율(%)	71.4	11.3	6.9	3.9	6.4	100.0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동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출생 집단에 비해 유학, 이민 집단의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평균이 더 높았으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관련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의 정체성을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관련 참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VI-46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거주동기	전체	201	1.63	1.18	6.350**	유학, 이민 > 출생
	출생	76	1.28	0.86		
	유학	30	2.03	1.47		
	이민	95	1.79	1.24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3	1.63	1.18	9.372**	
	있음	145	1.47	1.02		
	없음	58	2.02	1.43		
나의 정체성	전체	196	1.62	1.16	3.956*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한국인	113	1.81	1.28		
	한국계 뉴질랜드인	80	1.34	0.90		
	뉴질랜드인	3	1.67	1.15		

* 주 : * $p < .05$, ** $p < .01$

한국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응답이 26.6%, 긍정적 응답이 43.9%로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47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사례수(명)	21	33	60	43	46	203
	비율(%)	10.3	16.3	29.6	21.2	22.7	100.0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에 대한 응답이 22.8%로 1순위로 파악되었고, 2순위는 '정보 부족'(17.9%), 3순위는 '참여기회가 부족함'(17.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안내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48 한국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한국 국적이 없음	3	1.6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24	13.0
능력 부족	6	3.3
정보 부족	33	17.9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42	22.8
참여기회가 부족함	32	17.4
비용부담	18	9.8
적응에 자신이 없음	22	12.0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4	2.2
전체	184	100.0

6) 거시체계

(1) 한류의 확산

뉴질랜드 내 한류 확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 응답이 78.6%로 나타나 한류의 영향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49 한류의 확산에 대한 인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확산되고 있다	사례수(명)	4	9	31	80	82	206
	비율(%)	1.9	4.4	15.0	38.8	39.8	100.0

(2) 교포 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35.8%는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표 VI-50 교포사회의 한국문화 확산 노력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인교포사회는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례수(명)	5	16	73	73	37	204
	비율(%)	2.5	7.8	35.8	35.8	18.1	100.0

(3) 거주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거주국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2%)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40.0%는 보통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표 VI-51 거주국의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뉴질랜드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사례수(명)	3	11	82	82	27	205
	비율(%)	1.5	5.4	40.0	40.0	13.2	100.0

(4)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인지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8%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보다 약간 낮은 41.4%는 ‘보통’ 수준에 응답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VI-52 대한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	사례수(명)	2	16	84	68	33	203
	비율(%)	1.0	7.9	41.4	33.5	16.3	100.0

7) 시간체계

(1) 가정사 및 이민경험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 살게 된 이유는 이민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출생(37.0%)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약 85%가 이민과 출생에 의해 거주하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의 경우는 부모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가 뉴질랜드로 이주할 때 동반 이주하였거나 부모 세대의 이주 이후 거주국에서 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VI-53 거주국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출생	77	37.0
유학	33	15.9
이민	96	46.2
기타 ¹⁾	2	1.0
전체	208	100.0

* 주 : 1) 기타 사유로는 '부모님 직장 이전' 등이 있음.

뉴질랜드로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를 물어본 결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한 경우가 53.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41.8%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이민 1.5세 또는 2세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VI-54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구 분	사례수(명)	비율(%)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10	4.8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87	41.8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111	53.4
전체	208	100.0

(2)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국문화, 한국인,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다. 3개 문항 평균은 3.80이었으며, 3개 문항 중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3.72로 가장 낮았다.

표 VI-5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6	3.80	0.72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6	3.79	0.81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6	3.72	0.84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6	3.88	0.85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 집단이, 유학생 집단이, 대한민국 국적 집단이,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6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6	3.80	0.72	3.476*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34	3.80	0.81		
	중학생	60	3.60	0.61		
	고등학생	112	3.90	0.73		
거주동기	전체	204	3.79	0.72	4.502*	유학 > 출생, 이민
	출생	75	3.72	0.64		
	유학	33	4.13	0.75		
	이민	96	3.73	0.74		
국적	전체	201	3.80	0.72	4.123*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3	3.64	0.64		
	이중국적	57	3.70	0.66		
	대한민국	91	3.96	0.77		
한국어 교육기관경험	전체	205	3.73	0.72	4.774*	
	있음	146	3.73	0.72		
	없음	59	3.97	0.69		

* 주 : * $p < .05$

(3) 한국문화 체험

과거 한국문화 체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자주'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하여 설문조사 응답자 중 상당수가 한국문화를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9%는 '가끔', 10.2%는 경험한 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57 과거 한국문화 경험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전 체
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사례수(명)	8	13	51	53	80	205
	비율(%)	3.9	6.3	24.9	25.9	39.0	100.0

(4) 과거 한국 방문 경험 및 욕구

과거 한국방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1.2%는 '가끔'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55.6%는 자주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8 과거 한국 방문 경험

문 항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전 체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사례수(명)	10	17	64	44	70	205
	비율(%)	4.9	8.3	31.2	21.5	34.1	100.0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비용부담'으로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절반 이상(54.5%)이 응답하였다. 2순위는 '적응에 자신이 없음'(10.8%), 공동 3순위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10.2%)과 '참여기회가 부족함'(10.2%)으로 파악되었다.

표 VI-59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순위
한국 국적이 없음	6	3.4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18	10.2	3
능력 부족	7	4.0	
정보 부족	4	2.3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6	3.4	
참여기회가 부족함	18	10.2	3
비용부담	96	54.5	1
적응에 자신이 없음	19	10.8	2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2	1.1	
전 체	176	100.0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욕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가 방문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절대 다수가 한국 방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I-60 한국 방문 욕구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사례수(명)	1	3	23	51	127	205
	비율(%)	0.5	1.5	11.2	24.8	62.0	100.0

8)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은 4개 문항(‘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을 통해 조사되었다. 4개 문항 전체 평균은 4.01이었고, 4개 문항 중에서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가 4.21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의 평균이 3.65로 가장 낮았다.

표 VI-61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208	4.21	0.82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208	4.15	0.83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8	4.02	0.88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208	3.65	1.11
전체	208	4.01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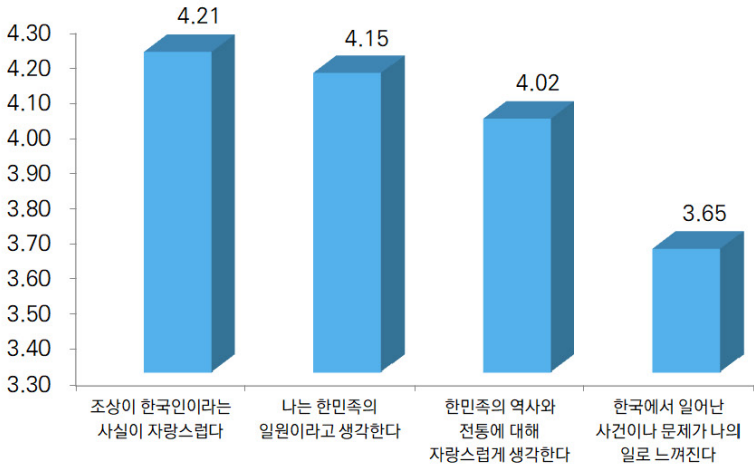


그림 VI-16 한민족 정체성(문항별)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 거주동기,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한민족 정체성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동기의 경우, 유학 집단이 출생, 이민 집단에 비해, 대한민국 국적 집단이 뉴질랜드 및 이중국적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한국계 뉴질랜드인 또는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한민족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표 VI-62 한민족 정체성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학교급	전체	208	4.01	0.74	3.951*	고등학생 > 초등학생
	초등학생	35	3.86	0.80		
	중학생	61	3.85	0.74		
	고등학생	112	4.14	0.68		
거주 동기	전체	206	4.01	0.73	12.884***	유학 > 출생, 이민
	출생	77	3.80	0.72		
	유학	33	4.53	0.65		
	이민	96	4.01	0.67		
국적	전체	203	4.01	0.73	19.250***	대한민국 > 이중국적 > 뉴질랜드
	뉴질랜드	55	3.60	0.73		
	이중국적	57	3.95	0.62		
	대한민국	91	4.30	0.67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7	4.00	0.73	10.797**	
	있음	147	3.90	0.72		
	없음	60	4.26	0.68		
나의 정체성	전체	201	4.01	0.73	14.356***	한국인 > 한국계 뉴질랜드인, 뉴질랜드인
	한국인	116	4.22	0.70		
	한국계 뉴질랜드인	82	3.75	0.67		
	뉴질랜드인	3	3.00	0.43		

* 주 : * $p < .05$, ** $p < .01$, *** $p < .001$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4개 문항(‘뉴질랜드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뉴질랜드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3.50이었고, 4개 문항 중에 ‘뉴질랜드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문항이 3.66으로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의 평균이 3.29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초,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에게 한인사회의 발전, 남북통일, 한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로 인식되기 어려운데다 다소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뉴질랜드 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63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뉴질랜드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203	3.53	0.89
뉴질랜드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202	3.66	0.92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3	3.53	0.96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202	3.29	1.08
전체	201	3.50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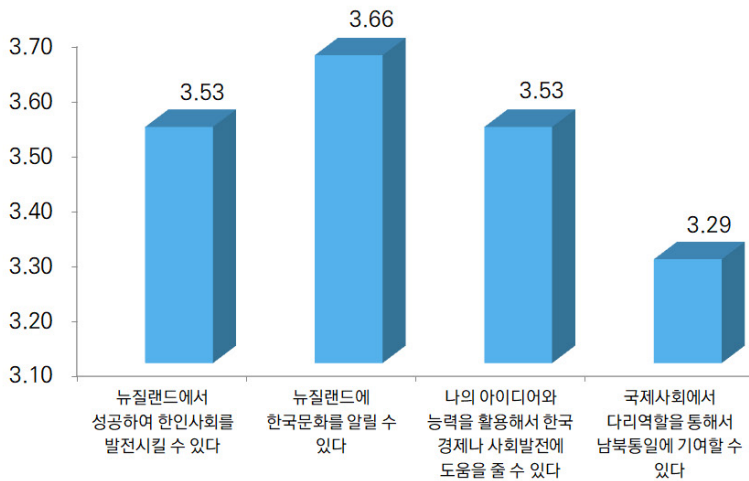


그림 VI-17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문항별)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에 대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나의 정체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국적 집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국적 집단에 비해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더 동의하였고,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나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64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차이분석

구 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국적	전체	196	3.48	0.77	4.154*	이중국적, 대한민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52	3.23	0.80		
	이중국적	57	3.61	0.77		
	대한민국	87	3.56	0.74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전체	200	3.50	0.79	5.292*	
	있음	142	3.42	0.82		
	없음	58	3.70	0.70		
나의 정체성	전체	194	3.48	0.79	3.50*	
	한국인	112	3.59	0.76		
	한국계 뉴질랜드인	79	3.35	0.80		
	뉴질랜드인	3	2.75	0.66		

* 주 : * $p < .05$

마지막으로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응답자의 37.1%가 동의한 ‘한국어 및 역사교육 지원’이었고, 2순위는 ‘한국 방문 또는 한국 청소년 교류 기회 지원’, 3순위는 ‘부모의 인식 변화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인 4순위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차세대 지원’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어 및 한국역사 교육 지원, 한국 방문 기회 및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외동포청소년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VI-65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구 분	뉴질랜드 사례수(명)	비율(%)	순위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5	17.8	3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73	37.1	1
뉴질랜드 한인사회가 차세대(청소년)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32	16.2	
뉴질랜드 (주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4	7.1	
한국 방문 또는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9	19.8	2

* 주 : 기타로는 '인성교육관련 지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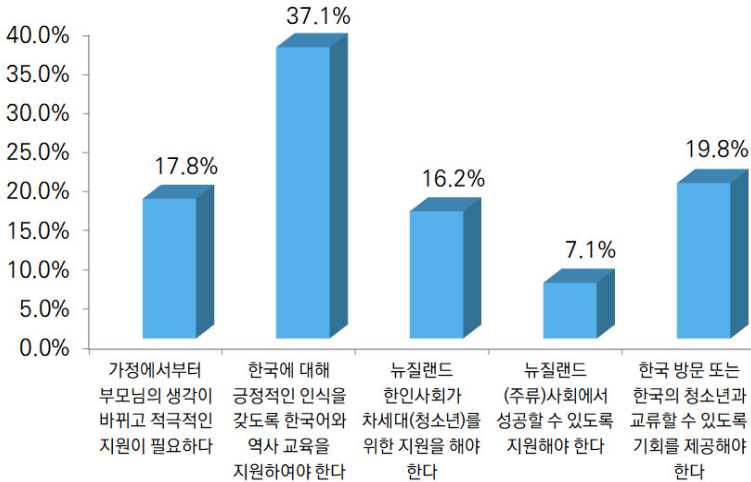


그림 VI-18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9)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및 동포사회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변수와 분석 방법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적 특성과 역량, 가정, 친구, 프로그램 등 교류 환경, 한국에 대한 인식 및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투입은 한민족정체성의 경우에는 4단계로 투입하였으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의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로 논의되고 있는 한민족정체성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대한 영향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에서 한민족정체성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민족정체성의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재외동포청소년 개인특성 변인인 성별, 나이,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거주 이유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등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등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 의식, 세계시민의식, 한국어능력 등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과 관련한 변인을 투입하였다. 또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 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는 한민족정체성 분석에서 1단계 모델에서 투입한 변인에 더해 2단계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을 투입하였고, 한민족정체성 분석에서 2, 3, 4단계 모델에 투입한 동일한 변인을 3, 4, 5단계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측정방법,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I-66 투입변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m	s.d.
종속 변수	한민족정체성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008	.731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	4개 문항	5점 리커트, 5개 문항 평균값	3.504	.793
독립 변수	성별	더미변수	남=1, 여=0	.435	.497
	연령	연령	측정값	15.264	2.890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기간	개월수	측정값 (다녔지 않은 경우=0)	40.862	40.919
	거주이유	더미변수	출생=1, 이민 등=0	.374	.485
독립 변수	부모의 한국 관련 인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263	.727
	가정 내 한국 친화 활동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501	.590
	프로그램 연수 참여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2.145	.949
	한국문화/ 한국방문 경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819	.973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328	.848
	친구들과의 교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775	.864
	부모 간, 부모-교사 교류	2개 문항	5점 리커트, 2개 문항 평균값	3.334	.949
	한국에 대한 인식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3.844	.615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796	.717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측정방법	기술통계치	
				m	s.d.
독립 변수	한국에 대한 지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603	.865
	의사소통능력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925	.701
	사회적 책임의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4.037	.682
	세계시민의식	3개 문항	5점 리커트, 3개 문항 평균값	3.977	.692
	한국어 능력	4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 평균값	4.353	.762

(2) 분석 결과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Model 1(F 변화량=4.163, $p<.01$), Model 2(F 변화량=8.300, $p<.001$), Model 3(F 변화량=13.253, $p<.001$), Model 4(F 변화량=1.831)이었으며 Model 4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이 1.179~2.265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2.120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표 VI-67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3.506*** (.368)		.798 (.520)		.394 (.492)		.079 (.510)	
개인변인								
성별더미	.036 (.111)	.025	.123 (.099)	.084	.096 (.089)	.066	.144 (.093)	.098
나이	.040 (.022)	.146	.003 (.020)	.012	-.024 (.019)	-.086	-.025 (.020)	-.091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001 (.001)	-.062	.000 (.001)	-.013	.000 (.001)	-.017	5.336E-005 (.001)	.003
거주이유 (출생=1, 이민 등=0)	-.321 (.123)*	-.213	-.193 (.111)	-.128	-.186 (.101)	-.124	-.228* (.104)	-.151
가정, 친구, 교류 환경								
부모의 한국 관련 인식			.058 (.073)	.059	-.009 (.067)	-.009	-.011 (.067)	-.011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267** (.091)	.208	.182 (.083)*	.141	.130 (.089)	.101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037 (.052)	-.050	.021 (.048)	.028	.011 (.048)	.015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116* (.058)	.152	-.016 (.058)	-.022	-.026 (.057)	-.034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158 (.065)*	.180	.107 (.060)	.121	.074 (.061)	.084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223*** (.061)	.258	.155** (.056)	.179	.154** (.057)	.178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011 (.055)	.014	.029 (.050)	.037	.017 (.051)	.021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125 (.091)	.107	.092 (.091)	.079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s.e)	β	B(s.e)	β	B(s.e)	β	B(s.e)	β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244** (.080)	.233	.225** (.080)	.215
한국에 대한 지식						.220** (.070)	.257	.200** (.073)	.234
개인적 능력 및 역량									
의사소통능력								-.006 (.077)	-.006
사회적 책임의식								.155 (.083)	.142
세계시민의식								.068 (.095)	.062
한국어능력								.039 (.080)	.041
통계량	R^2	.094		.342		.479		.504	
	R^2 변화량	.094		.248		.137		.025	
	F 변화량	4.163**		8.300***		13.253***		1.831	

* 주 : * $p < .05$, ** $p < .01$, *** $p < .001$

Model 1에서는 거주이유가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9.4%의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뉴질랜드 출생 동포 청소년에 비해 유학, 이민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el 2에서는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34.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부모들이 자녀와 가정 내에서 한국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한국문화나 한국방문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한국 방문이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클수록, 동포친구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과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이 여전히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한국에 대한 지식 변인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인들은 47.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을 많이 하고, 동포친구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개인적 능력 및 역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거주이유 변인의 효과가 다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변인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50.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출생 대비 이민, 유학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일수록, 동포친구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투입한 개인적 능력 및 역량 변인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거주이유,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등의 변인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Model 4에서는 거주이유,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이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민족정체성은 거주이유와 관련이 있지만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나 한국에 대한 지식 변인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친구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을 확대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확대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Model 1(F 변화량=2.423, $p<.05$), Model 2(F 변화량=28.404, $p<.001$), Model 3(F 변화량=8.836, $p<.001$), Model 4(F 변화량=1.398), Model 5(F 변화량=11.736, $p<.001$)로 Model 4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각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IF)이 1.207~2.248로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통계량도 1.585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8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3.098*** (.420)		1.525** (.488)		.346 (.536)		-.004 (.561)		-.855 (.518)	
개인변인										
성별더미	.023 (.124)	.015	.003 (.115)	.002	.022 (.102)	.014	.020 (.102)	.013	.157 (.094)	.098
나이	.035 (.025)	.114	.020 (.023)	.066	.001 (.022)	.005	.004 (.022)	.013	-.001 (.021)	-.002
한국어교육기관 경험 기간	-.003* (.002)	-.183	-.003 (.002)	-.154	-.003* (.001)	-.144	-.003 (.001)	-.140	-.002 (.001)	-.113
거주이유 (출생=1, 이민 등=0)	.019 (.137)	.012	.164 (.129)	.100	.194 (.114)	.118	.150 (.116)	.091	.050 (.107)	.031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			.433*** (.081)	.398	.237** (.084)	.218	.208* (.092)	.191	.096 (.083)	.088

구 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s.e)	β	B(s.e)	β	B(s.e)	β	B(s.e)	β	B(s.e)	β
가정, 친구, 교류 환경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213** (.074)	.197	.181* (.076)	.167	.157* (.068)	.145
가정 내 한국친화활동					.061 (.096)	.044	.063 (.097)	.045	-.050 (.091)	-.036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166** (.055)	.204	.180** (.056)	.221	.147** (.049)	.181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071 (.060)	-.086	-.096 (.065)	-.115	-.117* (.058)	-.142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344*** (.068)	.357	.324*** (.069)	.336	.258*** (.063)	.268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012 (.066)	.013	.007 (.066)	.007	-.004 (.060)	-.004
부모 간, 부모 교사간 교류					-.002 (.057)	-.002	.013 (.058)	.015	.010 (.053)	.012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한국에 대한 인식							.197 (.104)	.154	.138 (.092)	.108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022 (.093)	.019	.017 (.083)	.014
한국에 대한 지식							-.059 (.082)	-.062	-.053 (.076)	-.056
개인적 능력 및 역량										
의사소통 능력									.101 (.079)	.091
사회적 책임의식									.423*** (.087)	.349
세계시민 의식									.079 (.096)	.066
한국어능력									.033 (.080)	.032
통 계 량	R^2	.057	.201		.433		.449		.584	
	R^2 변화량	.057	.144		.232		.016		.135	
	F변화량	2.423*	28.404***		8.836***		1.398		11.736***	

* 주 : * $p < .05$, ** $p < .01$, *** $p < .001$

Model 1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기간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5.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기간이 짧을수록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적극적임을 의미하는데, 앞서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이 없거나 기간이 짧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대부분 유학,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배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 2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민족정체성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2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3에서는 가정, 친구, 교류 환경 관련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기간, 한민족정체성,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4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국어 교육기관 경험 기간이 짧고, 한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이 긍정적일수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보다 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4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한민족정체성,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44.9%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한민족정체성이 높고,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이 긍정적이며,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5에서는 개인적 능력 및 역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개인배경 변인 및 한민족정체성 변인의 효과는 모두 사라진 반면,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사회적 책임의식 변인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은 58.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이 긍정적이고,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방문 및 한국에서의 교육 및 일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동포청소년들은 한국/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보다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민족정체성,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사회적 책임의식 변인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었다.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 교류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방문, 교육 및 일과 관련된 참여 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0)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이 부정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이 적은 동포청소년일수록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더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한국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이 적은 동포청소년들은 뉴질랜드 출생자, 나의 정체성을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소년들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더 동의하게 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석들을 통해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및 성인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한국에 대한 인식

(1) 특성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상적 접근

뉴질랜드 전체 인구는 대략 380만 정도이며 그 중 재외동포는 3만5천명에 달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던 이들 중 일부는 자녀들의 뉴질랜드 적응을 위해 한국어보다 영어 사용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성인 6), 현재 40~50대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재외동포 부모들 중 대다수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성인 11, 성인 15에 따르면,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었다.

성인 6 : 처음에 이민 왔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애 영어만 하게 하려고 막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나면, ‘너 서두르지 마라, 틀림없이 애가 너보다 훨씬 잘할 뿐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할 거다. 그저 넌 집에서 꾸준히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민 초기에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안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영어를 많이 알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터. 그리고 또 부모들이 한글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한글학교에 대한 젊은 부모들의 열성이 대단해요.

성인 11 :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미 한국이 발전을 이룬 상태에서 많이 이민을 오셨고 여기는 점수제 이민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한글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한글과 접하고 한국문화와 접하기가 쉬워요.

성인 15 :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보다 한글학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운영자체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만나는 학부모님들이나 한인 분들, 저희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한국어 대부분 어디서 공부했느냐 물어보면 '집에서 부모님하고는 한국어를 보통 쓴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글학교에서 대부분 배웠다고 하고요. 뉴질랜드가 이민 역사가 지금 30년 정도,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 90년대 초반부터 이민제도가 바뀌어서 그때부터 많이 오셨죠.

(2) 한국에 대한 인식 : 모국은 한국, 내가 살아갈 곳은 뉴질랜드로 인식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한국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한국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성인 15는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모국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평생 본인이 살아갈 곳은 뉴질랜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K-drama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2는 한국의 바쁘고 경쟁적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자신의 미래 삶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 신분인 남자 청소년들은 군대 문제가 걸려 있어 민감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재외동포 여자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1~2년간의 일시 체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15 :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Mother country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는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대학교까지 나온 애들이 한국에 가서 뭔가 일을 구하거나 한국에 가서 한국의 발전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전 안 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청소년 2 : 저는 살기는 뉴질랜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크면 군대도 가야 하고...

청소년 1 : 전 뉴질랜드보다 한국이 더 좋아요. 나중에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어요.

2) 시간체계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면담에 참여한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말한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키위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거나 한인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었던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한인 친구들과 교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인 친구들과의 교류는 이전 시기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거나 한국문화를 접하지 않았던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도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청소년 3). 청소년 12가 언급하고 있듯이, 한인 친구들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공통점은 관계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3 :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키위 애들이랑 많이 놀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말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에 한국만도 안 하고 한국 문화도 접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청소년 12 : 중학교 까지는 한국 애들이랑 별로 안 놀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있는 것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문화적인 공통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인 3의 자녀는 K-pop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진 경우에 해당하였다.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K-pop에 대한 관심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한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자극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 8은 이민 초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뉴질랜드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인식했다.

성인 3 : 첫째가 고등학교 가면서 K-Pop되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K-Pop이 진짜 대단한 걸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 가면 애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사를 물어봐요. 애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근데 애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애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몰라.' 이러면서 한국 가사를 막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K-Pop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되게 더 글로벌화 돼 지고 한국이 되게 화려한 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한국을 보면서 한국이 되게 화려하고,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한국이 teenager들한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더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변에 유학생 애들이 보면 예쁜 것 들고 있고 하고 있으면 쇼핑가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8 : 예전에 이민 왔을 때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는데, 지금은 전 한국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하고 여기는 되게 느슨하게 편안한 게 너무 적응이 되어버렸는지 못할 것 같아요.

3) 미시체계 : 가정, 친구, 학교 환경에서의 한국 친화 활동

(1) 가정 :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조 & 한국적 자녀교육 방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 재외동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 한국문화와 전통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한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한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그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민 온 청소년 3의 부모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조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들에게 한국어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재외동포 부모들은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이 나쁘지 않다.

성인 4 : 오히려 저는 여기서 살면서 '너희는 정말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문화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더 많이 여기 살면서 더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선덕여왕을 보면서 그 삼국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교육을 별로 받은 게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글학교를 안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야. 너희가 영어만 해서 나가면 너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 할 거야.'라고 해요.

청소년 3 : 부모님 중에 아빠가 집에서 영어 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또 어릴 때는 매일 밤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성인 5는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정체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었다. '너희는 한국인 뉴질랜더로서 너희의 뿌리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성장한 1.5세인 성인 5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를 독립적으로 교육시키지 않는 자녀교육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한 교육방식이 차세대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성인 12, 성인 8 역시 한인 부모들의 자녀교육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일부 한인 부모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명망있는 직업으로 인식되었던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군을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뉴질랜드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와 다르며, 직업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차이 역시 한국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부모들은 여전히 한국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 5 : 저희는 집안에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도 한국사람, 저도 한국사람이니깐 매너나 모든 것도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한국 문화에 배어있어요. (중략) 저는 2년 전부터 과감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 교회로 나갔어요. 왜냐면 제가 1.5세이기도 하고 그들을 겪어보니 제가 겪었던 마이너스 되는 점을 아이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왜냐면 이 아이들은 한국 사회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애들인데 굳이 부모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야 하는 건데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한국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치마 속에서 자란다.’ 라고 얘기 하는 그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한국 애들의 가장 단점은 굉장히 독립적이지가 않고 어떤 거를 셋업을 해서 주어져야지만 거기 안에서는 되게 잘 한다. 그래서 유학생 아이들이 여기 와서 키워 사회에 딱 믹스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아이 마인드가 달라지기 전 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제가 한국과 뉴질랜드를 반반을 살았지만 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성인 12 : 제가 볼 땐 엄마 아빠 욕심 때문에 푸시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파일럿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좋은 직장, 직업. 근데 대부분, 물론 그렇게 잘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안 그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잘 살려면 빌더? 페인터? 플러머? 이런 일을 해야 된대요. 저희 주변에 보면 한국에서 아주 고학력자들이면서 일도 정말 고수익,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저랑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페인터 하세요. 그거를 자기가 그런 한국에서 너무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한테 대물림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여기서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망 그런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인 8 : 일반적으로는 여기 와서 사시더라도 ‘한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났느냐면 일반적으로 키워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 기대와 자녀의 어떤 재능이나 또 원함,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진로들을 선택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한국부모들은 의대와 법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교수가 되면 좋겠고,

등등 본인도 힘들어서 그 경쟁사회에서 살짝 피해왔는데, 여전히 본인이 그 사회에서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을 자기 자녀세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많은 한인 부모들이 한국적 자녀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성인 12가 언급하고 있다시피 뉴질랜드 재외동포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서서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 7의 경우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자녀들 중 일부는 성장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성인 7 : 첫째 아이가 한국음식을 싸 가면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 그런다.’ 그런 말도 하고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눈이 찢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나 남편은 ‘그건 네가 이겨낼 문제이고 어디에 가든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있으면 물론 그런 차별은 안 받겠지만 다른 쪽으로도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인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친구 : 한국어 사용 및 한국문화 공감대 형성 기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친구 집단은 다양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들이 재학하는 중고등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인이나 동양인 친구 집단과의 교류가 많아졌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동양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고, 오랫동안 친한 친구는 가족끼리 교류해서 친하게 된 한인 친구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 8에 따르면, 고학년이 될수록 인종 간의 교류보다는 인종 내 교류가 늘어난다. 그것은 청소년 1이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관계의 편안함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 2 : 저는 학교에는 한국 친구가 많이 없고 한 명 있어요, 되게 친한 친구. 그 다음에는 거의 중국 친구들이 많고, 인디언 친구도 몇 명 있고 그래요. 그 밖에는 가족끼리 친해서 오랫동안 친한 한국 친구가 있어요.

청소년 8 :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보니까 학교 친구들이예요. 대학교 친구들과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데 주로 한국인이 대부분. [키위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잘 섞여서 놀기는 하는데 고학년가면서 대학교 가버리면, 키위는 키위들끼리 놓고, 아시안 중국인, 한국인 이런 애들은 끼리끼리 같은 동양인들이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비슷하니까...

청소년 1 : 저는 키위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남십자성⁶¹⁾에서 만나는 한국 언니들이랑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런가요?] 그냥 노는 방법이라든가 얘기하는 관심사가 달라서.

성인 10은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한국문화 관련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 대해 놀라워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종 간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 빈도가 증가한다는 점,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중고등학생 시기라는 점,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 한국음식, K-pop, K-drama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인 10 : 컬리지(중학교) 가면 코리안 나잇(Korean night)이라고 일 년에 한 번씩 크게 행사하는 게 있어요. 한국 애들끼리 연습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까지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들이 뭉쳐가지고 한국 음식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 난타 공연하고 탈춤, 태권도 이런 거 다하면서 공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더 정체성을 스스로 찾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61) 남십자성 예술단은 1997년 4월에 창단된 예술단체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만 7~14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전통예술(사물놀이, 고전무용, 현대무용, 악기 연주 등)을 소개하는 민간단체임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interview&wr_id=593 참조).

(3) 한글학교 : 한국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를 따라 또는 부모님의 권유로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글학교는 이들이 함께 교류하고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별로 재외한인단체가 별도의 한인회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인회 내부적으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대부분의 한인회는 이민 1세대들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물론 대부분 현지 중고등학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한번 한인 청소년들이 만나 한글을 배우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주말학교가 있다는 것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10, 11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도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는 오클랜드를 제외하면 한글학교 외에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청소년 10 : 저는 친구가 한글학교를 다녀서 다니게 됐는데 한글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왜냐면 뉴질랜드말만 배우면 좀 재미가 없어요.

청소년 11 : 한국 사람인데, 그냥 영어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안될 것 같고, 아빠랑
엄마도 해야 된다고 하고.

연구자 : 한글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청소년 10 : 아니요. 없어요.

국가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한인교회가 자체적으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한글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긴 하다. 한인교회에서도 한인들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활동에 견주기가 어렵다. 비록 한글학교가 주말학교 또는 비형식학교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 기간이 오래된 한글학교들은 별도의 교육과정과 숙련된 교사를 갖추고 있는 등 비교적 체계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5 : 저는 한인교회 사람들하고 한글학교 친구들하고 주로 만나서 한국 관련된 것들을 해요.

현재 많은 한글학교들이 고등학생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예 중학교 과정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 한글학교에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등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들에게 정체성 유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중학교 시기까지 배웠던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한글학교 졸업생인 고등학생들에게 한글학교 보조교사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성인 11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글학교 보조교사 활동은 한글학교 학생일 때 느꼈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어의 중요성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성인 11 : 조금 자라니까 저희 아이들이 칼리지를 다니면서, 여기서 고등학교 때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학생인 지금도 하는데, 보조교사로서 도우미 교사로서 봉사를 하면서 한글의 중요성과 본인의 정체성을 더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게 학교 다닐 때 ‘한글을 배워서 이만큼 해야지.’하는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느끼더라고요.

4) 중간체계 : 한인 부모들 간의 교류, 자녀친구의 부모 및 교사와의 교류

뉴질랜드 재외동포 부모들은 자녀 친구 부모들과 주로 교류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뉴질랜드 현지 부모들과도 교류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가지만, 성인 3은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성인 3은 현지인들과의 관계는 본인이 노력할 때만 유지된다고 느낀 것이다. 그럴 경우 관계 지속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성인 5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1.5세로 뉴질랜드에서 성장하면서 한인들의 자녀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는 한인 부모들보다는 뉴질랜드 부모들과 교류하며 얻는 편이었다. 더욱이 그는 자녀들의 교사들과도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외동포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등 그에 대한 교사의 조치를 요구할 일이 있을 때에 교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인 3 : 외국 분들 중에 좋은 분도 참 많아요. 근데 가끔 저랑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이랑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좀 멀어지는 것도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조금은 '그냥 그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학교 갔을 때 그 학교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외국 애들이었고 그 친구들 엄마들하고도 많이 교제하려고도 애를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거나 그런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리고 제가 여자들은 또 친해져도 남자들까지 친해져서 온 가족이 어울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인 5 : 저는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엄마들, 학부모들한테 물어봐요. 한 아이 당 한 두 명 씩은 엄마들하고의 친한 교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게 누가 댔든 학급 엄마들 한 명 정도는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는 일단 선생님들하고도 교류하려고 하고요.

성인 5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현지 부모들과 주로 교류하지만 주말에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인 부모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 부모들은 한국적 자녀교육 방식에 익숙하며, 학업 측면에서 일정 수준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뉴질랜드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자녀들과 부딪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적 사고방식과 교육에 익숙했던 부모들이 한국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교육받았던 방식, 즉 상대적 비교와 서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러한 관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 세대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점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성인 10).

그렇지만 성인 3이 설명하고 있듯이, 현재 뉴질랜드 재외동포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은 과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50대 초반 부모들의 경우, 초기 이민 세대들에 비해 자녀 교육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그들 역시 한국적 교육 방식에 익숙했던 이들이며, 뉴질랜드로 이민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고학력자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이민 세대들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성인 10 :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런데 한국 가면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아무리 여기 살아도 너는 한국 사람이니 않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여기서 생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화, 이 생각과 이 행동으로 이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여기서 적응 하려면 이걸 맞지만 그래도 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기초 지식인데... 그래도 공부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하는 게 반반이라서 지금 저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성인 3 : 한인 엄마들 중에 제 세대의 친구 엄마들을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뀐 거는 보여요. 굉장히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면 됐지.' 누가 말하는 전문직 이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직이어야 돼.’라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만큼 공부에 대한 집착이랄까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생각은 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제 친구들은 되게 많이 깨었어요. 제가 제일 진부해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엄마는 카운슬링 공부하고 있고 한 엄마는 소셜 워크하고 있고 되게 괜찮아요. 마인드들이 다... 그래서 저의 좁은 시야를 오히려 넓혀주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래요.

5) 외체계 : 한국과 한국어 관련 교육여건 및 동포 간 교류 환경

(1) 교육 환경 : 여유로운 교육 환경 & 정체성 교육을 지원하는 분위기

뉴질랜드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성적 경쟁이나 비교, 서열 등과는 거리가 멀다. 성인 12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게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뉴질랜드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성인 3에 따르면, 학교는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교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성인 12 : 이 나라 교육 방침은 스스로 하게끔 기다려주는 거 같아요. 인내를 가지고요.

성인 3 : 첫째 키울 때와 막내 키울 때가 10년 차이가 나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런 정체성을 키워주려고 많이 해요. 나름... 그래서 인터내셔널 컬처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정해 가지고 너희 문화에 대해서 얘기 하라고 해요. 그럴 때 애가 좀 헛갈리긴 해요. ‘나는 아는 게 없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개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려고 그래요.

이러한 뉴질랜드 교육 환경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양호한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뉴질랜드 사회만이 가진 특수성이 존재한다. 뉴질랜드는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이다. 정권에 따라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에 대한 지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마오리 언어에 대한 강조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마오리 언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시아 언어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인 15 : 뉴질랜드는 인구가 워낙 적어서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받고 있다 보니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문화적 성격이 있어 한국어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마오리라고 하는 전통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의 언어, 전통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미권 국가들하고 이 나라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뉴질랜드는 마오리 언어라든지 전통을 자기들 근간이라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중략) 또 이전 정부 때는 아시아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아 언어에 지원해야 한다 해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오리 언어가 아시아 언어들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면 '아시아 언어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마오리 언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마오리 언어를 학교들이 의무처럼 아니면 필수과목처럼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한편 성인 3은 뉴질랜드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교육 환경이 뉴질랜드 청소년 모두에게 자칫 도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대적 비교와 경쟁에 대한 강조가 과도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크지만, 적당한 수준의 경쟁은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갖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학생들은 외부적으로 그러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동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 3 : 해밀턴은 조금 재보다 잘 해야 되고 내가 재보다 상대적으로 잘해야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게 때로는 애를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 쪽으로 하고 싶으면 애한테 도전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요건에서 그런 거를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동기를 갖게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여유가 아이들이 계속 열정을 갖게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2) 동포 간 교류 환경 : 한인사회 문화와 특성

뉴질랜드에서 유학생 신분인 청소년 6은 뉴질랜드에 와서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와 조직문화의 차이를 경험했다. 한국의 경우, 과도한 공동체 문화로 인해 개인들의 자유가 자주 침해되어 왔다면, 뉴질랜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로 인해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역시 겉으로는 한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뉴질랜드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청소년 6 : 여기 있는 한인들은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연대가 잘 없어요. 연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한국만큼 공동체 의식이 탄탄하지 않아요. 내 친구가 한 무리만 존재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 그룹 중에서 내가 여러 그룹이랑 같이 노는 게 다들 내 친구니까. 친구라는 게 그 본드가 크게 끈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외로웠죠. 저는 그렇게 끈끈한 친구들을 사귀다가 여기 온 거니까. (중략) 근데 한국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조직은 각 개인이 구성된 집단일 뿐이지 집단을 위해 개인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유학생 신분으로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청소년 6의 관점과 달리,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거나 출생한 청소년들에게 한인사회는 불편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3은 한인사회가 너무 좁고 폐쇄적인데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과 우려스러움을 표시했다. 한인사회의 속성 상,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입소문을 타고 퍼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는 한인사회 내 소문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 청소년 3, 청소년 7 모두 그런 점 때문에 한인사회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교류를 하더라도 조심스러움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3 : 오uckland에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서로서로 알아요. 건너 건너서.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

청소년 7 : 저도 지금 생각을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을 보는 게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가서 친해져봤자 본전인데,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가 나오면 그게 소문으로 싹 돌아버리니까 뭔가 그런 게 조심스럽고 스스로 벽을 쳐버리는 것 같아요.

이와 유사하게, 뉴질랜드 한인 사회 내에서도 문화 및 업무와 관련된 세대 차이와 관련된 일화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인 8은 대표적인 한인 커뮤니티인 한인교회에서도 유교적 권위주의가 존재하며 그것이 건강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유지되어 왔던 문화적 관습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성인 8 : 한인사회 혹은 한국교회도 그 사회 중에 하나니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미 성인이고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전문적으로 왕성하게 하는 사람도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고 특별히 교회 같은 이런 곳 안에 들어오면 어림에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연령에 따른 구조가 모양을 갖고 있어서, 교회 오면 막내가 되고, 교회에 오면 좀 잠잠히 있어야 되고,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 안돼요.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인회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반응은 매우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4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한인회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모호한데다 갈등이 많은 단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실 한인회는 이민 1세대들이 설립했고 그들의 주요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인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이해도나 인식 수준이 낮은 데에는 성인 13이 언급하고 있듯이 한인회 자체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한인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청소년 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거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왔다. 청년들의 참여는 더욱더 제한적인 편이다. 한인회 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소년 참여모델로 잘 알려진 Hart(1992)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참여를 이용하는 조작 단계(manipulation)부터 청소년들의 참여가 장식품처럼 동원되는 단계(decoration), 청소년들의 명목적 참여 단계(tokenism)까지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인 14 : 한인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는 더 많고요. 그리고 약간 한인회가 어린 친구들은 아예 모르거나 그리고 들어봤다 해도 ‘거기 맨날 싸우는 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좀 약간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들으면 그냥 거부감이 드는 약간 그런 단체가 돼 버린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건 있어요.

성인 13 : 한인회에서 이 나라 한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요. 한인회에서 하는 건 물론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 같은 때는 저희가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독립유공자들 그런 휘장 두르고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청년들, 장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세대로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청소년 100명이 함께 하는 기념식을 하는 그 기념식 안에서 그들이 하는 공연이나 역할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 이벤트는 있지만 이렇게 정례화된 프로그램은 없어요.

청소년 6은 한인회를 이끄는 주체들과 이민 1세대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비민주적 일 처리 방식으로 인해 한인회와 재외동포 청년들 간에 갈등이 있음을 시사했다. 청소년 6은 한인회가 각종 행사에서 한인 학생회를 참여시키는 방식이 전시행정 또는 보여주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앞서 소개한 Hart의 청소년 참여 모델 중 명목적 참여(tokenis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 1세대들은 청소년, 청년들을 그들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령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태도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화와 분위기는 한인들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류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청소년 6 :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고방식이 여기 이민을 오셨을 때 멈춰 있어요. 특히 뉴질랜드는 사회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 여성인권도 신장이 돼있고 인권도 신장이 돼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 태도만 선택 학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이랬으면 ‘한국 대학생들은 단체가 부르면 잘 가는데 왜 너희는 안 그러냐?’라고 하신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특히 그 분들도 아직도 일을 하실 때 접근방법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사는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뉴질랜드, 서구식 사고방식이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정말 마음이 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제안을 먼저 해 주시고 저희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몇 명이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몇 명이 필요하니까 해 줘. 우리가 도네이션 줄게.’라는 방식으로 돼버리니까 저희는 ‘네, 아니오.’라는 대답도 못하는 거죠. (중략) 저희도 행사 때 한인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알아요. 조금 더 넓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공동체라는 걸로 묶여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꾸미기용, 원도우... 약간 전시행정 같은 모습을 띄면 오래 못 가는데 이걸 말씀을 드려도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또 안 그렇게. 이번 한 번만 그럴 거야.’ 하시거든요.

6) 거시체계 : 뉴질랜드 사회, 뉴질랜드의 한국문화 수용

(1) 뉴질랜드 사회의 특징

앞서 뉴질랜드의 교육 여건이 자유롭고 여유롭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질랜드 사회가 비경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성인 9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도 의사와 변호사 등에 대한 직업적 선호가 많지만 배관공, 용접공, 목수 등의 기술자들 역시 고소득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업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사회 구조가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도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9 : 뉴질랜드 사회가 한국 사회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는 인구가 10배 차이 나는 나라? 땅 덩어리는 3~4배가 넓은 나라? 기본 환경들에서 경쟁 자체도 1/10이라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경쟁에 치이는 게 덜 하죠. 그리고 놀랜 거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의사를 선호하고요 변호사도 선호 직업인데 배관하고 화장실 수리하시는 이런 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분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중략)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공부를 좀 못해도 이렇게 보면 '제가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여기서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애는 충분히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드는 거죠. 사회 구조가 애한테 그런 자신감을 주죠.

한편, 뉴질랜드는 인적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사회이다. 성인 15는 뉴질랜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공식적인 절차가 강조되기도 하지만, '키위 익스피리언스 (Kiwi experience)' 즉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신뢰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업무를 빠르게 추진하는 반면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업무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사회자본이 중시되는 한국 문화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 15 : 뉴질랜드가 되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인적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 같으면 공문을 짝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그런 거를 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라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우리가 한국어 교사 인건비 지원 해줄게!’, 모든 학교에 짝 뿌려도 반응이 없어요. 다른 말로 키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뭔가 자기들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래서 잘했던,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소개 시켜주고. 그러면 애는 애를 믿고 저희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2) 뉴질랜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내에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면담에 응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대부분 현지인들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K-pop, K-drama, K-beauty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현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성인 9에 따르면 한류의 영향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오클랜드 시내에는 유명한 한국 식당들이 많았는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진 현지인들은 직접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을 먹어본 후에는 음식 만들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내부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여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7 : 전 초반에 왔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하면 좀 깔보는, ‘North or South?’ 맨날 이러거든요? 지금은 ‘I’m from Korea.’라고 하면 ‘BTS 좋아한다. Girls’ Generation.’ 이런 얘기 하고, 일단 사람들 인식에도 한국이라고 하면 호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소년 3 : 한국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 친구는 한국인들이 예쁘다고 옷도 잘 입고...
요즘 K-Pop 때문에 한국어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인 9 : 저는 이제 슈퍼에서 일하다 보니까 슈퍼에 오는 고객들을 낚지 않은 애기를
들죠. 근데 일단은 현지인들은 한국 사람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요. (중략)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K-POP? 당연히 그 문화는 무시 못 하죠. 드라마도
그렇고 K-POP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한국 식당을 찾아가고 한국 식당가서 먹어본
음식이 맛있으니까 한국 식품점에 와서 김치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7)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

(1) 목표 및 지원 방향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성인들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Korean-New Zealander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므로 뉴질랜드 사회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한국 물품을 소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뉴질랜드와 한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성인 11은 지금까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보다 근본적인 기본 교육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청소년 7 역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 동의했다. 현재 한류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문화적인 콘텐츠에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청소년이 접하기 힘든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4 역시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성인 11 :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너무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부분에만 아이들이 집중을 하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한국어를 잘 하는 것과 내 나라 어떤 문화, 역사적인 의식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본을 강조 하는 교육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이미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나 뉴질랜드에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본에 충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략) 역사적인 그런 곳을 방문해서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애국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팠던 역사도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체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7 :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3.1절 하지만 3.1절이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유관순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근데 그걸 모르면 저는 그냥 '한국인이면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제가 볼 때 이민 온 애들 거의 70~80%는 몰라요.

청소년 4 : 여기에 사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저희를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다 한글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 때문에, 제가 아는 한국 애들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런 애들도 많아서, 그런 애들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문화적 · 경제적 접근 필요

면담에 참여한 성인들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교육적 지원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사실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한국어에 대한 학습동기를 높이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학습한 이후,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 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국어 학습 결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풍부하지 않다. 뉴질랜드와 한국 간 무역,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대거 채용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문화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한국어 학습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인 15 : 사실 여기 한인 학생들이 한국 방문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뉴질랜드 전체 사회에서 한국을 되게 중요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식이 퍼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제, 문화 그런 쪽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뉴질랜드 정부하고 협력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학생들이 흥미가 있을 때 가능해요. 지금 여기 중고등, 대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이유는 한국문화 때문에, 한국문화가 여기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문화거든요. 예를 들면 오클랜드 대학에서 1학년의 제2외국어 교양과목 중에 한국어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 제일 많아졌대요. 350명. 근데 그게 2학년 딱 가면 80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인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흥미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때도 그걸 진짜로 전공으로 택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자기 진로라든지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그런 루트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는데 아직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한국어과가 없어요.

현지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는 동시에 뉴질랜드 내에서 열리는 ‘한인의 날’ 행사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 13 : 코리안 데이 때 좀 우리나라의 문화, 아주 질이 높은 그런 문화가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중략) 코리안 데이가 한인들끼리 잔치가 아닌 정말 한국을 알리는 코리아 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나라 차원에서 같이 주관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10년 전에 갖고 있던 거라서 너무 촌스러운 거죠.

현재 뉴질랜드에는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이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강좌 개설은 한국문화원의 주요 업무인데,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교육원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 중이다. 당장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는 아니겠지만, 문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지에서 한국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글학교들이 현지 학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인 15 : 각 나라마다 문화협정을 체결을 하거든요, 문화협정을 체결을 하면 그 나라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없어서 저희 교육원이 문화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국어 강좌 개설하는 것도 시드니는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문화원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 건데, 문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정부 대 정부의 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그쪽에 지원을 받을 때 좀 원활하게 된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교육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협정을 아마 문체부가 직접 체결을 할지 외교부가 체결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교부에서 나라별로 협정들을 체결을 할 때 교육적 관련 조항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제2외국어로써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한국정부는 지원한다.'든지 포함하면 좋죠. 한글학교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움 겪는 게 주말한글학교라 보니까 건물을 임차해서 써요. 현지학교를 임차하거든요. 그런데 현지학교 선생님들이 다 협조적인 게 아니거든요. 교육협정 체결할 때, 예를 들어 한글학교들이 시설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양해협정이라도 하면 이 학교들이 저희 교육원하고 대사관, 영사관하고 여기 학교들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거절당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학교를 찾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뉴질랜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런 한글학교가 찾고 있는데 이런 협정에 따라서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럼 애네는 움직일 거거든요. 그런 축의 큰 틀에서의 그런 협정 같은 것들이 맺어지면 좋지 않을까.

(3) 한글학교 자체에 대한 지원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수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한글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형식학교로서 주로 현지의 비영리단체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여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해 운영비 일부와 한국어 교재 및 각종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 성인들이 공감하고 있었다(성인 8, 9). 그렇지만 이민자로서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녀 모두를 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다(성인 4). 이미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운영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현지 한인회 차원에서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인 9 :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글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학교고 또 한글학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장점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통로예요.

성인 8 : 한글학교 같은 한인 커뮤니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아주 많은 결핍을 느낄 거예요. 일단은 글을 배우기도 하지만 교재를 나누게 되고 글 이상의 많은 조국에 대한 것들을, 한국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한글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인 4 : 저는 애들 셋을 한글학교에 못 보냈는데 그 이유가 금액이 너무 비싸요. 애기 아빠가 학생이었고 제가 버는 게 넉넉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힘들어도 조금 더 보낼 걸 그랬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 사회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추석에 한국에 전화 드리고 설날 되면 한국에 전화만 드리고 송편을 빚어 먹어야 되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거를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글학교에 애들 보낸 사람들 보니까 한글학교에서 추석이 돼서 설날이 돼서 연날리기도 하고 송편을 같이 빚고 했더라고요, ‘내가 저런 건 참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한글학교에 대한 비용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보냈는데 큰 부담 없이 [한글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4) 한글학교 중등부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한글학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중등 고학년 학생들을 유인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한글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6~8년 한글학교를 다닐 경우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한글학교 수업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그 시기가 대부분 중등 고학년 시기와 겹친다. 또한 그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한글학교 재학을 강제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국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16은 중등 고학년 학생들을 한글학교에 남아 있게 하는 방법은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이 학점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공식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뉴질랜드 교육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기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성인 11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중등 고학년 학생들에게 한국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한국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 10에 따르면, 뉴질랜드 교육 여건이 여유롭고 자유롭긴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찾아서 해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에 한국 관련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성인 11 : 저희도 한글학교에서 중등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쯤 되면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어려워져서 포기하고요, 부모님들 '이제 한글 읽고 쓰면 됐지.'하는 그런 생각이 강해요. 국어나 한글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멈추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중등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성인 16 : 저희 뉴질랜드 전체 한글학교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고학년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남아 있지를 않아요. 한글학교에서 고학년 아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학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게 되려면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자격이 공식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는 또 못해서 어렵죠.

성인 10 : 아이들이 즐기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 없어요. 그게 저는 조금 가장 그렇더라고요. '그래, 운동을 좋아하면 그래, 너희끼리...' 데려다논 쥐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드롭하고 픽업하고 그게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디에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4)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교수학습 자료 제공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는 교사 전문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한국에서 교사 경력이 있거나, 뉴질랜드 현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글학교 부모 중 자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모두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인 10이 지적대로 이들의 교수방식은 과거 한국에서 교육받거나 가르쳤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뉴질랜드 학교교육에 익숙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성인 16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뉴질랜드 교육제도를 이해하고, 그 제도적 틀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 10 : 한글학교 교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옛날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뭔가를 할 거 같은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도 역사 같은 것도 ‘3·1절?’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 이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잘 몰라요.

성인 16 :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자체 교사연수도 하고 그 경력으로 오세아니아 연수도 하고 올해는 뉴질랜드에서 오세아니아 연수를 하게 되는 그런 해인데, 그렇게 하는 교육과 뉴질랜드에서 지향하는 교육에는 차이가 많아요. 〈중략〉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한글만 가르치지는 않아요. 역사, 문화 여러 가지들을 다 동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접근방법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결코 요즘 아이들한테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 나라에서 배우고 어떤 식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란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한편, 성인 7은 한글학교 수업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소년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활용하는 자료들 중 일부는 유튜브 동영상에 많은데 오픈 자료들은 재외동포청소년 스스로도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 7 :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뭔가가 필요할 때 자료를 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교재라든가 뭔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정말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공되면 좋겠어요.

(5) 부모교육의 중요성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위한 성장 지원에는 부모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교육에 부모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재외동포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11은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한인 부모들의 자녀교육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뉴질랜드 현지 교사이면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성인 16은 한인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 11 : 지금 한글학교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본인 스스로 이민을 오신 분들, 유학 오셨다가 계신 부모님이 많은데, 지금 유치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5세대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현지사회에 적응해서 직업관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변할 것 같고요. 아직도 큰 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고지식하세요.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 한국적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많은 발전 속에서 국민의식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의 가치관이 교육관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치관과 교육관은 조금 분리가 되셔야 하는데, 본인의 가치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이 교육관으로 연결되어서 아이들한테 자주 푸시를 하시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인 16 : 한글학교의 교사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민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부모님과 아이들은 그 세대 간의, 언어,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언어로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마음을 나누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를 부모님이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삶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세대, 1.5세대, 2세대 점점 갭 차이가 더욱더 심해져가는 추세인데 부모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요. 부모님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6)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한국 방문 프로그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며, 다음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국 초청 프로그램을 뉴질랜드 학제를 고려하여 반영해 달라는 요구이며, 마지막은 뉴질랜드 자체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소스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 한국 방문 프로그램 유형 확대

청소년 2는 주변 중국 친구가 중국 지원의 지원으로 중국 탐방을 다녀온 경우를 접했는데,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언제든지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9는 한국의

지자체와 한글학교가 협정을 맺고 지자체가 초청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한글학교들이 한국의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정을 맺고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청소년 1, 3, 8은 한국에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에 속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소개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2 : 저는 여기 중국 애들이 연말 되면 중국 정부에서 중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여행 같은 거를 지원해주요. 다 지원해주지는 않고, 비행기 표 값만 내면 다닐 수 있께. 매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그런 게 부러웠어요.

청소년 9 : 한국 방문했던 것 중에 충청북도에서 주최한 한국교포들 위한 그런 방문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한국을 가니까 엄마 아빠랑 가서 못 한 것들을 다 경험해봐서 너무 좋았어요. (중략) 한국방문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문화랑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1 :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꼭 살고 싶어요.

청소년 3 : 저는 한국에 되게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11월에 한번 가보려고요.

청소년 8 :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한국학교를 다녔다면 어땠을까?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궁금증이 계속 있죠. 요즘에도 계속 친구들이 '한국대학은 어때냐? 뭐하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했을 것 같아요.

나. 뉴질랜드 학제를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국 초청 연수는 7~8월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시기에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예 초청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팀별 방학이 1년에 4회 주어지는데 적어도 국가별로 방학을 고려하여 모국 초청 연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인 1 : 재외동포재단에서 학생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뉴질랜드 학제와 맞지 않아요. 보통 7-8월에 하는데 뉴질랜드는 그때 수업이 있어서 참가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뉴질랜드 term별 방학 기간을 고려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term별 방학이 언제인가요?] 4월, 7월, 10월, 12월이에요. 12월부터는 방학 기간이 좀 길죠.

다. 뉴질랜드 자체 프로그램 지원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비교적 부모와 함께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었지만,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뉴질랜드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캠프를 기획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강사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었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체험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성인 2는 한국의 교대 학생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한글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한글학교에 이들 자원을 매칭시켜 줄 수 있다면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1 : 저희가 캠프를 자체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재외동포재단에 신청해서 한국에서 강사분이 와서 하는 역사 캠프였는데 결정적으로 강사분이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선생님들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되게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성인 2 : 몇 년 전에 교대 학생들이 해밀턴에 와서 아이들하고 서예도 하고 꽤 많은 활동을 했어요. 저희는 장소 빌리고 학생만 모집하면 됐어 가지고 좋았어요.

뉴질랜드 내에서 자체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 11은 뉴질랜드 내부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교민사회에 대한 지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인 11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교민 사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정체성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인 11 : 일본 Japan day를 갔더니 Japan day 장소 자체가 시내에서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 나라의 기업들의 자원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토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저희는 보면 한국기업들이 의외로 교민사회에 대한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여기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저희가 바란다고보다도 왜냐하면 진출해 있으시니까 저희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00에서 우리학교를 이렇게 도와줬어. 여기 진출한 00자동차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러면 아이들한테 우리 기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는 좀 안타깝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이야'라는 걸 알려주고 싶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더라고요.

(7) 인력 지원

다음으로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성장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이 없는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교육원이 한국문화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다. 대사관, 총영사관에서도 교육 담당 영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청소년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청소년 교육 및 활동에 관한 행사 기획이나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 한국교육원이라면, 한국교육원에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원장 1명에 현지 지원인력 1명이 뉴질랜드 내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지원, 한국어 강좌 운영 등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와 청소년 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문화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6은 그 지원 인력이 뉴질랜드 내 청년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성인 15 :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해주는 거 말고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해도 여력이 안돼요. 예를 들면 행정원님이 한분만 더 계셔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한국에서 행·재정적인 공문처리라든지 보고서내라든지 결산하라는지 그런 거 다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매주 보고서 쓰고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대외활동하면서 네트워크 형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중략〉 여기도 교육 담당하는 영사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교육 분야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거든요. 저희 교육원에서 어차피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많이 하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문체부에서 문화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원에 파견을 보내서 대외적으로 문화 지원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원을 새로 설립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요.

청소년 6 : 사실 지금 뭘 해도 해야 돼요. K-Pop도 있고 K-Beauty도 있고 K-Drama도 있고 한국어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싶어 하는 건데 저희도 지금 빨리 물들어 왔으니까 노 저으려고 하는데 [문화적 접근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언어를 쓰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많은데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축소가 돼 있는 거예요. (중략) 적어도 영사관이나 대사관 중에 한 분은 그 청년들만 전담으로 한 명은 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인원이 적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저희랑 협업해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 한국어 온라인 교육 활성화 필요

뉴질랜드는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매우 적은데다 재외동포들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가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소규모 도시에도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학교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한국어를 보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성인 16과 성인 1은 온라인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것이 학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 16에 따르면, NetNZ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한국어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재외동포 부모들과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인 1은 통신학교 과정에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어 보급 및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존 한글학교보다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에 몰두하는 것은 나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먼대면 교육에 비해 온라인 교육과정이 지닌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점 연계와 같은 유인이 제공된다면, 온라인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습자에게 실용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면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16 : NCEA에 한국어가 포함되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면 좋은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학교에서 한국어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대다수인데 한국어 시험도 볼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주는 학교들이 아주 많아요. (중략) 지금 저희가 하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NetNZ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한국어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한국교육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략) 수강생 대부분 아이들은 한국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대개거든요. 유학 온 아이들도 3.1절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3.1절, 임시정부수립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하고 있는 수업들은 정말 한글학교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처럼 하고 있고, 나중에 NCEA 학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성인 1 : 통신학교 온라인 과정 있잖아요? 그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인력도 한 명으로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 선생님 한 명 두기에는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명이 지역마다 온라인으로 커버하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한글학교는 애들이 또 와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토요일에 할 것도 많은데 온라인 과정은 아이들이 원하면 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교는 그냥 신청만 해 주고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 바로 코스를 들을 수 있어요.

3. 소결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 조사와 성인 및 동포청소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동포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역량 및 한국어/한국에 대한 인식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 시민의식 등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의식은 회귀분석에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욕구는 비교적 높았으며,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이 한-한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역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미시체계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의 가정 내 한국 친화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에서의 학업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인식은 뉴질랜드 동포 부모들 역시 자녀가 뉴질랜드에서 미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 것이다.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들은 비교적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교류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포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포 청소년들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종 간 문화적 차이의 심화로 인해

동포청소년들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문화적 편안함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은 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또는 본인이 한국인으로 생각해서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 기간은 평균 4~5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통 중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은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 중간체계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친인척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친인척 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본인의 친구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와 한글학교 교사와의 교류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 유보적 입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 한인 부모와의 교류는 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담조사를 통해, 뉴질랜드 동포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주로 한인 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외체계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한글학교를 제외했을 때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포 청소년들의 한인회 행사 참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인회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보다는 한인회가 주최하는 Korean day 행사를 참관하거나, 한인회 행사에서 공연을 하는 등 소극적 참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에 대한 욕구는 긍정적 응답보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뉴질랜드 동포들이 자녀를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뉴질랜드로 이주한 점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의 경쟁적 교육여건에 대한 정보를 일정 부분 전달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 내 동포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40% 가량 나타난 반면,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에 대한 참여 경험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거시체계

뉴질랜드 내 한류 확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교포 사회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유보적 입장을 보여 차이가 있었다. 또한 뉴질랜드 사회가 한국문화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이 재외동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간체계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은 이민(46.2%) 또는 출생(37.0%)에 의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았으며, 과거 한국문화를 경험한 비율(64.9%)과 과거 한국

방문을 경험한 비율(86.8%)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방문이 어려운 이유 1순위는 ‘비용 부담’으로 조사되었고, ‘적응에 자신이 없음’이 2순위로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가 한국 방문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응답자의 86.8%가 한국 방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한인사회 발전에의 역할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수준(4개 문항 평균)은 4.01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에 대한 평균이 4.21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4개 문항 평균)는 3.5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4개 문항 중, ‘뉴질랜드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에 대한 평균이 3.66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에 대한 평균은 3.29로 가장 낮았다.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에게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한국 경제 및 사회발전,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다소 생소하면서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하기보다는 뉴질랜드 주류 사회 진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이유, 가정 내 한국친화 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경험, 한국 문화 및 한국방문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에 대한 지식 등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 동포친구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 경험을 확대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활동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한민족정체성,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경험, 한국 방문, 교육 및 일 욕구, 사회적 책임의식 변인이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한인사회 발전 기여를 위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부모의 한국 관련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한국 교류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 기회 확대와 한국 방문, 교육 및 일과 관련된 참여 욕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제7장 정책 제언

- 1. 정책과제 개발 절차
- 2. 정책목표의 설정
- 3. 주요 정책과제

1. 정책과제 개발 절차

호주·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1차적으로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동포청소년·전문가 면담조사 결과에서 정책 과제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자 회의를 통해서 정책과제 초안을 발굴하였다. 정책과제 초안에 대해서 국내·외 동포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과제 적합도 및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과제 초안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검토한 정책과제 안에 대해서 현장 실무자 및 정책 담당자와의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를 검토·보완하였다.



그림 VII-1 정책과제 개발 절차

62) 이 장의 1, 2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숙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1) 설문 및 면담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 아이템 추출

호주와 뉴질랜드 각 국가에서 실시한 초·중·고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 청소년 및 성인 대상의 면담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아이템을 추출하였다. 정책과제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한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 동포청소년의 대한민국/동포사회 친화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즉,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에서 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및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과제화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2.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3.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동포청소년 교류 지원 확대, 4.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 확대, 5. 거주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 6.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또한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3~5개씩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2) 정책과제 초안 작성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국가별로 선정한 정책과제 중에서 공통적인 과제와 국가별로 특성화된 과제를 구분하였으며, 지원시스템과 관련한 과제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현실가능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정책과제의 명칭 등을 수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 정책과제와 3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즉,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5개 세부과제),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6개 세부

과제), 3.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5개 세부과제), 4. 호주·뉴질랜드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5개 세부과제), 5.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6개 세부과제), 6.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6개 세부과제), 7. 호주·뉴질랜드 동포 청소년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4개 세부과제)의 7개 정책과제로 조정하였다.

3) 전문가 대상 적합도 조사 분석 및 정책과제 초안 수정

국내·외 학자 및 현장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도 및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평균 5점 만점에 평균 4.37~4.87로 나타나,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목표 및 세부목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도 조사 분석 결과

정책목표에 대한 적합도 조사 항목		평균	표준편차
목표	코리아 Friendly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75	.577
세부 목표	이중정체성을 인정하고,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4.87	.500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한다.	4.68	.478
	호주·뉴질랜드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도와준다.	4.37	.885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도는 대부분의 정책과제가 평균 4점 대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과제는 평균 5.00으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가 평균 3점대의 정책과제는 정책과제 1의 ‘동포청소년 부모들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모임 활성화 지원’(평균 3.87), 정책과제 7의 ‘여성가족부에서의 청소년활동전문가 파견 실시’(평균 3.56),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평균 3.81)으로 나타났다.

표 VII-2 정책과제에 대한 적합도 조사 분석 결과

정책과제 적합도 조사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확대	4.75	.577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부모특강 실시	4.62	.619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 개발	4.31	.793
	동포청소년 부모들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모임 활성화 지원	3.87	1.02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지원(호주)	4.31	.873
2.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확대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청소년 대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	4.87	.34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한글학교 교재 및 기자재 개발·지원	4.62	.718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56	.813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4.62	.619
	한국 교대/사범대와 한글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한글학교 지원	4.43	.892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4.62	.500
3.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4.32	.873
	주류 사회 진출 및 동포사회 기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4.18	.834
	한글학교 등을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4.56	.629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 체험 동아리 지원 확대	4.68	.602
	동포 청년 단체의 청소년활동사업 참여 유도	4.68	.602
4. 호주·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4.25	1.00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4.12	1.0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4.50	.816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학생)단체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4.68	.602
	재외동포 우수 기부자 시상 등 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4.12	1.25
5. 국내·외 동포 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4.56	.813
	청소년 민족캠프 및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4.62	.718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4.25	.856
	호주·뉴질랜드 내 지역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4.25	.930
	호주·뉴질랜드-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4.62	.718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5.00	.000

정책과제 적합도 조사 항목		평균	표준 편차
6. 호주·뉴질랜드 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지원	4.68	.478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4.73	.457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4.62	.619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 교사자격 취득 지원	4.56	.727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4.68	.602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4.50	.632
7.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동포청소년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및 파견 인력 확대	4.25	.856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인력 지원 등 한글학교 지원방식의 개선	4.37	.957
	여성가족부에서의 청소년활동전문가 파견 실시	3.56	1.20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3.81	1.16

또한, 각각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수정 의견과 추가적으로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I-3 정책과제에 대한 수정 의견 및 추가 제안

정책과제 수정 의견 및 추가 제안	
정책과제 1	코리아 프렌들리 홈(Korea Friendly Home) 과제 신설 필요 부모특강에 앞서 네트워크 구축 선결 필요 부모특강을 위한 전문가 인재풀 구축 필요 가족캠프 개발과 함께 특강이나 한국문화체험 등 실시 운동회나 추석행사 등에 조부모나 부모 참여 기회 제공 가족캠프 이외의 교육 또는 상담 기회 제공 중·고등학교 한인 학부모 모임지원도 필요 학부모 모임 지원 이외에 한국어교사 등 지원 필요

정책과제 수정 의견 및 추가 제안	
정책과제 2	문화적 한류 활용한 커리큘럼 개발 온라인 플랫폼 필요 교재 지원시기 조정 자체 연수 활성화 전국초등학교 교사 한글학교 파견사업 실시 한글학교 졸업생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네트워크 유지 필요 봉사료 확대를 통한 차세대 교사 유치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동자료, 미디어 자료 제공
정책과제 3	우수사례 범위를 오세아니아로 한정하지 않고 확대 필요 주류사회 진출 등과 관련 교육은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체성 부족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은 비용과 강사인력 풀 확보가 관건임 동아리 발표 및 한민족잔치 등으로 확대 청년단체 사업을 월드옥타(World-OKTA) 청소년지원사업과 연계 한국문화체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자유포럼 지원으로 확대
정책과제 4	동포단체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크고 보여주거식 행사 지양 필요 동포단체 내 청소년 분과활동이 미약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우선 동포단체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한국교육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직업체험, 인턴십 등의 활성화 필요 성공 사례 단체와 재외공관과의 융합을 통하여 외국인 대상의 행사 확대 한민족제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의 다양한 축제, 행사, 활동 등과 연계 필요 한인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동포청소년 지역사회 인턴십 등 기회 확대 필요
정책과제 5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 모국연수 규모와 연계 국립국제교육원 프로그램 등 기존 프로그램 홍보 및 활용 필요 참가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으로 안내 필요 한국교육원과 광복회 호주지회 공동 주관 청소년민족캠프 후원 필요 보다 다양한 차세대 지원 네트워크 필요 전 세계 동포단체 연계 네트워크 필요 세계한인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청년/청소년 교류 활성화 필요 세계 각지의 동포청소년 연계 온라인 플랫폼 개발 지원 필요

정책과제 수정 의견 및 추가 제안	
정책과제 6	현지 학교 교원단의 한국 연수의 확대 필요 현지에서의 연수 활성화가 시급 현지인들의 한국문화 친화도 제고 필요 현지 근무 한국인 교사의 지원 및 격려 필요 한국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원격 수업 후 국내 관련기관 파견을 통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1.5, 2세대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안 필요 한류 확산을 위한 전문 공연팀 이벤트 확대 정규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및 제공 정규학교에 한인 교사들이 기존 과목 이외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제 7	현지 이민자 교육을 통한 인력 확대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의 기능 조정 한국문화원의 주말이용이 어려워 인력 파견 필요 한글학교 지원방식의 일원화 필요 한국교육원의 인력지원 확대가 현실적 한국교육원에 초·중등 교사 파견 확대 여성가족부에서의 청소년활동전문가 파견은 필요하지만 후순위 이민사센터 설치보다 이민사 연구에 치중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정책과제 적합도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수정하였다. 정책과제 1에서는 ‘한국 친화가정 조성 지원의 과제’와 ‘동포 청소년 부모 대상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과제가 추가되었고, ‘동포청소년 부모들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모임 활성화 지원’ 과제가 제외되었다. 또한 적합도 조사에서 평균 3점대가 나왔던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부모특강 실시’ 과제는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과제로 수정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부모 모임 지원’ 과제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부모 모임 및 학교 지원’ 과제로 수정되었다.

정책과제 2에서는 ‘청소년 대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과제가 ‘표준화된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과제로 수정되었으며, ‘호주·뉴질랜드 동포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한글학교 교재 및 기자재 개발·지원' 과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시청각 자료 개발 지원' 과제로, '한국 교대/사범대와 한글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한글학교 지원' 과제가 '교대/사범대 학생 및 초등학교 교사를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과제로,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과제가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로 수정되었다.

정책과제 3에서는 '주류사회 진출 및 동포사회 기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과제가 제외되었으며, 정책과제 4에서는 '재외동포 우수 기부자 시상 등 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과제가 '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과제로 변경되었다. 정책과제 5에서는 '호주·뉴질랜드 내 지역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과제와 '호주·뉴질랜드-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간 교류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통합하여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과제로 수정하였다.

정책과제 6에서는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 교사 자격 취득 지원' 과제가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과제로 수정되었다. 정책과제 7에서는 적합도 조사에서 평균 3점대로 가장 낮았던 '여성가족부에서의 청소년활동전문가 파견 사업' 과제를 제외하였고, '지역 동포청소년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및 파견인력 확대' 과제를 '지역 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인력 확대' 과제로 수정하였으며,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인력 지원 등 등 한글학교 지원방식의 개선' 과제는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과제로 수정하였다.

4)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재검토

수정된 정책과제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학계 및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여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재검토

하고 수정하였다. 전문가들은 정책과제에 대해 호주 및 뉴질랜드의 특성 반영, 주제가 유사한 과제 통합, 세부 정책과제의 구체화 또는 명확화 등을 주요 검토 의견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과제 1에서는 ‘동포청소년 부모 대상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과제가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확대를 위한 한국문화 체험교실 운영’ 과제로 수정되었으며, 정책과제 2에서는 ‘표준화된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과제가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과제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시청각 자료 개발 지원’ 과제가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개발 지원’ 과제로, ‘교대/사범대 학생 및 초등학교 교사를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과제는 ‘교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과제로 수정되었다. 또한 정책과제 3에서는 ‘한글학교 등을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제는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로, ‘동포 청년단체의 청소년활동사업 참여 유도’ 과제는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 과제로 수정되었으며, 정책과제 4에서는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 단체 참여 프로그램 개발’ 과제가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참여프로그램 개발’ 과제로, ‘동포 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과제가 ‘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과제로 수정되었다. 정책과제 6에서는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지원’ 과제와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과제를 통합하여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과제로 수정하였으며, 정책과제 7에서는 교육 이외의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과제가 추가되었다.

2. 정책목표의 설정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해 호주 및 뉴질랜드 현장전문가의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적합도 및 의견조사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친화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목표로 첫째, ‘한민족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향상시킨다’, 둘째,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호주·뉴질랜드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인다.’로 설정하였다.

목표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친화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1. 한민족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향상시킨다. 2.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3. 호주·뉴질랜드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인다.

정책목표에는 거주국 동포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과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정책 대상인 동포청소년은 외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의 방향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및 동포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재외동포청소년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한민족공동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이중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한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여,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주요 정책과제

정책 영역	세부 추진과제
1. 호주·뉴질랜드 동포 청소년의 한국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미시체계: 부모(가정) 중간체계: 부모-부모]	1. 한국 친화 가정(Korea friendly home) 조성 지원(공통) 2.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공통) 3.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4.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벤트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공통) 5.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및 학교 지원(호주) 6.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공통)
2.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미시체계: 한글학교]	1.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2.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개발 지원(공통) 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공통) 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5. 교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공통) 6. 차세대 교사 양상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기회 확대(공통)
3. 호주·뉴질랜드 동포 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확대 [중간체계: 청소년 및 청(소)년간]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공통) 3.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자유포럼 지원 확대(공통) 4.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공통)
4. 호주·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외체계: 기업, 동포사회]	1.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공통) 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공통)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공통) 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개발(공통) 5. 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공통)

정책 영역	세부 추진과제
5.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외체계 : 정부, 지자체, 동포단체]	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공통) 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공통) 4.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5.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공통)
6.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거시체계]	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4.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7.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외체계 : 한국정부]	1. 지역 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 인력 확대(공통) 2.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공통) 3.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4.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공통)

1) 제안배경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한인의 후예로서 성장·발달하는데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환경 중의 하나가 가정환경이다. 특히, 가정환경 중에서도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고, 한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여 등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에서의 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의 부모들은 이민과 현지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형성해 왔고 정책적 요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가정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세부 정책과제

1-1. 한국 친화 가정(Korea friendly home) 조성 지원

가. 현안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 사회에서 아시아 언어에 대한 학습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한국어도 주요한 아시아 언어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미래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을 위해서 한글학교에 다니게 되고, 한국 및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나 정규학교 등에 자녀들을 맡기고 무관심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부모들의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교육하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더욱 어렵게 된다. 면담 결과에서도 부모와의 갈등 시 부모가 알아듣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내용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국 친화 가정이 동포청소년들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모범적인 한국 친화 가정의 사례를 수집하여 부모들에게 교육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 한국어 사용이나 한국문화를 알리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한국 친화 가정에 관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 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친화 가정 운영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부모 대상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 국가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사례를 직접 교육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1-2.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현안사항

호주/뉴질랜드인과 결혼한 가정, 입양가정 등의 경우에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자녀교육관에서 한인부모들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인부모를 가진 가정의 자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가정에서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에도 학업 능력이나 친구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가정의 유형에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관련 인식이나 행동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한인가정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가정의 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일차적으로 양 부모 모두 한인인 가정과 한 부모만 한인인 가정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등 보다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한다. 거주 국가 내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개발진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탈피하여 거주 국가에서의 다양하고 현지 실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부모들을 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의 경우에 양 부모 모두 한인인 가정에 비해서 관심이나 참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인인 부 또는 모 한쪽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가. 현안사항

재외동포들 중에서는 현지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을 활용한 부모 특강은 그리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한인으로서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한 동포 부모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거주국 교육 정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부모 대상의 특강을 실시하면 동포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올바른 이중 언어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을 배울 수 있다.

나. 주요내용

거주 국가의 재외동포 교육 전문가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이들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강의를 지원한다. 일차적으로 동포 사회의 각종 단체나 거주 국가의 교육기관 등의 협조를 통하여 동포사회 교육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부모 특강이 가능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강 계획을 수립하여 부모 특강을

진행한다. 진학, 취업, 예·체능활동, 교류활동 등 교육전문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특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강사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경우에 사전에 스케줄과 재능 나눔 여부를 확인하며 강사료 지급 등의 예산 계획을 세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사회 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모 특강이 보다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특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간의 한민족 정체성과 한민족 공동체 등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강에 앞서서 이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4.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벤트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아동청소년기의 교육은 부모의 영향이 커서 동포청소년들은 부모의 뜻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성장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모들과 청소년들 간에 문화 이해에 대한 차이가 커서 함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포청소년의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부모-자녀 세대 간, 동포 가정 간에 서로 공감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 주요내용

주말 한글학교의 운동회나 추석행사 및 별도의 가족캠프 등을 개발하여 부모, 조부모 등과 자녀들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부모 자녀 세대 간에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느끼게 한다. 한인회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세대 이해를 위한 교육 혹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동포가정 고충상담센터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민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이미 일부 한글학교들에서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여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 언어로 제공되는 특강이나 한국문화체험 등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참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글학교 가족캠프 사례는 입양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입양아 한글학교인 뉴카슬 한글배움터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2박 3일간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음식체험과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⁶³⁾. 호주 셋별 한글학교에서도 호주 입양가족들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매년 한국 문화 교육 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김치만들기, 한글배우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다⁶⁴⁾.

63) 미디어 호주나라(2017년 5월 31일자). 호주 뉴카슬 한글배움터의 제17회 가족캠프 성료
<https://media.hojunara.com/blog/2017/05/31/%ed%98%b8%ec%a3%bc-%eb%89%b4%ec%b9%b4%ec%8a%ac-%ed%95%9c%ea%b8%80-%eb%b0%b0%ec%9b%80%ed%84%b0%ec%9d%98-%ec%a0%9c17%ed%9a%8c-%ea%b0%80%ec%a1%b1-%ec%ba%a0%ed%94%84-%ec%84%b1%eb%a3%8c/>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1-5.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및 학교 지원(호주)

가. 현안사항

호주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과목의 채택을 위해서는 동포 부모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아시아 언어과목을 채택하는 것의 여부는 민족별 학부모 커뮤니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당 학교 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해주고 있다. 즉, 호주 초등학교에서의 언어교육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어서 학교장이 주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결국 언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 커뮤니티의 요구가 중요하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초등학교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있는 학교는 뉴사우스웨일즈(NSW) 지역이 20개교, 빅토리아주(VIC)가 6개교, 서호주(WA) 지역이 2개교, 남호주(SA)와 호주수도준주(ACT)가 각각 1개교이고, 퀸스랜드(QLD) 지역의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⁴⁾. 많은 재외동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어 과목 채택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요내용

초등학교에 한국어과목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부모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포 교육전문가 특강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

64) 한국프렌차이즈산업신문(2015년 12월 11일자). 호주 셋별 한글학교 '아주 특별한 사랑의 캠프'
<http://kfnews.kr/2015/12/11/post6843/>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65) 시드니한국교육원 홈페이지.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과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한국어과목 설치 요구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 교장이나 교원을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나 교재 등의 자원을 지원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어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 모임의 지원이 호주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호주와 한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한국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지역의 중고등학교 한국어 개설 사례를 보면, 총영사관, 학부모회 및 교육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해당 교육구와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어 과목이 채택되었으며, 한국어반을 개설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선발하여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행정가를 포함하여 학교장 및 교사를 한국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다⁶⁶⁾.

1-6.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가. 현안사항

많은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해도 자발적인 모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들 부모들의 관심

66) 재외동포신문(2011년 5월 18일자). 미 교교 한국어 채택, 학부모 노력 있었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55>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사항을 반영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 간의 모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동포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음식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개설함으로써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한인 동포청소년 부모들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전통 음식, 악기, 공예 등 문화활동을 매개로 하는 부모체험교실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부모들 간의 교류를 통한 한인 공동체에 새로운 인식을 갖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한식 요리를 배우는 한식 쿠킹클래스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식 쿠킹클래스 강좌 등을 개설하면 동포청소년 부모들 간의 모임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인회관 등 지역 내의 시설과 지역 내 문화활동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별교실을 운영하여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부모체험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과 학부모 참여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설과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 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클래스 운영 장소와 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 보은회인초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학부모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하여 자기 계발과 함께 아동교육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란도란 다문화 학부모 공예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표현 등의 특강과 도예 강사와 함께 만드는 전통 도자기 접기 만들기 체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⁶⁷⁾. 또한 인천 미추홀전통음식문화연구원에서는 2019년 10월 5일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진로진학연수 및 한국 전통음식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자녀들과 대화하며 자녀의 진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⁶⁸⁾.

정책과제 2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 제안배경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글과 역사·문화 등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동포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가정 이외에서 한인 친구들을 처음 만나서 교류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한글학교의 동포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글학교 지원 정책이 재외동포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글학교의 규모가 다양하고

67) 충청일보(2019년 9월 30일자). 다문화 학부모 공예 동아리 상감기법에 도전하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235>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68) NEWS WHO(2019년 10월 7일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활동 '맛있고 즐거운 통통 행복나들이' 운영 http://www.newswho.net/sub_read.html?uid=183318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교사가 주로 학부모로 되어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이나 교사의 전문성 등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주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과 한글교육의 연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글학교별로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정책과제

2-1.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가. 현안사항

일반적으로 한글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발되어 배포되는 교재, 개별 한글학교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교재, 지역에서 위임을 받은 프로젝트 교재, 해외의 제3자에 의해서 개발된 교재이다 (Shin, 2018: 68). 최근 호주(뉴질랜드) 주정부들에서는 주정부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한글학교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교육부를 통해서 소수언어학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교사를 배치한 한글학교에 대해서만 주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글학교에서는 한글학교의 규모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자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마다 커리큘럼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주정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한글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평준화 또는 개선시키고, 거주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표준화된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서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전문가와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커리큘럼 개발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한글학교의 상황과 동포사회 및 거주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을 조사하여 커리큘럼 안을 만든다. 또한 지역 내 한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커리큘럼을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글학교의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거주 국가의 교육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글학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면 한글학교의 어려움 중의 하나인 고학년 학생들의 한글학교 이탈도 방지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Shin, 2018: 71~72).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사전에 한글학교 관계자들에게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한글학교의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지역 내 명망 높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한글학교 간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거주 국가에서의 지원 상황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호주 NSW 정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언어학교들에게 교수자료 등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10,000달러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다⁶⁹⁾.

69) NSW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community-languages-schools/community-languages-school-grants>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2-2.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 개발 지원

가. 현안사항

호주·뉴질랜드의 한글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재 호주·뉴질랜드 한글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교재가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로 개발되어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학년 위주의 교재만 제공되고 있고 교재도 제때에 맞춰서 받아 볼 수 없어서 지나간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학습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서 활용되지 않고 쌓여 있는 교재들도 많다고 한다. 또한 코리안 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많은 교육 자료의 경우에도 현지 교사들이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 노력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요내용

한글학교 교재나 보조교재의 활용도를 높이 위해서는 현재 한글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교재 및 보조자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이미 개발된 자료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개발된 시청각 자료 등의 교육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글학교 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여 맞춤형 교육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자료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자료를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어디에 어떠한 자료가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교사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 제공할 필요도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가공 등을 통하여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현안사항

동포 한인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교사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한글학교 교사로서 혹은 한글학교 교사 연수 시 강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한글학교 교사연수 등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정규학교나 한글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의 협조 부족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필요시에 한글학교 교사나 한글학교 교사 연수 시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교사 인력의 부족이나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요내용

해당 학교나 협의회 등을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과 관련하여 연구나 교육 경험이 있는 전·현직 정규학교 교사와 한글학교 교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교사협의회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포사회 내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특정 학교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필요시에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협의회 등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글학교 등 관련기관과 교사들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이나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교사 연수 시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네트워크 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2-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가. 현안사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교사와 관리자의 수준별 역량 강화와 한글학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매년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한글학교 교장 및 협의회장 70명 내외를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초청연수를 실시하였고, 200여명의 한글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7박 8일 간의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다⁷⁰⁾.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2017년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현재 한글학교 교사 수는 15,78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¹⁾. 따라서 한글학교 교사 및 관리자 중에서 약 1.71% 만이 초청 연수에 참여하고

70) 코리안넷(Korean Net)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3991652#/list
에서 2019년 6월 7일 인출

71)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한글학교 교사 및 관리자 중에서 초청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20%에도 미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국에서의 연수의 경우에는 한글학교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현지교사에 전문강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글학교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환경과 실정에 맞는 교수법을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⁷²⁾. 하지만 실제 현지 강사 파견은 국가별로 1명씩 파견하여 하루 정도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명의 고등학교 교사가 2박 4일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7a: 52). 이 정도의 강사파견으로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특히,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주요내용

현재 한글학교 교사들의 초청 연수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이상과 같은 여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학교 교사 및 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초청 연수 참여 인원을 현재보다 최소한 3~4배 이상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청 연수에 따른 지원이 체재비 전액 지원과 왕복항공료의 50%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지원 내용을 차등화 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하계방학 뿐만 아니라 동계방학 때에도 시행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파견 강사의

72) 코리안 넷(Korean Net). 재외동포지원사업

http://www.okf.or.kr/portal/support/pg_bsns_support.do?bsnsNo=5343&redirectYn=Y&requestcallYn=null&demandYn=nulldptj 2019년 6월 11일 인출

파견 기간을 확대하여 여러 차례 강의를 실시하고, 지역별로도 강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교환교수 중에서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나 현지의 우수한 전문강사의 확보를 위하여 코리안넷이나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사업을 공지하고 수시로 강사 참여 접수를 받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글학교 교사 연수의 필요성과 연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국내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현지 연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인력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처 간,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2-5. 교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가. 현안사항

한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의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한글학교는 상당수가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사로 인해서 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국 현지에서의 연수나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여전히 있다. 한편, 국내 교대/사범대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한국문화나 예술활동 등에서도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해외에서의 실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

해외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여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현지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의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로 하여금 방학 기간 동안에 한글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대학별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대, 교대가 있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외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 대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운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글학교와 사대, 교대 간에 교재 및 기자재의 정보 제공, 그리고 상호 방문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기존에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참가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사 인력 파견을 위한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타코마한국학교(Tacomma Korean School)의 사례에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여름방학 집중 수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숙식(홈스테이)과 교통편을 부담하고 항공료는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시 인턴교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⁷³⁾.

73) 서강대학교 Global Korean Studies

http://gks.sogang.ac.kr/bbs/bbs/board.php?bo_table=news_and_event_kor&wr_id=3에서 2019년 10월 15일 인출.

2-6. 차세대 교사 양상을 위한 한글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기회 확대

가. 현안사항

동포사회의 세대 교체로 인한 차세대 교사 양성의 문제는 대부분의 한글학교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 이민 1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한민족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컸던 반면에 2, 3세대로 갈수록 그러한 의식이 약해져서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한글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글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교사 양성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호주 교육부에서도 2020년부터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해 재정보조와 워크숍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주요내용

우선 한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선·후배들 간의 모임,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자신이 참여했던 한글학교 내에서의 만남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한글학교 졸업생들의 모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글학교 졸업생들이 한글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봉사료를 지급하거나 한국의 교육부나 재외동포재단에서 활동에 대한 인증이나 포상을 하거나 한국 방문 프로그램 등에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글학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글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봉사활동 참여를 계기로 해서 자긍심과 도전의식이 생겨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도 높아질 수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글학교 졸업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교사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 국가의 차세대 교사 양성 정책 등과 보조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글학교 졸업생을 한글학교 보조교사 참여시키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에서는 2018년에 9학년 이상 학생이나 한글학교 졸업생 중 한국어 이중 언어 교사에 관심 있는 학생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참가학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차세대 한글학교 교사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⁷⁴⁾.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지역의 경우에도 한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이 보조교사로, 그리고 한글학교 교사가 되는 사례가 있고,⁷⁵⁾ 아프리카 케냐의 한글학교에서도 한글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 보조교사 사례⁷⁶⁾가 보고되고 있다.

정책과제 3

호주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1) 제안배경

거주국 사회에서 한인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차세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민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민족의식은

74) 재외동포신문(2018. 6. 6.).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제19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62>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75) KTV 국민방송(2018. 10. 30.). 교육사례 공유. 오세아니아 한글 교사 한자리에.
<https://news.v.daum.net/v/20181030102207908?f=o>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76) YTN KOREAN(2017. 4. 23.). 해외리포트. 졸업생들이 다시 찾는 한글학교.
https://www.ytn.co.kr/_sp/0930_201704230140251069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약화되고 대부분 거주국 사회에 동화되는 경향이 크다. 유대인 민족의 경우에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한인 동포사회의 경우에도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우수사례의 발굴 등을 통하여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육이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세부 정책과제

3-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가. 현안사항

대부분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족정체성의 문제는 주요한 이슈이며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아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이중의 과제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청소년기에 민족정체성의 발달과정을 잘못 겪게 되는 경우에 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고 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여나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해나 발달을 위한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정체성 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거주국에서의 정체성 우수 사례를 다양하게 접해보고 이를 토대로 동포청소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동포사회 내에서 한인 후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우수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보급한다. 우선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점차적으로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사례도 조사하여 활용한다.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발달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서면 및 온라인 자료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례를 수집한다. 자료는 책자로 된 사례집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동영상 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의 특강이나 한글학교의 교육교재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많은 동포청소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례 수집을 위해 국가별, 대륙별 관계자 협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자의 참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류사회에서 유대인 민족성 상실을 막기 위해서 힘써온 유대인 커뮤니티의 뿌리 교육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⁷⁷⁾.

3-2.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전국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단임직원, 전직 외교관,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

77) 연합뉴스(2018. 1. 18.). 재미동포 차세대 정체성 확보에 유대인 사례 참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80899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및 교수진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⁷⁸⁾.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민족의 역사와 거주국 이민의 역사 등 재외동포로서의 삶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거나 교육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 주요내용

거주국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교포사회 내의 동포전문가 등으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한글학교 등을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한글학교를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평소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한글학교와 강사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즉, 강사 중에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글학교 교사나 학생들과의 멘토링 또는 추수 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재능 나눔의 차원에서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직접 해외의 한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배치와 관련 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 내 강사단 인력풀 확보와 참여를 위한 동포사회 내 관련 사회단체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참고로 찾아가는 독도학교에서는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78) 연합뉴스(2018. 4. 5.). 전국 31개 중고교 대학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397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9월 10일 인출

주재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미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한국학교나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독도교육을 실시하였다⁷⁹⁾.

3-3.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자유포럼 지원 확대

가. 현안사항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포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체험을 하는 데에는 정보 부족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재외동포 가정의 여건에 따라서 한국문화 체험 기회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가 필요한 사항이다. 동포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소규모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내용

재외동포재단이나 한국교육원 또는 문화원에서 개별 사업 또는 협력사업으로 한국문화체험 동아리나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나 한글학교 또는 한국교육원, 문화원 등에서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인회, 종교단체 등 한인사회 내의 단체 등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모임을 개최하며,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가 모여서 발표대회나 워크숍 등 연합모임을 실시함으로써

79) 독도신문(2015. 11. 3.), <http://m.dokd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6>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관심을 유도하고 한인사회에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 초청 문화체험 행사도 추진하면 청소년들의 참여가 클 것이다.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시상을 하거나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할 필요도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청소년 동아리나 자율적 소모임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활동 기자재나 기타 물품의 제공, 그리고 전문가 및 활동비용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현재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아리지원사업을 참고로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류동아리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웨덴에서는 한류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한국 밴드를 직접 초청하여 콘서트를 준비한 경우도 있고⁸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유럽 한류동아리 회원을 초청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케이(K)-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한국체험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⁸¹⁾.

80) YTN KOREAN(2019. 3. 17.). 〈국곡 세상돌보기〉 한국 아이들 ‘몬트’ 초청한 스웨덴 한류 동아리.
https://www.ytn.co.kr/_sp/1210_201903172049123775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81) 연합뉴스(2019. 10. 2.). 유럽 한류동아리 함께 하는 벨기에 한국문화축제.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106000005?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3-4.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

가. 현안사항

거주국의 동포사회는 이미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동포 청년들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 청년들이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 정부에서의 지원도 주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동포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과 동포청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청년지원단체인 월드옥타(World-OKTA)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차세대 창업무역스쿨을 만들어 청년들의 문화·역사체험교육과 함께 글로벌 창업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21,000여명의 경제인을 양성하고 있다⁸²⁾.

나. 주요내용

대학의 한인학생회나 동포 청년단체 등 동포 청년들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포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활동을 지원한다. 동포 청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동포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의 평가를 통한 사업 지원, 그리고 기존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특강, 멘토링, 캠페인활동, 체험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82) 문화저널 21(2019. 9. 18.). 월드옥타, 재외동포 청년 1500명 경제인 육성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24344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월드옥타(World-OKTA)의 청년지원사업 등과 같이 기존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청년단체의 청년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결되어야 하며, 청년단체의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와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및 활동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차세대단체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현지 차세대동포 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교류, 정체성 강화,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⁸³⁾.

정책과제 4

호주 · 뉴질랜드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1) 제안배경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재외동포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채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거주국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체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에 속한 여러 단체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거주국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83) KOREAN NET. 재외동포지원사업. http://www.korean.net/portal/support/pg_bsns_support.do 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내 한인단체는 여타 대륙들 내 한인단체와 유사하게 원활한 세대교체를 이뤄내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동포청소년이 한인커뮤니티와 거주국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인단체 간 협력, 한인단체와 거주국 지역사회 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 세부 정책과제

4-1.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가. 현안사항

호주의 경우 시드니한인회, 뉴질랜드의 경우 오클랜드한인회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한인회에서는 주로 거주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국경일 관련 행사, 거주국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시드니한인회와 오클랜드한인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사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Ⅶ-4 시드니한인회 및 오클랜드한인회 운영 정기 사업 목록

구분	사업명 및 내용	
시드니 한인회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	3.1절 경축식
		8.15 광복절 경축식
	교민대상 서비스	시니어 무료 컴퓨터 교실
		교민대상 호주 장애인 지원 시스템 무료 설명회
		교민대상 국적, 병역, 가족관계등록 설명회
		청소년 및 학부모 무료 상담서비스

구분	사업명 및 내용	
시드니 한인회	한국 알림 행사	한국의 날(Korean Festival) 11월 2일
		시드니한민족축제 4월 6일
	청년 대상 서비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쉽 안내
	현지사회 및 교민 단합 행사	어르신 친교의 시간(매주)
		한인회관 문화센터 운영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오�클랜드 한인회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	3.1절 경축식
		8.15 광복절 경축식
		10.3 개천절 경축식
	한국 알림 행사 어르신 행사	한인의 날(Korean Day)
		산타퍼레이드(Auckland Santa Parade)
		한마음운동회 및 어르신잔치
	교민생활 서비스	무로법률 상담
		JP(Justice of the Peace)
		민원 상담
		한인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교민 세미나	건강 보건 및 양생 강좌
		아시아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분기별 건강 세미나
	한국의 청년 기술인력 현지취업 서비스	First-aid Certificate 과정
		Health & Safety Certificate 과정
		뉴질랜드 문화 및 노동법 이해를 위한 세미나
		현지 업체 취업을 위한 박람회 개최
	현지사회 및 교민 단합 행사	현지사회 내 가교 역할을 위한 서비스 지원
		한인사회 내 각종 행사 후원 및 지원
		신년하례회
		어르신 합동 생신 잔치
		정기총회
		감사 송년의 밤

* 출처 : 오�클랜드한인회 내부자료(2019). 오�클랜드한인회 연간 사업 및 한인회관 소개.
시드니한인회 홈페이지(2019). 2018년 한인회 사업. <http://www.koreanet.org.au/>에서 2019. 10. 8. 인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인회의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 중 특정 연령이나 집단을 고려한 행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유일하다. 이는 한인회가 이민 초기 1세대를 주축으로 설립되었고, 그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동포 청소년 또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포단체 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국가별, 지역별로 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인회가 수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재외동포 사회에서 동포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한인단체는 한글학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별, 지역별로 거주 한인들의 규모에 따라 한글학교의 운영 규모나 운영 역량에는 편차가 크다. 이 때문에, 한인회 또는 한글학교 중 어느 한 곳이 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 지원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는 상대적으로 한인회보다는 한글학교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글학교가 동포청소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 운영은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 간 협의회와 한글학교가 공동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정책 추진 시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지원 사업 기획과 운영 주체를 구분하는 것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동포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역량과 그것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목록을 마련하고 그것을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포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그것과 연계된 활동 목록은 한글학교가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인사회 및 거주국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시키는 작업은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단체들이 담당했을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한인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또는 거주국 내 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한국교육원으로부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가. 현안사항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다양한 동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III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단체에는 한인회, 복지봉사단체, 경제단체, 체육단체, 군 관련 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문화예술단체, 차세대단체 및 유학생회, 법률단체, 언론사, 한글학교, 외에도 다양한 기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 역시 교민들의 권익과 지원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들을 활용한다. 한인들 역시 다양한 직종과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에 수많은 한인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주제로 함께 협력하거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겸비한 채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주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의

삶을 통해 미래를 그려갈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이 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기적 협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한인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포 단체들이 협력하여 지원한다는 뜻에는 대다수의 동포들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은 동포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동포청소년에게 필요한 활동이 도출된 후에는 이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포 단체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사람이 동포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일 수 있고, 또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동포청소년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람과 장소 제공이 아니라면, 재정적인 지원 또는 정보 제공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단체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한인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 역시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인회가 주로 이민 1세대의 이해와 편의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한인회의 주요 인사들 역시 60~70대가 주를 이루는 곳에서는 차세대단체가 주축이 되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할 때, 동포단체들에게 별다른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각자 생업으로 바쁜 동포와 동포단체들이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개연성도 크다. 동포청소년이 동포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체험 및 활동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동포단체들 역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작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동포단체들 간 네트워크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체험기관 인증제⁸⁴⁾와 유사하게,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가칭 ‘Korean Australians youth 교육기부 인증기관’ ‘Korean New Zealanders youth 교육기부 인증기관’ 마크를 제공하고 한인회 또는 언론단체를 통해 홍보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4-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가. 현안사항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현대, 기아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등이 진출해 있다. 동포들은 이들 기업들이 현지 사회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현지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다. 동포들이 한국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홍보를 현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동포사회와 별다른 교류가 없고 동포사회에 투자하는 것 역시 없다는 동포들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내

84) 꿈길 홈페이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https://www.ggoomgil.go.kr/front/exp/expPlaceCertificationInfo.do?rootMenuId=09&menuId=0901>에서 2019. 10. 5. 인출

A 한글학교 교장은 오클랜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한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글학교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주요내용

2017년 한국의 주요 기업 198개사가 지출한 사회공헌 규모는 약 총 2조 7,243억원이었으며, 1개사 지출규모 평균값은 약 137억, 1개사 지출규모 중간값은 약 24억으로 조사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8: 2). 분야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31.3%, 문화예술 및 체육 21.6%, 교육·학교·학술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학교·학술 분야의 지원은 미래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8: 8).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 및 발전에 기여'(29.6%)를 가장 고려하고 있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8: 22).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현지 동포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기업-동포단체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지연·김한별, 201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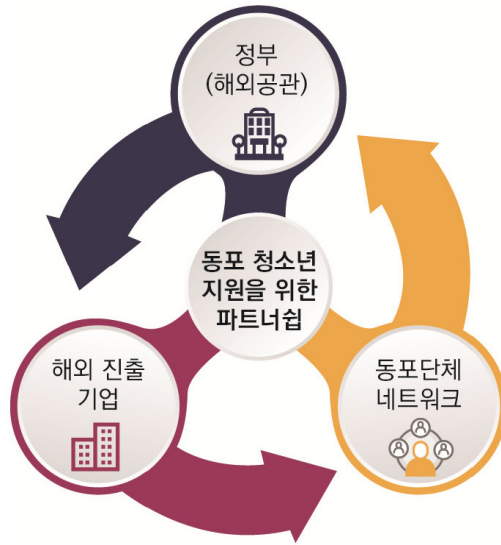


그림 Ⅶ-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기업-동포단체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이와 관련하여, KDB 산업은행 산하 KDB 나눔재단에서는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 리더십 프로그램,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KDB 나눔재단과 같이 재외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은 이례적이다⁸⁵⁾. 이 사례는 재외동포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인데, 향후 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재외동포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해당하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 사회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에서 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활동에

85) KDB나눔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 소개. <https://foundation.kdb.co.kr/index.jsp>에서 2019. 10. 21. 인출

참여하는 것은 동포사회의 현안 해결이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공관이 현지 진출한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술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앞서 4-2 과제로 제시했던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한인축제(Korean day), 아시아문화축제 등의 행사는 교민을 포함한 거주국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 동포청소년들은 축하 공연에 일부 참여하거나 행사를 돕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동포청소년들이 한인사회에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한인사회가 주도하는 행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전히 한인사회는 동포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는 그가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가 한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 및 성장 발달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지 한인축제 등에 동포청소년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한인회 행사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포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행사에서 동포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주제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들에게 일정 기간 주도적인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 후, 한인축제 등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동포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에는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분류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유형을 참고하여, 동포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프로그램의 몇 가지 종류를 제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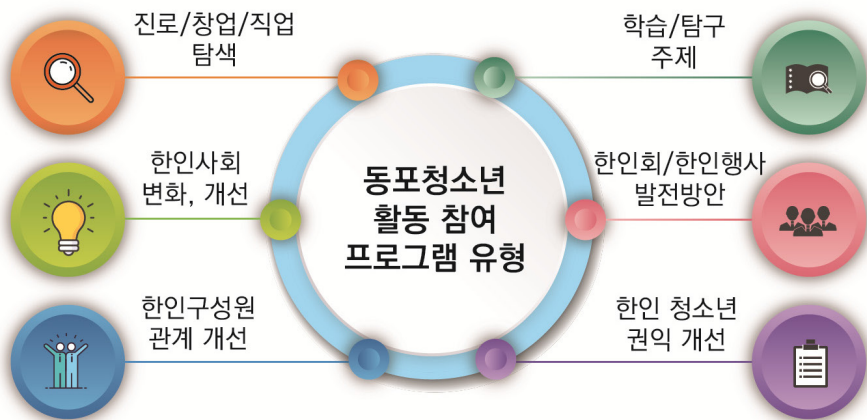


그림 VII-3 동포청소년 활동 참여 프로그램 유형

*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 분야를 참고하여 재구성.

예를들어, 동포청소년들 스스로 진로/창업/직업 탐색과 관련된 자발적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 후, 한인축제 등에서 동포청소년들에게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한인사회 변화 및 개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한인 구성원(세대 간, 세대 내 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인 청소년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는 한인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본인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탐구한 주제, 한인회나 한인행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동포청소년들의 한인회 참여를 높이고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와 한인회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들의 요구수준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의 관점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동포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4-5. 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가. 현안사항

현재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한인단체들은 한인회관 건립이나 한인회 운영 등을 위한 모금이나 기부금 납부 등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을 위한 기부문화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운영 중인 수많은 한글학교들 역시 매년 건물 임대료, 한글학교 교사 수당, 교재 및 기자재 구입, 한글학교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항상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포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한글학교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능기부, 현물 제공 등 기부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동포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외에 한글학교 교재와 기자재를 보관할 공간, 재능기부, 한글학교 수업에 활용 가능한 현물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였다. 우선 동포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동포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 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내용

우선, 동포청소년 교육, 문화, 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동포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포단체 및 개인 교민들에게 동포청소년 교육, 문화, 체험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 품목을 다양화하여 기부의사가 있는 동포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동포청소년들의 학습, 문화,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현금 기부, 현물기부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능기부는 개인 교민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인사회 내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기부는 한 번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동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활용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많은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물기부에는 동포청소년 교육, 문화,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 학습자료, 기타 공간 기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매년 동포청소년 교육, 문화, 체험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동포에게 재외 공관이 중심이 되어 ‘재외동포 우수 기부자 시상식’ 등을 개최한다면,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청소년의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동포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그것이 실제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1-3 세부정책과제인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과 연계한 동포들의 인식개선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훌륭한 기부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포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5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1) 제안배경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방안이면서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 방문 기회’로 파악된 바 있다(정은주, 김정숙, 2018: 105).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을 방문한 후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 높아졌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약 750만 재외동포수와 그 자녀들의 수를 고려할 때, 1년에 1~2회 모국 방문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초청 인원수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재외동포재단 외에 다양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재외동포청소년을 초청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경로의 재외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세부 정책과제

5-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동포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주로 친인척 집을 방문하거나, 한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한인 부모들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녀들에게 한국을 알차게 체험할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또는 재외동포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현재까지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면,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청소년들에게 체류 기간별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은 다양하다.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간 체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체류 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수 있다. 1일 체험 프로그램, 2~3박 체험 프로그램, 1주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동포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사전 조사하여 몇 가지 주제별로 개발할 수 있다. 한국 역사, 한류 및 K-pop, K-beauty, 음식과 문화 등을 주제로 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한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 영역은 건강/스포츠, 모험개척, 역사탐방, 환경보존, 봉사협력, 교류, 과학정보, 진로탐구, 자기개발, 문화예술 등 다양하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의 활동 기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활동기관’에 대한 내용도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한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Youth'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청소년활동', '청소년 지킴이',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and 'e-청소년 안내'. A search bar is on the right. Below the navigation bar is a large banner image of youth activities.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a '청소년활동 찾기' (Find Youth Activities) sec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청소년활동 찾기' and features a search form. The form has two tabs: '인증프로그램' (Certified Program) and '신규프로그램' (New Program). Under '인증프로그램', there are checkboxes for various activity areas: 전체 (All), 건강/스포츠 (Health/Sports), 모험개척 (Adventure), 역사탐방 (History Exploration), 환경보존 (Environment Conservation), 봉사협력 (Volunteer Cooperation), 교류 (Exchange), 과학정보 (Science Information), 진로탐구 (Career Exploration), 자기개발 (Self-development), 문화예술 (Culture Arts), and 기타 (Others). The '봉사협력' checkbox is selected. There is a search input field labeled '검색어' (Search term) with a placeholder '활동명/기관명/영역을 입력하세요.' (Enter activity name/institution name/area). Below the input field are buttons for '찾기' (Search) and '추가' (Add). A '상세검색' (Detailed Search) button is also present.

그림 Ⅷ-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이트

* 출처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 “청소년활동 찾기”
<https://www.youth.go.kr/youth/act/actSearch/allActSearchLst.yt?sCurSearchFlag=Y&curMenuSn=334>
 에서 2019. 10. 7. 인출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동포청소년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험 장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들이 체류하는 장소와 이동 가능한 장소를 고려하여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현재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 정보는 주요 대상을 국내 청소년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상을 재외동포청소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상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5-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가. 현안사항

그동안 호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이를 제대로 실행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광복회 호주지회에서는 동포청소년들의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50~60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민족캠프’를 개최해오고 있다. 민족캠프에 참여한 동포청소년과 광복회 호주지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인차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 동포사회 내에서 청소년 민족캠프와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학부모나 청소년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캠프 운영인력이나 예산 등의 제한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캠프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민족캠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민족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광복회 호주지회에서는 매년 호주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 인력 부족 및 재정 문제로 인해 매년 50~60명의 청소년을 참가대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런데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규모 및 그에 따른 재외동포 청소년 수를 고려할 때, 민족캠프 참여 대상 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한글학교가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광복회는 독립 운동사를 기초로 한 한국 역사 교육에 특화된 민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한국 역사교육 실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광복회가 주최하는 민족캠프는 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주 동포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민족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고, 동포사회 내에서의 관심도 큰 만큼, 이 민족캠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호주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캠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강사 파견 및 민족캠프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캠프에 참여한 동포청소년들이 차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호주 동포사회의 주도적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광복회 호주지회에서는 매년 동포청년 2명을 선정하여 독립운동 선열들이 활동했던 사적지를 답사하는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단’(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주관) 프로그램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호주 동포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동포청소년과 청년들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⁸⁶⁾, 향후 이는 동포사회 내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한 토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6) 호주한국신문(2019. 8.22.),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청소년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호주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2). <http://koreanherald.com.au/?p=14243>에서 2019. 10. 7. 인출

5-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세계 각지에 산재하는 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들을 한국 친화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를 연계하여 동포청소년 캠프 또는 세계 재외동포청소년 대회 등 교류 프로그램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에 개최되며 2019년 현재 13회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한인의 날 행사에는 주로 국가별 한인회장 및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하여 기념식, 세미나, 운영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션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한인회 내부적으로 원활한 세대교체가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 및 이들의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임을 고려할 때,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합회 임원이 참석하는 ‘세계한인의 날’에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도 세션에서는 이들이 미래 동포사회를 주도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세계 동포단체가 연계하여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외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초청 프로그램을 다원화하는 대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내용

세계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과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세계한인의 날’의 행사에 동포청소년 교류 세션을 포함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별로 1~2명의 동포청소년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또는 이들을 위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개발 및 복원, 독립운동 관련 홍보 활동, 독립유공자 정신 계승승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광복회는 국내외 지부를 두고 있는데, 광복회가 주체가 되어 전 세계 동포청소년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역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동포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VII-5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안)

	1안	2안
운영주체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광복회 ⁸⁷⁾
교류방식	‘세계한인의 날’ 재외동포청소년 포럼 개최	교류 캠프
참여대상	국가별 동포청소년 대표 1인	국가별 동포청소년 개인 희망자
교류내용	동포청소년 역량 강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역사를 주제로 한 캠프

87) 광복회 홈페이지, <http://www.kla815.or.kr/main/main.php>에서 2019. 10. 7. 인출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상술한 표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안 중 2안을 채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광복회의 경우, 세계 각국 재외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부가 활동 중이다. 따라서 매년 각 단체의 지부가 돌아가면서 교류 프로그램을 맡는다면, 프로그램 개최에 대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4.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가. 현안사항

동포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은 그 유형과 수가 다양할수록 동포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경우, 정규 학교교육 일정이 한국 및 여타 대륙과 다르다. 동포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모국 초청 연수 기간이 주로 7~8월인데 반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동 기간에 방학 기간이 아니거나, 방학이 짧아서 모국 초청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오세아니아 대륙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체험이나 교류 경험 기회는 오세아니아 대륙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학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 중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교육청이 주최하는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주최하는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이외에 한국의 지자체 또는 지역 교육청이 호주와 뉴질랜드 내 동포청소년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방문 프로그램 다양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내용

현재 시도마다 국제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국제협력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담당)가 존재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국제교류 활동, 해외자매도시 및 지역과의 교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주시에서는 자치행정과 내, 국제교류팀에서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⁸⁸⁾. 전주시는 시 차원에서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재외동포청소년과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정은주, 김정숙, 2018: 226~227). 2019년 7월에도 세계 18개국 아동청소년 38명을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⁸⁹⁾ 한편, 교육청에서도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참여협력담당관 내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외 한글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⁹⁰⁾

이와 같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경우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업무나 해외도시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의 수준 역시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 거주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류체험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거주 국가와 도시별 재외동포 규모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고, 재외동포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고교 및 대학에서 재외동포 이해

88) 전주시 홈페이지. ‘행정조직’ 중 국제교류팀

<http://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556d27040155c4640d2d0123&orders=70,30,0,0,0,0>에서 2019. 10. 8. 인출

89) 전북중앙일보(2019. 7.11.).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전주시 전통문화 배워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301#092a>에서 2019. 10. 8. 인출

90)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내 국제협력팀

<http://buseo.sen.go.kr/web/services/staff/BuseoStaffList.action?searchBean.searchVal=70>에서 2019. 10. 8. 인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현황 및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실태를 알리고,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원 및 한글학교와의 교류 활성화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다수의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시 또는 한글학교가 한국의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지와 여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청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현황이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이 나서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체 적으로 판단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면 교류 협력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추가 및 개선
•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제각각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진 → 지자체 및 교육청 여건 및 지자체장/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교류협력 수준 및 사업 유무의 차이 발생	• 지자체 및 교육청 상대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필요(주체: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 현황 및 실태를 안내할 때,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한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 홍보 필요 • 지자체 및 교육청 중,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재정 지원 고려 필요

5-5.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가. 현안사항

현재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포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는 재외동포재단에서 7~8월에 개최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이다. 2019년 기준 재외동포 중·고생 701명⁹¹⁾, 대학생 286명⁹²⁾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모국 연수 프로그램이 끼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매년 모국 연수 참여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재외동포 수를 고려할 때, 모국 연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모국 연수 횟수와 일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매년 7~8월에 중·고생 모국 연수를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대학생 모국 연수를 1회 실시하고 있다. 2019년은 1,000여명 의 인원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모국 연수의 주체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 방문 및 연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하고 있는 모국 연수를 겨울방학에도 진행 하거나, 국가별 학교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학기별 방학기간 중 재외동포청소년들이

91) 경인투데이뉴스(2019. 7. 16.). 재외동포재단 중고생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487148&hmidx=1>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92) 연합뉴스(2019. 7. 9.). 재외동포 대학생 286명 한국배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0770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수 참여자 편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분기별로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분기별 기간과 대륙을 매칭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선발하여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지원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것보다는 국내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산하 기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모국 연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우선 반기별 또는 분기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연수 실시에 필요한 적정 인원 확보가 중요하다.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 세계 동포청소년들의 욕구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기별, 분기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적정 참여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연수 실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모국 연수 확대에 앞서 대륙별로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동포청소년의 참여 가능성과 실제 참석 인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관련 예산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운영할 경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부처 간의 협력을 넘어 재외동포청소년의 모국 연수 업무를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모국 연수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지원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연수 공간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고,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외교부가 제공한다면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 제안배경

호주와 뉴질랜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정체성을 토대로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류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인식을 개선하고, 한글학교를 지원하며, 동포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동포사회 및 한인 커뮤니티가 다방면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규학교에 한국어 강좌 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행사가 현지사회에서 다양하게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내부적으로 동포사회와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외부체계에 해당하는 현지사회에서 일어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한국어와 한국역사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세부 정책과제

6-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가. 현안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강화는 호주 및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강좌 보급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글학교는 주말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중학교 졸업 후에는 한글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동포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글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라도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보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SW)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 한국어가 채택되고 있지만 퀸즈랜드(QLD) 등의 지역에는 한국어 강사 부족 등 여건 부족으로 한국어채택 학교가 적고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수학능력평가시험)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개설된 경우가 많지 않아서 동포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향후 현지 중고등학교에 한국어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국어 개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며, 한국어 교원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된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교사가 확보될 때, 정규학교에 한국어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 중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이 많지 않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어 교사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정규학교에 한국어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규학교 내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는 현지 교사 자격증을 갖춘 동포 1.5세~2세들이 한국어 교육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동포들에게 현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인된 자격을 갖춘 한국어 교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

나. 주요내용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 채택 사업은 한국교육원이 지원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교육원은 현지학교에 한국어채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어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한국어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규학교에 한국어 강좌 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어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확장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회 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을 때 현지 수요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요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한국어가 현지사회 내 제2, 제3 외국어로 채택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호주와 뉴질랜드 교육부와 우리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여건을 현지사회에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채택 사업을 유지, 확대하면서도 우리 외교부 및 교육부가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채택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정규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지원하는 기관인 ILEP(International Languages Exchanges and Pathways)⁹³⁾에서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지원하는 공식 어드바이저(National language adviser)가 존재한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 최근 한국어 멘토를 두고 있지만, 여타 언어 어드바이저와는 제한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어 어드바이저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93) 뉴질랜드 ILEP 홈페이지. <https://www.ilep.ac.nz/national-language-advisers>에서 2019. 10. 14. 인출

호주와 뉴질랜드의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개설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한국어 교사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국어 보급이 체계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한 교사 양성 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정규학교 내 현지인 교사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지인 중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동포 1.5세나 2세 중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인 교사 중에서도 한국어 구사가 능통할 경우,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 중 한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를 했거나, 현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에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일정 기간의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1.5세, 2세 중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에게 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교사가 된 후 한국어 교육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한국어 교사양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강좌 확대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한국어 강사 양성 및 확보와 한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현지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개설은 현지사회 내 한국어 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호주와 뉴질랜드

에서 활동하는 현지 정치인 또는 한국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이민 1.5세, 2세와 정치적,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 교사 양성은 호주와 뉴질랜드 교사양성기관에 한국어를 추가해야 하는 문제로,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구분하여 한국어 교사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가. 현안사항

뉴질랜드의 경우 NetNZ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NCEA(학업성취인증서) 상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현지 정규 학교에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교가 승인할 경우, 학생들이 별도로 한국어를 개설한 곳에서 한국어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 민간교육기관인 NetNZ(뉴질랜드 교육부 승인 기관)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 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NetNZ 외에도 대학 부설 원격교육기관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어가 개설된 경우는 드물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은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원격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현재 NetNZ 한국어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뉴질랜드의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뉴질랜드 이민청(New Zealand Immigration)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다양한 원격교육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두 개의 원격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는 대체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⁹⁴⁾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기관 역시 존재하는데, 앞서 설명했던 NetNZ 외에 Te Kura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 뉴질랜드 교육부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NetNZ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서 3명의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반면, Te Kura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Te Kura 사이트 상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의 접근 기회를 고려할 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Te Kura에 한국어 강좌 개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NetNZ의 경우 한국어 강좌가 증설될 경우 추가적인 강사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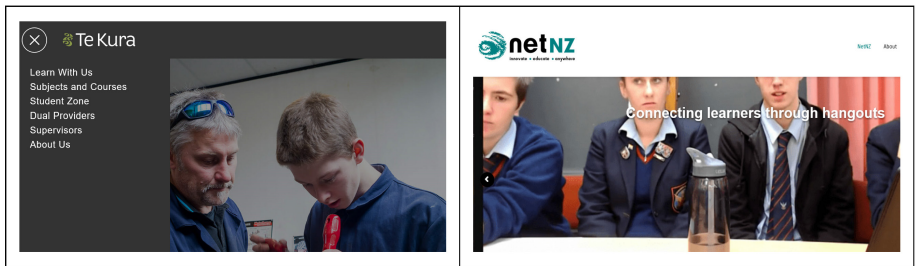


그림 Ⅶ-7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Te Kura
원격교육기관

그림 Ⅶ-8 민간 원격교육기관 NetNZ

* 출처 : Te Kura 홈페이지 <https://www.tekura.school.nz/>에서 2019. 10. 14. 인출
NetNZ 홈페이지 <http://www.netnz.org/>에서 2019. 10. 14. 인출

94) 뉴질랜드 이민청 홈페이지 '원격교육' (<https://www.newzealandnow.govt.nz/resources/distance-learning>)에서 2019. 10. 14. 인출) 안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부설 원격교육기관은 Massey University(<https://www.massey.ac.nz/massey/explore/study/distance/distancehome.cfm>)에서 2019. 10. 14. 인출)와 Open Polytechnic(<https://www.openpolytechnic.ac.nz/qualifications-and-courses/>)에서 2019. 10. 14. 인출)인데, 각 원격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한국어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민간 원격교육기관인 NetNZ에 비해,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Te Kura의 경우 강좌 개설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때문에, 한국 외교부 또는 교육부가 나서서 강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뉴질랜드 교육부를 통해 파악하여 강좌 개설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6-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가. 현안사항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교육원들은 거주국 내 한국어채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현지 학교 중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의 교장, 교직원, 교육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교원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한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교원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연수는 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현지 학교 내에서의 한국어 채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통한 정보 신뢰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경우, 한국어 채택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장 및 교원들의 평가나 추천이 타 학교의 한국어 채택 사업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정규학교 내 한국어 채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는 호주와 뉴질랜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 방문 일정 동안의 체재비는 한국교육원이

부담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 한국교육원은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호주 교원단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 방문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⁵⁾ 이들 교원단은 연수에서 DMZ 방문, 경주 불국사, 용인 한국민속촌, 경복궁, K-style 허브전시관, 난타 공연 관람, 부산 UN 기념공원, 호주 및 뉴질랜드 대사관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각급 학교 방문,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방문 일정을 추가하고,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특강을 추가하여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들 교원단이 한국 방문 연수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내용들은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거나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전통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방문하는 한국 학교들과 호주 학교들이 자매결연을 통해 학생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호주와 뉴질랜드 정규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어넣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한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한국의 초·중·등 학교와 호주, 뉴질랜드 학교 간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현재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교원단이 매년 1회 한국 방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 방문 시에 20~30명의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69개 정규학교가 한국어 채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 40개 학교가

95)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2019년 호주 교장단 한국방문 연수 성공리에 마쳐”.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78/view.do?seq=1338683에서 2019. 10.

14. 인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어 채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많은 교원들이 한국 방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에는 한국 방문 시 체재비는 한국교육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왕복 항공료는 참가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매 연수마다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나 항공 등에서 협찬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큰 부담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4.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가. 현안사항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호주 및 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 개설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각국 교육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교육부의 요구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많은 한글학교들이 공간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 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공간 임대는 각 현지 학교 교장의 자율 권한에 해당하는데, 매 학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글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각국 교육부에 요청하여 현지 학교가 한글학교의 공간 임대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적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국 정부 부처와 협력을 통해 문화적 협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거주국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내용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한국과 태국 정부는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에는 한국어 채택 학교 지원 강화,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⁹⁶⁾ 정부는 해외 국가를 방문할 때 주요 협력 분야를 차별화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에는 주로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었고, 2019년 9월 대통령이 UN 연설 차 미국을 방문하여 호주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교육 및 투자, 인프라 협력, 국방·방산 협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을 논의했지만, 그 중에서도 방산·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해외 국가별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를 토대로 협력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지만,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협력은 호주와 뉴질랜드 현지인들 중 지한파를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어 보급과 문화교류를 위한 협력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 문화적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지 국가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동포청소년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현재 한류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한류의 경제적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외교에서 핵심은 여전히 안보, 경제, 통상 등 전통적인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런데 외교에서 교육적, 문화적 접근이 지닌 강점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한국어 보급과 문화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96) 교육부 홈페이지(2019. 9.3.). “한국과 태국의 연결, 한국어교육으로 함께합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8435&lev=0&searchType=SC&statusYN=W&page=1&s=moe&m=020201&opType=N>에서 2019. 10. 8. 인출

6-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가. 현안사항

호주와 비교할 때 재외동포 수가 많지 않은 뉴질랜드에는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현지인을 포함한 동포들의 경우 한국 전통문화 또는 한류 관련 공연과 행사 등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국어나 한국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언어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관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내 한국문화 확산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고 현지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지학교에 한국어 개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요내용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교육원과 재외공관이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과 요구수준을 조사하여, 문화 행사를 기획하되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을 확장하여 한국어 학습,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 한국 방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육원 또는 재외공관에 이 업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뉴질랜드한국교육원에서는 직접 한국어 교육을 현지인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교육원에서는 한글학교를 지원하거나, 현지 학교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뉴질랜드한국교육원에서는 현지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을 수용하여 직접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원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강좌 개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만 투입된다면,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문화 행사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교육원에는 원장 1명과 현지 지원 인력 1명만이 한국교육원이 담당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연계하여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한국교육원 또는 재외공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 업무는 문화예술관광부의 지원과 협조가 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부처별로 인력 파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부에서 관련 전문가를 재외공관 또는 한국교육원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 제안배경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역사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초로 청소년들에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안정된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포청소년 사업은 사업의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포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검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부 정책과제

7-1. 지역 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 인력 확대

가. 현안사항

호주 및 뉴질랜드에는 많은 한글학교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원의 설치와 교육원장 파견, 교재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넓은 지역에 비해서 관리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현재, 호주에 있는 한글학교는 총 54개소로 주시드니총영사관, 주호주연방대사관, 멜번 분관의 3개 공관의 관할 하에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a: 12). 교육부에서는 1989년에 시드니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원장을 1명씩 파견하고 있으며, 43개의 한글학교가 시드니한국교육원의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a: 229). 시드니한국교육원은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지역에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즈(NSW), 퀸즈랜드주(QLD), 노던테리토리준주(NT) 안에 있는 한글학교에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에서 인력 파견이 없기 때문에 대신 한글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관리가 쉽지 않으며, 특히, 빅토리아주 등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관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총 17개의 한글학교가 있으며,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오클랜드분관의 2개 공관의 관할 하에 있다(재외동포재단, 2017a: 12). 교육부에서 2012년에 오클랜드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원장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17개 한글학교가 한국교육원 관할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7a: 229).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교육원에서 이와 관련한 역할 수행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 주요내용

호주의 전 지역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한글학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드니한국교육원 이외에 빅토리아주나 퀸즈랜드주 등 최소 2개 지역에 한국교육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당장 한국교육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드니한국교육원에 파견하는 인력을 1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한국교육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 전·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한국교육원 또는 한글학교에 파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교육원에 파견하는 인력 이외에 별도로 한글학교의 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현직 초·중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직 교사의 파견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직 교사를 먼저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현직 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중 능력 있는 자를 교육하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호주에 비해서 한글 학교의 수가 적지만, 뉴질랜드에 한국문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교육원이 문화원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문화원의 설립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과 협력하여 한국교육원 내에 각종 문화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교육부에서 국가별 한국교육원의 설치 수와 1개 한국교육원 당 1인 파견인력 지원이라는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현지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과 인력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7-2.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가. 현안사항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조성 등을 위해 한글학교 육성과 한글학교 교사 연수,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국에서의 지원은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방식이라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주국 내 한국

교육원에 인력이 파견되고 있고 한글학교 사업 및 한글학교 교사 연수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예산과 장학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나. 주요내용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 이외에 인력 파견 등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정규학교의 지원에 집중하여 정규학교의 한국어과목 채택 확대와 한국어 교사 및 교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재외동포재단의 경우에는 한글학교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한글학교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원의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훈을 홍보하고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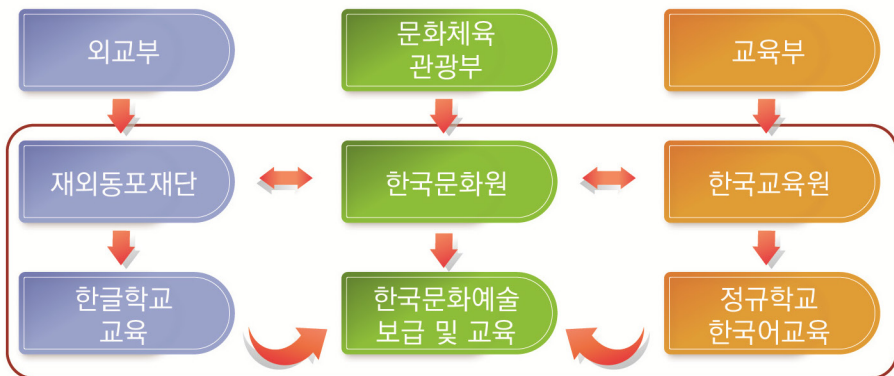


그림 Ⅶ-9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거주 국가 내 설치되어 있는 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 한국문화원 등의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인력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교육원의 인력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지원함으로써 한글학교 지원을 한국교육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재외동포청소년 사업에 대한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사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 부처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부처 내에서의 인력 파견부터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부처 간 조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7-3.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가. 현안사항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민족 문화와 거주국 이민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한민족이나 이민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로는 한민족 문화에 대한 공감이나 한민족 친화적인 의식을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혹은 민족교육은 한글교육의 일환으로 한글학교 등에서 일부 가르쳤고 가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동포사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동포들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민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동포청소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인의 후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내용

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여 향후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민족 재외동포 및 이민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구센터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지역 동포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며, 동포청소년들에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오세아니아지역 연구자들 간에 이민사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내 한국이민사박물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내 설치되어 있는 동포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원이나 한국문화원에 동포청소년 민족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호주나 뉴질랜드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의 설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동포사회 내 주요 인사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센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국문화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 등 최소한의 지원에 의해서도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포청소년 민족 교육의 사례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참고할 수 있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박물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1978년 5월에 텔아비브대학교에 개관하였으며, 역사적 기록의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박물관을 방문하는 13세 이하의 저학년 프로그램과 13세 이상의 고학년 프로그램,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디아스포라국가의 유태인 청소년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컴퓨터를 통한 뿌리 찾기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이장섭, 이종선, 김현미, 1997: 229~235).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2008년도에 인천에 개관하였는데, 해외 이민의 역사와 이민자들의 삶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민자들의 역사에 대한 사진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이민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상영⁹⁷⁾, 그리고 매월 한인디아스포라 등에 대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이민사와 관련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원들의 이민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⁹⁸⁾.

7-4.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가. 현안사항

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동안 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주로 한글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6에서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포청소년의 모국 방문, 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 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제 56조에서는 “교포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운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⁹⁹⁾. 하지만 실제로 교포청소년 대상의 교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97) 다음 백과. 한국이민사박물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749n12>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98) 한국이민사박물관. 프로그램 안내 <http://icmuseum.incheon.go.kr/posts/3084>에서 2019년 1월 11일 인출.

99)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453호].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19년 10월 22일 인출

나. 주요내용

동포청소년의 교류와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동포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정부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등의 개정을 통해서 동포청소년들도 국가 간 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청소년교류에서도 단순히 외국인 청소년과의 교류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거주 국가와 한민족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청소년들과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에 직접 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함으로써 동포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교포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교류활동사업을 기획하는 경우에 동포청소년을 청소년활동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국 동포 등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해왔던 외교부(재외동포재단)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및 체험활동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재외동포재단과 부산 YMCA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한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증수련활동으로 등록되어 각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¹⁰⁰⁾. 향후 재외동포 재단과 청소년분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책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예산(인력) 소요 규모, 정책의 시급성 및 중요도, 담당 관계 부처 등을 명시한 로드맵을 표 VII-6에 제시하였다.

표 VII-6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H : 높음, M : 보통, L : 낮음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중요도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없음		
□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1. 한국 친화 가정(Korea friendly home) 조성 지원		○			○	H/H	외교부 교육부
	2.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	H/H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3. 호주·뉴질랜드 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부모특강 실시		○		○		H/H	외교부 교육부
	4.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벤트 및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	H/H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100) 뉴스 에듀(2019. 7. 10.), 재외동포재단-부산YMCA 공동운영 프로그램 국가 인증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90>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중요도	관계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없음		
①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모 인식 개선	5.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및 학교 지원(호주)		○		○		H/H	교육부
	6. 동포청소년 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		○		H/H	외교부 문화부
② 한글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1. 호주·뉴질랜드 맞춤형 한글학교 커리큘럼 개발		○			○	H/H	교육부
	2. 교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자료 개발 지원				○		H/H	교육부 외교부
	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H/H	외교부 교육부
	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	○			H/H	외교부
	5. 교대/사범대 학생을 활용한 한글학교 지원		○		○		H/H	외교부
	6. 차세대 교사 양상을 위한 한글 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기회 확대		○		○		M/H	외교부
③ 호주· 뉴질랜드 동포 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 확대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		H/H	외교부 여가부
	2.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H/H	외교부
	3.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한국문화 체험 자율모임 지원 확대		○			○	M/H	외교부 시도교육청
	4. 청소년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동포 청년단체의 지원		○			○	H/H	외교부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 중요도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 없음		
④ 호주·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1.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		○		H/H	동포단체 공관
	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	H/H	동포단체 공관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			○	H/H	중앙정부 외교부
	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L/H	동포단체
	5. 동포청소년 교육문화체험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		○	○	L/H	동포단체 외교부
⑤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 개발		○			○	H/H	외교부 여가부
	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 (호주)		○		○		H/H	외교부
	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	H/H	동포단체 외교부
	4. 호주·뉴질랜드와 한국 지자체 및 교육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	L/H	외교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5.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			H/H	외교부
⑥ 호주·뉴질 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국어강좌 확대 및 한국어교사 양성 지원		○	○			H/H	외교부
	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		○		H/H	외교부 교육부
	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		○		H/H	교육부 시도교육청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중요도	관계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없음		
⑥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4.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			○	L/H	외교부
	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		○		H/H	외교부 문화부
⑦ 호주·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1. 지역 동포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설치 및 파견 인력 확대		○	○			H/H	교육부
	2. 한글학교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	H/H	외교부 교육부 문화부
	3.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		○		M/H	외교부 교육부 문화부
	4.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M/H	여가부

○————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서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광복회 호주지회 내부자료. '제4회 청소년 민족캠프 참가 안내' 자료,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출범식 및 특별 강좌' 안내문.
-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 정은주(2016).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 (연구보고 16-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17).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연구보고 17-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규태(2013).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인식 차이, **중등교육연구(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61(1), 29~57.
- 김영성(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국토지리학회**, 40(4), 497-512.
- 김재기(2005). 세계 한민족 Diaspora와 네트워크 구축의 정치경제, 21세기 **정치학회보**, 15(2), 121~145.
- 김지환(2008). **한인 동포사회의 성장과 질적 변화, 호주한인 50년사**(pp. 97~125). 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도서출판 진흥.
- 노병일(2015).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사회자본과 아동발달 사이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1), 85~100.

_____(2018). **아동복지론**. 경기: 공동체.

라미령, 신민금, 신민이(2018).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자료 18-01).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리단, 정소영(2015). 한국의 공공외교와 재외동포: 중국 교무공공외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9(2), 303-322.

박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2009). **글로벌 코리안 인재의 개발·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병태, 조양훈(2008). **호주 한인 동포사회의 정책과 발전, 한인 동포사회의 성장과 질적 변화, 호주한인 50년사**(pp. 74~95). 호주한인5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 도서출판 진흥.

백순근(2002).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 **아시아교육연구**, 2(1), 27~42.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여인곤, 김국신, 전병곤, 배궁찬, 이원덕, 이재현(2009).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KINU 연구총서 09-05). 서울: 통일연구원.

오정은, 송석원, 최순영, 김혜명(2017). **우수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 진출 활성화 방안**. 서울: 재외동포재단.

오클랜드한인회 내부자료(2019). **오클랜드한인회 연간 사업 및 한인회관 소개**.

외교부(2019). **2019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이석인, 임영연(2011).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5(1), 525~547.

이영 역(Urie Bronfenbrenner 저)(1995). **인간발달 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이영찬, 윤영곤, 이종국, 정윤희(2009).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방안**. 서울: 지식경제부.

- 이장섭, 이종선, 김현미(1997). **세계한민족관(가칭)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정책과제 97-20).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2013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285.
- 이진영(2010).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No. 2010-11.
- _____(2014). 통일과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와 신뢰프로세스, **문화와 정치**, 1(1), 63~83.
- 이진영, 박우(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 22~24.
- 임지연, 김한별(2017).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성호(2008).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31(3), 107~130.
- 재외동포재단(2017a). **2017년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_____(2017b). **2017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용일, 고선윤, 이민영, 손동희(2017). **재외동포의 장기적 활용 및 통합제고 방안 연구**. 서울: 법무부·(사)한국고용복지연구금연구원.
- 전형권(2004). 세계의 인교 네트워크 발전과 인도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에 주는 함의. **대한정치학회보**, 12(2), 201-227.
- 정은주, 김정숙(2018).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안 연구 I**(연구보고 18-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성연, 김혜원, 김민(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 가정학회지**, 49(3), 87~98.
- 하춘광(2015). 호주 시드니 거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연구: 문화적응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193-225.
- 홍면기(2015). 재외한인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재외동포저널, 창간호. <http://gkjournal.com/pol-korea-network/>에서 2019년 5월 15일 인출.
- Andrews, A. B., & Ben-Arieh, A. (1999). Measuring and monitoring children's well-being across the world. ***Social Work***, 44(2), 105-11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2nd Ed.), 1643~1647.
- Coughlan, J. E. (1997). Korean Immigration in Australia, ***Asians in Australia***. South Melbourne: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 Hart, R. A.(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rence: UNICEF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Centre.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childrens_participation.pdf에서 2019년 8월 10일 인출
- Hundt, D.(2019). Residency without citizenship: Korean immigration and settlement in Australia,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 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pp. 91~110). 창원: 창원대학교 호주뉴질랜드 한인연구팀.
- Jack, G. (2001).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 ***Children in Society: Contemporary Theory,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P. Foley, J. Roche, & S. Tucker. Hampshire, UK : Palgrave.
- Shin, S. C.(2018). *Korean language educaion: Australian practices and perspectives*. Seoul: SOTONG.

Thulin, M.(2010). Jewish networks. *European History Online*,
<http://ieg-ego.eu/en/threads/european-networks/jewish-networks>에서
 2019년 5월 15일 인출.

Stevenson, O. (1998). *Neglected children: issues and dilemmas*. London:
 Blackwell.

Umana-Yaylor, A. J., Lee, R. M., Rivas-Drake, D., Syed, M., Seaton, E.,
 Quintana, S. M., Cross, W. E. Jr., Schwartz, S. J., & Yip, T. (2014). Ethnic
 and racial identity during adolescence and into young adulthood: an
 integrated conceptualization, *Child Development*, 85(1), 21~39.

[온라인 자료]

경인투데이뉴스(2019. 7. 16.). 재외동포재단 중고생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code=newsbd&idx=487148&hmidx=1>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교육부.

<https://www.moe.go.kr/user/detail.do?deptCD=1342021&m=0604>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교육부 홈페이지(2019. 9. 3.). “한국과 태국의 연결, 한국어교육으로 함께 합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0&boardSeq=78435&lev=0&searchType=SC&statusYN=W&page=1&s=moe&m=020201&opType=N>에서 2019년 10월 8일 인출

광복회 홈페이지.

<http://www.kla815.or.kr/main/main.php>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국가기록원. 재외한인의 역사(오세아니아 한인).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Oceania.do>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dept/deptMemberList.do?mn_id=233&dept_id=10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action/organization.do?pageST=nd8419>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국무조정실(2017. 12. 22.).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740만 재외 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tblKey=GMN&fileId=185800148>에서 2019년 4월 20일 인출

국원국악원.

<https://www.facebook.com/nzkoreanculture/posts/663035517118120>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453호].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19년 10월 22일 인출

꿈길 홈페이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https://www.ggoomgil.go.kr/front/exp/expPlaceCertificationInfo.do?rootMenuId=09&menuId=0901>에서 2019년 10월 5일 인출

남십자성 예술단.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interview&wr_id=593에서 2019년 8월 22일 인출

뉴스 에듀(2019. 7. 10.). 재외동포재단-부산YMCA 공동운영 프로그램 국가 인증.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90>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뉴질랜드 이민청 홈페이지.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https://www.newzealandnow.govt.nz/resources/distance-learning>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원 소개자료.

http://www.nzkoreanedu.com/bbs/content.php?co_id=sub01_2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nzkoreanedu.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14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홈페이지(2018. 12. 6.). 뉴질랜드 교육제도 개관 자료.

http://www.nzkoreanedu.com/bbs/board.php?bo_table=sub06_1&wr_id=38에서 2019년 4월 5일 인출

뉴질랜드 ILEP 홈페이지.

<https://www.ilep.ac.nz/national-language-advisers>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다음 백과. 한국이민사박물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749n12>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독도신문(2015.11.3.).

<http://m.dokd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86>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문화저널 21(2019. 9. 18.). 월드옥타, 재외동포 청년 1500명 경제인 육성.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24344에서 2019년 10월 4일 인출

미디어 호주나라(2017. 5. 31.). 호주 뉴카슬 한글배움터의 제17회 가족캠프 성료.

<https://media.hojunara.com/blog/2017/05/31/%ed%98%b8%ec%a3%>

bc-%eb%89%b4%ec%b9%b4%ec%8a%ac-%ed%95%9c%ea%b8%80-%eb%b0%b0%ec%9b%80%ed%84%b0%ec%9d%98-%ec%a0%9c17%ed%9a%8c-%ea%b0%80%ec%a1%b1-%ec%ba%a0%ed%94%84-%ec%84%b1%eb%a3%8c/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비거주인도인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nriol.com/community/orgs/>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서강대학교 Global Korean Studies.

http://gks.sogang.ac.kr/bbs/bbs/board.php?bo_table=news_and_event_kor&wr_id=3에서 2019년 10월 15일 인출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내 국제협력팀.

<http://buseo.sen.go.kr/web/services/staff/BuseoStaffList.action?searchBean.searchVal=70>에서 2019년 10월 8일 인출

서울신문(2018. 8. 13.). 월드 옥타, 호주 시드니서 차세대 창업부역스쿨 진행.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3500125&wlog_tag3=daum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2019년 세계인상의 날.

<https://pbdindia.gov.in/en>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어 채택학교 현황.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1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안내.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4_03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시드니한국교육원. 한국교육원 소개자료.

<http://www.auskec.kr/bbs/page.php?hid=work>에서 2019년 1월 29일 인출

시드니 한국교육원. 한국어몰입교육센터.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4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시드니 한국교육원. 주정부 토요학교.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2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시드니 한국교육원. 주정부 원격학교.

http://www.auskec.kr/bbs/page.php?hid=sub05_03에서 2019년 2월 20일 인출

시드니한인회 홈페이지. 2019년 한인회 사업.

<http://www.koreanet.org.au/>에서 2019년 10월 8일 인출

연합뉴스(2018. 2. 26.). 호주 퀸즐랜드에 한인사회 첫 종합회관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60839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연합뉴스(2018. 4. 5.) 전국 31개 중고교 대학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397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9월 10일 인출

연합뉴스(2019. 10. 2.). 유럽 한류동아리 함께 하는 벨기에 한국문화축제.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2106000005?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연합뉴스(2018. 1. 18.). 재미동포 차세대 정체성 확보에 유대인 사례 참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80899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연합뉴스(2019. 7. 9.). 재외동포 대학생 286명 한국배우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077000371?input=1179m>에서 2019년 10월 23일 인출

양명득(2012. 8).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사회 성장과 이주물결. 호주와 한국다문화 연구원.

http://koreansinaustralia.blogspot.com/2012/08/blog-post_8.html에서
2019년 4월 19일 인출

월드코리아(2018. 10. 17.). 광복회 호주지회, 제4회 청소년 민족캠프 개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791>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월드코리아(2017. 6. 14.). 호주 퀸스랜드한인회, 8월 ‘한인의 날’ 개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75>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월드코리아(2011. 2.2.). 뉴질랜드한인회, 3월부터 ‘헬프라인 가동.’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76>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 “공공외교란?”.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에서 2019년
5월 15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8. 6. 20.). 광복회 호주지회, ‘호주한인 차세대네트워크 출범.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73>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8. 8. 30.). 호주한인총연합회, 캔버라서 ‘2018 차세대 지도자 포럼’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23>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8. 9. 28.). 캔버라 ‘한국의 날’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953>에서
2019년 1월 25일 개최

재외동포신문(2014. 11. 26.). 남부호주한인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669>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1. 5. 18.). 미 교교 한국어 채택, 학부모 노력 있었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55>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재외동포신문(2018. 6. 6.).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 제19차 한국어 교사 학술
 대회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62>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재외동포의 창(2013. 1). 동포이민사.
http://webzine.korean.net/201301/pages/sub03_03_01.jsp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19년 11월 18일 인출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homepage/intro/organization_chart.do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전국경제인연합회(2018). 2018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http://www.fki.or.kr/publication/report/View.aspx?content_id=e48607ae-3456-4e3e-803e-8ab2b53a9f77에서 2019년 10월 5일 인출

전북중앙일보(2019. 7. 11.).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전주서 전통문화 배워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301#092a>에서
 2019년 10월 8일 인출

전주시 홈페이지. ‘행정조직’ 중 국제교류팀

<http://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556d27040155c4640d2d0123&orders=70,30,0,0,0,0,0>에서 2019. 10. 8. 인출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2019. 2. 19.). 뉴질랜드 동포단체 현황 내부자료.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2005). 뉴질랜드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http://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95/view.do?seq=5834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에서 2019년 8월 28일 인출

주시드나총영사관(2018). 호주동포단체 현황(2018년 4분기).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4/view.do?seq=12977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18년 12월 28일 인출

주시드나총영사관(2018). 호주 이민 약사.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4/view.do?seq=12977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서 2018년 12월 28일 인출

주시드나총영사관 홈페이지. “2019년 호주 교장단 한국방문 연수 성공리에 마쳐”.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78/view.do?seq=1338683에서 2019. 10. 14. 인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에서 2019년 5월 23일 인출

충청일보(2019. 9. 30.). 다문화 학부모 공예 동아리 상감기법에 도전하다.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235>

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19년 11월 18일 인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www.youth.go.kr) “청소년활동찾기”.

<https://www.youth.go.kr/youth/act/actSearch/allActSearchLst.yt?sCurSearchFlag=Y&curMenuSn=334>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코리아가든트러스트 홈페이지.

<https://koreangarden.co.nz/>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코리아넷(Korean Net).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3991652#/list에서 2019년 6월 7일 인출

코리아 넷(Korean Net). 재외동포지원사업.

http://www.okf.or.kr/portal/support/pg_bsns_support.do?bsnsNo=5343&redirectYn=Y&requestcallYn=null&demandYn=nulldptj 2019년

6월 11일 인출

한국상사지사협의회.

<http://www.kita.com/about/>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한국신문(The Sydney Korean Herald).

호주 한인 인구통계.

<http://koreanherald.com.au/?p=12701>에서 2017년 5월 8일 인출

한국이민사박물관. 프로그램 안내.

<http://icmuseum.incheon.go.kr/posts/3084>에서 2019년 1월 11일 인출

한국프렌차이즈산업신문(2015. 12. 11.). 호주 셋별 한글학교 ‘아주 특별한 사랑의 캠프’.

<http://kfnews.kr/2015/12/11/post6843/>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캠프’.

<http://kfnews.kr/2015/12/11/post6843/>에서 2019년 10월 11일 인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 분야.

<https://www.kywa.or.kr/>에서 2019년 10월 5일 인출

한호일보(2011. 1. 27.). 한인단체 탐방 케이리더스.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한호일보(2018. 1. 11.). 한인 차세대 릴레이 인터뷰, 이영곡 케이리더스 회장.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35>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호주한국신문(2019. 8. 22.).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청소년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호주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2).

<http://koreanherald.com.au/?p=14243>에서 2019년 10월 7일 인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에서 2019년 5월 8일 인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C). 2016 Census QuickStats.

http://quickstats.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6203_036dptj에서 2019년 3월 6일 인출

KBS World Radio(2018. 6. 12.). 호주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케이리더스’ 이영곡 회장.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people&id=&board_seq=335815&page=0&board_code=han_find_k
에서 2019년 1월 25일 인출

KDB나눔재단 홈페이지. 재단사업 소개.

<https://foundation.kdb.co.kr/index.jsp>에서 2019년 10월 21일 인출

Kotra 국가지역정보(뉴질랜드a).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11>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Kotra 국가지역정보(뉴질랜드b).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53>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Kotra 뉴질랜드. 한국과의 주요 이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53>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9년 호주 경제 및 교역 전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215>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Kotra 호주. 한국과의 주요 이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111>에서 2019년 3월 5일 인출

KOREAN NET. 재외동포지원사업.

http://www.korean.net/portal/support/pg_bsns_support.do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KTV 국민방송(2018. 10. 30.). 교육사례 공유. 오세아니아 한글 교사 한자리에.

<https://news.v.daum.net/v/20181030102207908?f=o>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Massey University.

<https://www.massey.ac.nz/massey/explore/study/distance/distancehome.cfm>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NetNZ 홈페이지.

<http://www.netnz.org/>에서 2019년 5월 3일 인출

<http://www.netnz.org/>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New Zealand 2013 Census definitions and forms.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info-about-2013->

census-data/2013-census-definitions-forms/definitions/c.aspx에서
2019년 4월 19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info-about-2013-census-data/2013-census-definitions-forms.aspx>에서 2019년 4월 19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Age, sex and ethnicities.

http://nzdotstat.stats.govt.nz/wbos/Index.aspx?DataSetCode=TABLECODE8021&_ga=2.41089698.1019563483.1555447947-917658037.1555447947#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Age,sex,andethnicities#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Birthplace.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Birthplace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Languages spoken.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Languagesspoken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Education.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Education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Income.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

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Income
http://archive.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quickstats-income/personal-income-ethnic.aspx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Labour force.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Labourforce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 Zealand Statistics. Household and families.

http://m.stats.govt.nz/Census/2013-census/profile-and-summary-reports/ethnic-profiles.aspx?request_value=24754&tabname=Householdandfamilies에서 2019년 4월 18일 인출

NEWS WHO(2019. 10. 7.).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활동 '맛있고 즐거운 통통 행복나들이' 운영.

http://www.newswho.net/sub_read.html?uid=183318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NSW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education.nsw.gov.au/public-schools/community-languages-schools/community-languages-school-grants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Open Polytechnic.

https://www.openpolytechnic.ac.nz/qualifications-and-courses/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2019년 세계인상의 날.

https://pbdindia.gov.in/en에서 2019년 5월 20일 인출

Te Kura 홈페이지 https://www.tekura.school.nz/에서 2019. 10. 14. 인출

The Koreanpost 커뮤니티 내 게시물.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forum_inform&wr_id=16328에서 2019년 5월 3일 인출

YTN뉴스(2014. 4. 5.). 차세대 동포 교류의 장, 김치클럽.

https://www.ytn.co.kr/_sp/0930_201404042047096691에서 2019년 4월 25일 인출

YTN KOREAN(2017. 4. 23.). 해외리포트. 졸업생들이 다시 찾는 한글학교.

https://www.ytn.co.kr/_sp/0930_201704230140251069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YTN KOREAN(2019. 3. 17.). (콧콧 세상돋보기) 한국 아이돌 ‘몬트’ 초청한 스웨덴 한류 동아리.

https://www.ytn.co.kr/_sp/1210_201903172049123775에서 2019년 10월 14일 인출

○ — 부 록

부록

부록1. 설문지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12)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1	2	3	4	5
6) 한국어를 쓸 수 있다	1	2	3	4	5

문 13)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2)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3)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	1	2	3	4	5
4)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5)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6)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7) 한국은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이다	1	2	3	4	5

문 14)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	2	3	4	5
2)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	2	3	4	5
2)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	2	3	4	5

문 15)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1	2	3	4	5

문 16)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	2	3	4	5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1	2	3	4	5

문 17)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내가 한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을 원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원한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1	2	3	4	5

문 18)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포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2)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	1	2	3	4	5
3) 친·인척들 간에 모임을 자주 한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다른 한인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1	2	3	4	5
5) 부모님은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과 자주 만나거나 통화한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 친구를 잘 안다	1	2	3	4	5

문 19)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1) 한인회의 '한국의 날' 과 같은 한인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호주/뉴질랜드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청소년민족캠 프 등)나 연수 (한글학교진중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20)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21)로 이동

문 20-1) 정규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0-2)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한국어 강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1)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이곳에 확산되고 있다	1	2	3	4	5
2) 한인교포사회는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3) 호주/뉴질랜드 사회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1	2	3	4	5
4)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에게 긍정적이다	1	2	3	4	5

문 22)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과거에 한국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과거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23)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2)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1	2	3	4	5
4)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1	2	3	4	5

문 24) 다음 보기에서 각각 그 주된 이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적어 넣으세요.

문 24-1) 한국방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

문 24-2) 한국에서 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

문 24-3) 한국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

문 24-4) 한국에서 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

< 보 기 >

- | |
|-----------------|
| ① 한국 국적이 없음 |
|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
| ③ 능력 부족 |
| ④ 정보 부족 |
| ⑤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
| ⑥ 참여기회가 부족함 |
| ⑦ 비용부담 |
| ⑧ 적응에 자신이 없음 |
| ⑨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음 |

문 25)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1	2	3	4	5

문 26)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27)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 28) 내가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호주/뉴질랜드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1	2	3	4	5
2) 호주/뉴질랜드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4)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1	2	3	4	5

문 29) 미래에 한국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②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국어와 역사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호주/뉴질랜드 한인사회가 차세대(청소년)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호주/뉴질랜드 (주류)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한국 방문 또는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 study on growth and support
measures for Korean adolescents
overseas II**

All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survey can only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and its confidentiality is ensured by the Statistics Act (Article 33).

Hello,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is a national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founded in 1989, managed by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We have conducted various research and policy studies in order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people. This year, we are surveying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needs of Korean youth overseas, who are recognised a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Korea, in order to develop governmental measures to support them.

Your responses will be processed anonymously and will only be used for research for developing policies. Confidentiality will be strictly ensured. Further, your responses will not be open to other people, and there are no right and wrong answers. Please be honest and sincere in your responses such that your opinions are accurately conveyed in policymaking.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정신건강복지센터

Your responses will be kept confidential, so please be honest in your responses.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r opinion.

Q1 What city do you currently live in?

City()

Q2 What year were you born?

--	--	--	--

Q3 Please indicate your gender (V).

- ① Male ② Female ③ Other

Q4 Please indicate your current educational institution (V).

- ① Primary school ② Intermediate school
③ High school ④ University
⑤ Other (Please specify: _____)

Q5 Please indicate the reason why you are currently living in Australia/New Zealand (V)

- ① Born here ② Study
③ Immigration ④ Other (specify: _____)

Q6 Who is the first generation of your family member to move to Australia/New Zealand? (V)

- ① Grandparents or before
② Parents before I was born
③ I came with my parents from Korea

Q7 What is your current nationality? (V)

- ① Australia/New Zealand
② Dual nationality (Australia/New Zealand + Republic of Korea)
③ Republic of Korea
④ Other (Please specify: _____)

Q8 Are your parents Korean?

- ① Only father ② Only mother
③ Both parents ④ Neither parent
※ Referring to ethnicity, not nationality

The following questions ask about your opinions.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r opinion.

Q9 Have you ever attended a Korean education centre, Korean school,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re?

- ① Yes ② No → Q Go to 11)

Q10 How long?

_____ years _____ months

Q10-1 What is the biggest reason that you decided to attend a Korean or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re?

- ① Korean is part of my identity, so I thought I needed to learn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② I thought learning Korean would help me in my career or employment
③ I became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Korean culture, and history
④ My parents' recommendation
⑤ A friend asked me to go together
⑥ Other (Please specify: _____)

Q11 How do you best identify?

- ① Korean
② Korean Australian/New Zealander
③ Australian/New Zealander
④ Other (Please specify: _____)

Q 12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am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1	2	3	4	5
2) I want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1	2	3	4	5
3) I can speak Korean.	1	2	3	4	5
4) I understand Korean.	1	2	3	4	5
5) I can read Korean.	1	2	3	4	5
6) I can write Korean.	1	2	3	4	5

Q 13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know about Korean history.	1	2	3	4	5
2) I know about Korean culture.	1	2	3	4	5
3) I know at least one Korean company.	1	2	3	4	5
4) Korea is a safe country.	1	2	3	4	5
5) Korea is an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y.	1	2	3	4	5
6) Korea is a culturally developed country.	1	2	3	4	5
7) Korean people have mature civic awareness.	1	2	3	4	5

Q 14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My perception about Korean culture has changed positively.	1	2	3	4	5
2) My perception about Koreans has changed positively.	1	2	3	4	5
3) My perception about the Korean language has changed positively.	1	2	3	4	5

Q 15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am proud of my Korean heritage.	1	2	3	4	5
2) I consider myself a Korean person.	1	2	3	4	5
3) I am proud of Korean history and tradition.	1	2	3	4	5
4) I consider the incidents and problems that occur in Korea as my own.	1	2	3	4	5

Q 16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ever	Rarely	Occasionally	Frequently	Extremely often
1) I use Korean when speaking to my parents	1	2	3	4	5
2) My parents and I cook Korean food	1	2	3	4	5
3) My parents and I watch Korean dramas or listen to Korean music	1	2	3	4	5

Q 17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My parents want me to have a Korean identity	1	2	3	4	5
2) My parents want me to study in Korea	1	2	3	4	5
3) My parents want me to work in a Korean company	1	2	3	4	5

Q 18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often meet with Korean friends	1	2	3	4	5
2) I have foreign friends who are interested in the Korean culture	1	2	3	4	5
3) My family and relatives meet frequently	1	2	3	4	5
4) My parents often meet with other Korean parents	1	2	3	4	5
5) My parents often meet or talk with Korean school teachers over the phone	1	2	3	4	5
6) My parents know my friends well	1	2	3	4	5

Q 19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ever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or more
1) I have attended an event hosted by a Korean society, such as a "Korean festival"	1	2	3	4	5
2) I have attended a Korean youth camp (e.g., Youth cultural camp) or training (e.g., Intensive Korean school) in Australia/New Zealand	1	2	3	4	5
3) I have attended a youth program or camp in Korea					

Q 20 Is there a Korean class at your school?

① Yes ② No → **Q Go to 21)**

Q 20-① Have you taken a Korean class during regular school classes?

① Yes ② No

Q 20-② Have you taken a Korean class afterschool?

① Yes ② No

Q 21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cided	True	Extremely true
1) Hallyu, such as K-Pop and Korean dramas, is trending in Australia/New Zealand	1	2	3	4	5
2) Korean community in Australian/New Zealand strives to promote Korean culture	1	2	3	4	5
3) Society in Australian/New Zealand shows a friendly attitude toward Korean culture	1	2	3	4	5
4) Korea has a positive attitude toward Koreans overseas	1	2	3	4	5

Q 22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ever	Rarely	Occasionally	Frequently	Extremely often
1) I have experienced Korean culture in the past	1	2	3	4	5
2) I have visited Korea in the past	1	2	3	4	5

Q 23 Please mark the number that best reflects you.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want to visit Korea	1	2	3	4	5
2) I want to attend a youth program in Korea	1	2	3	4	5
3) I want to study in Korea	1	2	3	4	5
4) I want to work in Korea	1	2	3	4	5

Q 24 Indicate the number from the options below that best reflects your opinion.

Q 24-① If you have difficulty visiting Korea, why?
()

Q 24-② Why do you find it difficult to attend a youth program in Korea? ()

Q 24-③ Why do you find it difficult to study in Korea? ()

Q 24-④ Why do you find it difficult to work in Korea? ()

Options

- ① I am not a Korean national
- ② I don't speak Korean fluently
- ③ Lack of ability
- ④ Lack of information
- ⑤ No program that attracts me
- ⑥ Lack of opportunity
- ⑦ Burden of financial cost
- ⑧ I am not confident that I would be able to adjust well
- ⑨ I don't know anyone in Korea

Q 25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ask questions if I don't understand someone else's words clearly	1	2	3	4	5
2) I can lead a conversation even with people I do not agree with	1	2	3	4	5
3) I respect others' thoughts and choices even if I disagree with them	1	2	3	4	5

Q 2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believe that we need to help people live a better life	1	2	3	4	5
2) I believe that I need to act with conscience in society	1	2	3	4	5
3) I believe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ommunity and/or neighbours	1	2	3	4	5

Q 27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llowing?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have an open attitude toward the world	1	2	3	4	5
2) I have a friendly attitude toward people from other countries	1	2	3	4	5
3) I have an understanding and tolerant attitude toward other cultures	1	2	3	4	5

Q 28 What do you think your role is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Category	Not at all	Not true	Undecided	True	Extremely true
1) I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by succeeding in Australia/New Zealand	1	2	3	4	5
2) I can promote the Korean culture in Australia/New Zealand	1	2	3	4	5
3) I can contribute to the Korean economy or society using my ideas and abilities	1	2	3	4	5
4) I can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acting as a brid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1	2	3	4	5

Q 29 What support will you need in order to be someone who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 ① My parents' beliefs and attitudes should be changed and their support is needed
- ② Korean language and history education are needed to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about Korea
- ③ Korean societies in Australia/New Zealand need to provide support for the next generation
- ④ Support to help youth succeed in the mainstream Australia/New Zealand society
- ⑤ Provide opportunities to visit Korea or interact with youth in Korea
- ⑥ Other (Please specify: _____)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부록2.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적합도 조사지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적합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989년에 설립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재외동포청소년 연구를 대륙별로 진행하고 있고, 미주, 중국, CIS, 남미, 유럽에 이어 오세아니아지역의 대표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동포청소년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합도와 내용 검토를 하고자 하오니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적합도를 체크(O 또는 V)해 주시고, 수정/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처 :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목 표	코리아 Friendly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세부목표 1	이중정체성을 인정하고,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						
세부목표 2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부목표 3	호주·뉴질랜드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도와준다.						
추가목표							

2. 호주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01	호주 · 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한국 친화적인 성장을 위한 부 모 인식 개선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다문화가정 등 가정 특성을 반영한 부모교육 확대						
과제 2	호주 · 뉴질랜드 교육전문가를 활용한 부모특강 실시						
과제 3	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 하는 가족캠프 개발						
과제 4	동포청소년 부모들의 공감과 참 여 확대를 위한 부모모임 활성화 지원						
과제 5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과목 채택 을 위한 동포 부모모임 지원(호주)						
추가 과제							

02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확대 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청소년 대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						
과제 2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특성 을 반영한 한글학교 교재 및 기자 재 개발·지원						
과제 3	우수 한글학교 교사·강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 4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 대						
과제 5	한국 교대/사범대와 한글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한글학교 지원						
과제 6	차세대 교사 양상을 위한 한글학 교 졸업생의 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						
추가 과제							

03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의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정체 성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과제 2	주류 사회 진출 및 동포사회 기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과제 3	한글학교 등을 찾아가는 동포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제 4	동포청소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문화 체험 동아리 지원 확대						
과제 5	동포 청년 단체의 청소년활동사업 참여 유도						
추가 과제							

04	호주 · 뉴질랜드 한인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포단체의 사업 지원 확대						
과제 2	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동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과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 에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동포 청소년 사업 참여 유도						
과제 4	한인축제 등의 청소년(학생)단체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과제 5	재외동포 우수 기부자 시상 등 동 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						
추가 과제							

05	국내·외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개별 한국 방문 청소년을 위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과제 2	청소년 민족캠프 및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지원 확대(호주)						
과제 3	세계 각지의 동포단체 연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과제 4	호주·뉴질랜드 내 지역별 동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과제 5	호주·뉴질랜드-한국 지방자치단 체 및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과제 6	한국 개최 동포청소년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추가 과제							

06	호주·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확산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내 한 국어강좌 확대 지원						
과제 2	원격교육기관 내 한국어강좌 개설 지원(뉴질랜드)						
과제 3	호주·뉴질랜드 교원단의 한국 연수 활성화						
과제 4	호주·뉴질랜드 정규학교 한국 어 보급을 위한 한국어 교사자격 취득 지원						
과제 5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 정부와 호주·뉴질랜드 정 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과제 6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참여 확대(뉴질랜드)						
추가 과제							

07	호주·뉴질랜드 동포청소년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적합도					수정/검토의견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 합	매우 부적 합	
과제 1	지역 동포청소년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육원 및 파견 인력 확대						
과제 2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인력 지원 등 한글학교 지원방식의 개선						
과제 3	여성가족부에서의 청소년활동전 문가 파견 실시						
과제 4	오세아니아 이민사 연구센터 설치 지원						
추가 과제							

ABSTRACT

Research on the Policy Initiative for Support and Development of Overseas Youths as Country's Future Human Resource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ays to support overseas Korean youths as important human resources of Global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a continent basis since 2015, and Oceania was targeted in 2019. Considering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relations with Korea, we conducted a study on young Koreans living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aforementioned Korean Youth, the current study wa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The survey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400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200 from each of the two countries). Survey details were organized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microsystem, mesosystem, exosystem, macrosystem, and chronosystem. Interview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adolescents by country and the ecological systemic environment. A total of 40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consisting of ten overseas Korean teenagers and adults (experts) in each country.

W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urveys and interview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microsystem, mesosystem, exosystem, macrosystem, among others, and deduced implications based on which we derived policy tasks. In addition, through expert suitability diagnostics and reviews, we developed and proposed policy objectives and a total of 35 policy tasks in seven areas.

Keywords :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 Youth, Future Human Resources, Korean ethnicity, Ecology, Ecological Systems Theory, Microsystem, Mesosystem, Exosystem, Macrosystem, Chronosystem, Australia, New Zealand, Korean-Australian Adolescents, Korean-New Zealander Adolescents.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Ⅹ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Ⅹ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 · 윤철경 · 서고운 · 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 · 임정아 · 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 · 유민상 · 김창환 · 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 · 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 · 백혜정 · 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 · 정연 · 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 · 최정원 · 변금선 · 이종원 · 이민정 · 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 · 함세경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 · 이종원 · 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 · 김현철 · 문호영 · 이윤주 · 박지숙 ·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 · 이윤주 · 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도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규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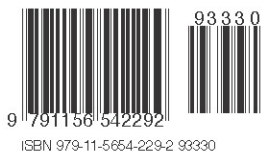


연구보고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I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64-229-2 93330